

2014년 설교

홍순관 목사

- [2014.01.05] 자상하신 하나님 (신명기 24:1~22)
- [2014.01.12]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창세기 2:1~3)
- [2014.01.19]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그의 것! (레위기 3:1~17)
- [2014.01.26] 교회의 천사가 집에서...!? (에베소서 5:22~33)
- [2014.02.02] 언제 고향에 가 볼까? (민수기 35:16~28)
- [2014.02.09]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1~9)
- [2014.02.16]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고린도전서 8:1~13)
- [2014.03.02] 어린 아이와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13~22)
- [2014.03.09] 혼잡케 된 최고의 선물 (창세기 11:1~9)
- [2014.03.23]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7~12)
- [2014.04.06]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요한복음 11:45~53)
- [2014.04.13]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호세아 6:1~11)
- [2014.04.27] 아! 인간이 싫다! (요엘 2:18~32)
- [2014.05.04] 다음 세대는 다른 종족이라던데? (사사기 2:6~15)
- [2014.05.11] 이삭과 야곱 (창세기 22:7~12, 28:20~22)
- [2014.05.18] 요나단과 다윗 (사무엘상 14:6, 17:45~47)
- [2014.05.25] 여호수아와 사사기 (여호수아 24:31, 사사기 2:6~7)
- [2014.06.08] 바나바와 바울 (사도행전 9:26~30, 15:36~41)
- [2014.06.15] 다윗과 솔로몬 (역대상 22:6~12)
- [2014.06.22] 다윗의 연애와 바울의 짝사랑? (사도행전 9:15~19)
- [2014.07.06] 황금 상자 속의 돌판 (열왕기상 8:1~11)
- [2014.07.13] 이사야의 꿈 (이사야 11:6~13)
- [2014.07.20]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17:13~23)
- [2014.07.27] 세상에 이런 형제가! (빌레몬서 1:1~25)
- [2014.08.03] 세례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3:13~17)
- [2014.08.10]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 11:1~10)
- [2014.08.17] 은금, 보화가 가득한 땅 (이사야 2:6~22)
- [2014.08.24] 그 때에야 여호와를 알리라? (에스겔 6:1~14)
- [2014.08.31] 집 나가려는 아들을 어떻게? (누가복음 15:11~24)
- [2014.09.14] 문둥이에게 임한 복음 (열왕기하 7:1~20)
- [2014.09.21] 너는 성곽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스가랴 2:1~13)
- [2014.09.28]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창세기 3:8~19)
- [2014.10.05] 피, 먹, 인 (에스겔 9:1~11)
- [2014.10.12] 십자가 그 너머 (누가복음 9:41~56)
- [2014.10.19]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거늘 (아모스 2:1~3:8)
- [2014.10.26] 징계 중의 징계, 말씀의 기갈 (아모스 8:1~14)
- [2014.11.09]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역대상 14:1~7, 16:7~10)
- [2014.11.23] 온전히 즐거워하라 (신명기 16:10~15)
- [2014.11.30]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열왕기상 2:1~9)
- [2014.12.07] 예상치 못한 구원 (스바냐 3:1~20)
- [2014.12.14]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신명기 33:26~29)
- [2014.12.21] 흑암에 비친 빛 (이사야 9:1~7)

자상하신 하나님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맏돌이나 그 위짜를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기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곧 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삷을 당일에도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삷을 간절히 바랄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버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떼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1~22]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른들이 자식들의 형편을 잘 헤아리면 모시고 살아도 괜찮습니다만 가끔은, 죄송합니다, 철없는 어른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른을 모시고 사는 데 보석을 참 좋아한다고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이것 참 예쁘더라.”고 하시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른이 보석을 좋아해도 힘들지만 보약을 좋아하시는 어른을 모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들은 것마다 “몸에 좋다하더라.”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셔서 우리를 편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불편하세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무섭고 답답하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 평안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기를 바랍니다. 평소 같으면 화가 차오를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하면 싹 가라앉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대체로 결혼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특별히 1절에서 3절의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은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긴 설명은 생략하고 3절 맨 끝에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란 말이 보이죠? 거기에 표시를 해 두세요. 앞에 있는 1, 2, 3절의 내용 전부가 ‘죽었다 하자’라는 이 표현에 걸립니다. 그러면 1절이 부인을 내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 ‘이혼했다고 하자’는 뜻입니다. 결혼한 부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관통이나 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혼할 문제가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죄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는 확실히 그것보다 작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겼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 보냈다 하자’입니다. 내 보냈는데 이 부인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또 이혼증서를 써서 내 보냈다고 하자, 그렇다고 이 부인이 원래 남편과 다시 합하지는 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또 죽었다면, 그래서 원래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정도라면 첫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내 보낸 것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를 툭툭 이혼했다가 후회하는데 어떤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또 데려오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원래부터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 했다고 하자’란 말은 꼭 그리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혼을 권고하거나 하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1, 2, 3절의 중요한 내용은 이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렇게는 하지 마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 보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 조상들이 워낙 완악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니라.”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한 쪽 귀통이만 때 내어서 이혼증서를 써서 내 보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당하게 오해할만한 구절이었으니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특정한 경우는 이혼을 허용합니다만 이혼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니 참고, 혹은 서로 보완해서 살아가겠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툭툭 이혼을 했다가 다시 또 그 사람과 재혼을 하지 마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컨대 어른들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놓을 때 절대 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놓을 때 조심해서 놓습니다. 그런데 무를 수 있으면 생각 없이 툭툭툭툭 놓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 본문은 ‘무를 수 없는 것이니 처음 놓을 때 정확하게 잘 놓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혼증서를 써 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혼증서를 써 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혼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산다면 본 남편이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이혼한 적 없다고 하면 이 여자는 틀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혼증서를 써 주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증서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다는 허가증이나 마찬가지예요.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이혼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혼증서를 써서 내 보내도록 하라는 겁니다. 버림받을만한 여인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감안하셔서 반드시 이혼해야 할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5절은 젊은 사람에겐 정말 좋은 말씀이죠!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도 보내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고 한가하게 해서 그 부인을 즐겁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신혼부부가 깨가 쏟아지도록 정을 내고 살고 있으면 보기 좋아요, 샘이 나요? 남의 일이니까 보기 좋다고 말 할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샘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 어느 전도사님이 평일에는 신대원에 가 있다가 금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사택 문 앞에 신발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못 본대요. 그게 그렇게 샘이 나나 봐요. 어떻게 해서든 때놔야 하는가 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애지중지 길렀던 아들이 결혼을 하면 소유권을 며느리한테 물려 줘야 되거든요 내가 고생 고생 하면서 키웠던 아들이라도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고 결혼식 때 흔히 쓰는 말, 내 며느리의 남편이죠. 그런데 어떤 엄마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부가 깨가 쏟아지도록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새벽기도 빠지거든 용서해 줘야죠. 그러니 새벽기도 손잡고 함께 다니세요.

저희들 처음 와서 새벽기도 붙어 다닌다고 누가 흥을 보더라고요. 흥볼 것을 봐야지 신랑각시 손잡고 다니는 것을 왜 흥봐요? 부부가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데 잘못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손 꼭 잡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예배시간에 딱 붙어 앉아 예배드리고 신혼부부가 깨가 쏟아질듯이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텐데 이런 것까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 전당물을 잡잖아요? 어떤 자세로 잡으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돈 빌려주고 전당물 잡기 위해서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꺼내 오지 말고 밖에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이 집안에서 무엇을 주거든 그것을 전당 잡아서 돌아오라는 얘기죠. 돈 빌려주는 사람은 위세를 떨며 빌려 줄 때가 많아요. 어떤 기관들은 돈 빌려 주면서 선이자 씹 때어 버리고 그러죠? 돈 빌려 주는 대신에 다른 것 하나 들으라고 하죠? 참 나쁜 버릇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힘을 과시하면서 억누르지 마라는 거죠.

더 웃기는 이야기는 겔옷을 전당물로 잡아 왔으면 13절,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 빌려 주고 옷을 전당 잡아 왔는데 해가 지면 돌려주래요. 이스라엘은 밤낮 기온차가 커요. 그래서 겔옷이 낮에는 겔옷이고 밤이면 이불이예요. 그러니 밤에 잘 때 덮고 자게 돌려주래요. 전당물을 돌려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아침에 또 가야죠. 가서 뺏어오면 안 됩니다. 밖에 가만히 서서 주도록 기다렸다가 주면 받아와요. 또 저녁이 되면 갖다 줘요. 저 같으면 ‘돈 안 빌려주고 말지. 누가 답답한데?’ 이럴 것 같아요.

돈 빌리러 다니면 안면도 체면도 덮어야 되잖아요? 돈 빌려 주면서 사람을 서럽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돈 꾸러가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빌려주고 내 뇌라 소리를 참 못하거든요. 이렇게 생계가 어려울 때는 사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예요. 그냥 도와주듯이 준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이 어려워서 남에게 돈을 꾸어야 하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15절도 보시죠, **‘그 품삷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돈도 안 주고 해고를 시키거나, 요즈음은 그런 일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신문팔이, 신문 돌리는 아이 있었잖아요. 신문 돌리고 신문 대금을 아이들이 또 받으러 다녀요. 새벽에 신문 돌려놓고 오후에 신문 값 받으러 다녀요. 가보면 이사 가버린 사람, 신문 값 안 주고 사라져 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신문 값 얼마 한다고?’ 싶지만 그런 일 때문에 신문 돌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르죠.

야쿠르트 아줌마, 오전에 야쿠르트 돌려놓고 오후에 수금하러 와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 돈 받으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이나 하면 “잔돈이 없는데 다음에 오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조금만 힘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본인 편하자고 잔돈이 없으니 다음에 오세요? 이런 것이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삷을 다음날로 미루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28절에 **‘갏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절대 그러지 말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잠언이면 언제 쓰였을까? 솔로몬 시대를 추측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쯤 돼요. 모세가 이 글을 쓴 것은 3,500년쯤 되니까, 그 때도 이미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내일 드릴 테니까 다시 오세요.” 하고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역사가 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당일 품삷을 받아서 그 날 먹고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16절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증이나 연좌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보증 잘못 서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보증 잘못 썼다가 월급에 차압이 들어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월급의 1/3이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누가 떼어 가는 것은 살을 떼어 주는 것만

큼 아픈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덮어 쓴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나라나 연좌제가 있죠. 가령 옛날에 아버지가 반역에 가담했으면 흔히 삼족을 멸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뿐만 아니라 연관된 모든 친척들을 죽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성경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나 하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다 없어졌느냐? 아니오! 지금도 신원조회를 하면 친척 가운데에 빨갱이 전력이 있으면 취업이 잘 안됐어요.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는 십계명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복을 주실 때에는 천 대까지 가고,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3, 4대까지라는 것은 죄를 안 묻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천 대하고 비교하면... 이 중에 양반이면 무슨 성씨, 몇 대손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체로 40대 안팎이에요. 어느 천 년에 1,000대까지 갑니까? 부모가 아주 많이 죄를 지었거나 삶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악영향이 3, 4대까지는 가만히 두어도 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에게 묻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본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그리 잘 안돼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빚을 자손들이 갚느라고 고생고생을 하던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19절을 보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추수를 할 때에 싹싹 다 베지 말고 조금 남겨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파치밥이라는 게 있죠? 가을 하늘 맑은데 감 다 따고 꼭대기에 홍사 한두 개 남아 있는 것 보면 참 예뻐요. 어느 외국인이 그 풍경을 보고 맑은 가을 하늘도 예쁘고 빠알간 홍시도 너무너무 예쁘게 주인이 게을러서 안 땀나? 왜 안 땀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설명을 해 주었대요. 게을러서 안 땀 것이 아니고 파치 먹으라고 남겨 둔 거다. 한국 사람들 심성에는 자연의 미물 같은 파치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다. 그러자 이 외국인이 “가을하늘 아름답고 홍시가 참 예쁘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예쁘다.” 뭐 이런 글을 써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파치밥 보고 그렇게 감동 못 받아요. 파치가 한 두 마리가 아닌데 그 큰 감나무에 팔랑 한 두 개 남겨 두었다고 그게 뭐 그리 미물을 생각하고? 그건 순 형식적으로 남겨둔 것밖에 안돼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파치밥 한 두 개 남겨둔 것마저도 한국 사람들이 자연의 미물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칭송을 해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예 추수할 때 흘려 두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싹싹 긁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 있는 거죠.

서울사람들은 추수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는지 모르잖아요. 추수할 때에 반드시 추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시 월급 받으면 꼭 이 월급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받으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 월급 받으면서 감동 받는 사람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다 뼈 빠지게 일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불평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받을 때에 이것조차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느낌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늘 생각하고 돌보라는 이유가 본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18절을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

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 았잖아, 그러니 너희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도움에 감사해서 “제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이어야 하는 거죠. 인지 상정?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거나 누구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참 좋은 답이에요. 아니, 그 정도 답을 가진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교회에 충성하는 것,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진짜 철없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너희도 그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이웃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잃을 만큼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죽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와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폐하셔도 폐하실테니 나는 손 안대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하잖아요. 직장생활 왜 하나요? 참 불쌍한 대답 중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 말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평생을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좋은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교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하나님 아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요? 예!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 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주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매사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절대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처럼 사랑한다 했다가 그냥 죽여 버렸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번덕스럽고 괴팍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분들이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만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 삶이 참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살면 교회 생활이 참 힘들어요. 거북하고, 힘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상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참 복된 삶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1~3]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수준이 다르면 뜻이 달라집니다. ‘돈 좀 빌려 주라’는 말도 경우에 따라 의미가 아주 달라집니다. 가령 학교에서 아주 힘 센 아이가 약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돈을 빼앗겠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친구한테 “돈 좀 빌려주라”고 한다면 이 말은 이자 갚겠다는 뜻 아닙니다. 그냥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능력 있고 힘 있는 친구가 “너 임마, 이자 갚을 돈 있냐?” 이렇게 나오면 친구 아니에요. 말 귀 못 알아듣는 버리 나쁜 친구란 뜻이죠.

높은 사람이 부하직원의 집에 가서 보니까 값이 나팔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야, 이것 참 예쁘네.” 감탄일까요? 달라는 소리일까요?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진짜 예뻐서 하는 감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감탄이 아니라 “이것, 나 줘.” 라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치껏 줘야 하는데 안 줬다가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란 것이 같다고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수준에 따라서 말은 얼마든지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준대로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이들에게 창조력을 길러 주어야 되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창조라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조금 변형시키는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낸 겁니다. 용어는 같아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참 많습니다.

노아시대 때 홍수가 있었죠? 우리가 말하는 홍수와 노아 시대의 홍수와는 단어만 같을 뿐이지 같은 게 아닙니다. 노아시대의 홍수는 홍수가 아니에요. 적합한 말이 없어서 홍수라고 표현할 뿐이지 그것은 홍수 정도가 아닙니다. 홍수가 무서워요? 쓰나미가 무서워요? 노아시대 때 홍수는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쓰나미로도 표현이 안 되고 홍수로도 표현 안 되지만 말이 없으니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데 그 홍수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홍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어가 같다고 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니깐 우리 수준대로 받아들이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나 하나님의 창조나 혹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해요.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시기도 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 준 표현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만 이해해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니깐,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만들었으니 안식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주일이 언제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꼭 쉬셨는데 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는 꼭 쉬지 않는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 죽일 날이래요.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전 대학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데 제가 있던 기숙사 올라가는 길이 약간 오르막

인데 길어요. 그 오르막을 가다가 다 못 가서 풀밭에 누워서 한참 쉬다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쁘고 교회가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느냐 불평하는 친구도 있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오해한데서 생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다? 그런 말이 안돼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고생하면서 무엇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느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말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전부 짹짹한 것, 하루에 몇 마디씩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다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그리 피곤해서 하루 종일 쉬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거나 졸거나 주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 것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일에는 아무 것도 안 해야 된다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은 아무 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이 답변을 못해요. 아무 것도 안 해야 되는 날인데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니 답을 못하는 거죠. '아니, 아무 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신 의도는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엎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끼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셨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심히 좋았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조를 완성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7일째, 피곤하니까 쉬자. 이게 아니에요.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사람을 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는지 알아야 해요. 우리 목사님 걸음걸이가 뒤에서 보면 오리걸음, 뒤뚱뒤뚱 해요. 그것을 할아버지가 참 좋아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닮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엄마 보기에 안 좋은 게 있었나 봐요. 야단 좀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 봤는데 야단맞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야단을 못 쳤어요. 30년 전에 제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야단을 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자기 자녀로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녀를 얻고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젠 쉬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자녀를 얻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것이 안식입니다. 아기를 새로 낳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아기 얘기가 나와요. 참 기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만 보면 잘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를 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의 십계명에 있어요. 이유가 창세기와 똑같습니다. '이는 옛 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달라져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쓴 사람과 신명기 쓴 사람이 다른가요? 같은 사람인데 기록한 시점이 4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르게 써 놔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 안식교 목사와 불어서 싸운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적했더니 안식교 목사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하고 불어 싸우려고 그러십니까?"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깐 지켜라'고 하고 신명기의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달라 보여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동일한 명령을 하면서 왜 다르게 말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글을 쓰는 모세가 보기에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의 기쁨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기쁨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식을 낳은 기쁨이 아니라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기쁨입니다. 자식을 낳은 기쁨과 집 나간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자식을 맞는 기쁨, 둘 중에 어느 것이 클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깐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짐작을 해 보세요. 자식을 낳은 기쁨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기쁨,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커 보여요?

출애굽기의 안식일이 '자식을 낳은 기쁨'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기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쁘다는 의미에서, 자식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둘 다 동일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여도 그대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서 어디선가 종살이를 하고 있거나 감옥에 있으면 부모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어떤 영화에서 본 장면 같습니다마는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인간만 들어 주세요." 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오래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아이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때 엄마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감옥에 간 날부터 나는 방에 불을 때지 않았다. 그리고 누워 잔 적도 없다." 냉방에, 계단 옆에서 쭉그리고 앉아서 지금까지 지냈다는 거죠. 자식이 감옥에 가 있는데 발 뻗고 잘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구원해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도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은 것을 기뻐하셨던 것같이, 집 나가서 종으로 팔려 있던 자식을 다시 구해온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으면, 주일에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다 해도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구절이 참 많은데 일하지 말라고 한 구절에 꼭 붙여 놓은 게 성회로 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회로 모이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표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죠. 공휴일은 일 안 하는 날이죠? 일 안 하니 놀러가요? 그러면 투표하라고 공휴일로 정해 놓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최소한 놀러가기 전에 투표는 하고 가야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에 종도 일하지 말고 짐승도 일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승을 생각한 규정입니까? 아니

오!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지, 피곤하니 쉬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제 1문에 사람의 근본 되는 목적이 무엇이나?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제 1되는 목적이 무엇이나? 라고 묻고 2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분,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분이예요. 누가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비위를 맞추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저급한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은 이유는 나를 경외하되, 나를 즐거워하라고. 나를 생각하면 너희가 즐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존경하면서도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로서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친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의 하나만 되면 곤란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너무 '에헴' 하는 바람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요즘은 어른 공경하는 것은 제외해 버리고 너무 친하기만 하니 이것도 또 문제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아주아주 친하면서 아주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이 그렇죠? 특별히 연인 관계나 부부지간이 그러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친한 이런 관계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버릇없는 아이가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친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것을 아담이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쉴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이 깨졌으니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을 보고 당시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 하시니 나도 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이 깨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역사'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도 일을 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깨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안식을 회복하시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줄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 주일은 아무 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날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우세요? 부담되세요? 진짜 즐거워야 됩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만나면 심 없이 떠들어요. 주로 무슨 얘기 하나요? 연애하는 놈들이 딱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재잘거리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쓸데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세계평화를 논하고 있거나 아니면 민족의 장래를 위한 이야기? 교회를 위한 이야기도 없어요! 옆에서 들어보면 하나도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둘이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노닥거리다가 집에 가면 전화기부터 듭니다. 무슨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없어요! 전화 요금 올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생각만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지만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저도 연애를 꽤 오래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통씩 편지를 썼어요. 답은 일주일에 한 통씩 오고요. 다 철해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 들었을까요? 지금

퍼보면 낮이 간질간질해요. 무슨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면 남사스러운 건데...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즐거워하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 해봤자 댄 것 있나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 기뻐서! 기뻐서 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러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를 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말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저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걸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누가 문 좀 닫아걸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정말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것을 아담이 어떻게 해서 깨뜨려버렸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현미경까지 동원하셨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안식년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다가 안식년이 되면 아예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런데 안식년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더 보기 쉽게 확대를 해 놓았어요. 안식년을 확대해 놓은 것이 희년이예요. 희년! 기쁨 희자입니다. 기뻐하는 해예요. 희년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회복이 됩니다. 남에게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팔아먹었던 집이나 땅도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가 도피성에 도망가 있던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본래대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희년제도를 말씀하시느냐? 안식의 의미를 잘 모르면 안식일이 확대된 희년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지위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회복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찾을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손이 모자라서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연인처럼, 부자처럼 지내려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려 주려고 만드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무리 편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주일이 참 피곤해요. 그런데 몸이 아무리 고달프다고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의 피곤을 능히 이겨 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혹은 연인처럼, 혹은 부

부처럼 만드셨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대로 잘 돌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 가정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그의 것!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아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그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3:1~17]

어느 가수의 노래 말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짜장면이 지금은 시세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꿈에 그리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가수가 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고 노래했을까요? 엄마가 싫어하면 그만이지 그걸 왜 노래로 부를까요? 지나고 보니깐 엄마가 진짜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아들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켰어요. 그러면 최소한 엄마 것과 아들 것 두 그릇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안 시켰어요. "엄마는 왜 안 시켜?" 그럴 때 "엄마는 짜장면이 싫단다." 왜 싫어요? 싫은 것 아니예요. 철들고 보니깐 '너 혼자 맘 편하게 먹으라'고 "엄마는 짜장면이 싫단다."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자식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부른 노래죠.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면? 능력 없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러겠지만 모든 능력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설마 그러실까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물씬 풍겨 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철이 들면 "야야, 나는 그것 별로 좋아 안 한다." 그래도 사드리는 게 맞죠? 그게 철든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그런가보다 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조르기만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 드릴 것이 있는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목제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자원제인데 제물의 선택도 제사지내는 사람에게 맡겨 버렸어요. 제사를 지낼 때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염소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효능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소를 드리실래요? 양을 드리실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느냐고 하니깐 자기 형편에 맞게, 소를 드려도 될 만한 형편이면 소로 제사를 지내고, 그럴 형편이 못되면 양, 가격으로 치면 십분의 일 이상 떨어지나 싶는데 양이나 염소로 드려도 괜찮다.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형편을 감안하셔서 제사를 지낼 때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도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력자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선택권을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권력자가 밑의 사람에게 요구를 했을 때에 '이 놈은 형편이 어려워니까...' 해서 깎아 준 적이 없어요. 형편 어렵다고 세금을 줄여 주나요? 형편 어렵다고 세금을 줄여 주는 게 아니고 조금 깎아 줄 때가 있고 있는데 형편 어렵다고 깎아 주는 게 아니고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어야 깎아주는 거예요.

차비 깎아 주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가끔 좋은 운전기사 만나서 그냥 태워주거나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차비 깎아 주는 것 없어요. 10원이라도 모자라면 안 태워줬어요. 대학 다니던 시절에 어떤 아이들이 일부터 장난을 쳐요. 돈도 없이 버스를 태워놓고는 낯선 여학생에게 가서 돈 빌려오도록 시킨 적도 있었어요. 일종의 장난이기는 하죠. 낯선 여학생에게 가서 무슨 소리를 해서라도 차비를 빌려 가지고 내고는 내렸지 기사한테 가서 "아저씨, 형편이 어려운데..." 안 돼요! 봐 주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제물을 깎아 주셨다?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릴까요? 소를 드릴까요, 양을 드릴까요? 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계산이 따라 옵니다. '효과 똑같은데 꼭 소 드릴 필요 있나? 양 드려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제사에 실패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을 드리든지 스스로 결정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파운데 소로 드릴 필요 있나? 양으로 드리지 뭐.' 이러면 제사를 드렸다 해도 이미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 제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만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암수를 구별하지 말고 드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때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늘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서 왔습니다. 남자가 위에 올라서기도 하고 여자가 올라서기도 했어요.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간 적이 있나요?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센 곳이 지금도 있기는 해요. 주로 전쟁이 지나고 나면 남자들이 세요. 그런데 전쟁 없는 세월이 오래 되면 여자들이 더 올라 갑니다.

조선 중기 때의 무렵에서 편지가 하나 발견 되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자네, 어찌고저찌고~"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때는 여자들이 확실히 섰어요. 그 당시 결혼을 하면 여자들이 시집살이를 간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처가살이를 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서원들을 보면 유명한 학자들이 처가살이를 했더라구요. 남자들이 세면 시집살이를 하잖아요? 지금 시집살이 합니까? 안 합니까? 처가 쪽이 더 세나요? 전쟁 없는 세월이 좀 더 길어지면 남자들이 거의 처가에 가서 사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하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오래된 가정이 있으면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둘이 하나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둘인가요? 성경적 결혼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어렵나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설명이 좀 필요한가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것 처럼!

교회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했어요. 하도 순종을 안 하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신 것입니다. 죽어도 말 안 듣는 교회를 위해서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부인이 “여보, 오늘 설거지 좀 해주면 안돼?” 이러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말씀에 따르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둘 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부부가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서로 왕노릇 하면 날마다 깨져요. 서로 종노릇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상상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둘이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셋이 하나인 분이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으면 그건 이단이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돼요. 제가 이해하는 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삼위일체를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담아서 화목제의 제물은 암컷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여호와 앞이라고 해요. 혹은 회막문 앞이라고 하는데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제사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누구를 경배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열심히 냈어요. 새벽에 정확히 5시쯤 놓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잘 되기를 열심히 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까짓것 천지신명도 좋고, 옥황상제도 좋고, 용궁에 있는 용왕도 좋아요. 내 기도 듣고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 이런 심사거든요. 어떤 분에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여기실까?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은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감사하든가, 잘 하든가, 한 마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은 단 데 가서는 잘 한다, 잘 한다 하면서도 왜 나한테는 안 해? 전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혹시 그런 분 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왔는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인사해요? 예배 다 마치고 했죠. 혹시 선거철이 돼서 높으신 어른들이 참석해도 어디 인사를 시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디 사람이 나와서 설치느냐는 겁니다. 순서를 다 마친 후에 인사 시키면 시키고, 그것도 안 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란 생각으로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하나님 앞입니까? 옛날에는 특정한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도 계신다는 것을 알면 머리가 아파요. 성질이 나서 고함을 지르다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요. 어디 성질을 내요? 직장에서 짜증을 내고 누구 흉을 보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네라는 생각이 들면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본문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기르는 소나 양에게 안수하나요? 지난 주간에 자동차 엔진에 안수하신 분 오셨잖아요? 자동차 엔진 고치다가 안수하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보니 고쳐져 있더라요. 따라 하지 마세요. 하도 답답하니까 오만 짖을 다 하는 거지 ‘자동차도 안수하면 고장 난 것 고쳐진다 하더라. 짐승도 안수해서 뭐 한다 하더라.’ 이러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깐요. 답답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아니예요.

유일하게 짐승에게 안수하라고 한 때가 제사지내기 전입니다. 기본적인 안수의 의미는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장립을 받을 때에 안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이 병자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내 능력이 이 분에게 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나와 이 짐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하고 하나 된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짐승이나 다른 것에 안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수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인식시켜 주시려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때가 혹 있다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날마다 죽은 사람? 얼마나 죄가 크면 날마다 죽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죽으면서 그는 위대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의 기본 정신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곁에 뿌려요. 피를 뿌린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보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 이야기예요. 피 뿌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피 이야기가 많나요?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선언이 있었는데 따 먹어 버렸으니 죽어야죠. 죽은 놈을 살려 내려니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어겼으니 피 없이 용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잖아요. 그래서 많은 짐승이 죽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짐승들도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진짜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제사 제도에서 피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오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게 뭐냐 말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예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어요. 기름만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은 사람이 먹지 않는 기름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기름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다른 번제의 경우에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통째로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만 좋아서 기름만 달라신 게 아닙니다.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살코기는 다 날 주고 기름은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그것도 전부 내장에 붙은 기름을 달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기름이 얼마나 맛있고 고소하다고? 기름이 좀 있어야 맛이 있대요. 그 기름은 살에 붙은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달라는 기름은 내장에 붙은 기름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는 기름이 아니예요.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에 맛있는 살코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서 싫다는 게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기름을 좋아하셔서요? 아니예요! 서로 화목하라고 맛있는 고기를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화목하는 데에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뭐 얻어 먹으려고 온 줄 아냐?” 이러지 마세요. 함께 먹으면서 정도 드는 것이니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하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다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70명을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해요. 이 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고 합니다. 그것 하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 올리셨어요. 왜요? 교제를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이 나오면 그날은 빨리 가야 됩니다. 군더기가 대체로 떠 있거든요. 빨리 가야 그것이라도 생겨요. 그런데 닭볶음탕이 메뉴판에 있으면 일찍 가면 안 돼요. 닭볶음탕은 고기가 전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고기가 좀 더 나와요. 사람들도고기 한 점 더 얻어먹으려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은 나주고 살코기는 너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런 제물이 아니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답시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니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느낌은 그런 거예요. ‘네가 바친 그것? 다 기름이다, 너는 내게 기름밖에 안 줬다. 그것 때문에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실제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름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5절을 보세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위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제단 위, 불 위,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르라. 번제물 위에서 화목제물을 사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화목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화목제물은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와 보면 이미 제단에 번제물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다 내가 드리려고 하는 화목제물을 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번제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물 위에 내가 번제물을 얹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매일 드리지고 있는 번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제물 위에 내 제물을, 그것도 기름치만 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실 때에 내가 드린 기름치가 달려 가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으니깐 이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됩니다. 어린애 키워보면 알죠? 어린아이 과자 하나 뺏어 먹으려면 온갖 아양 다 떨어야 한 개 얻어먹죠? 그것도 자기 입에 줄줄 빨다 다 먹고 난 반쪽 슬며시 내미는 애들 많아요. 그래도 그것도 좋다고 받아먹지 않아요? 그 과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이만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게 과자 부스러기예요. 코가 묻었는지, 침이 묻었는지 모르는 과자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내 부스러기 하나 얹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제사 제도가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드리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서 ‘아, 이만하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의 이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 주는 성경구절이 계시록 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예요. 제단에서 나는 향을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요. 단에서 드리는 향은 독생자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희생된 그 곳에서 나오는 향을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올리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독생자 그분의 희생에서 나온 그 향,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을 갖다 드릴 때에 우리 기도가 아이들 말로 곱사리 끼워서 드리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회개가 먼저죠. 회개했으니깐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행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회개 했으니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죠? 성경 곳곳에서 구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니 우리의 회개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서에 특별히 많아요.

아이들이 생일 되면 선물 뭐 줄 거냐고 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일에 뭐 했는데? 누가 선물 받아야 되죠? 엄마가 받아야 되지. 자기가 뭐 했다고? 이 철딱서니 없는 아이가 자기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이번 생일날 뭐 줄 거냐고 물으면 얼마나 아빠가 선물을 준다? 줄 마음이 있으니깐 주는 거지 아이가 뭘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철딱서니 없는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세요. 먼저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음을 이 화목제 제도가 잘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다, 혹은 번덕이 심하다, 괴팍스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기는 너희가 먹고, 기름만 나한테 다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편이 어렵거든 작은 것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 다 했으니 너는 그 제물에 보태기만 하든지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다 받은 것으로 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정작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조금만 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 제사 제도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천사가 집에서...!?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22~33]

한국에서는 부부간에 아무래도 남편들이 조금 문제가 많죠? 남자들 중에 가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악마 같은 이런 남편이 흔치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게 가능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이니 천사같이 하고 집에만 가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 부인에게는 거의 악마처럼 구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산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교회 밖을 나설 때 말씀을 깨끗이 잊어버린다면?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데 행동은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행동은 조상들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준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두 달이 채 안됐을 때,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참 코치를 했어요. 그 옆에 우리 집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두 달 만에 마누라한테 잡혀 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뭐라고 코치를 했느냐 하면 “홍 선생, 두 달 만에 잡든지 아니면 평생 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뭐 하라는 얘기죠? 여자는 신혼 초 두 달 만에 확실하게 못 잡아 놓으면 평생 짝혀 산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어디서 배운 거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선배가 신실한 후배에게 성경적인 결혼을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가 배운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 이걸 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조상들이 해 오던 짓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데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있나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데, 비슷한가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평생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 집에 가서 욕을 할 수 있나요?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 집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데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고 남에게 거짓말 할 수 있냐? 그런데 집에 가서는 욕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 부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교회 가면 천사지만, 집에 오면 악마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을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을 교회답게,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그 본래의 자리에 세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고 할 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울릉도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해서 반대편으로 가려면 교통수단이 배 밖에 없었어요. 조그마한 배를 타고 빙 둘러서 섬의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조그마한 배에 일가쪽을 태워서 섬을 반 바퀴 돌아요. 그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 되세요? 배를 별로 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가쪽을 데리고 조그마한 배를 타고 섬의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배가 가라앉으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나? 부인과 아들, 딸, 셋 중...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나요? 남의 일이니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일이 평생에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셋 중에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6.25전쟁 때나 38선이 막혔을 때 일가쪽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고 할 때에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유전대로 한다면 답은 뻔해요. 1번, 아들이예요. 부인은 항상 꼴찌였어요. 부인은 안 구하고 놔두고 와도 돼요. 왜 그렇죠? 새장가 들면 되잖아!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사고방식 중에 있는 거예요. 여자 분들이 듣기 거북하겠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자는 많고 많잖아. 그러나 자식은 귀한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부인이에요. 부인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남편이 소중한냐? 아들이 중요하냐?'고 물으면 열 명 중에 열 명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어라고 해요? 부인이에요. 막말로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 딸, 나를 포함해 여섯 명이 똑딱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혀졌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나요? '마누라를 제일 먼저 구해야지' 했다가는 아들한테 집중포화를 맞고 부모님한테 불효막심한 자식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답은 아내입니다. 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남편, 남편 입장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아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분명하게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쁜 것 없으세요? 22절 다시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느 말이 좀 싫으세요? 복종?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아이고, 저것도 남편이라고요?

복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앞드릴 복 자가 아니라 '의복 복' 자예요. 옛날에는 옷이 곧 그 사람의 직책을 나타냈어요.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간단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자로 남편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시원찮고 열쌍해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로 세웠으니 그것을 인정하라는 뜻에서 복종하란 뜻이죠.

위, 어쨌든 그래도 기분 나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아내 말을 전혀 안 듣는데 괜찮으냐? 그 위에 있는 2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령하고 아내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인데 특히 부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하듯이' 하라고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옆어지겠는데 이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 보여도 함께 살아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께 하듯 하라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주님 대하듯이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세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께 하듯이 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은

혜를 베푸셨느냐? 이런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게 늘 우선입니다. 이게 주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뜻이죠.

23절 중간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말하죠? 여러분, 남편은 부인의 머리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조금 전에 남편은 하늘, 부인은 땅이라고 한 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예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고 이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머리의 역할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모든 왕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너희를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 그게 천국의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머리이니 결국은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머리에요. 머리가 낮겠어요? 몸통이 낮겠어요? 위에서 군림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몸통이 낮습니다. 머리가요?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쁜 이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 존경스러운 분 계세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남편을 존경스럽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마는 이 땅에는 그렇게 존경스럽게 여기는 분이 별로 없어요. 남편이 정말 성가신 아들 같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속아지는 좀아 터져서 툭하면 빠치고 어째 저 모양인지... 그런 남편 많죠?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 남편들이 다 그래요. 우리 남편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잘 조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핸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것만 잘 쓰면 남자들을 조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라고 남자들에게 그 이상한 면을 하나님께서 넣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룰 줄 알면 남자하기는 여자 나름이죠.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잘만 조종하면 남자 하나 다루기는 일도 아닌데 이런 것 할 생각은 안하고 '속아지는 뭐 같아 가지고...' 하면서 얹잡아 보기 시작하면 잘 다루어 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대체로 이런 측면이 있으니 잘 다루시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고 거기에 순복하라고 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존경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이야기는 어디 가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나가서 '남편이라는 게 있잖아...'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집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 남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돌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애하는 처녀들은 어쩌면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빨리 환상을 깨고 현실을 봐야 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좀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평생 복종해야 하는 열쌍한 주인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내가 평생 순종해도 될 만한 똑똑하고 잘난 남편? 꿈 깨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평생 복종하고 존경해야 된단 말이나?' 그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답은 아주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머리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과장을 좀 하면 거의 없어요.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 걱정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이나 하면 '언제는 안 그랬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엇길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 오고 계셨다는 생각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남편과 아내를 짝을 지어 놓고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25절,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무엇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교회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나한테 무슨 좋은 점이 있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한 마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랑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표현을 바꾸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니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할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예요.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되 결국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전체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먹고 자며 숙박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이 성공으로 끝났나요? 실패로 끝났나요? 답은 간단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한 놈은 선생님을 팔아먹었고, 한 놈은 철저히 배신했잖아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쳐다보니까 ‘도대체 하는 짓이 이쁜 데가 있어야지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기적을 베풀었나요? 날마다 이적 속에서 살면서도 이스라엘은 조금만 불평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불평했나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사랑하라고 더 무서워요. 차라리 복종하라고 낫지.

구약성경에서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호세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고 잘 살던 부인이 남편 버리고, 아이 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을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나간 부인은 안 돌아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찾아오라고 그러죠? 그것도 돈 보따리 들고 가서. 호세아 이야기입니다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호세아의 부인이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가 팔려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을 호세아가 구해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마다. 지방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낮간지러운 소리 잘해요. 옆에서 보면 밥맛 떨어져. 그런데 둘이서는 좋아서 죽는다? 그러면 봐두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쪽에 있는 사람은 말 한 마디 안 한다. 그래도 통하기만 하면 돼요. 형태나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기만 하면 돼요.

보통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는 사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부인한테 물어보면 사랑받았

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사랑하는 방식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꼭 확인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내 사랑 받은 것 맞느냐?” “사랑 받은 적 없는데?”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남자들이 정말 쪽팔리는 짓을 해야 될 때가 생겼어요.

남자들이 꽃 사러 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툼툼 툼툼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인한테 난생 처음 꽃다발 선물 한다는 게 하얀 국화였대요. 전 이해가 돼요. 부인에게 꽃 선물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우긴 배웠는데, 꽃 사러 꽃 가게 간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큰 용기를 내서 갔어요. “뭐 드릴까요?”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 쿡 찍은 거예요. 빨리 가지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하얀 것인지 무슨 꽃인지 상관없어요. 꽃은 꽃이잖아? 그래서 사 가지고 간 것이 하얀 국화라는 거죠. 감동이 될까요? 우스울까요?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느냐?”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요즈음 남자들은 이런 것 잘 합니다. 나이든 남자들이 창피를 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부인에게 내가 진짜 표현한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식도 필요하고 구식도 필요하고 정말 낮간지러운 소리를 듣기 원한다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교회 남자 어른들은 쪽팔리는 짓을 잘 하더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쪽팔리는 짓을 하면 온 교인들이 즐거워요. 자기는 창피해서 숨어서 나가 버리는데 온 교인들은 다 즐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잘해요. 기관 행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평소에 근엄한 다 큰 남자 어른들이 정말 웃겨요. 잘 합니다! 그것 박수 칠 일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부인 앞에서, 가정에서 그럴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까요? 여하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방식이나 말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는데 받는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이 또 가르쳐 주는데 28절 보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을 뒤집어 보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죠?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조금만 피곤하면, 잠이 조금만 모자라도 무조건 자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부인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29절 중간에 보시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완벽한 이상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같이 살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 보면 바보 같아요. 바보 같은 면이 보이면 본문이 뭐라고 해요?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툼 툼 이러구나. 다 자랄 때 까지 내가 양육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다가 상대방의 연약한 점, 약한 점, 부족한 점, 머리가 좀 모자란 점, 이런 것이 눈에 띄이면 쥐어박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한테 붙여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라고 하는구나.’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바보 같은 짓 하는데 내가 매일 채워줘야 되고, 막아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큰 비밀 중에 하나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글을 남겼더라구요 ‘남자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여자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여자가 진짜 행복해질 때까지 남자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한다.’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도 아내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남편도 진짜 기쁨을 모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

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합니다. 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게 된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라고 아내들이여, 남편이여, 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혹시 남편이 부족할 때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이러면 이게 남편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허물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막말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가정에 금이 가게 한다는 것은 교회를 부수는 일이란 말이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피 흘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 쪽 귀퉁이를 허물고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31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 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결혼제도를 세우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 남편과 아내는 부모보다 더 소중하고 자식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했다 가는 부모들이 "이, 불효막심한 놈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보다 우선인 것이 배우자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간단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서 부모님을 모셨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두 사람이 먼저 하나가 되어,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 몰래 친정 부모한테 용돈 부친다거나 아니면 아내 몰래 집에서 부모에게 용돈을 준단가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니, 의논해서 그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시댁에 그만큼 부치려고 하면 우리 친정에도 보내야 된다.' 이러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합의하고, 하나 된 다음에 어른들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돌봐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원리도 간단합니다. 남편보다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방방 드면 그 아이를 결국 버려놔요. 엄마가 애들 야단치고 있는데 남편이 부인을 야단치고, 애들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고함을 치면, 이걸 아이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데도 우선순위가 남편 먼저, 부인 먼저.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지 남편 뒤로 제쳐놓고, 아니면 아내 무시하고 아이를 돌본다고 잘 키워보면, 결국은 아이들 망치게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만 분명하게 해도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비밀이에요. 여기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 비밀이 두 개가 있어요. 시크릿(secret) 아니에요. 여기 이 비밀은 우리 식으로 하면 미스터리(mystery)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미스터리(mystery)는 차라리 신비예요. 부부관계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그 속에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신비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신비는 하나도 없고 만날 싸움만 있나요?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 신비로움이 우리 부부사이에 많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살게 하셨구나!' 하는 감탄이 여러분 속에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죽 이야기 해 놓고서는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이야기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 온 거예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예요. 이게 곧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기본 중의 기본은 가정을 말씀대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된 것을 아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에서 천사이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든 천사이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더 합시다. 직장이나 동네에 나가서도 천사이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나는 천사노릇 하는데 자기는? 정말 못돼 빠졌어요. 그래도 천사 노릇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노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사실 것입니다.

언제 고향에 가 볼까?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민수기 35:16~28]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고향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명절마다 고향을 찾아가는 노력과 갈망이 참 큼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고생을 해도 고향을 찾아 갈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많이 줄었겠지만 북한에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다들 연세가 많아져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대단한 것 같아요.

속초쯤인가요? ‘아바이 마을’ 있다는 것 아시죠? 젊은 사람들에게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 맛있는 것 많이 있다, 구경할 것 많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25 전쟁 후에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면 빨리 올라갈 거라고 휴전선 가까운 곳에 모여서 살게 된 마을이 아바이 마을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니 그 마을 이름이 아바이가 된 겁니다. 북한 땅에서 땅도 없이 내려왔던 사람들이니까 좋은 곳에 살았겠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모여서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나고 또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 분들은 통일이 돼야 고향에 수 있을 텐데...

‘나는 언제쯤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텐데 설을 맞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문에 그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고향에 가지 못한 채 도피성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죄수가 있어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제사장이 죽는 길 밖에 없어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제도를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아는 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 도피성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고대에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성스러운 곳이어서 죄수들이 거기에 도망을 가면 절대로 잡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에 이런 지역을 소도라고 불렀죠. 그러니 성경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 많이 달라요.

얼마 전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이상하답니다. ‘교회 20~30년 다니면 성경에 도통한 것 아니에요?’ 라고 묻길래 제가 답을 해 줬습니다. 미국에서 20~30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미국에서 20~30년 살았는데 왜 영어를 못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살았거든요.

미국이라도 한국 사람만 모여 사는 데에서는 영어 몰라도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어 전혀 못해요.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결정적인 것을 말 할 때는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영어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우리가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도 성경을 잘 모르는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도피성이나 다른 나라에서 성스러운 장소라고 불리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죄인들이 도망쳐서 들어가 버리면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성스러운 곳은 없습니다. 본문의 도피성은 장소 자체가 성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제단이죠. 만약 어떤 죄인이 도망을 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면 살아날까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 때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죄인이 내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인이 도피할 곳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에게 반역한 아도니야가 거기서 도망간 겁니다. 못 잡아내나요? 아니 오! 바로잡혀 나옵니다. 성전조차도 죄인이 들어가도 함부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성전도 그런 곳이 아니라면 도피성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도피성은 신성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직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피했을 때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살인 이외에 반역을 일으켰거나 큰 강도짓을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대로 잡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도피성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나라의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곳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나라에서 그런 곳은 한 곳 정도만 있는데 이스라엘은 도피성을 최소한도 6군데를 만들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언제든지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도록 만드셨으니깐 이런 제도는 어떤 나라에도 없는 묘한 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살인자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이런 자는 용서 받을 수 없어요. 본문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가 죽입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동으로 죽은 사람의 피를 보복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죠.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면 반드시 나를 죽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내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으면 형제나 가까운 사람이 원수를 갚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연한데 본문은 이것을 뭐하고 표현하느냐 하면 ‘피를 보복하는 자’란 말을 자주 써요. 우리말의 번역이 보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고열’입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듯하죠? 무른다, 아니면 회복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란 피를 무르거나 피를 회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갚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무고하게 죽은 자의 그 피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번역이 보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쌓인 원한을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피를 회복시킨다, 죽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물려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꼭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보복’이고 하나는 ‘원상회복’ 즉, 무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사탄에 대한 보복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동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했었는데 이게 깨어진 거죠. 그 모습으로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피를 원상회복한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죽어야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의미가 되고 거기에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으니깐 죽어야 하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원상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래 있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으니깐 먹고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 살 길 중에 유명한 것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를 그 때 이미 하고 계신 거죠.

따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따 먹었지? 그러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그러시면서 다시 회복되는 방법을 은근슬쩍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은 원상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도피성이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설령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치더라도 도피성에서 재판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도피성이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두 번째는 사람을 죽게 했는데 고의성은 전혀 없어요. 무조건하고 도피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도피성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도 살인자는 살인자예요.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죄가 있냐요? 없냐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무조건하고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고의는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됐냐? 이런 경우에도 죄는 있습니다. 이런 죄가 ‘과실치사’쯤 되겠죠. 과실치사도 큰 죄는 큰 죄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면 죄가 없다? 아닙니다.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려고 한 것 아니야.”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어요.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잡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잡히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라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가면 죽습니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살아날 방법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도피성이 원래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한쪽에 세 개씩 만들어 두셨어요. 이유는 거리를 감안해서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누군가가 따라 들어오면 도피성에서 막아 줘야 됩니다. 막아 주고 재판을 했는데 고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평생 보호해 주고 먹여 주고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목숨은 건졌어요. 사람을 죽였지만 목숨을 건지고 도피성에서 오래도록 살면 무엇이 제일 힘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결혼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찌겠어요? 도망가야죠. 일단 도망가서 못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면 신부가 도피성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같이 살아주면 좋을 텐데, 그 성 바깥을 못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신부가 찾아와서 같이 살아줄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를 다시 못 만나요. 친척 형제들 다 못 만나요. 저는 ‘마음이 참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 관계있으면 용서하세요. 기러기 아빠! 처자식을 먼 곳에 두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죽으면 죽었지 못할 짓인데... 모르겠어요.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다 떼어 놓고 혼자서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 것, 목숨은 건졌지만 정말 기약 없이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 성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일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 밖을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성 밖을 나왔는데 원한을 표했다고 밖에서 잡아 죽여 버리면 죽인 사람에게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은 도피성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고향도 못 가요. 친구도 못 만나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상상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저히 내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이 죽었다.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즐거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어른인 저 대제사장께서 돌아가시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보다 더 젊으면? 이걸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대제사장이 사고로 죽어 버렸

어요. 그 때는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여하튼 무슨 사고로 죽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참 갈등 생길 것 같아요.

오래 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가 좀 특수한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그 학교에는 선생님이 한 번 발령 나면 평생토록 안 움직여요. 특수한 학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교생 실습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찻가게 물어 봤어요. 발령 날 가능성은 있나요? 그 친구들 답변이 이래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분이 돌아가셔야 내가 집에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쩌다 돌아가셨어요. 이거 얼마나 기뻐해야 되나요? “야, 집에 갈 수 있다.” 하고 날뛰다 보면 전부 살인자들뿐이에요. 원래 도피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감동될 것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섞여 살던 살인자들만 기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빨리 표정을 감추어야 할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죽어야만 희망이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병원을 새로 시작했는데 가서 기도합니다. “이 병원 잘 되게 해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고 해야 하는데 병원이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이 병에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장의사에게 가서 사업이 번창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누군가가 죽어야만 일이 제대로 되는 이런 경우는 옆에서 인사하기가 참 민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날 뛰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아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묘한 제도를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형처럼 만들어 놓은 제도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이러니 이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나요? 저는 고난주간에 슬퍼하는 사람들이나 너무 엄숙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고 슬퍼하라고 돌아가신 줄 아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아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 행복하게 잘 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라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 아닐까요? 그러면 고난주간에 너무 슬퍼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고난, 고난 이러니까 같이 따라서 가긴 갑니다만 제 속마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즐거운 티를 내기는 쉽지 않죠? 정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받으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 날뛰던 살인자들이 어느 순간에 ‘어, 이래도 되나?’ 이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 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 아들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을에 갔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떨어 먹은 네 놈이 아들이랍시고 그 집에서 살 자격이 어디에 있냐고?” 야단을 치면 그 말이 맞아요. “아,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이랍시고 이 집에서 살 형편이 아니네요.” 하고 짐을 행거서 또 나가요? 나가면 안돼요!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신 못 나가죠.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웃사람들의 비난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서는 입장이 바뀌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전에 다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 준다고 하셨으면서 또 왜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큰 죄인으로 생각하고 순종해야죠. 돌아온 탕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보여 줍니다.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살인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듯해요. 죽을 사람인데, 우리와 닮았죠? 여기 들어와서 안 죽게 된 거예요. 안 죽고 안 죽는데 도피성에 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이 도피성을 나가면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살지만 갇혀서 제약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힘들게 사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정말 행복하지 않고 ‘아, 나도 안 믿는 사람처럼 내 맘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예수 믿는 믿는데, 그래서 살게는 됐는데 도피성 안에서 힘들고 어렵게만 사는 이런 사람, 형식적인 신앙, 혹은 의무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기는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도피성의 죄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몇 단계의 변화가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단계, 죽음은 면했지만 사는 게 힘든 단계,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자유롭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뼈딱하게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괴팍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선악과 따 먹고 정녕 죽으리라 하시면서도 죽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죽으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죽으리라고 선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르려 하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르시는 이야기, 반복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도 한 번 반복하거나 무르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칩니다. ‘일수불퇴’ 아시죠?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이 한 번 졌다가 손을 떼면 절대 못 움직여요. 그래서 한 번 졌다가도 손을 댈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일수가 아직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졌다가 손은 안 떼고 짝 밀어서 놓고 그래요. “나, 손 안 댔다.” 이라고 버티는 거예요. 손 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움직여요. 손 댔다가 다시 만지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놀음판에서도 한 번 졌다가 다시 거뒤틀리는 것은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한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가 거뒤틀리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고 반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것을 찾아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말씀하셨다가 취소하시면 부끄러운 일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자녀처럼 만드시고서는 “이거, 하면 죽어!” 그러셨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죽이려고 애를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것 하고 도피성에 갇혀 사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너 고향에 돌아가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데요? 그것 믿는다는 게 예수님 돌아가신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어, 너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아담과 함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갈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내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 너 믿을래?”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데려 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본향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진짜 그리워하고 기대해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었으니 머잖아 우리도 그 고향에 도착할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그리워할 때마다,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내 진짜 고향,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1-9]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멋지게 살았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거나 배역하거나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는 역사지만 딱 두 번, 진짜 말씀에 순종 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멋진 시대가 딱 두 번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나지 않게 화려했던 시대가 한두 번 더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번성했던 그리고 아름다움 모습을 드러냈던 시대가 두 시대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 왕 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대에는 정말 순종 잘 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겠다.' 싶은 때가 있었던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꼭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별 힘도, 열심도 없는듯 하지만 그 때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는데요?' 하고 말할 수 있는 때가 한두 번은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자랑할 만한 시절이 우리 일생에 불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멋진 역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시대가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시대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만한 시대는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두 번 정도는 아름다운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두 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감격스러움을 알게 되면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고 알게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었는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속에서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지 드디어 40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는 것은 잘 아시죠? 늙어서 죽었나요? 자연사인가요? 모세는 자연사 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120세였으나 기력이 남아 있었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연사,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하고 이리와."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 예!" 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늙어서 죽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던 일은 명칭도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느냐? 적합한 말이 없네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여 지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죽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그런 거에

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야, 때가 됐다. 네가 지금까지 맡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너는 임무가 끝났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도 있고 일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모세의 명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전투에도 여러 번 나갔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다 시키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는 불러가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철자를 보면 다 비슷해요. 다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너는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첫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세 번쯤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 하실까? 이것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가는 일은 아주 강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상해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 안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쉬운 답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직무나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면 걱정 되는 것은 사실 이잖아요. 새롭게 일을 맡은 사람은 어쨌든 용기를 내서 마음을 다 잡고 해 봐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미리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문제죠.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어린 아이를 처음 보내 보세요. 애가 유치원에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안 받나? 보세요. 가서 뭐하는데요? 선생님이 할 것 다 해주고 애는 놀기만 하고 오면 되는데도 애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우습지만 그 아이가 볼 때는 얼마나 꿈을 떨어져 나가서 낯선 곳에서 있는 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3년을 연애 하다가 시집을 갑니다.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3년 동안이나 사귀었는데 사람 알 것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러나 걱정이 된답니다. 정말 잘 살 수 있을는지,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거나 잘 봤는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요즈음 취업이 참 어렵잖아요. 고생 고생해 가면서 겨우 취업이 됐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될까요? 새로운 직장, 낯선 곳에 가는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다잡고 가지 않으면 얼마 못가서 또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뛰쳐나오다가는 평생 직장일 못합니다. 돌아가기 전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격이 돼서 좋다고 좋다고 방방 뛰던 아이가 몇 달 못가서 못 견디겠다고 앓아대기 시작합니다. 그 고비 다 넘겨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새롭게 맞이한 일들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책, 새로운 임무, 새로운 근무지를 만날 때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잘 해 봐야겠다는 자세가 꼭 필요하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남긴 글에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잠 못 자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잘 모르겠다든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는 자신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잘 모를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찍으래요. 찍어놓고 "이거 확실하다!"면서 밀고 나가래요. 지도자는 그래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가 마음에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일들을 모세가 감당했는데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그 몫을 여호수아가 져야 되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썩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의미를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나요?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 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아이를 공부하는 것을 보고 “너, 팔 아프지? 힘들지? 내가 대신 다 해 줄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배우고 자라야 하는 문제는 아이에게 맡겨 놓고 엄마 아빠는 옆에 있어도 대신 해주면 안돼요. 하다못해 애가 잡은 손을 내가 같이 잡고 움직이는 경우는 있어도 대신 써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비가 애벌레로 있을 때 그 껍질을 벗기고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그 껍질을 대신 찢었어요. 그래서 쉽게 나비가 나오도록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습니다. 날개가 애벌레처럼 구겨져 있으면서 빠져 나오려고 힘을 쓸 때 그 힘에 나비의 체액이 날개 사이사이에 퍼져 나가서 날개가 튼튼하게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날개가 제대로 펴지고 날게 되는데 그게 힘들어 보인다고 옆에서 껍질을 찢으면 날개가 안 펴진다는 거예요.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힘주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나서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녀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만 네가 강하고 담대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이런 소리를 참 잘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 뽐아버려, 그냥.” 무엇을 뽐아라는 거예요? 자동차요! 돈은 없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뽐아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집 종이나 자기를 도와 주기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면서 애를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일 저질러 버려라. 이걸 신앙이 좋은듯한데 무식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존재가 아니예요.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요, 우리가 일 저질렀는데 따라다니 시면서 그 뒤치다꺼리 하는 분이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시는 것은 ‘내가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믿고 열심히 나아갔는데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도와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아예 그걸 노리고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것 네가 저지른 일 아니냐?’ 안 도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들과, 나중에 보면 전쟁을 7년간 해요, 전쟁을 다 치러야 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는 주세요. 그러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 쳐들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가는 해를 불들어서 못 넘어가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벌여 주기도 하죠.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불어서 싸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적과 싸움을 하는데도 싸움을 시작해서 붙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다 이기곤 했어요. 그러나 가끔은 너무 두려워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그 민족에게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가 잘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는 주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이 일은 너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해야 할 모든 일은 너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지휘관에 임명됐습니다. 다른 지휘관이 아니에요. 민족 대 민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지휘관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전쟁을 앞두고 임명된 장군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면 기본적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작전을 어떻게 짤 것인지 궁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길러 주어야 되겠죠! 군대는 군기가 생명이라고 그러데요. 전쟁 이야기를 보면 왕이 장군을 대장으로 임명해서 보낼 때 왕이 차고 있던 칼을 넘겨줘요. 출전하는 장군에게 왕의 칼을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항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칼로 처치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을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확실하게 군기도 잡아야 되죠. 군량을 확보하고 싸울 무기도 마련하고... 이것이 장군으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것이 8절입니다. 한 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작전을 짜야 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장군에게 성경공부부터 해라 이런 말과 비슷해요.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경말씀을 늘 입에 달고 있으라는 게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은 정말 치열하잖아요. 지방의 과열된 곳에서는 고3은 방학이 없습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주일에도 학교 가야 돼요.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시다만 제가 교회에서 데리고 있던 고3 아이들은 주일에 학교에 안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저하고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시내 어느 교회의 안수집사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낯지시 물어 봤어요. "야, 집사가 돼서 주일날 아이들 학교에 나오라고 하면 힘 안 드나?" 그랬더니 "전부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학교 안 나온 놈, 나와!"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때기도 하고 야단도 치는데 "아무리 그래도 끄떡도 없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가는 놈들은 너거 교회 아이들 밖에 없더라." 그래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시절에 고3이 '주일은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고 교회 가는 게 쉬울까요? 본인들 자체가 쉽지 않아요. 교회 와 있어도 딱딱 잘못하면 '내 친구 어느 놈은 지금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래가지고 어쩔까?' 점수 1, 2 점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는데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군대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이다. 너 그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전투를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용기를 내는 일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수아 앞부분을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상한 짓을 많이 시켜요. 요단강 물을 건너갑니다. 강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독에 철철 넘쳐흐르던 그 시절에 제사장더러 법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기 직전인데 강둑에 한 번 가보셨어요? 무섭습니다! 물이 넘쳐흐르는 거기에 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물이 무릎쯤 차는 곳에서 강물이 갑자기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강물을 줄여 주든지, 끌어져야 들어가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들어가면 끌어질 거다!" 그런데 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끌어지더라는 거예요.

강을 건넌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사이에 장애물이 전혀 없어요. 이젠 바로 전쟁에 돌입해야 할 시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될 군사들이 전부 수술하고 드러누워 버리면 최소 보름, 옛날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술도 시원찮고 부싯돌 갈아서 수술했으니까 그게 잘 안 됐다고 본다면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 모르는데 전쟁을 해야 할 군사들이 전부 수술하고 누 우라면 전부 죽으라는 얘기죠.

여리고에서 아무도 안 내다봤으니 다행이지, 내다보고 이스라엘의 광경을 봤다면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판인데도 “너,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 후에 여리고를 쳐 들어갑니다. 어떻게 성을 넘어뜨릴까요? 성을 넘어뜨리려면 여러 가지 기구가 동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참 이상해요. 성을 여러 번 돌라고 해요.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돈다고 무너지는 성은 성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소리 지른다고 그 소리에 무너져요? 아니오, 그럴 리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무지 되지도 안 할 것 같은 이 짓을 왜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도 즐기만 하면 무너질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즐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이상한 일을 시키시면서 순종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잘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발씩 한 발씩 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해야 될 터인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나갔다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는 예가 있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영 이상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이익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길로 순종하고 그 길로 가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예가 참 많 습니다만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볼까 해요.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하게 된 것은 그 학교를 세운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거기 교장을 문교부 장관 후보로 삼는 다던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명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학교가 좋아지고 난 훨씬 뒤의 일입니다.

이 학교를 처음 일으킨 분은 우리나라 국비 1호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던 전영창이란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미국에서 교수직을 마다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다 무너져가는 학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어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 교사 모집이 어려워요. 서울에 올라와서 여관에 방을 얻어 놓고 신문광고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울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모집합니다.” 전화가 많이 온대요. 어디냐고요? 저 시골 거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다 끊어진대요.

어떻게 잘 만나서 장로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권사님 딸이라고 해서 정말 신앙으로 학교를 세워 보자하고 동의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못 간대요. 본인은 가려고 하는데도 그 믿음 좋은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안 보내겠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골이고 월급도 많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말씀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이니깐 갑시다. 거기에 따라갈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월급 많이 주고 근무하기 편하고 그래도 뭔가가 생길 것 같은 곳을 가지 그런데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만들어 놓은 직업선택의 10계명이란 게 있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충 이런 겁니다.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모두가 반대하거든 가라.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이런 것들이 10가지쯤 돼요. 결혼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모두가 반대하거든 결혼해라. 인터넷을 찾아보니깐 어떤 분이 ‘거고 직업 선택 10계명’ 하고 밑에 소감문을 적어 놨어요. “그래, 맞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소감문을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얘기가 아니예요. 월급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월급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고 출세의 방법인 줄 알고 쓴 겁니다. 그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몰라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글을 쓰나? 그 직업 선택 10계명은 출세하는 방법을 적은 글이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유혹을 바라보면 거기는 가야 할 곳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가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야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반대할 수 있다. 가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정말 성공하나요? 아니오! 엄청난 고생을 할 수도 있죠. 선교를 지망해서 가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내가 잘하면 훌륭하게 되고 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갑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어떤 고난과 어떤 고생을 다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겪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만들어 놓은 게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면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고민이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 이웃들에게서도 날마다 생깁니다. 이럴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대로 일 처리하기가 쉬워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때가 생겨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생하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자기가 있던 동굴에 혼자서 온 거예요. 옆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 죽여 버리면 자기가 쫓겨 다니는 고난도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읍시다! 다윗에게도 죽일 욕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니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나 내 욕심 보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때까지 내가 손대지 않겠다. 두 번이나 살려 보내잖아요. 살려 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더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에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유익 되는 것을 늘 죽듯이 떼어 버렸다는 겁니다.

가끔은 오래 교회 다녔다는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말을 간혹 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걸 한국 교회의 슬픈 일이라는 합니 다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 뜻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훈련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말이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생각 내 고집을 펴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을 거야.' 이러면 내 뜻을 펴올 수 있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전쟁을 인도해 나가야 하는 장군이 전쟁 칠 준비는 안하고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8절 뒷부분을 봅시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정말 어려운지 몰라도 어쩌면 죽을 고생을 해야 될 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체험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재미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쳐 올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바가 있구나.'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겠지만, 혹은 죽을 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1-13]

자녀들이 공부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착한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옛날에는 착한 아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최고입니다. 공부 잘 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꼭 잘 되라는 법도 없고 잘 되도 썩 잘 되는 법도 없는데도 여하튼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 잘 하는 것이 최고 효자고 부모의 관심도 오직 공부 잘 하는 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 한다는 말은 안 하고 '애가 참 착해요.' 이러면 어딘가 좀 섭섭하죠? 손해 보는 느낌도 드나 봐요. 이 악한 시대에 영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애가 착하기만 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먼저 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애가 좀 영악하고 남에게 절대 안 지고,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욕심이 이렇다 보니 오늘 우리 학교도 경쟁만 남아 있어요.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이 존재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의 아이가 공부를 잘 하면 그 아이의 노트를 훑쳐서 없애기도 하고, "나 오늘 한 시간 빠졌는데 노트 좀 빌려 주라" 하면 잘 안 빌려준답니다. 옛날 우리 때는 아파서 학교에 못 오면 옆의 친구가 노트 빌려줘서 다 베끼게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살벌합니다. 착한 아이를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점수 따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시킨다는 것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돼 버린 듯해요. 어떻게든지 학교가 좀 달라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싶기는 한데 아마 그렇게 반성을 하고 달라지려면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시간도 많이 경과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모습 그대로 계속 갈테고, 그렇게 큰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사회가 얼마나 흉흉한 사회가 되는지 보고난 후에야 반성할 겁니다. 염려스럽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학교는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는 것 많고 참 똑똑하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애가 참 사랑이 많아서 친구를 챙겨주는 것 잘 해요.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교회 안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껍질을 한 껍질만 벗기면 교회 안도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서가 그런 책입니다.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능력보다 사랑으로 사람을 보듬는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우리 교단의 전매특허와 같은 겁니다. 한국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그마한 고신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주목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일에 우리 고신 교단이 아주 중요

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고신의 중요한 실수 중의 하나가 조그마한 잘못도 용서를 잘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유명하다고 하는 인물 중에는 우리 고신 교단 출신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고신 교단에서 자랐거나 고신 교단에 몸담고 있다가 무언가 작은 실수를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가서 큰 인물이 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한 둘이 아니예요. 참 많아요.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렇게 자꾸 논하다 보니 잘못된 사람을 품고 보듬는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참 반성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요? 조금만 잘못해도 혼이 나는 교회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실수를 하나 했다고 싶을 때 겁이 떨컸 나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야단을 엄청 들겠단! 아니면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겁이 떨컸 나고 아, 이러다가... 야단맞을 사람들이 죽 떠오르면 우리 역시도 사랑이 많기보다는 그저 야단치고 책망하는 일에 익숙한 교회라는 거죠.

어느 부목사님이 약 30명의 학생을 인솔해서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해외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시지만 혹 한 두 번 나가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AM, PM을 혼돈해서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놓쳐 버린 것은 모르겠는데 30명 데리고 비행기 놓쳐 버리면 동남아를 간다고 해도 돌아오는 비행기 값 1,000만원 날린 겁니다. 긴급히 돈을 송금 받아서 하루 늦게 돌아오고 돌아 왔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가 교인들이 헌금한 돈 1,000만원을 날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왔겠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들의 돈 단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좀 통 큰 사람들이야 돈 1,000만원 날려도 '아, 그것 뭐 조금 더하면 되지.' 하겠지만 목사님들이 돈에 대해서 참 단위가 작아요. 1,000만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도저히 교회에 낫을 들 수가 없어서 풀이 죽어 있을 때에 거기 장로님들이 '월,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무도 잘못에 대해서 탓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부목사가 '목사님, 제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두고두고 충성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다짐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돈 1,000만원 위력이 참 세다. 신학교 몇 년 보낸 것보다 더 낫네!' 본인이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으로 보듬고 돌보는 것이 신학교 몇 년 보낸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참 많이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집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싸워요?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이런 것 따지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어느 박사 부부가 부부 싸움을 제대로 했나 봐요. 잘 못 배운 우리는 한바탕 와장창 싸우고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박사님들은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안 싸우고 아주 이론적으로 토론을 해 가면서 싸우신대요.

저녁 먹고 앉아서 조곤조곤 누가 잘못했고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이렇게 한참을 하다가 "내일 출근해야 되니 오늘은 잡시다." 그쯤하고 잔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시 하다가 밥 먹고 일단 출근하고 저녁에 오면 모여 가지고 "어제 어디까지 했죠?" 거기서부터 다시 봄시다. 또 얘기하고... 이걸 한 달간 했답니다. 무식하게 치고 박고 깨고는 안 한대요. 배운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로 아주 예의바르게! 그걸 한 달간 해 보세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계속하는 것은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물러설 때 물러서고 보듬을 줄 아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식의 원리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야겠고 교회도 그래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좋은 예를 보여 줍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않은 항구 도시인데 동서무역로 한 가운데에 끼여 있어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자체가 아주 큰 섬인데 육지하고 아주 가늘게 연결돼 있어서 참 재미있는 것이 이쪽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면 이 배를 육지에서 약 1.5km 정도 끌고 가서 저쪽 바다에 넘기면 저쪽 바다에서 항해를 계속했답니다. 참 재미있는 동네예요. 지금은 운하를 파서 배가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역로 중간에 있는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죠. 경제적으로 번성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좋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던 아프로디테 즉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많을 때는 거의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 여사제들은 엄밀히 말하면 합법적인 창녀들이나 마찬가지로요.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곳인데다가 항구도시였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곳이니 성도들도 세속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에게 물었을 때에 해준 대답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도시에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도 도살하는 과정에 전부 우상과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답은 아주 분명해요. 신경 쓰지 말고 먹는 음식이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먹는 음식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길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느냐 말입니다. 바른 답을 알고 바른 대답을 해 주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이 대답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 답변이 길어지면서 어떤 때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가 상담을 해 오거나 질문을 했을 때 이 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 분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듣고 그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다보면 답이 길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결론이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답이 너무 간단해 보여요. 기를 때 우상에게 절해 가면서 길렀고 잡을 때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잡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파는 것이니까 사다 먹으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나 봐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숭배나 미신은 전혀 안 믿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오늘 시험 치러 가는데 아침에 미역국을 먹고 가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미역국 먹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험 치는 날인데 좀 찜찜할까요? 저는 옛날에 같이 크던 아이들에게 “야, 미역국 먹고 가서 모두 붙어.” 왜요? 미역국 먹고 가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미신을 패려면 우리가 먹고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이사 하는 사람들이 늘 신경 쓰는 것 있죠? 손 없는 날! 이런 것이 없는 날에 이사를 한대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한다고 손재수가 낀 날은 이삿집센터에서 거의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되면 “오늘 조용하니까 좋네!” 그래서 당당하게 이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데 그런 날 피해서 이사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에 동조해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면서 그런 날을 피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차량번호가 666이 돼도 괜찮습니까? 그런 번호는 어쩐지 좀 찜찜합니까? 제 질녀가 결혼을 했는데 2006년 6월 6일에 했어요. 6년 6월 6일.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찜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날짜 아닐까? 그런데 당당하게 결혼하는 것 보고 ‘아, 저 놈 참 괜찮네!’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을 4자 두려우세요? 사주팔자, 또 궁합이 맞니, 안 맞니 이런 말하면 신경 쓰이

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에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이 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주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지만 혹시 압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지. “우리 집에 부적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제가 떼기에는 겁이 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신주단지 저는 무서워서 못 건드리니까 오셔서 갖다 버리든지 처분해 주세요.” 그러면 용감하게 다 치우겠어요?

목사님에게 떠맡기는 게 제일 편하죠.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비슷한 현상이 고린도교회에 있었으리라는 것은 추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겠다는 짐작이 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무식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정답을 너무 쉽게 함부로 덜컥덜컥 가르쳐 주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잘 들여보고 잘 파악해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쉽게 답해주려면 조직신학 아니면 성경에 있는 답 찾아서 ‘이대로 하세요.’ 이러면 끝나버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한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의 형편이나 생각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렇게 답을 하면 이 연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것을 잘 살핀 후에 ‘만약 내가 이렇게 해서 연약한 성도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실족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대학 다닐 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실한 친구인데 가끔 술하고 담배는 먹어야 된다고 일부러 술과 담배를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못하게 만든 규정을 이제는 깨뜨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을텐데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정해 놓으니까 동의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안 먹어야 되고 안 피워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빨리 폐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폐지가 된다고 해서 마음 놓고 술을 먹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폐지시켜야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한 잔 하더라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규정은 이제 폐지 할 때가 됐다. 그걸 위해서라도 한 잔 씩 해야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기 싫어하거나 땡땡이치는 친구가 그러면 그러려니 할텐데 애는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앞장서서 가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그런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일종의 객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 얼마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얼마쯤 그러다가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신실한 녀석이 술하고 담배 피우는데 우린들 어때? 하고 같이 먹고 마셨던 녀석들은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은 ‘술이나 담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자기에게는 그만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권리나 자유함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연약한 친구들이 실수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해도 괜찮은 일을 참 많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나 덕을 위해서 이걸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반대로 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 해도 될 일을 형제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 역시도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참 좋은 예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죄 있는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죄라고는 조금도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요한이 정확하게 말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굳이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죄씻음 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 주신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분이 나중에 무교회주의자가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사실은 교회가 이런저런 불합리한 일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선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 분 말이 맞아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믿는다. 평생을 아마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은데 이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후에 그 아들을 만났는데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교회를 다시 나가셨대요. 왜 나가셨냐고 물어봤죠. 답이 참 재미있어요. ‘소신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야겠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시면서도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어요. 문제는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의 아이들 중에는 교회 잘 다니는 아이도 있고 나가지 않는 아이도 있고, 손자 때에 가면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꼭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한다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떠나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하기도 하고, 꼭 하고 싶은 일이지만 형제를 위해서 안 할 수도 있다면 이것이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왜 남을 생각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11절을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형제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구원해 낸 형제다. 그러니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미운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돼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인간, 함께 하기 싫은 인간은 꼭 있어요.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20년 동안 한 구절을 빼 먹고 했대요. 어느 구절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은 절대 못 하겠더라요. 절대 용서 못할, 시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주기도문 외울 때 마다 그 시누이가 생각나서 이 구절을 외울 수가 없었대요.

우리 모두에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운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미운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해서 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도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노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 혹은 집에서 식구들을 대할 때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 미워질 때라도 다시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질 때라도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려죽이고 싶은 누군가가 눈에 뜨여도 그게 제발 신앙이고 부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소자란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그 시절에 어린 소자는 사람으로 쳐주지 않은 쓸모없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 없고 쓸모도 없는 어린 것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게 낫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목숨을 버려가면서 구원해 냈는데 그 아이를 네가 그렇게 실족시킬 수 있

느냐?’ 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면 목숨을 걸더라도 소신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 식구들, 형제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는 대체로 중대한 문제이거나 심각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별 것 아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누가 옳으냐를 따진다는 거죠. 부부싸움의 제일 많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날마다 집집마다 그렇게 싸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염려해서 싸우십니까? 그런 큰 문제로는 안 싸워요.

언젠가 조사된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답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리광을 안 받아줘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기대고 싶어서 한 마디 툭 던졌는데 안 받아주니 다른 문제에서 불거져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어른 같이 살지 말고 부부 사이는 왕 대 왕도 아니고 어른 대 어른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가지고 누가 맞느니, 틀리느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이런 저런 일, 서러운 일, 기분 나쁜 일도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해요. 목사님이 주보에 광고 한번 안 실어줬다고 빼치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 인사는 받아 주면서 누구 인사는 안 받아줬다고 그게 또 빼쳐서... 가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하다가 어떤 분이 골이 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애기다, 애기!” 싶어요. 사소한 문제가지고 기분이 나쁘거나 틀어져서 싸우거나 툭탁거리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툭탁거리다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던져서 구해내 놓은 한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자꾸 따지지 말고 어쨌든 사랑으로 품어가는 것 좀 잘못된 것 있어도 사랑으로 품어가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 와서 들은 말 중에 “서울 시민이 되기는 쉬워요. 그런데 서울 시민답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닥거리는 서울에서 모양새 좋게 사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 동네를 보면 아이들 퍼즐 짜 맞추듯이 어떻게 저렇게 좁은 땅에 집을 오밀조밀 잘 지어서 살고 있는지 신기해요. 뽁뽁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서울 시민답게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서울 시민 되는 것은 참 쉬워요. 동사무소 가서 한 장 쓰고 도장 찍으면 서울시민 돼요. 서울 시민답게 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너무 쉬워요. 서울시민 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동 사무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다 해 놓으셨으니 “믿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서울 시민이 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이걸 서울 시민답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내 성질대로 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니, 내 기분 내 성질을 죽여 가면서 사랑으로 보듬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먹어도 되는 고기를 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할까 싶어서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등부를 처음 맡아 창세기부터 죽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와 열매를 먹게 했고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이 뭐죠? 하니까 “채소와 열매요!” 잘 알아요.

‘집에서 채소 안 먹는 녀석 손들어’ 하니까 제법 손들어요. 누가 먹으라고 했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으니 다음부터 채소 먹을 사람은 손 내려 했더니 다 내려했는데 한 녀석이 안 내리고 딱 버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채소를 안 먹겠다’는 재는 뭐야?’ 했더니 저쪽에 있던 한 아이가 “짐승요!” 하는 바람에 웃느라고 난리가 났죠. 당장 먹지는 않겠지만 뭔가 생각하는 게 있기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니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니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연약한 형제를 돌보는 것은 서울 시

민답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너무 쉽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바른 말을 해야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는 바른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 사람을 잡는답니다. 그래서 맞는 말보다 더 소중한 것은 형제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말입니다. 가끔 어떤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냥 맹목적이고 무식해요. 그런데도 그런 무식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똑똑하고 예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야. 이런 말. 아니, 그런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깥에서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더라.'는 말이 돌아야 합니다. 새신자가 찾아오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 왔을 때 "아, 따뜻하고 사랑 많은 교회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부자 청년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13~22]

요즈음 입학시험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입니다. 취업에 성공한다는 것이 어쩌면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사 원서를 100장 정도는 쓸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 100장정도 쓰면 그 중에 '한 번 와 봐라'는 게 10장정도 된답니다. 그 쯤 돼야 그 중에 1, 2 군데 취업이 된다고 그래요. 원서 쓰는데 "자소서" 라길래 "그게 뭐야?" 했더니 '자기소개서' 랍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서점에 책이 다 나와 있어요. 회사마다 자기소개서 쓰는 게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취업원서 한 번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답니다. 이걸 100통씩 쓸 작정을 하면 혼자서 감당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 동호회를 만들어서 회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공유하면서 그 회사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소개서를 쓰곤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저 원서 몇 장 내보고 여기저기 한두 번 찢어 보았다가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취업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취업전쟁이라고 할 만큼 어렵고 어렵답니다.

취업도 이런데, 만약에 천국에 입한 시험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과목을 시험 치시고 어떻게 채점을 할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천국을 시험 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검사를 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두 본문을 본 것은 이 두 사람, 앞에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이고 뒤에는 부자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우리가 대충 읽어본 바에 의하면 어린 아이가 유리해 보여요.

본문의 어린아이는 아무 능력도 없는, 본인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가 천국엘 들어가는데 반해서 부자 청년, 예나 지금이나 돈 많다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이 돈 많은 청년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천국에 입학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유리할지, 또 왜 그럴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과목과 채점하는 기준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음대나 체대 같은 경우에 실기 과목을 모르고 열심히 연습했다면 시험 치나 마나예요. 드문 일이지는 하지만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이 미대나 약대, 의대에 원서를 낸다? 내나 마나입니다. 색맹이나 색약은 원서 낼 때 잘 살펴야 합니다. 원서 낼만한 곳의 절반 정도는 내나 마나 떨어집니다. 이 땅의 시험도 이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고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인격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훈육하고 가르치고 잘 다듬어서 하나의 사람으로 완성해야 하는 미완성된 존재로 여겼죠. 그나마 유대에서는 나아요.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 병약하면 제대로 키우지 않았습니니다. 버렸습니니다. 강한 놈들만 키웠습니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나 사람대접을 해 주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천대받는 것을 보다 못해 어린아

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주자고 고안해 낸 말이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 자는 높임말이었어요. 어린사람인데 조금 높여준 말이 ‘어린이’죠. 이것은 방정환 선생님이 연구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 말이 있기 전에 어린 아이들은 그냥 ‘애들이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옛날 약장수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와서 시끄럽게 굴고 있다. 이런 개념이 어른들의 개념이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가끔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어떨 때는 무능력하고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를 숫자에 넣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전도 해오면 시상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더라고요. 예배시간에 아이들은 전부 다른 곳에 놀게 하고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아무리 어렵도 하나님을 섬기는 독립된 인격체, 완성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마는 지금도 이게 어려운데 옛날에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15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해요. 15절의 ‘받들지’는 번역상의 실수입니다. 이 ‘받들지’라는 말은 ‘받아들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요즈음은 워낙 영악해진 시대가 돼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비판 없이,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생각할 것은 생각해 가면서 들어야 되지, 어떻게 생각도 안하고 따지지도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이나? 이런 반발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따지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예” 하는 것이 잘 할 때가 참 많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 정신인가, 아닌가?’ 이것 따지면서 “예” 해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이면 따지지 않고 그냥 “예”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물어 보세요. 말이 맞으면 “예” 하고 말이 안 맞으면 순종 안 합니다. 아니, ‘말이 그럴듯해야 “예” 하죠.’ 그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부모의 말씀에 “예” 하는 아이가 예뻐합니다.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따져 보고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따져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예” 하는 것이 부모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예뻐 보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설령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라면 일단 “예” 하고 보는 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부모님과 자식사이에도 그러하고 선생님과 제자사이에도 그러할 것 같으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하시면 우리는 토 달지 말고 생각할 것 없이 “예”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능력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따지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예”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그 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디서 어떻게 오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만 말씀하세요. 자,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고 그 다음으로 넘어 가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된다.' 하고 거부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믿을래? 말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너 믿어야 된다고 사정사정하시겠어요? 자기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셔요.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모세가 생각하기에 '당신, 하나님 맞거나 맞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해 낸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정말 해 낼 수 있다는 증거라도 하나 보여 주세요.'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셔요. "가라. 내가 분명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치고는 참 이상해요. 증거라고 하면 태산이 쪼개질 만한 이적을 보여줘야 '아, 하나님 맞는가보다.' 이럴 터인데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가보라는 거예요. '너 결국은 내 백성 이끌고 다시 여기 오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하고는 달라요.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엄마, 진짜 날 낳은 엄마 맞아?" 이럴 때 엄마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자료를 동원하면 이상하잖아요? 빙긋이 한 마디 합니다. "자라나 보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에 참 하나님다운 방법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나큰 간격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나라에 갈 수 있다. 믿을래? 말래? 이러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치가 맞지. 이유 없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 없이 믿으라는 거죠.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 과목이고 채점방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얼 요구하셔야 그럴듯하겠는가?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시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뭔가를 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너무 격차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 이 말 믿겠느냐?" "예." 그럼 그것으로 끝낸다는 것이죠. 이래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면과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그 밑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참 귀한 청년입니다. 제일 좋은 점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부자라는 점이래요. 예나 지금이나 부자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다 지켰대요. 어릴 때부터! 부자집 아들이 착실하기까지 하면? 참 드문 일이잖아요. 착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참 신앙도 좋은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한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렇게 착하게 큰 청년도 많지 않아요. 더구나 부자집에서? 이런 청년이 만약에 우리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쳐 보세요. 당장에 소문이 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청년이냐 말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사람들 중에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질문 같지 않은, 되지도 않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청년의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재미있어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죽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물은 이 계명이 십계명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십계명의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십계명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다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머지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바탕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습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실 것이고 그만하면 됐다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것, 이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부심을 가지고고 대답 할 수 있는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됐다! 싶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계명을 잘 지켰다고 답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청년의 자부심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늘로 꼭 찌르는 말씀을 하나 던집니다. 그대로 터져 버리는 거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이 자신감에 부풀어 올랐던 거기에 딱 하나 걸리는 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치명타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곧 재물이었던 말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풀어 올랐던 자부심, 자만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지나갑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까? 재산을 지니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이 구절 하나만 보면서 이 거 집을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닐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성경 한 구절이나 한 소절을 가지고 답을 내려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전체가 뭐라고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그 복이 은, 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재물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갖다 버려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재물을 갖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하는데 종은 안 되던데요? 사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돈의 종이 되어서 돈에 끌려가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나아요.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에 잘 쓰려면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새 무덤을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좋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벌고 아끼고 저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찢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저런 부자가? 저렇게 잘 살아온 청년이 천국에 못 가게 되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 말에 제자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희망이 생겼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많이 버렸는데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만하면 됐죠?” 그런 얘기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럴 때 가끔은 ‘이만하면 됐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 것 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 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더 잘하는 것은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됐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1절을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 마디로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라. 잘 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참 쉬워요. 정말 쉬워요!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방심하고 너무 함부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 천국은 그런 곳이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사흘이 지나도록 엄마 젖을 안 빨다면 큰일입니다. 우리 서 목사님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애기가 엄마 젖을 안 빠니까요. 그래서 근대 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갔답니다. 링거를 놔야 된다는 거죠. 태어났으면 빨고 먹고 싸고 고함지르고 이러면서 자라야 되는데 자랄 생각은 안 하고 이만하면 됐죠? 하는 순간에 그건 위험하다. 예수님께서 그런 충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 취업 공고가 났습니다. 월급 한 달에 400만원, 할 일 없음, 와서 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원서 한 번 내 볼랍니까? 말랍니까? 내는 사람이 바보죠. 누가 낼까요?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많아요. 원서 낼 사람이 많아요. 저 위의 5층(발달장애인 학교가 있음)에서 원서 낼 가능성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낼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보다 더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월급 400만원 준다. 와서 놀아라.’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그 말을 받아 들여라. 이유 없이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잘 빠져듭니다. 심지어 집을 바쳐라, 헌신해라, 너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오히려 이 말이 솔깃해 보여요.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어딘가 사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탐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보다 늦게 교회를 찾아온 초신자들, 우리보다 뭔가 하는 짓이 서툰 저 정신 나간 형제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깨달아야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치도 없는 이런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어린 아이예요. 나 혼자서 뭔가 좀 이룰 만하고 뭔가 좀 될 만한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어린 아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이런 우리를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잡케 된 최고의 선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세기 11:1~9]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막힌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오묘한 선물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막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흔하다 싶은 ‘물’ 있죠? 모를 때는 ‘아, 물 좋은 거지.’ 이러지만 물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지 알고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모든 물체는 기온이 낮아지면 부피가 줄니다. 유일하게 물은 기온이 낮아지면 부피가 줄다가 4°C 이하에는 다시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딱딱한 얼음이 물보다 가볍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가령, 얼음이 물보다 무겁다면 날이 추워지면 강바닥부터 얼어붙습니다. 무거운 얼음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부터 얼어서 올라오거든요. 이러면 강 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음이 가벼우니 강물이 위에서부터 어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얼다보니 강 밑에 있는 생물들이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막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공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질소 78% 산소 21% 합치면 99%예요. 나머지 1%의 다른 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왜 자연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태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게 뿜아내서 쓰고 있는지... 그럼에도 큰 변동은 없는데 약간의 변동 때문에 지금 기후가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는데 너무 흔한 것이고 편한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막히게 놀라운 선물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인지 알면 알수록 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 살아있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감격 없이 사는 거죠.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쓰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말, 언어가 있습니다. 아마 설교가 좀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많이 망설이다가 한 번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깨달으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말을 만든 분이 누구죠? 아이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데 세종대왕이랍니다. 아니예요. 세종대왕이 만약 우리말을 만들었다면 세종대왕 이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안 했나요? 그럴리가 없잖아요. 말은 본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한 일은 그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 거죠.

말이 중요해요?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해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비하면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글자를 만들어 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세종대왕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말은 있는데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세종대왕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는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글을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말을 주신 그 분에게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난 번 소치 올림픽이 있었으니 러시아 글자 좀 보셨죠? 러시아 글자가 영어하고 닮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 글자하고 닮았어요? 어떤 것은 영어 글자 같긴 한데 뒤집어 놓은 글자로 보이시죠? 원래 러시아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옛날 선교사들이 그 쪽으로 선교하러 가서 문자가 없는 그 나라에 문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당시에 그들이 쓰고 있던 그리스 글자를 이용해서 만들다가 필요하면 뒤집어서 만들어 줬어요. 헛갈리지 않도록! 지금의 러시아나 그 쪽 나라의 글자들은 그리스 글자 대문자를 빌린 겁니다. 지금까지 글자가 없는 민족이 참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직도 많습시다.

요즈음은 한국 사람들이 글자 없는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글자를 이용해서 그 나라 말을 표기하는 법을 만들어 주곤 합니다. 몇 해 전인가? 그런 시도를 해 가지고 성공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기록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자를 빌려서 기록하곤 했습니다.

유명한 것이 신라시대 ‘향가’ 있죠. 한자로 적혀 있어요. 한자로 적혀 있는데 그걸 한자 잘 아는 사람보고 해석해 보라고 하면 해석이 안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글자는 한자인데 소리는 한국말이에요. 비슷한 예가 ‘콩글리시’란 말 들어보셨죠? 코리아하고 잉글리시하고 짝뿔을 해 놓은 것인데 이 콩글리시는 한글도 알고 영어도 아는 사람이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한국말 모르는 미국 사람이 이 콩글리시를 읽으면 도대체 해석이 안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dog table*이 무슨 뜻이죠? 미국사람에게 물으면 해석이 안돼요. 여러분은 해석이 되나요? 유명한 콩글리시입니다. ‘개판’이죠.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이걸 읽고 뜻을 알아챌 수 있나요? 아니요! 빌려오기는 영어 글자를 빌려왔지만 그 뜻이나 말이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글자가 없을 때 한국 사람들은 중국 글자를 빌려 썼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가령 외국의 유명한 사람이 와서 연설을 할 때에 원고를 펴 놓고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분의 원고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An-nyoung ha-se-yo?*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써놓고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겁니다.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 이전에 이미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말이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사물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저 밖에 있는 나무를 보고, 누가 이런 것을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오늘 낮에 누구를 만나서 점심을 한 끼 얻어먹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전말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도 없고 내가 먹은 음식의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오늘 낮에 누굴 만났지? 얼굴이 동그랗고 머리가 좀 곱슬곱슬하고 눈은 쪽 찢어졌고 그런 사람인데 그게 누구야? 설명을 얼마나 어렵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만나서 뭐했는데? 점심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을 해 보세요. 사물의 이름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안돼요. 지식의 정보나 전말이 전혀 안돼요.

우리는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러나 본래부터 사물에 이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붙였어요. 컴퓨터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없던 물건이 만들어지면 만든 사람이 이름을 붙여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요? 성경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낮이라 칭하시라 밤이라 칭하시니라.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다음에 궁창 위를 하늘이라 부르시고 궁창 아래를 땅이라 부르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물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말씀이 반복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짐승

의 이름은 아담이 붙였죠. 그런데 아담이 붙인 그 이름이 전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신 이름이에요. 만드신 그 분이 만드시기만 한 게 아니라 만드시고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선물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이 없었다면? 사물의 이름이 없었다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언어를 선물로 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좋는데 함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이것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홍수가 일어나면 하늘로 도망가자. 그래서 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 시키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땅을 흔들어 지진을 일으켜서 뭉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언어를 혼란케 해서 흩어 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홍수 때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파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혀 죽지 아니하고 일을 중지 시키는 방법을 쓰신 겁니다. 문제는 일을 중지시키시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서 언어를 혼란시켜 버린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였는가! 오늘은 이것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언어를 조작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많이 팔린 책 중에 '1984'란 책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때 유행했던 책이라서 모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1984란 책은 최소한도 알아 두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을 쓰신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물농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분이 '1984'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유명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요즈음 신문 사설에 빅 브라더란 용어가 자주 나와요. 모든 백성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가장 큰 형님이예요. 이 사람이 모든 국민들을 일일이 감독합니다. 가끔 오래된 영화에 어떤 사람이 옥을 하니까 벽에서 '빼' 하고 경고가 나오는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의 시초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이 책이 많이 팔리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80년대 초반에 북한에 198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한 사람은 보라고 선전했어요. '1984'의 내용이 북한하고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빅 브라더라는 한 사람 밑에 모든 사람이 철저히 감시받고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조지 오웰이 1984년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 둔 책이다.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었죠.

저는 그런 유혹에 잘 안 넘어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런 사람이 이 책을 봐야 합니다.' 하고 유혹하는 항목이 약 20가지쯤 있었는데 제일 밑에 '언어의 조작을 통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언어학도라면 한 번 읽어보세요.'라는 구절에 끌린 겁니다. 주인공은 빅 브라더가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통치 이념에 어긋나는 모든 단어를 모든 문헌에서 삭제하는 일이 임무예요. 단어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사람의 머릿속에 사상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빅 브라더가 모든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뜻과 다른 단어가 있으면 모든 문헌에서 삭제하고 못 쓰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것이 가장 초보적으로 언어를 조작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보적인 방법이죠. 초보적인 방법이지만 언어 조작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소설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이 소설입니다. 이 분이 이 작품을 쓴 것이 1948년이었어요. 48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하나 썼는데 48년에 썼으니까 끝자리 두 자를 뒤집은 게 '1984'예요. 한국에서는 1984년에 저 북한 땅에서 무슨 일이 날까? 그게 관심 있다고 해서 책이 많이 팔렸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최고의 극작가가 머릿속에 겨우 생각해 낸 게 '아, 이렇게 언어의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겨우 해 냈는데 어떻게 해서 3000년도 더 된 창세기에 말이죠, 언어를 혼란시킴으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 이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하면 옛날부터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유지가 안돼요. 항상 분열되고 쪼개져 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앗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 모든 나라가 하나의 언어를 쓴 게 아니예요. 아무리 하나의 언어를 쓰라고 해도 통합이 안돼요. 지방마다 부족마다 말이 다 달라요. 이러니 힘으로 점령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중앙의 힘이 조금만 약해지면 언어별로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흩어버리는 것이었으니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었던 거죠.

쿠르드족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터키 땅에 있고 일부는 이란에 있고 일부는 이라크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터키 사람이 안 되고 이란 사람이 안 돼요. 국경 지대에 따로따로 모여 있으니 세 나라에서 각각 핍박을 받고 언젠가는 많이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땅은 없는데 문제는 자기들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있는 언어가 다르지만 살고 있는 나라에 동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다른 말로 해서 한 사람의 통제 밑에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 안 하셔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한사람 밑에 모든 인류가 통합되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린 것, 이걸 하나님의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언어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2,000년도에 통계가 나온 게 6,800개라고 나왔어요. 이게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참고로 지금 UN에 가입된 국가 수가 몇 개 인지 아세요? 이게 늘 달라지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약 200개 안팎 정도 될 걸요. 그런데 언어가 6,800개라는 말은 너무너무 많은 언어가 이 땅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언어라는 것이 진화하듯이 한 언어에서 갈라져 나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갈라져 나갔으면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통합을 하려면 통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언어는 절대로 통합이 안 됩니다. 제가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말 몇 가지만 생각해도 언어는 너무너무 꼬여 있어서 아무리 갖다 붙여봐도 하나가 안돼요. 하나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배배 꼬아 놓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영어 배우려면 참 힘들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말 배우기는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 유명한 선교사가 교회에 임직식 할 때 가서 축하하라고 그랬더니 “예, 축하합니다. 오늘 장로 두 마리하고 집사 세 마리하고...” 이랬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앞에 투(two)장로, 쓰리(three)집사 하면 끝나요. 우리말은 집사 둘 다음에 붙는 단위가 있는데 이게 경우마다 달라요.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헷갈리기 참 쉬워요. 책은 한 권,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 집은 한 채, 말을 해야될 때는 마리도 좋지만 한 필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해야될 때 장로 한 분, 사람을 해야될 때도 위의 사람이면 한 분, 비슷한 친구사이면 한 명, 경상도 사람이면 이럴 때 한 놈이라고 해요. 친하다는 뜻이죠, 기분 나빠도 한 놈이라고 하기도 하죠. 뒤에 붙는 말이 다 달라요. 우리말을 배울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장립식에 와서 장로 두 마리, 집사 세 마리 했겠느냐 말이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있어요. 미국사람들은 입다 쓰다 이 모두가 put on 하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달라요. 시계는 찬다고 그러죠. 양말은 신는다고 그러죠. 귀걸이는 단다고 그러나요? 허리끈은 맨다고 말하죠. 리본은 꽃는다고 얘기하죠. 서양 사람들 이것 안 헷갈릴 줄 아십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양말 맨다, 허리끈 신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안 헷갈립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간단한데.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전 옛날에 영어 공부하면서 신경질 난 것 중에 동사의 시제, 우리말처럼 한다, 했다, 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웬 변화가 그렇게 많아요? 3단 변화, 옛날에 외운다고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얼마나 알미운지 아세요? 잘 안 쓰는 동사들은 대체로 규칙으로 변해요. 그런데 많이 쓰는 동사일수록 불규칙하게 변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Be동사 보세요. 불규칙하게 변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배우는 우리들에게는 일부러 애

를 먹이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어가 섞여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일부터 배배 꼬아놓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영어하고 한국어 하고 섞여 가지고 나중에 제 3의 언어가 나올까요? 아니면 끝까지 둘이 안 섞일까요? 절대로 안 섞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산 한국 사람이 있거든 한번 보세요.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이상한 말을 쓰는가? 아니면 한국말을 쓰는가? 안 섞여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영어 쓴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에 수십 년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하고만 사니까요. 영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섞여서 하나가 되지 않도록, 절대 안 섞이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꼬아 놔서요. 안 섞여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장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장치는 평생 갑니다만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은 보통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13살까지만 살아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13살 이전의 아이들은 어디에 갖다 놓든지 무슨 언어든지 다 배울 수 있어요. 한국에 갖다 놓으면 한국말 쓰고, 미국에 갖다 놓으면 영어 배우고, 심지어 집안에 여러 말을 같이 쓰도록 하는 환경에 넣어 놓으면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배워요. 세 개도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에 이미 3개국, 4개국 언어가 능통한 아이들이 여럿 있어요.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 여기저기 다녔던 아이들 있죠? 여러 나라 말을 한꺼번에 다 해요. 13살 이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지나면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려면 죽으라고 외워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우고 외워도 잘 안돼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 말을 할까요? 혼자 가만히 놔두면 그 아이는 어느 나라 말을 할까요? 정답은 말 못해요! 못 배웠으니까요. 말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입안에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혀입니다. 혀가 만약에 조금 짧아지면? 아니, 사고로 없어지거나 잘리면 말을 못합니다. 혀가 말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이빨이 혹 한두 개 빠지면 말이 샌다고 하잖아요. 이빨도 말하는 데에 중요한 장치입니다. 입술, 이빨, 그 다음 이빨 뒤의 딱딱한 부분 치경이라고 그래요. 그 뒤의 연구개, 이거 전부 말하는 기관이에요.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말이 아주 달라져요. 어떤 특정한 지방의 사람들이 특정한 발음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눈곱만큼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발음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 외에는 그런 동물이 없어요. 가끔 동물들이 사람 흉내 내고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흉내 낼 뿐이지 그게 말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관을 준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줬더니 잘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썼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훌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안 합쳐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해조.

우리가 천국가면 어느 나라 말을 쓰게 될까요? 천국 가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쓰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 쓰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쓸데없이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다.” 이랬더니 천국언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에 언어 연수를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언어 전문 연수 대학이 천안에 있는 선문대학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 위대하신(?) 문선명 총재께서 그렇게 가르쳐 놔더니 천국 언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 이걸 참 고맙다고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럽게 만들어 놔서요.

천국 언어를 새삼스럽게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탑 시절에 하나님께서 혼으셨던 그 언어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상태로 통합시켜 주실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안돼요.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자기 나라말로 했어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방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귀에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이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하게 되었던 언어가 나중에 다시 완전히 통합되는 특별한 예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무슨 말을 하면 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대로 다 회복될 거니까

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마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물의 이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에게는 고민거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인데 이게 고민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헬렌 켈러 아시죠? 어릴 때부터 눈멀고, 귀먹고,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한 분 불어서 이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가 안 되냐고 하니까?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샘가에 앉아서 손에다 물을 흘려요. 그런 다음에 손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글자를 쓰는데 *water*겠조? 그런데 헬렌 켈러가 보기에 이상한 짓이에요. 손에 물을 흘리고는 손바닥에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아, 내 손에 흐르는 이상한 액체와 선생님이 지금 내 손바닥에 이상한 표시를 하는 것 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겨우 되니까 다음에 나무를 만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바닥에 조금 다른 동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쓰면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쓰면 이걸 의미하는 거다.' 이제 겨우 두 개 알게 된 거예요. 헬렌 켈러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사물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가 쓰는 이 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감동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 말이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듯해요. 야고보는 우리의 허를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조그마한 키와 같다고 했어요. 이 허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거대한 배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 쓰면 허는 불이래요.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잘못 쓰면 지옥불과 같다고까지 말했어요.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높은 분들 중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본인도 그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말 잘못해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기도 합니다.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말 한 마디가 내 형제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정말 귀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정말 말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잘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우리 사람끼리도 소통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주신 것이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잘못 쓰면 독약이 되는 것도 더러 있잖아요. 아편은 굉장히 나쁜 것이죠? 그런데 모르핀이라고 하면? 고통스러워할 때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이 모르핀 한방이면 그 고통을 다 잊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아편이라고 하면? 모르핀이나 아편이나 같은 말이에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감사하면서 잘 쓰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좋은 말만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좋은 말만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7-12]

한국 사람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화수 떠 놓고 날마다 기도했죠. 해 보고도 기도하고, 달 보고도 합니다. 정성을 다 하면 천지신명께서 감동을 받고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성을 다 하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천지신명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은 천지신명, 혹은 일월성신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비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기도를 이루어만 준다면 그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조상들이 가졌던 이런 유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11절 중간쯤에 이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누가 들으시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분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죠. 그 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분에 맞추어야 우리의 열심이 효과를 내는 거죠. 그 분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소용없는 짓이에요. 구하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 떠올라요. 그 때는 왜 그랬는지 ‘제 정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돈 없다고 하면 군소리 안 하고 갔어요. 학교 가서 쫓겨나면 쫓겨났죠. 그래도 집에 와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날은 무슨 일인지 이 돈은 가져가야 된다고 내 놓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세들어 살고 있던 집 마당에 공사판에 쓰는 철판이 몇 장 팔려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비행기 활주로 막는데 쓰이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 장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돈 내 놓으라고 쿵쿵 거리면 소리가 많이 나요. 어머니가 쫓아 나와서 “없다 하는데!” 하면 도망갔다가 방에 들어가시면 또 올라가서 막 쿵팡거리려 대는 거죠. 계속 그러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 착한 애가 오늘 왜 저러노?” 하고 찾아 왔어요.

능력이 없는 어머니에게 돈 내 놓으라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날은 주인집 아주머니가 돈을 쥐서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능력 없는 부모에게는 내 놓으라고 아무리 구해도 안 나오는 법이에요. 평소엔 안 그러는데 유난히 그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무얼? 하나는 확실히 배웠으니깐요.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법이란 것을 배웠죠.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신에게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 엘리야와 대결한 바알 선지자를 있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400명이! 그것도 나중에는 온 몸을 그어가면서도 맹렬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능력 없는 신에게 아무리 때거리로 물려가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 있는 그 분에게, 엘리야는 말이 많이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 주옵소서!” 이 한 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느냐는 것

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 분에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덮어놓고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하라, 그 다음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전 옛날부터 소풍가서 보물찾기하면 잘 안 찾아져요. 재주가 없는지 공짜는 바라지 말고 살라는 건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보물이 찾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바보가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보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만 있다고 가르쳐 주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녀석이 그걸 안 듣고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선생님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서 제 혼자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나와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서 찾아야지, 없는데서 열심히 찾아봐야 안 나오죠. 보물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두드리라고 그랬죠? 옛날 우리 집에 옆집의 부인이 맨발로 뛰어왔어요. 그래서 숨겨 줬어요. 한참 후에 살금살금 나가보니 아파트 1층인데 그 집에서 연기가 풀풀 나고 있었어요. 불이 난 줄 알았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부부 싸움을 해서 이 부인은 우리 집에 도망을 왔고 남편은 불 꺼 놓은 채 나가 버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밖에서 가스를 잠겼어요. 그래도 창문에서 연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소방서에서 와서 문을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깐 남편이 술에 떡이 돼서 널부러져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펄펄 연기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두드리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두드리면 뭐해요? 아니, 사람이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널부러져 있을 때는 두드리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두드리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어줄 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에 응답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11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분을 염두에 두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 분'이 더 중요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초만 되면 소원을 빌겠다고 바닷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물론 놀이삼아 가는 분도 거의 태반이지만, 반은 놀이, 반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답니까? 할매바위 있죠? 소원을 빌면 애기를 낳게 해준다는 바위 말입니다. "미안하다, 열심은 참 대단한데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말이야..." 이 정도 말이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이 말 한 마디도 해줄 수 없는 바위에게 열심을 다해서 비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이죠.

기도는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입학시험 칠 때 마다 교문에 엮이 얼마나 붙는지 몰라요. 시험 칠 때 왜 그렇게 대문에다가 엮을 붙여놔요? 엮이 달라붙듯이 붙으라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엮을 붙이면 입학시험에 붙는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직업 다 바꾸죠. 전부 엮장수로요. 이게 슬금슬금 발달하더니 입학시험 칠 때만 되면 이런 진득진득한 것들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엮에서 한 발짝 나가서 찹쌀떡, 찹쌀떡을 돌려요. 찹쌀떡이 그렇게 잘 붙나요?

그러더니 입시철 되면 유행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포크를 선물로 잘 줘요. 뭐하라고요? 잘 찍으라고. 거울도 선물로 줘요. 왜요? 잘 보라고.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로 줘요. 잘 풀라고. 그 선물 중에 하이라이트, 제가 보기에 우습기도 해요. 카스테라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됐어요. 카스테라는 왜 돌리냐? 했더니 가서 되라고요. 어느 카스테라 장사꾼이 궁리를 했겠죠. 가막히는 상술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런다고 붙을 것 같으면? 택도 없는 노력이라는 거죠.

옛날부터 믿는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미역국 먹고 가면 떨어지냐? 그냥 미역이 미끌미끌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미신은 우리가 앞장서서 타파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번 시험 치러 갈 때 전부 미역국 먹어. 그리고 붙어!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염두에 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팔공산에는 아주 영험한 부처님이 계셔요. '갯바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입학 원서 다 써 놓고 선생님들이 단체로 가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갯바

위까지 다녀왔단다' 하면서 학부형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 입학 성적이 좋으면 선생님들이 저런 노력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됐다고 말하면 하다못해 땀고물이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놀이점 학부형들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밀쳐야 본전이니까 가자는 겁니다!

혹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 주시면 손해 볼 것도 없고. 우리 기도가 그런 식의 기도가 된다면 이것은 기도 중에 가장 나쁜 기도입니다. 갓바위 부처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는 우리 기도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도가 이런 식이라면 정말 나쁜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시켰더니 하나님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는 놈은 기도시키지 싫더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번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란 고백 한 번 없이 열심히 좋은 말 다하면 뭐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전제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9절에서 11절이 참 잘 보여 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던데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분은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들어 주실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도 모른 채 대 놓고 내 욕심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안 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철없이 기도할 때는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죠.

우리가 요구한대로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아이를 망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아이가 살이 너무너무 탱탱한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톡 건드리면 죽는다고 난리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살이 워낙 부풀어 있어서 건드리면 본인은 찢어질듯이 따갑대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애가 달라는 데로 다 먹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즈음은 좀 잠잠한 듯 같습니다만 옛날에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식들이 해 달라는 것 돈으로 다 때워 줬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소위 오렌지족이잖아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이를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분들에게 자기가 원래 기도했던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셨어요.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이 없던 한나가 소원한 것은 아들 하나였어요. '정말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나요? 너무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어떤 아들 주셨나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민족에게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아픔의 역사를 깨끗이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걸 단순하게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아주 아주 위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위대한 아들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달라고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 수 있는 멋진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후에 물론 다른 아들도 더 졌습니다만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었던 것은 처음 자기가 예상하고 구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복을 주셨더라는 얘 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 혜를 달라고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다 주셨어요. 야곱도 보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진 짜 작은 거였어요. 제가 가는 이 길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해 주셨나요? 먹는 것, 입는 것? 아니오, 대 가족을 주셨어요! 자기 아 버지, 할아버지는 감히 꿈도 못 꾸었던 어마어마한 가족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주셨잖아요. 야곱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것을 꿈 꿔어요. 예수님께서 왕 이 되시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하다못해 그 밑의 장관 한 자리, 이러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 꿈이 완전히 깨어졌죠? 그런데 먼 훗날 우리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비교하겠어요?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과 소원했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 복음에 있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 물로 주신다고 해요.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주시는 분이예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 으로 갚아 주셔요.

12절 보십시오. 약간 이상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기도에 대해서 죽 해오셨는데 12절은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남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고 싶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 데려가서 밥 실컷 먹여놓고 ‘돈 내라’ 하면 체통이 안 쓰는 거예 요. 자기가 먼저 대접을 해야 상사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사이에서도 자기가 먼저 대접 을 해 줘야 받는 것 아니냐? 이게 꼭 사람의 얘기 같은데 앞의 것과 연결시켜보면 그러므로 너희 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무슨 맛있는 거 사 주겠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끝에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그러죠. 율법이라는 의미는 모세 5 경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니라’ 그랬죠? ‘선지자들이 써 준 책’이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이 표 현이 보이면 ‘아, 이권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얘 기죠.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힘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 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방법을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부모로 인정하나 요? 어떤 집에 여우같은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부인이 남편을 보고 “여보, 여보! 저 여우 조심해. 오늘 아침 수상해.” 왜요?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나가서 구두 닦아 놓고 정리정돈 해 놓

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눈치를 채고 “저, 여우 조심해.” 했는데 출근하는 아빠한테 온갖 서비스를 다 하더니 마지막에 “아빠, 나 옷 하나 사줘.”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카드를 주면서 “마음대로 써.” 그러고 갔어요.

옆에서 여우 조심하라고 충고를 해도 그냥 카드 줬는데 애가 옷 한 벌만 산 게 아니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굶고 왔대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내가 아침에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저런 여우같으면 다 주고도 좋아.” 이런 딸이 있으면 집안이 참 행복한데 요즈음은 이런 딸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려고 카드 빼앗아 쓰고 오는 것. 이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 른데 가서 그런 짓 안할 것 아니예요?

자식들이 참 염치가 없어요. 용돈 줬는데도 돈만 떨어지면 “아빠, 뭐 없어?” 이래서 또 뺏어가요. 그래서 용돈 추가로 뜯어가죠, 먹고 싶은 것 있다고 “한 번 밖에 안 나가나?” 하죠. “눌러 한 번씩 가야 하는데 아빠, 뭐 하는 거야?” 합니다. 자꾸 그러다가 한 번씩 쥐어 박히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곳곳하게 뜯어 갑니다. 이게 자식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거 왜 쥐어 박혀 가면서도 곳곳하게 뜯어가고 그러나요?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아버지는 자식들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뜯어가고 그래도 즐겁게 뜯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예의범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태도 없는 고집을 부리는데도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철없는 아이가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교인이 너무 많아요.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새벽 기도고 철야 기도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입시철 되면 기도 인원이 많이 늘었다가 시험 끝나면 줄어요. 이런 교인들은 대체로 아이들 같은 교인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려면 기도 하지마라.’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래도 안 하는 것 보다는 분명히 나아요. 답답해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애들이 그런다고 다 큰 놈들이 따라하면 한 대 맞는 수도 있죠. 아이들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이런 방식인데 다 큰 자녀들은 조금 달라지죠. 큰 아이들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부모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면 우리 중심이 아니라 어떤 경우여라도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아니 들어 주셔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시는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참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하셨죠?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남편이 분명히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고로 죽었든 어쨌든 간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 부인이 의연하게 찬송하면서 남편이 다 하지 못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성숙한 자녀가 아니고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인정하니까 아버지 뜻이 있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이 있음을 믿고 감당해 내는 거죠.

다윗이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하시니 애가 병이 들었어요. 1주일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툭 툭 털고 일어나서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옆의 신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저렇게 울며불며 매달렸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자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툭 툭 털고 일어나서 밥 먹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아이를 살려 주실까?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 이 아이를 데려갔으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는데

내가 거기서 더 이상 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것,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려도 되는 하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꼭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에 요술 램프 이야기 있죠? 도움이 필요할 때 램프를 문지르면 종 하나가 평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데요, 하나님 나오셔서 저 좀 도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거나 않는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종처럼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지나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판기는 넣고 누르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넣고 눌렀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나?” 이러면서 발로 차는 놈도 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 주십니까?” 이라고 하나님을 발로 차듯이 대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참 절없는 분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부려도 되는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찬송은 성숙된 자녀가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 찬송, 나쁘다고 하더라.” 그렇게 전하지 마세요. 이 복음송을 불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이라고는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왔더니 일으켜 세워놓고 이걸 부르더라.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정말 놀라운 충격입니다.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러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 있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가 어리다면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초신자들에게 어울려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찬송이 어울려요?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분, 아버지로 모시고 돌봐야 할 그 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찬송만 즐겨 부른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 해도 순종하고, 바울처럼 “왜 이거 안 고쳐 주십니까?” 했을 때 “됐다, 그만 해라.” 했을 때 그 기도 그만 둘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분이 나빠도 순종하고, 이것이 성숙된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라는 뜻이죠.

움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잘 갔던 그 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도 자녀로 대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대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말함이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요한복음 11:45~53]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만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 적군이 있습니다. 총을 쏘는데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아요. 맞은 티만 내고 계속 공격을 해온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면 항복하든지!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은 시작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을 죽이려고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덤비는 사람이 바보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어요. 믿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거부하는 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버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일러바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깐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믿음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표적으로 이해했어요. 47절을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표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표적으로 알았다는 뜻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이 틀림 없다면, 이대로 뒀다가는 큰 일 나겠다 싶어서,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고 인정을 하고도 다른 이유,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오늘 현실을 보면 그것도 가능하겠단 싶어요.

오래토록 설교한 사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귀한 직분 맡아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 같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이 죄가 소위 ‘성령휘방죄’예요.

믿기 싫으면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지, 뭐가 또 문제냐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예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면 틀림없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할 것이고,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이지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위를 누리고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 예수 때문에 로마와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말은 땅과 민족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염려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 당시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가야바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9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마디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런 얘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한 사람만 죽여 버리면 될 일인데, 뭐 걱정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를 죽여 버리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만 죽이면 될 것 아니냐, 뭐 걱정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 명예, 지위 이것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누리려고 하는 이 나라와,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지위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억만금이라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나라는 겨우 푼돈 얼마에 지나지 않는 것일텐데 이 푼돈 몇 푼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성경에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몇몇 나옵시다만 대제사장 가야바, 참 잔머리 중에 잔머리 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흔들릴 때에, 이왕 넘어가는 나라라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다가 자기는 부귀를 조금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매국노 소리 들잖아요. 이 때 줄 한번 잘못 서면 정말 바보가 되는 건데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들의 지위, 그 조그마한 알량한 지위 지키느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정을 내립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참 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그러지 않아도 독생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모든 내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데 가야바 네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51절을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라고 말하죠.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만 죽여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 자기 스스로 한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예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자기 스스로 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나요? 가야바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응, 맞아. 대제사장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51절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대제사장은 자기 욕심 때문에 악한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하려는 일을 잘 알고 대제사장이 내가 할 말을 대신해 주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일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예요.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교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되도록 그렇게 대신 말을 해준 그 대제사장에게 얼마나 많은 상급을 주나요?

대제사장은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줄 알았던 그 예수를 아주 화려하게 부활시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세워 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 대제사장은 악한 의도로 한 말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악한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죠, 죽을죄를 지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용감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합니다. 그 비명 속에 대제사장 가야바도 포함되어야 되겠고 여기의 바리새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너그러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 거예요.

평강공주 있죠? 울보! 어릴 때 얼마나 울었든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 버린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시집을 갈 즈음에 좋은데 시집을 보내려니 이 공주가 ‘임금님이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전 평생에 바보 온달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바보 온달을 남편으로 이미 결정했으니 그리 아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임금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 운다고 했던 소린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진담이었어요? 농담이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얘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정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한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귀금속, 보석을 많이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바보 온달 찾으려요.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혹시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담으로 한 말을 진담으로 알아듣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입장이 참 곤란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평강공주 아버지는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가야바는? ‘야, 이것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세우셨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고 했으니?’ 죽어야 되죠.

대제사장은 의도가 전혀 달랐음에도 자기말대로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대제사장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욕심대로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말이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자기가 누리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긴 세월 살고 마지막에 보니까 물론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을 해 줬어요. 결국은 장자 역할을 다 물려 받았죠? 누구 노력 때문이죠? 야곱의 노력 때문이냐 말이에요. 자기가 그 복을 다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덕분에 고생도 엄청 했는데 마지막에 뒤돌아보니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셨던 일이었던 말이에요.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누구 덕에 왕이 됐을까요? 바로가 아버지에게서 순탄하게 물려받아서 애굽의 왕이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빼앗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려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러는 거예요. 바로가 들어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칼부림을 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이 말을 할만도 해요.

바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도 준비했고 바로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뿐이죠. 야곱도 그렇고, 애굽의 바로만 그렇겠어요? 다들 몰랐지만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지만 한 때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고약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를 택하셨다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저 인간 때문에... 여러분,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 굴에 던진다' 그렇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해요. 나쁜 인간들이 숨어서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게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기도를 하면 일러바친다. 창문을 닫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창문을 닫고 기도 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열고, 해요. 왜 그래요? 평소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이 대적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노리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한 달 동안만 커튼 치면 되잖아요? 아니면 좀 낮은데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 될 텐데... 그런데 다니엘은 왜 커튼도 안 치고, 왜 창문을 여나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해코지 할 사람은 너희가 아니다. 나를 높이든지, 내리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가 하는 것 아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가 되고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것,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바로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려고 너다 세워 놔다. 이것을 빨리 터득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53절을 보세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죽은 나사로,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놓은 예수를 어떻게 죽이겠다고? 이 계획부터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참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본인 자신은 못 살리겠어요? 애당초 이런 작당은 안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죽이면 뭇해요? 또 살아날 텐데... 이런 얘기 어때요? 아이들 방 치우면 뭇해요? 치워놓으면 며칠 가요? 장난감 잔뜩 널부러진 방을 치우면 뭇해요? 저는 안 치우고 사시는 분 봤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시간도 없으려니와 치워봤자, 하루는 무슨 하루? 잠깐 뒤에 가보면 또 그 모양인데. 그래도 치워야 되나요? 치우는 게 맞긴 맞다, 그죠? 그런데 소용없을 때가 많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일곱, 여덟 다 키웠는데 요즈음 우리 아이들 겨우 하나, 둘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셋만 되니까 죽는다고 난리예요. 꿀랑, 셋 가지고 뭘? 셋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면 일곱, 여덟, 한 다섯씩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생각은 방 안 치우고, 방목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질러대는 아이들 방은 치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칼로 물을 베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칼로 물을 베면 뭇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짓은 칼로 물을 베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그 계획에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신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서 죽으신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죽으려고 본인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지,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다고 얼마나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했다. "그런데 원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시작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악한 의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도구로 잘 쓰이고 결국은 버림받는 이런 현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 안이 분명할 때는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악한 시도나, 악한 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를 향해 고약한 소리 하는 저 인간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널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너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나는

잘 모르지만 기다려 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야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힘든 일,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일이지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빨을 아마 뿌득뿌득 갈았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전혀 없어요. 형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미워해야 할 사람 있죠? 보디발의 아내!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힘없는 종이라고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놓고 감옥에 보냈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총리가 보디발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썸 봄시다.’ 하면?

중요한 것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 버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던져 놔 버렸는데도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요셉이 보고 있는 것은 어릴 때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그것만 보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그 꿈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릴 때 꿈을 주셨어요. 그것만 보고 이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냥 가요. ‘이 모든 사람들의 악한 처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예를 성경을 보면서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예가 많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내가 손대지 않겠다.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이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쓰실지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자기 원수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보면 바보짓을 많이 해요. 그렇게 특출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단 하나 하나님과 관련되면 달랐어요. 어떤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하실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이 분명하잖아. 그리고 분명히 나를 간섭하고 계시잖아.’ 이런 나를 향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 그 악한 말조차도 나를 향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실 거야.’ 이것만 믿는다면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팔 보기 싫은 사람도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뿐이잖아요.

아까 다니엘 말씀을 드렸습니만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 지금 말로 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를 최대한으로 뜨겁게 해서 거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다음 유명한 말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감동적이고 좋은데 이 개정판이 글자를 조금 바꿔놨어요. 미워요. 그래도 옛날 익숙한 표현이 좋아요. 설령 하나님께서 저 뜨거운 용광로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고, 이거잖아요.

용광로 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데도 용광로 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이 그렇게 미운 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노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악한 뜻, 악한 꾀, 그것마저도 전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을진대 누가, 어떤 놈이, 나를 보고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있죠. 믿을 건? 사람이 아니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용도 하시고 선하게 바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죠. 설령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꾀, 그리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헛된 꿈,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악한 꾀를 들어서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악한 꾀, 힘든 일, 피로운 일들이 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들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 겹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6:1-11]

자식을 위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신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게 뭡까요? 잘 살아주기만 해도 좋겠죠?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제일 마음이 상할까요? 온 정성을 다해서 공부시켰는데 애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가장 속상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잘 살지 못하더라도 부모 마음만이라도 알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딸이 “아빠 같은 사람 있으면 시집갈래.” 이러면 굉장한 감격이죠? 옛날에 우리 딸이 그랬어요. 요즈음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한 마디 했어요. “이상을 너무 높이 가지면 그게 잘 안 된단다.” “엄마 같은 사람 있으면 장가갈래.” 이것도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게 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자식들이 부모를 제일 대접 잘 하는 표현이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다 큰 자식들이 “아니, 매달 용돈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매달 용돈 드린 것을 벼슬로 알고 그걸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섭섭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플래미가 취직하고 할머니한테 매달 용돈을 조금 부쳐요. 할머니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네요. 우리는 큰돈을 드려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니 손자가 부치는 작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어느 날 손자가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앉혀놓고 “은표야, 내가 너보고 돈 더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경로당에 가면 다른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한 달에 얼마 받노?” 제가 옆에서 들으니깐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너거 손자 얼마 받노? 우리 손자 얼마 받는다.” 이게 또 무슨 벼슬인가 싶기도 해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 둘을 다 키웠거든요. 애들이 취업을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매 달 부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맛이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릴 때 자기들을 키워준 것 잊지 않고 할머니를 기억해 주는 것,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돈 때문 아니죠? 무엇 때문이죠?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이러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 때 병원에서 남긴 말 중에 지금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대요.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평생 노는 것 좋아 안 하시고 그저 아이들 손자 뒷바라지만 하시고 사셨던 분이 “지금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해.”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을까요? 손자 손녀들 크는 것, 더 보고 싶다는 뜻이지요. 사람사이에 오고 가는 것, 돈 때문이 아니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얽혀 있는 그 마음이 크고 귀한 것입니다.

부부지간이라도 이런 마음이 오고 가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안 해 준 것 뭐고?” “해 준 건 뭘데?” 이러고 싸우는 거죠. 마음이 오고 가지 않고 다른 걸로 관계를 맺고 나가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자 관계도 그렇고, 형제간도 그렇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가 긴 이야기지만 생략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멀쩡하게 살던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집 나가서 잘 살면 좋겠는데 어디 인신매매 단에 걸렸는지 어디에 팔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몸값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나가서 어디 인신매매 단에 걸려 있는 아내를 몸값을 주고 데려오는 남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데리고 와서 이런 아내에게 마음을 돌이켜 내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호세아의 이야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비유컨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떨어졌는데도 친히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 와서 “자, 지금이라도 너의 마음을 내게 줄 수 없겠느냐?” 이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이예요.

그런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하겠다고 하세요. 그 징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 2, 3절을 보세요. 이게 누구의 말인가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요?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임하시리라’에서 끝나버렸으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임하시리라 하니라’ 한 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라’가 아니고 ‘하리라’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게 느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매 맞고 징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아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죠. ‘이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 이런 말을 할 거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께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1절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야단을 쳐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면서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니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걸 알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해 질 수밖에 없어요. 아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거 간단해요. 연애 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연애 시절에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 주서 행복한 게 아니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확인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아무 것도 안 해 줘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잘 아세요? 모르세요? 안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던데요? 얼마나 아는데요? 이름만 알잖아요. (얼굴도 알아요) 아, 많이 아시네요. 그런데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저는 참 미운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때는 HOT가 유명한 시절이었어요. 하도 HOT 어찌고 저찌고 하고, 스크랩북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다니니까

제가 하도 눈꼴시러워서 가끔 한 번씩 애들을 놀리는거죠. “야, 너희들 HOT 잘 알아?” 하니까 교실이 떠나가요. 가르친 것들을 물어보면 꿀 먹은 벙어리 같은 애들이 ‘HOT 잘 아니?’ 하면 책상을 두들겨 가면서 ‘예!!!’ 이러고 있어요.

“가서 돈 좀 빌려올래?” 애들 말로 갑자기 식어 버려요. 한 녀석이 통명스럽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그 오빠들을 잘 아는데, 그 오빠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임마, 그건 아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말은 맞는데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걸 안다고 얘기하지 마. 말은 맞는데 기분은 나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럴 때 안다는 히브리말은 부부가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2절을 보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이죠. 신약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면 은근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징계 받아서 쫓겨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3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이러죠? 새벽빛 같이 어김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새벽빛 같이’란 말은 ‘반드시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앞의 ‘비와 같이’란 말은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이른 비와 같이’ 입니다. 이른 비는 우리 계절로 말한다면 겨울비와 같은 건데 우리의 겨울비와는 다릅니다. 지중해성 기후라서 우리와 반대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봄비같이 온 땅을 촉촉이 적시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찔끔찔끔이 아니고 온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놈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이놈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떤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 받고 고난 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전혀 딴 판이에요.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더 이상 무얼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해 줄 만큼 다 했음에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어요. 그 때 부모들이 잘 하는 말 있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호세아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지서에도 종종 나와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사람을 단순 피조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식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을 자식처럼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아픔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7절을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러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시동이 언제부터 걸렸느냐 하면 아담 때부터 걸렸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웬만하면 포기해 버리셔야 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이렇게 붙들고 씨름을 하고 계세요.

4절 뒤편을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인애? 어진 사랑이라는 뜻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어진 사랑. 아침 구름이 뭐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 있는 듯하지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 도대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겠죠?

5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애라는 것은 아침이슬과 같아요. 있는 등 마는 등...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빛처럼! 빛이 비치면 얼마나 강렬해요? 이스라엘의 인애는 있는 등 마는 등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아주 강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 하시면서도 또 징계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호세아 앞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뒤쪽에 있는 것만 살펴보려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단 말이지요. 길르앗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길르앗은 원래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곳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거기에 뛰어가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곳이 도피성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자를 살려 내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길르앗이 원래 그런 곳이었는데 멸절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성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는 말입니다.

9절은 더 심해요,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긴 떼강도가 나와요. 누가 떼강도 짓을 합니까? 참 희한하지만 제사장의 무리가 이러잖아요? 제사장의 무리가 떼강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갈 데 가지 간 겁니다. 꼴장을 보자는 얘기죠. 혹 나쁜 제사장이 있어서 혼자서 강도짓을 하거나 제사장 혼자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떼거리를 지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강도짓을 한다면 어디서 할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한다면 어디서 하겠어요? 학교에서 하겠죠.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한다면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겠죠. 제사장이 나쁜 짓을 한다면 어디서 하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겜 길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겜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엘로 예배하러 가는 길목이예요. 베엘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제사장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길목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다? 다 나쁜 놈들이지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막 가는 세상인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밖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서 제사를 지낸대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하는 짓을 보면, 여기 8, 9절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양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진심을 토하고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고 번제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말고 차라리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원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제사는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지사 태워서 드리는 것, 잡아서 각을 떼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표 나나?'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 돈 안 되는 것들, 소위 눈 먼 것, 다리 뻗 것, 흠 있는 것 등, 돈 안 되는 것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모양이예요.

말라기 1장 8절에 이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

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너희 총독도 이런 건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조금 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싫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진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셨죠?

새벽기도 오실 때에 세수 잘 하고 화장 잘 하고 와야 돼요? 아니면 화장 안하고 대충 쫓아와도 돼요? 잘 안 나오시나요? 새벽기도 오실 때에 목욕재개하고 그렇게 오셔야 안 돼요? 하나님 뵈러 오는데? 옛날 어릴 때, 목사님한테 야단맞은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해서 가느냐? 하물며 하나님 뵈러 오는 사람이 복장이 그게 무어냐?"고 야단을 막 치시더라고요. 답은 뻔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가면 그렇게 해서 가야해요. 왜요? 대통령은 우리의 외모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꾸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겉을 아무리 치장해도 하나님 눈에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꾸미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 꾸미는 것을 너무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오는 새벽기도를 목욕재개하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오라고 하면 못 와요.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꾸물거리다가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 세수 안하고 가도 되겠죠?' 쫓아오세요, 괜찮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습만 하나님이 보시나요? 아니오! 집에서 성질내서 신랑각시 치고 박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싸우시면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아니,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내 백성이 집안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다는 말이지? 싸우는 것만 보시지 않고 싸우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외모만 중시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진짜 마음까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마음을 담고 있는지는 웬만하면 알잖아요. 사람도 선물이랍시고 줬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기분이 나빠요. 하물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전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식들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부모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고 그렇게 실망스러울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마음 알아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쏟아 부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죽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버렸어요. '내가 말한 대로 완전히 죽이고 끝낼 수가 없다.'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연구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노라고, 그래서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물? 어찌면 필요도 없다. 마음만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내게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얘기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물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 너희는 술가락 하나만 들고 따라오라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 다 하고, 정말 말씀대로 다 살려고 노력했으면 그거 귀한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정말 별 것 아니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안 되겠어요?”

어느 분이 ‘2주에 1번씩 20년을 왔으니깐 제가 예배에 500번이나 왔는데요?’ 진짜인가 싶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500번 맞아요. 왜 2주에 한 번씩 왔을까요? 한 주 걸러 예배에 꼬박꼬박 왔어요. 그러면 예배에 안 오는 한 주는 어디에 갔을까요? 골프 치러 갔대요. 그게 그렇게 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도 500번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가서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대단할 걸요?

저도 계산하면 대단해요. 우리 담임목사님한테는 졌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거의 평생을 쉰 적 없고, 성가대 지휘, 반주 이것도 쉰 적 없이 다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대요. 막상막하이긴 한데 제가 1년 졌어요. 그러나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제물이 될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해도 마음만 있다면 담대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죠.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하게 주고 싶은데 왜 안 오니? 이것이 호세아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명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남은 생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인간이 싫다!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으로다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삭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18~32]

여러분, 멋진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강재구 소령,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시켰던 분도 있고, 주군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던 신승겸 장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즈음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침몰했던 타이타닉호의 선장 이야기입니다. 또, 영화에 나온 이야기이고 하지만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장손인 형을 따라서 동생이 군에 입대해서 “형은 살아서 돌아가야 해.” 이러면서 전쟁에서 죽는 일에 앞장섰던 동생의 이야기 등입니다. 심지어, 여러 해 됐습니다만 일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에 뛰어들어 죽으려는 사람을 구해낸 한국 유학생 이야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즈음은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그래서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뉴스 안 본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보면 욕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욕 나올 정도 같으면 욕 좀 하는 사람들은 달아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뉴스를 잘 안 보던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혹시 간밤에?’ 싶어서 잠깐, 5분 정도 보다가 나오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꽂 들어오는 생각이 ‘아, 정말 인간이 싫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어떻게 해요? 300명이 넘는 학생을 그대로 놔둔 채 승객들에게 “대피하라, 탈출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선원들이 먼저 도망을 쳐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선원들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선장이나 그 선원들만 그런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문을 자세히 잘 안 보고 제목만 보다가 (어떤 부분은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만) 세상에, 자식을 버리거나 죽게 만드는 어미, 애비들은 왜 그렇게 많나요? 오락하는데 방해 된다고 우는 세 살짜리를 입을 막아서 죽게 만든 애비가 이게 인간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 인간이 싫다!’고 해놓고도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그러했는데, 뭐.’였습니다. 꼭 그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 말을 하셨을 만한 일을 인간들이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쓰기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제가 인간이 싫다고 말해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인간 세상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온 땅을 뒤덮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정말 싫다고 그러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았어요.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민족을 전부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억지로 뜰어 말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만든 인간이지만 정말 싫다!” 저야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인간이 싫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싫다고 하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인간이 싫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자녀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더니 점점 더 악해져 가기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점점 멀어져 가더니 마지막에는 죽는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세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더라.’ 이걸로 끝내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도 하지만 큰 테두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창세기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뒤에 한 권을 더 붙여 주셨어요. 물론 그 뒤에도 많이 있지만요. 출애굽기를 바로 붙여 주셨어요. 출애굽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나 다름없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 오셔서 그 노예생활에서 구해 주세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고 했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끝내 하나님은 인도해 가세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 이거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저 뒤편은 정말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해버리거나, 다음 책으로 건너가거나 해서 출애굽기의 뒤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읽기 싫은 부분이 성막 만드는 부분입니다. 임시로 쓸 조립식 하나님의 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는 해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을 맺어요.

창세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노예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엄청난 실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령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으셨더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고 논쟁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육체가 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 줍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고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 없냐?” 해서 드렸더니 잡수시더라. 만져보니까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그런데 가실 때는 또 문을 안 여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몸이 있는데도 자유로운 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 그런 비슷한 모습 아닐까 여겨집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니 결국은 육체만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표현이 어느 정도로 나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이거 짐승이더라! 이런 느낌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범죄해서 도저히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질 낮은 육체가 되어 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노라 하시며 떠나 버렸단 말이에요. 영영 떠나셨을까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연인들이 연애를 열심히 하다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나면 그 사람의 근황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살 알아보나요, 완전히 관심 끝나요? 관심 없으세요?

완전히 관계 청산을 했다가도 몰래 몰래 살펴보고 있답니다. 왜요? '나 없이 잘 지내는가 어디 보자.' 이러거나 '알 차 놓고 도대체 어떤 인간 좋아하는가 한 번 보자.' 이렇게 살피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훨씬 못한 인간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 성질이 굉장히 난다네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손 떼신 후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안 가지셨을까요? 홍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노아를 살리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번성했지만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주셔요.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방법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간들을 뽑아 보라고 한다면 한 손에 다 꼽혀져요.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순종했던 사람은 정말 몇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을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40명입니다. 그 중에 북 이스라엘의 19명 중에 선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표준으로 삼아서 다윗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왕이 유다에 겨우 셋입니다. 나머지 왕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말을 다 못합니다.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맡겼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한 번 보세요. 이사야가 처음 메시지를 시작할 때에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고 말해요. 말이 부드러워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하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런 거잖아요. '에브라임아, 야곱아.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어쩌란 말이야?'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보세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호세아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것은 호세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생하시는 것이 성경전체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특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 아니냐? 이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예요. 내가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 하겠다고 떠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영영 떠나시지는 못해요. 떠나시지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후손들을 불러내셔서 어떻게 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지 않으신 분이예요. 그래도 온전히 버리지 못하셨더라.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 중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에 '그 때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에 사랑하신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요엘서 1,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 후를 가리킵니다. 심판하신 날이 다 지나가면 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라. 심판을 다 행하신 후에요.

요엘서 앞장에 그 유명한 메뚜기 이야기가 나오죠? 메뚜기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덤빕니다. 흔히 하는 말에 산불보다 홍수가 더 무섭다고 그래요. 산불이 지나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남아요. 홍수가 지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파릇파릇 풀이 좀 남아요. 그런데 메뚜기가 지나가면 그것마저 없어져요. 메뚜기는 모조리 갉아 버린대요.

중동지역에서는 메뚜기 떼가 덮치면 나무란 나무, 풀이란 풀은 모조리 갉아 버린대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열쥬했던 집이 사라져 버려요. 다 갉아버리니...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지나가도 이 모양인데 요엘서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덤빈다는 거예요. 메뚜기만 덤비는 게 아니에요. 외적들도 그렇게 덤벼요. 외적들이 모든 것을 다 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반항하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 보세요. 2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동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닥칠 것인데 그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다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메뚜기가 먹어 치운 것, 외적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버린 것을 다 보상해 주겠다고 하세요.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종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징계 받을 때에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젓 먹는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골방에 들어가 있는 신혼부부까지도 하나님께 다 나와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2장 16절을 봅시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젓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갓 결혼한 신랑은 1년 동안 군대에도 보내지 말고, 결혼한 신부를 기쁘게 해 주라고 하죠! 그런 신랑 신부마저 골방에 있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령 심판했던 것까지도 다 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지 이 구절들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가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좀 알아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지금까지 돌보아 온 것도 이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 좀 알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아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평하며,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럴 때마다 매를 맞아요. 매 맞은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아요. 사사시대? 그렇게 매맞아가며 지나가잖아요. 왕정시대? 얼마나 매 맞고 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을 자기 백성이라고 돌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혹시 집안에 이런 자녀 있으면, 물론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시요. 28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구절 잘 아시는 거죠?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오순절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외칠 때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는 ‘모든 만민에게’로 되어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겠노라 해서 떠나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유대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가 유대인만을 선택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 줍니다. 분명히 모든 육체예요. 모든 만민에게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도 구분 안 하고 나이 많고 적고도 구분 안 해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종이 없어요. 영원한 종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종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노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되어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약속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실망하시고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기에는 너무너무 더러워진 인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한쪽에 몇 명을 불러 모아서 이 몇 명을 통해서 무엇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실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서 야단치셨던 그 말씀 속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육체들, 인간들을 전부 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인도하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본다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운동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노래 가사에 보면 ‘간다고 아주 가나?’ 이런 거 있죠? 하나님에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녀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내가 도저히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없어서 가겠노라고 떠나셨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간다고 아주 가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 기회를, 그렇게 모질게 힘든 아픈 고난을 다 견디어 내셨는데,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치 숨어서 살짝살짝 관찰하시고 도우시고 그러시던 분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돌아오시겠다는 선언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할 권덕지가 없는 인생, 아무리 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상대로 떠나갔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가끔은 아들이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출을 해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가출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망신도 없잖아요. “죽어도 너희한테는 안 간다.” 아, 이거 얼마나 망신이에요. 요즈음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잖아요. 가출한 아버지, 누구예요? 아무리 돌아오시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생긴 말이 ‘합홍차사’ 이성계가, 아들들끼리 싸워서 칼부림이 나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 합홍에 가 계셨어요. 이방원이 “아버님, 돌아오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무리 돌아오시라고 해도 안 와. 왕이 심부름을 보냈어요.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차사’라고 그러잖아요. 합홍으로 가는 차사, 그게 ‘합홍차사’예요.

이성계가 멀리서 보고 자기를 부르러 오는 차사를 활을 쏘아 다 죽여 버렸어요. 소식이 없으니 이방원이가 또 보내니 또 죽여 버려요. 함흥에 아무리 보내도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서 생긴 말이 '함흥차사'입니다. 자식 꼴이 보기 싫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그도 한 때 왕이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왕이 집을 나간 적이 또 있네요. 임금님이 집을 나가면 가출이라고 안 그러니까. 임금님이 집 나간 것을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조금 어려워요. '파천'이라고 그래요. 선조는 왜 적에게 쫓겨서 파천을 갑니다. 신의주까지 갑니다.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중국까지, 명나라인지 당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진왜란이니까 명나라겠네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왕이 집을 나간 것을 파천이라고 그래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보다 더 창피한 이야기는 '아관파천'이라는 일이 있었죠? 임금님이 자기 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가버린 거예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집 나가신 거예요. 임금님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임금님이 만약에 돌아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함흥에 갔던 이성계가 마음을 풀이키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라." 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환영행사를 했겠어요? 그냥 상상만 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일지를 마음껏 상상도 해 보시고 누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인간이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면 자기가 감동을 받겠지? 그것도 잘 안될 때가 많아요. 내가 솔선수범하면 되겠지? 솔선수범했는데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대하면 실망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간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다 그렇하시고 느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미워하시지만은 않으셨어요. 구제불능에 가까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희생하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인간이 싫다'는 느낌이 들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그 인생 때문이 아니에요. 어떡해요?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혹 있다면 아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이 눈에 띄이거나, 들리거나,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아비가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래도 우리가 실망스러운 인간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미워할 수 없고 인간을 미워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속에 더 적극적으로 가쪽을 돌보며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종족이라던데?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피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기 2:6~15]

5월은 본래 참 좋은 계절인데 올해는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네요. 웬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생기는 이유를 여러 사람이 여러 군데서 찾아냅니다. 안전 불감증이다, 무책임하다, 안전의식 부재다, 불성실하다 이러죠?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내겠지만 그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돈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된다면 어떤 부정이라도 다 저질러대니까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만 쫓아다니는 사회가 되었는가? 돈만 더 준다면 인정사정없이 회사고 뭐고 할 것 없이 옮겨 버립니다. 옛날에 학원에서 강사 하셨던 분이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학원을 옮겨야 된대요. 그래야 몸값이 올라간답니다. 프로그 그런 거래요. 한 자리에 그냥 말뚝 박은 사람처럼 성실하게 오래 앉아 일하는 사람은 바보래요.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의리나 신의를 지키면 안 될까? 돈을 좀 적게 준다 해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발탁해서 지금까지 키워준 그런 구단이나 그런 직장엔 좀 더 오래 정을 쏟으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현실은 죽을 만큼 때려 놓고도 “돈 주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네요. 심지어 남한테 돈 쥐 가면서 “누구 좀 죽여 달라” 이런 얘기도 있대요. 돈으로 사람을 죽이려 든다는 얘기죠. 돈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배금사상’ 결국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네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개조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느냐? 참 쉽지 않아요. 배금사상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사라져버린 것, 그게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람 만드는 교육을 포기한 지가 오래 된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도 무한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때는 한 친구가 아파서 결석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노트를 친구 찾아가서 일부러 주기도 하고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빌려 주는 것 꿈도 못 꾸요. 빌려 달라고 해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래 전에 들었는데 설마 했더니 경쟁자가 될 만한 아이의 공책을 일부러 없애기까지 한다네요. 이게 무슨 학급친구예요. 이게?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좀 공부한다는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다보면 수업과 관계된 사람답게 사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마련인데 진도 나가다가 잠시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바로 전화가 온대요. 수업 시간 중에 어느 녀석이 “우리 선생님 진도 안 나가고 딴 소리 하고 있어요.” 하고 집으로 전화(문자)를 하면 집에서 그 전화(문자)받고 바로 교장실에 전화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우째 된 기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교예요, 이게?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이런 풍토로 가고 있고 그저 점수 따기 훈련만 하고 있으니 학교도 안 되고, 가정에서는 그런 인성 교육을 시킬 만한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인성 교육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성 교육이 사실은 신앙 교육이네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도 학교 안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 허용을 안 합니다. 심지어 미션스쿨에서 하는 것까지도 못하도록 난리를 쳐대고 있으니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어떤 기관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거나 신앙교육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런 시대에 믿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어른들하고 아이들 하고 소통이 잘 안된다고 그래요. 옛날 우스개로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아이들은 다른 민족이래요. 이민족이래요. 이민족이 무엇입니까? 혹시 말은 통해도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저는 영어 공부를 했지만 대학에 가서야 미국사람을 처음 봤어요. 우리와 나이가 비슷한 '평화봉사단원'이 있었어요.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실제 영어를 들려주던 사람, 그래도 명색이니까 교수 대접을 해 주죠. 수업시간에 '분필 하나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옆 교실에 가서 분필 구해 가지고 두 손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가우똥' 하며 "무겁냐?" 그래요. "아니오." 그러면 "그걸 왜 두 손으로 들고 그러느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은 분필 한 개를 왜 두 손으로 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여기 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말이 안 통합니다. 아이들이 쓰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욕인데도 그게 욕인 줄을 전혀 모르고 써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글을 빨리 쓰다 보니까 글들이 전부 줄여서 익숙하지 않으면 해독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케바케'가 있더라고요. 'case-by-case'라는 영어 글자를 따 줄여서 케바케래요. '버러페이스'란 말이 있더군요. 영어를 봤더니 'But her face' '그녀의 얼굴' 앞에 'but'가 붙었어요. 짐작컨대 '그녀의 얼굴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뜻풀이를 보니까 '얼굴만 빼고 다 괜찮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10대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말의 어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아들어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게 우리 아이들인데 말이 안 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말이 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도리니라." 이러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케케묵은 소리냐? 하고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지. 밖에 나가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신앙을 잘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상하게 되어버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하고 그 다음 세대는 확연히 구분이 돼요. 7절을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있죠?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말은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었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본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얘기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그렇게 되면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에,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에, '~피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가나안 입성 초기에 여호수아가 인솔했던 모습이 가장 멋진 듯 한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직후 세대 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외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가장 암울했던 시대, 가장 암흑시대 중의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그들이 체험한 그 은혜를 그 다음세대에게 잘 전하여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후대에 전하라.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의 아들에게 전해라고 늘 당부하셨고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시대를 열어갔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구원해 주셔요.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7~8번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엘리도 이 일에 실패했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이 일에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 놓았더니,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에 실패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도록 잘 이끄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부 잘 하는 것이 제일 잘 하는 일로 보여요. 학창 시절에 공부 잘 하는 것은 그때 뿐일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했다고 해서 평생 그것으로 인해 잘 사는 것이 아니예요. 좋은 대학 갔다고요? 잘 사는 게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공부 잘 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요. 공부 잘 해 주면 좋죠.

그것보다 신앙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온갖 정성을 다해 공부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커서 복을 제대로 누리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잘 가르쳐 놓자 하니까 “신앙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말 맞아요. 아니, 오늘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었다는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든 정부든 심지어 우리 가까운 이웃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협조해 주는 일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학교가 앞장서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교회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정부나 국가가 뒤에서 교회를 밀어주는 때는 교회는 분명히 쇠퇴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박해를 견디어 낼 때에 교회가 튼튼했고 바른 신앙인들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에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나가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국가나 누군가가 도와준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야단치고 선생님이 야단쳐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원망하지 말고요. 문제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지 학교가 문제가 아녜요. 그것을 이겨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일에는 아끼지 말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른 데에는 아끼시더라도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말고 써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가야 하는데 중요한 사항 한 두 가지를 말씀 드릴게요.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니고 있는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노

력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러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음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재미가 없었을런지 몰라요. 짐승을 잡아서 엄숙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던걸까요. 그런데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기는 방법은 먹고, 즐기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음란'이에요. 이런 것은 누가 하라고 권하지 않아도 잘 따라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건너가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이 음란이라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이 음란한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를 한 번 돌아보세요.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 이 음란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더 크게 유혹하고 있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곳에 접촉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이나 영화를 부모들이 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어요' 그러지만 아이들은 어른들 몰래 접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접촉합니다. 못 막아냅니다. 공기가 완전히 오염된 것과 비슷해요.

오염된 공기니까 숨 안 쉬면 되나요? 오염된 공기라도 숨을 쉬어야 하듯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비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무리 오염된 공기를 마시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어요. 주변 세상이 온통 음란한 문화로 도배가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가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 주 저희 딸래미가 여기서(서울시민교회) 결혼식을 했어요. 좀 일찍 갔어요. 26살에 갔으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부가 좀 어려 보이네요?" "예, 26살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성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 쳤어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못 물어볼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봐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고 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음란한 사회가 돼서 남학생, 여학생이 데이트해서 같이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흐름이고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풍토예요. 믿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풍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런 세태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키워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때 부모들이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해도 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해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걸 분명하게 인식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그것을 심어 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레 주변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 내는 중요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진화론'을 들 수 있어요.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위험한 고비 중의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을 해요. 이럴 때 부모에게 한 두 마디씩 툭툭 던질 때 "얘야,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면 얘들이 그 때부터 학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고비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든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되면 설득을 시킬만한 사람에게 맡겨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때 또 한 번의 고비가 와요. 그냥 놔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도 그런 것을 배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할래? 오락할래?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성경공부 선택할 아이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어요.

여름에 아이들 성경학교 한다고 강가에 갔는데 예배당에서 10m 정도 거리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물놀이 하던 곳이에요.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바짝 틀어 놓고 공부를 하는데 마칠 때도 땀고 너무 더워서 “얘들아, 공부 그만하고 물놀이 하러 갈까?” 했더니 “아니요, 계속해요!” 그러잖아요. 저도 놀랐지만 뒤에 있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십 수년이 지났지만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떻게 된 애들이 여름에 “물놀이 갈래?” 하는데 “아니, 공부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초등학교 아이들이지만 잘 가르치면 그게 되더라는 것을 알아요.

토요일 오후에 밥 굶어 가면서도 “성경공부 합시다.” 하는 아이들을 제가 봤어요. “밥 굶는 것은 저녁 먹으면 되고 내일 또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공부를 지금 안 하면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학교 수업 마치고 성경공부 하자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 놓으면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찍 부모가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부모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특히 엄마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언젠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서 연애해서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면 “아빠, 시험 칠 거지?” 묻더라고요. 개들이 물으니깐 당연히 “쳐야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안 된다. 아빠가 테스트 해 보고 실력이 돼야 된다.” 저희가 물으니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묻는 질문은 어렵다는 것 알지?” 우리 아이들은 둘 다 각오를 했어요. 최근에 우리 딸애가 저희 오빠에게 정보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안 묻더라.”

아들 녀석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길래 못을 박았어요. “안 들은 이유가 있다. 개들 4년 전에 연애 시작할 때 둘이 만나서 아빠 써 놓은 성경공부 읽고, 아빠 설교 부지런히 들었고, 그 놈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 설교 한 번 들어봐라. 괜찮더라.’고 했으니 그만하면 시험 안 쳐도 되겠더라” 4년 전에 연애 시작하면서 훗날 장인 될 사람 설교 부지런히 듣고 설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 시험 안 쳤어요. 그런데 지금 연애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그랬어요. “개는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깐 안 물었지. 너는 데리고 오면 해 봐야지 뭐.”

며칠 전에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둘이 만나서 데이트 하는데 그 여자애가 말 주변이 없나 봐. 조금 얘기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 아들래미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설교 얘기를 한대요. 아들래미가 “우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툭 질문을 던진대네요. 그리고 아들이 답을 얘기 해 준다는 거죠.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왜 천국에 못 갔을까?” 어떻게 알아요? 젊은 애들이! 그런데 우리 아들래미가 답을 해 주면 “오, 그거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았어?” 이런대네요. “아빠, 요새 이러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 이 아가씨도 시험 안 쳐도 되겠구나.’ 왜요? 내가 물을 것을 아들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건, ‘나중에 내가 결혼하게 돼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우리 아빠는 분명히 시험을 칠거야.’ 이 생각이 어릴 때에 머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자기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부모의 신앙이 그냥 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정말 지혜롭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전해 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부가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가르쳤어요. 부모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것을 따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부모가 역할 분담을 했어요. “국어 영어는 내가 가르칠 테니까 수학 과학은 당신이 가르쳐라.” 그래서 부부가 따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남편은 국어, 영어를 학원에서 배운대로 가르치고 부인은 수학, 과학을 배워

와서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중·고 과정을 다 그렇게 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식들에게 점수 따는 것 가르치려고도 부모가 이렇게 애를 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를 한 번 꼭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님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압니다.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너 교회 안 나가면 등록금 없다.” 라고 공갈쳐도 그게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대로 가는 분이야’ 라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시집갈 때 다 된 딸한테 “이런 사람을 끌라서 시집을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늦어요. 시집가지 직전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늦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의 대학 친구들을 만나면, 했던 말이 “아빠 친구들 참 빵빵하다!”는 겁니다. 괜찮은 친구들이 재법 있거든요. 제가 그 때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훗날 너희들이 결혼을 하겠지만 결혼은 너희 둘이만 하는 게 아니다. 아빠한테 마지막 친구를 구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랬는데 애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데 이쪽 부모하고 우리 아빠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맞춰 봤다는 얘기에요.

어릴 적에 이미 ‘우리 아빠하고 저쪽 아빠하고 친구가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나는 연애를 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으니 우리 딸래미가 연애를 딱 한 번 하고 결혼했어요. 착한 딸이죠? 그런데 머릿속에 그 생각이 일찍 들어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 나이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친구 구해준다?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하고 친구하는지 저희들이 아는데요, 뭐.

어제인가? 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거 차 때문에 미치겠다.” 왜? 좀 이상해서 손보러 갔더니 수리비가 100만원 넘게 나온대요. “야, 원래 차 끌고 다니면 돈 많이 드는 거다.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쓸데 써야 된다.” 그런데 차 수리하는 아저씨가 안을 하나 제시했는데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수리비가 100만원인데 현찰로 가지고 오면 90만원에 해 준다는 겁니다. 개 입장에서 10만원은 큰돈이에요.

왜 현찰로 갖다 주면 10만원 깎아 주느냐? 세금관계죠? 본인도 다 알잖아요. “아, 아빠, 이거 어떡할까?” “그런 것까지 질문할 것 뭐 있냐? 니가 알아서 해라.”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는 미안하다. 그만한 목돈을 써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 같으면 어떡하겠냐고?” “너 왜 그러는지 알지?” “알죠!” “알면 돈 버는 네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내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아, 아까운데?” “돈 몇 푼에 신앙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다. 결정은 네가 해라.” 하고 끊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알아요. 돈 10만원 때문에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10만원 벌려고 현찰 갖다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 아들 돈에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애가 자기 돈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말도 못하는 아이예요. 그러니 그 10만원이 고민이 돼서 전화한 거예요. 아빠한테 말 하나마나 답은 뻔한데 ‘그래도 아빠, 한 마디만 해주라.’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물을 필요 없다. 네가 스스로 판단해 보고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사람이 그만한 문제 가지고, 풀랑 그 돈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지금은 이게 10만원이지만 나중에 내가 큰 돈해서 1,000만 원쯤 되면 이거 100만원이야?” “돈이 그만큼 더 커지면 니가 더 번거지, 뭘 그래? 많이 번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지 뭘 그래? 크든 작든 돈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그러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은연중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묻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요.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아이들에게 중요한 원리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가 그걸 잘 못하겠으면 하다못해 교회 교육이라도 잘 받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런 결배울 수 있을만한 기회가 있으면 어떡해서든지 보내야 되는 거죠.

요즈음 아이들 집회에 가보면 유심히 보니다마는 조금은 안타까운 것이 옛날 우리들이 참석하던 집회에 비하면 말씀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요. 주로 무슨 행사 같은 것이 많고, 찬양이 참 많아

요. 성경구절은 몇 구절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행사나 온갖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 놓으면 그게 기초가 부실한 건물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주일학교를 맡아야 할 상황이기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참 잘한다고 소문난 어느 전도사님을 만나서 주일학교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포켓몬스터 이름 다 외우시고요~” 여러분, 포켓몬스터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 장난감 캐릭터 거든요. 일본의 애기 귀신이에요. 저도 뉘지는 대강 알아요. “몇 개나 돼요?” 하니 150개 쯤 된대요.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비슷하게 생긴 그 놈 이름을 150개나 외워요?

제가 암기력이 시원찮아서 아이들 이름도 잘 못 외우는 판에 그거 150개를 언제 외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 그런 설교 안 해.’ 하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어른들에게 해야 될 설교를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될 거 아냐?’ 하고 아이들에게 어른 설교를 한 겁니다. 단,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물놀이 갈까?” 해도 “아니오, 계속해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자녀 교육 대단하잖아요? 기러기 아빠, 다른 나라에 없는 걸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신앙이 제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런데 저는 목사 경력보다 학교 선생 경력이 훨씬 더 길어요. 학교 선생은 부업이고,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농땡이 선생님이나?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같이 열성적인 선생님도 잘 없었어요. 그래도 그것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힘은 참 좋은데 핸들이 없는 것과 비슷해요. 핸들은 없는데 밟으면 나가긴 잘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권 사고치기 딱 알맞은 차입니다. 오늘이 5월 첫날,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싶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일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전하는데 뜻밖에 오늘 내일 연휴가 되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출타를 많이 했네요. 관계가 있든 없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익히고 아이들이 물을 때에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그게 안 되면 누군가에게 보내서라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던 주일학교 아이들은 저한테 9년을 꼬박 배웠죠.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좀 묘한 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한 게 실제로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상천외한 질문을 해대는지 좀 애로사항이 많을 때, 그 때 그 교회의 젊은 엄마 아빠들은 항상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답변이 무엇인지 아세요? “홍목사님한테 가서 물어 보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참 잘해요. 저는 희한한 게 아이들의 똥단지같은 질문에 답을 꾸역꾸역 잘 해요. 잘 데리고 놀아요. 옛날 추억 같긴 한데... 여러분, 누구한테 보내서라도 궁금한 것은 해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해야 되는데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교회(서울시민교회)와서 고등학생 하나가 엄마 때문에 나한테 왔어요. 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얘길 좀 해 보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제가 못 이기겠죠. 그래도 엄마가 가보라고 하니까 가야겠죠?” 이러고 왔어요. 이런 태도를 지닌 아이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잘 해 줘도 애는 이미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얹어놓은 그릇에 어떻게 물을 담겠어요? 고등학교 때만 돼도 이미 늦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열심을 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기억을 하고, 또 우리들은 다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잘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야곱

서울시만교회 부목사:홍 순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7~12]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20~22]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매사에 덜렁대고 범사에 사고만 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까? 사람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네 가지로도 나누고, 세밀하게 나누면 16가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털팔이 같이 실수 많이 하고 남에게 그렇게 정신없이 사느냐고 핀잔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 안 하십니까? 아니면 꼼꼼하기 이를 데 없고 일을 맡겨 놓으면 절대 빵꾸 안 내고 철저하게 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일 겁니다. 이삭과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대조적인 인물이죠.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너무나 대조적인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 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삭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쓰였는지를 잘 몰랐어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려면 그럴듯한 업적이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눈에 이삭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뭐 했다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은 당대의 최고의 통치자였거든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하면 말이 될듯한데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시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굳이 골라 보라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그랄 지방에 거하다가 우물 빼앗긴 이야기고,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큰 아들, 작은 아들 구분도 못한 채 작은 아들에게 속았던 얘기가 전부예요. 그 외에 한 두 개 더 있지만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위대한 조상들의 반열에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어릴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삭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방금 읽었던 앞 부분, 모리야 산에서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때 이삭의 나이는 20살이 안 된 것 같아요. 16~17이라고 봄시다. 우리 고등학생 나이쯤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는 116~117살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팔팔하고 힘이 넘치는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면 손을 먼저 묶어야 돼요, 발을 먼저 묶어야 돼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삭아, 저기 봐라.” 해서 고개를 돌리면 뒤통수를 딱 때려서 기절을 시켜서 잡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팔팔한 애를 손이고 발이고 간에 못 묶어요. 100살이나 된 아버지가 어떻게 묶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예, 그러세요.” 이라고 순순히 손을 내 밀고 스스로 죽을 각오를 했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칩시다. 실제로 이삭이 그렇게 죽었고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번제로 드리고 왔소.”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들을 죽인 아브라함을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순순히 죽은 아들을 원망하겠어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아버지는 노망이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고 아버지를 말릴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판국에 “예, 아버지 그러세요.” 하고 죽으려고 드러눕는 이게 믿음 좋은 아들이예요? 멍한 아들이예요? 바보 아니예요? 그럴만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장가 갈 때 이야기도 참 재미있어요. 이삭이 장가가려고 애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에 있던 늙은 종이 멀리 가서 자기 부인을 구해 왔어요. 그냥 들에서 목상하고 있다가 오는 부인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어요.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뭐 옛날에 아버지가 사람 구해 와서 결혼해라 그러면 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조선 시대에는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던 것 아니냐?”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험을 앞세운 거예요. 성경본문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삭 말고 에서 있죠? 에서가 부모님 말 안 듣고 결혼했습니다. 다른 쪽속들 여러 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물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면 부모가 하라고 해서 당연히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을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집의 늙은 종이 구해다 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평생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이자고 해도 예,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예, 착한 사람이예요? 정말 미련공탱이예요? 좋은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 보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부모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예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말도 너무 잘 듣고 싸울 줄을 모른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랄이라는 외국에 살 때 우물을 세 번이나 빼앗겼어요. 맞붙어 싸워서 자기 것을 지켜야지 내 놓으라고 그러니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요. 이런 이삭을 어떤 사람이나 했더니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 이러더라고요. 남의 말이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곳은 물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 떼를 먹이는데 아주 요긴한,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그런 곳 이잖아요. 그러니 재산 목록 1호예요. 이걸 내 놓으라 한다고 순순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남의 얘기니까 싸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물러나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몇 천 만원 들여서 멋진 차 한 대 사 뒀어요. 남편이 끌고 나가더니 갑자기 차는 놔두고 빈손으로 왔어요. “여보, 차는 어떡했어?” “깡패들이 텀비는 바람에 그냥 주고 왔어. 내가 살아온 것 잘 했지?” 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보, 잘 했어. 몸이라도 살아왔으니까 다행이야.” 이러실 거예요? 좋습니다!

새로 차를 한 대 또 사 뒀어요. 이 차 끌고 나가더니 또 그냥 왔어요! 세 대를 그렇게 없앴어요. 어떡하실래요? 안 사 주면 돼요? 제가 성경 공부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 번 했더니 어떤 부인이 확끈하게 얘기하대요. “나가 뒤져라!” (나가서 죽어라!) 한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이삭이 우물 3개나 빼앗기고 말없이 물러난 것이 평화를 사랑하고 싸우지 않는 좋은 성품이라고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이게 이삭의 삶이죠.

노년에 눈이 어두운데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맛있는 것 해 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세상에,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분노했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속는 순간에 자기를 속인 야곱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분노의 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시 불러서 축복해서 보냅니다. “형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몸을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해서 떨었다고요? 아니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이 말은 작은 아이가 장자권을 이어간다는 말인데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잊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별미를 해 온 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들이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 했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는 아니예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삭은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성품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손해도 많이 봐요. 손해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을 참 귀하게 여기셔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순종보다 더 위대한 업적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고 내 말이나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열매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 열매 중의 상당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으라 하면 ‘전도를 몇 명이나 했나?’ 아니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 했냐?’ 이것부터 따지는데 진짜 큰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요 6:29).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걸 원해요? 그건 작은 열매예요. 큰 열매 곁에 붙어있는 작은 열매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서 천국 문지기가 여러분을 붙들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묻는다면? ‘아무 것도 없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은 제가 열매입니다.” 하고 들이미세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열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삭이 정말 예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업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기를 자처하셨던 아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고난을 겪고자 하는 그 아들 예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이삭의 순종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미는 이 이삭에게, 예수님을 닮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되는 거예요. 평온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힘든 고비를 별로 겪지 않아요. 일이 저절로 다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고 하시는 거죠.

반면에 야곱의 삶은 온통 속이고 속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님과 싸웠어요. 먼저 나가려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알았을까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싸운 건데, 졌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팔죽 한 그릇으로 “날 보고 형님해라.” 그래서 에서가 “그래, 너 형님해라.” 팔죽 한 그릇으로 이론상이지만 형님 자리를 빼앗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님의 복을 가로챈 겁니다.

인간적인면만 본다면 야곱은 능력도 있고 수단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이런 욕심이 있어야 뭔가 이룰 것도 이론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 뭔가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될래? 이삭이 될래? 그러면 야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한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결혼문제만 해도 이삭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7년, 7년, 14년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수고해서 얻은 아내예요. 그 바람에 결국은 4명이 됐죠? 그러는 통에 자녀를 열둘을 얻었어요. 자기 할

아버지와 아버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삭의 경우에도 늙어서 쌍둥이 둘을 얻기는 했지만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간 것은 아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이삭도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열두 아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말예요.

이런 야곱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삭하고 비교하면 다른 점이 한 개 있는데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고 그의 평생을 따라 다니면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다는 점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벵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 오셨죠. 그리고 그의 평생을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겠다, 위험하다 싶으면 또 “하나님!” 하고 매달려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잘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야곱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살만하거나 걱정이 사라지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것이 힘든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평온한 삶을 살기보다는 힘든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또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그러시면 우리 인생이 저절로 힘들어집니다.

야곱의 수고가 빛을 발한 것은 외삼촌 집에 갔을 때였죠. 야곱도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지만 외삼촌은 어떤 의미에서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상황 자체가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야곱이 거기서 14년을 지낸 후에 외삼촌이 “이제 샅을 정해라. 보수를 얼마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일정액을 원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머리를 엄청 굴렸다는 뜻이죠.

“삼촌, 얼룩덜룩한 것은 다 빼내 가세요. 그리고 하얀 놈만 제가 칠게요. 그런데 이 하얀 놈 중에서 얼룩덜룩한 놈들이 나면 그것을 내 보수로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뭔가 노리는 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외삼촌이 “오냐, 좋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놈 싹 가려서 사흘 길을 떠웁니다. 쉬이지 않도록!

사흘 길을 떠워서 자기 아들에게 말기고 야곱은 하얀 양과 염소만 칩니다. 그런데 이 하얀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한 놈들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새끼를 뱉을 때에 그 앞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꽂아 놓으면 얼룩덜룩한 놈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 짓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랬더니 얼룩덜룩한 놈들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보니 이거 안 되겠어요. “야, 틀을 바꾸자. 지금부터는 얼룩덜룩한 놈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하얀 놈 나오면 너 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하얀 놈만 태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외삼촌이 온갖 꾀를 가지고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인과 함께 도망을 치죠. 외삼촌이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셔서 그 추격에서 벗어납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외삼촌을 벗어나 보니까 앞에는 20년 전의 그 형님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형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형님이 이 한 무리를 치면 반쪽이라도 갚자.’ 식구들에게 강을 다 건너게 하고선 압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가족들을 다 건너 놓고 혼자 남았던 이유가 무엇 일까요? ‘기도자인 내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식구들 다 건너보내고 그 어두운 곳에서 어찌면 목 놓아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꾸 짐적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짐적거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나, 지금 당신하고 얘기할 마음이 없어요. 제발 좀 놔 주세요.” 그래도 안 놓고 버티니까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 씨름으로 되어있는데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에요. 밤새 앞치락 뒷치락 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와서 밤새 꼬드리니 어쩔 수 없어서 싸움이 벌어진 거데 밤새도록 싸우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밤중에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 붙어 싸우나요? “야곱아, 내가 여기에 있는데 뭘 그리 두렵게 여기느냐? 나만 믿고 용감하게 가면 되는 거지.” 이걸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요. “너, 이름이 그게 뭐냐? 이름 바꾸자.” 이래요.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는데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 하지마라.” 그리고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형님을 만났더니 걱정할 게 아무 것도 없네요. 문제가 깨끗하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풀렸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서원을 했던 그 곳으로 가야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 가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중간에 죽치고 앉아서 오래 살았어요. 밧단아람을 떠날 때 아주 어렸을 거라고 추정되는 딸 디나가 시집을 갈 만 한 나이까지 된 것을 보면, 도중에 10여년 이상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뻔엘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세껌성 근처에서 오래토록 살았어요.

그러다가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껌성을 약탈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자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뻔엘로 가지 않고.” 그래서 뻔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이 들고 서원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깨끗이 잊어먹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 서원기도 다시 한 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평안히 돌아오는 것, 입을 옷, 먹을 떡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나요? 부인 넷에 아들 열 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쥐서 돌아오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원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그러고 있었던 말이지요.

더군다나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말해놓고도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의 하나님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누라 기도 덕분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보, 당신 기도 열심히 해. 당신 기도 덕분에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마누라 기도 덕분에 사시는 분하고 야곱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누라 기도 덕분이면 그래도 나아요. 어머니나 할머니 기도 덕분에 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야곱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서운하실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약간 오기는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야곱이 잘 알지를 못하니 야곱의 생애에 이런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그것도 엄청난 재산과 자녀를 거느린 채 고향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요셉이 죽어 버린 겁니다. 아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걸로 알았죠.

우리는 알지만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22년이나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그 아들이 천국에 가 있던 게 아니고 애굽에 가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도 그 아들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왜 그렇게 그리워하나요? 이유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 때문입니다. 라헬의 자녀였거든요. 애굽에 곡식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더니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 오랍니다.” 야곱이 펄쩍 뛩니다.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 못 보낸다.” 왜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남겼던 단 하나의 아들인데요. 요셉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베냐민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주원인

은 라헬 때문이에요.

야곱은 한 평생 라헬에 빠져서 라헬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라헬이 일찍 죽었지만 죽고 난 뒤에도 라헬을 못 잊어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서운할지 몰라요. 야곱의 생애에 첫 관심은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왜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안 풀리느냐?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그가 정말 사랑했던, 이미 죽어 없어진 라헬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향한 그 사랑, 그 시선을, 내게로 돌릴 수 없겠니? 이제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그만 놓지 않을래?’ 이런 말씀으로 베냐민을 내 놓으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놓으라고 하셔도 그걸 빼앗아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못 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결국 베냐민을 놓아야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잘 알아요. 대단한 신앙이죠. 자기가 죽는 걸 각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이 죽을지 모르는 데 내놓는다는 것이죠?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놓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았더니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화려하게 부활해서 돌아온 거예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베냐민도 돌아오죠, 다른 모든 아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평생을 짓눌렀던 고난이 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할 것을 놓지 않고 버티니 그의 생애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놓았더니 모든 문제가 다 풀려 버렸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더 일찍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저의 추측입니다만 라헬의 사랑도 오래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라헬의 사랑도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왜 이리 고달프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지 않는 탓이 아닌가? 한번쯤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고달팠던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했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이삭의 삶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알고 살았던 야곱의 삶은 본인 표현을 빌리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힘써 노력하고 자기 머리,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늘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 놓은 것 있었죠? 오르막 올라갈 때에 모터 없는 자전거는 열심히 밟아야 올라가는데 모터 있는 자전거는 페달 밟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오르막 올라가요. 어려울 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이 모타가 자전거를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좀 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신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좋아하셨어요. 훗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삭도 쓰셨고 야곱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이삭도 기뻐하셨는데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죠.

교회에서도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냐?’ 저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떤 분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능력을 주셨나? 저도 부러울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이삭을 생각하세요.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미련공탱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예”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는 것이 가장 멋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야곱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두 사람 다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요긴하게 쓰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그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4:6, 17:45~47]

어릴 적 다윗의 이야기는 주일학교의 단골 메뉴입니다만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안 좋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저는 어릴 때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참 많이 죽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나이가 대략 중학생이거나 많으면 고등학생 시절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중, 고 학생들에게 '다윗이 너희만할 때 저렇게 싸웠단다.' 하면 '나도 그렇게 해 봐야겠다.'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못하겠다고 기가 죽어 버릴까요?' 저는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도시락 내 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주변 아이들이 놀리는 걸 곳곳하게 버티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눈치 봐 가면서 열렁뚱뚱, 아니면 간단하게 품만 잡고 끝내고 이럴 때에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였어요. '아, 다윗은 골리앗하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겨우 도시락 이것 가지고 이러냐?' 이런 부끄러움이 참 많았어요. 어릴 때 다윗을 생각하면 용기가 섬숯기보다는 기가 죽을 때가 더 많았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럴만한 계기가 있었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주일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적이 있어요.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그런대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이 주일에 학교 행사 있다고 해서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안 갔어요. 육을 얻어먹거나 조금 두들겨 맞기는 하겠지만 안 가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체전에 대비해서 마스게임 연습을 하던 적이 있었어요. 마스게임은 한 사람만 빠져도 문제가 되는 게 많으니까 전원 나오라고 그랬는데 주일에 학교에 오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흘려들고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중학교는 그렇게 넘어 갔어요.

고등학교를 상고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저는 상고 다닐 때 주산은 실력이 1급은 되는 것 같았어요. 일찍이 배워가지고. 그런데 학교에서 주산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시험이 3급 정도로 나와요. 주산이 3급하고 1급하고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십니까? 1급 정도 실력이 되는 아이가 3급 문제지를 받아 들면 제한시간 내에 문제를 2번이나 3번을 확인하고도 시간이 남을 정도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그런데 저는 실력은 있는데 자격증이 없었어요. 자격시험을 항상 주일에 쳤거든요. 그러니 주일에 치는 시험은 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단증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가 3급 정도의 문제니까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무조건 100점을 줘요. 시험을 치든 말든. 1급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력이 배가 되도, 자격증이 없으면 만점이 80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답을 써 놓고 확인까지 하고 끝내고 놀아도 점수는 80점이에요. 왜 그런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러려니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1급이 몇 명이고 2급이 몇 명이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격증이 없는 아이는 이게 안 되니까 자격증을 따라는 거예요.

따기만 따면, 1급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치거나 안 치거나 100점을 줘요. 채점도 안 해요. 그러니 점수를 몇 년 동안이나 손해를 봤거든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가 점수 따이는 것에 대

하서 얼마나 예민한지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때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본 셈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 예수 믿는다면 '주일에 예배 참석하고 탄 짓은 안 한다'는 것은 아예 틀처럼 박혀 있으니 까 학교에서 무슨 손해를, 어떻게 협박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죠. 저는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우리 선배 중에 이렇게 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예를 들면 손봉호 장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면접을 주일에 본다고 면접에 안 가버렸어요. 면접에 안 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불합격을 못 시켰어요. 이유가 수석인데요. 1등 짜리가 면접에 안 왔다고 자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합격시켜 주면서 그 교회에서 원서내고 면접 안 보러 온 애들을 다 같이 합격을 시켜 줬어요. 이것이 경주 교회 50년사에 보면 나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야기였어요.

대학갈 때 이런 이야기 했던 선배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보민 교수라고 옛날 우리 교단에 있다가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은 더 걸작이에요. 서울대 문리대 시험을 봤는데 또 면접을 주일에 보는 거예요. 안 갔대요. 안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튿날 교수들이 자기 집으로 면접을 보러 왔더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서울대 문리대 수석인데요!' 하시더군요.

수석이라는 놈이 면접 안 보러오면 어떡해요? 우리 선조들, 윗대 어른들을 보면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무슨 시련이나, 믿음으로 이겨나갈 만한 일이 별로 없죠? 없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들어오는 이런 압력이나 문제는 헤쳐 나가라고 용기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체험 없이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엄마 아빠는 주일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이는 교회 잠깐 왔다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렇게 가면 결국 아이들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죠.

여하튼, 자랄 때부터 신앙적인 모험, 믿는 자답게 사느라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클 필요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크면서도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의 위대한 영웅은 다윗이었죠. 감히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영웅이었다는 것이 문제지만 어쨌든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요나단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윗의 그 위대함보다 요나단의 위대함이 더 크다는 느낌이 참 강해요. 오늘 제목도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할까 싶어요.

요나단의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왕이 되어 나라를 세워 나가던 초기 시절이니까 군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군대 제도도 확실히 세워지지 않았던 시절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도, 무기도 영 상대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이 대처하고 있던 때에 요나단이 부관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군대를 단신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때 요나단이 했던 말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사람이 적다고 지는 것도 아니다.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한 번 쳐들어가자 해서 부관 하나 데리고 단신으로 쳐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나라가 튼튼해져 갔죠. 아마 짐작컨대 20여 년이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에 끌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장서서 나온 거예요.

끌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이스라엘아, 한판 붙자!" 해도 아무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왜 안 나갔을까요? 결국 다윗이 나가서 끌리앗하고 싸우게 되는데 왜 다윗이 나서기 전에 그 옛날에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휘저었던 요나단이 왕자로 있으면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모습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 때는 도전을 받으면 튀잖아요? 신앙적인 모험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용기 있게 뛰어나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

면 사람이 신중해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면 그런 모험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을 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 신앙적으로 퇴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앙은 그대로인데도 내 성격이나 성품이나 열심이 옛날에 비해서 잦아들 경우에는 신앙의 모습도 그런 형국을 띄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생각에 '내가 젊을 때 같으면 저 놈을 단 칼에 날릴 수 있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쉽게 나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젊을 때나 늙을 때에 따라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품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옛날에 정말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요나단이 골리앗이 나와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옛날 같으면 한 방에 해 볼 건데' 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을 그 때에 웬 녀석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순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소년이 골리앗과 싸운 보고를 하는 중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단이 듣고 있다가 그냥 속에 불이 확 붙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가끔 첫눈에 반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첫 눈에 반했다는 것을 잘 안 믿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외양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반한 것인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리라 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본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걸 본 건데 지난 날 자기 속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연락되었더니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칼을 주면서 "너, 나하고 영원한 친구가 되자."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유니폼 교환의 원조는 요나단이구나!' 싶습니다. 가끔 축구 중계 하는 걸 보면 시합 끝난 뒤에, 땀에 젖어서 엉망진창인 유니폼을 바꾸어 입는 것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 '남의 땀에 젖어 있는 옷을 어떻게 바꾸어 입나? 좀 안 좋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었더니 그건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적이 되어 죽자 살자 싸웠지만 축구선수로서 정말 존경한다. 이런 마음으로 옷을 바꾸어 입는대요. 아무나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래요.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땀이 묻어있는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로도 영광이 되니까 바꾸어 입는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자기 갑옷과 투구를 전부 벗어서 다윗에게 준 요나단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는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해요.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요. 자기가 앓을 왕의 자리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이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스라엘에 아주 유능한 장수가 되었죠. 너무 잘 나가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서 죽이려 했죠. 그것을 막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요나단이 "골리앗의 위협 때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변호해서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해요. '아무래도 왕이 나를 해칠 것 같은데 좀 알아보고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요나단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를 막을 것이고 아버지가 너를 절대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알아보니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도망가도록 도와주면서 아버지에게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느냐고 항거를 하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땀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중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몰래 만납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면서도 못 만나는 다윗을 요나단이 몰래 빠져나가서 다윗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말을 다 하게 될까요? 훗날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애가를 남겨요. 그 애가에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더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번 마음 쫓으면 절대로 변함없는 사람, 골리앗과 싸운 모습을 보고 뜨겁게 사랑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물려주고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요즈음에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많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의 평생에 이 목사님께서는 "예"라는 답 이외에 다른 답은 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어딘지도 모르고 필리핀 따라갔다가 약 5~6년째 매년 가을이면 가고 있습니다. 처음 갈 때 생각하면 우스워요. 어디 가는데도 모르고 몇 시까지 보따리 사 가지고 공항에 나오라 해서 갔을 뿐이에요. 갔더니 비행기 탔을 뿐이고 그렇게 해서 갔던 곳이 선교지이었고, 지금도 매년 가요.

진짜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면, '왜요?' '어디 가는데요?' 이런 것 별로 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자.' 하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낫선 젊은 목사님 두 분이 왔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깐 그 두 분이 거기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홍 목사님, 우리 잘 모르시죠?" "예, 여기 와서 처음 뵙는데요." 이 두 분이 하는 얘기가 홍 목사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홍 목사님 잘 압니다. 이래요. "어떻게 아는데요?" 절 데려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두 분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라해서 따라 온 거예요.

세 사람이 앉아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그랬죠. 나는 그 목사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예만 해봤지 다른 말 해 본 적이 없다. 이 두 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예하고 따라갔다가 고생한 적은 참 많다. 그랬더니 이 두 분도 또 마찬가지래요. 그 중에 한 분은 예 했다가 5,000만원 날렸대요. 여러분, 목사 수준에서 5,000만원이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안 입대요. 희한하죠?

세 사람이, 또 더 있겠지만, 모여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이 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다는 것을 다 아니까 젊은 목사들이 그 분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이유 달지 아니하고 따라가서 고생을 엄청 하더라도 군소리 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더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변함없이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었습니다. 연애시절에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야 돼요? 딱 한 사람만 만나야 돼요? 요즈음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해야 사람을 알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마음 정하면, 마음 정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봤다 하더라도 일단 마음 한번 정했다면 앞도 뒤도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신실함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알아본다고 잘 알아 보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살다보니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안 좋은 면들이 드러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렇다는 것 알고 냄새나고 안 좋더라도 그냥 간다.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나단이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주고 희생하고 떠나간 요나단의 사랑, 너무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20세 정도는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애가를 쓸 때 보면 요나단을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많았다기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나단이 처음 전투에 임했을 때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그 시간 간격이 아마 20년 정도는 흘렀을 것처럼 보여요.

두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친구로 삼아 줬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나이 어린 사람이 친구하자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신분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다윗은 그 때만 해도 시골의 이름 없는 농부의 아들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죠.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은 다윗이 친구 하자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친구가 돼서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 준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은 그에 대한 반작용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넘겨줘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을만한 후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넘겨주고 기분 좋았던 일이 있는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자리를 넘겨 줄만 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을 수 있는 게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런 자리예요.

지휘자가 자리 넘겨주고 나면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자리를 넘겨주고 자기가 나와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좀 뼈저덕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어떤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 넘겨줬음에도 뼈저덕거리고 “요즈음 좀 잘 안 돌아간다.” 이러면 알게 모르게 은근히 패감이 좀 있어요. ‘내가 없어도 잘 되나 보자.’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보다 더한 경우도 많아요. 자기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고 물려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해요.

그런데 내가 앉을 왕의 자리를 스스로 네가 왕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게 가능할까? 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축의금 내는 일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돈을 준다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뼈아픈 일이에요?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줘도 몹시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주 비싼 것을 사서 줘도 기분 좋을 때가 있나요? 없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비싼 건데 내가 사 주고도 기분이 좋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고도 기분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도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도대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던 고향 동네 내려가 보면 의원 선거할 때 꽤 오잖아요. 집에서 나가는 길목 사거리에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절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시의원 안 하고 저 짓 안 하는 게 낫지 꼭 해야 되겠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시의원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인사해 가면서 친절 베풀어 가면서 꼭 나와야 되겠어요?

며칠 전에 양손에 뭔가를 들고 가는데 웬 예쁘장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손이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누구야 이게, 내 손을 잡고?’ 선거 나왔다고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선거 나왔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더구나 외간 남자들의 손을 덥석 잡아도 돼요? 손 빼느라고 제가 애 먹었죠. 손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표 모아서 한 자리 해야 돼요? 하물며 그보다 더 높은 대통령자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 걸고 빼앗아야 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걸 함부로 내 놓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자리를 기꺼이 넘겨주면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다윗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요나단이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이지만 요나단은 아버지께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다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는 그 전투에서 요나단도 함께 죽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그렇게 죽은 것, 어떻게 본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순교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만약에 상을 탄다면 (또 천국가면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이러지 마세요.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요나단이 상급을 더 받을까? 다윗이 더 받을까? 저는 요나단이 더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대했던 요나단과 비교해서 다윗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복을 누리게 되죠. 복을 더 많이 누린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큰 사람이고 요나단처럼 이렇게 누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좀 덜 했던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 아무 것도 누리 바 없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이나 오래 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떠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 하늘나라에서 커다란 상급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게 적다고 해서 믿음이 적었거나 하나님을 덜 사랑했던 것 아니란 얘기에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 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 없는 다윗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훗날 다윗이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 집을 세워 주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망해서 없어지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위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터인데 그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세워진 나라가 다윗의 나라이고, 다윗의 왕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 왕위를 가리킨 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탄탄하게 세워진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마는 그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바닥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윗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그 밑에서 요나단이 그 나라를 받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을 늘 주목하고 있고,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는 것이 좋을지, 요나단이 되는 것이 좋을지 꼭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요나단이 되려면 다윗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밀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그 뒤에서 받침을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요나단이 되어서 나를 다윗처럼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만 요나단이 되든지 다윗이 되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놀란 것 중의 하나는 신대원에는 대단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저 분들이 어떻게 일찍이 공부를 마치고 목사를 키우는 신대원에 와서 저렇게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 참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봤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어느 교회가 끌라서 공부를 다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을 책임지고 짊어 나갈 신학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신학생 하나를 유학시키려면 어떤 경우에는 담임목사님보다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다 부담해서 공부를 시켜서 다시 신학교에 오게 했어요. 여러 명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펴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워서 교단의 큰 인물들을 만들었더라. 그 분들을 다윗이라고 치면 그 분들을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다 마칠 동안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온 것이 요나단의 일이죠. 저는 소위 우리 교단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들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이

냐? 교단에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키웠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를 키워내는 일은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키웠거나 스스로 자라난 목사 없냐? 해서 빼앗아 오려는 공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담임목사님을 못 모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것을 보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 동안에 왜 이럴 때 모셔올 만한 목사님을 제대로 키우지를 않았느냐? 말이에요. 참 슬픈 이야기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니깐 너무 거창하잖아요? 왕이나 왕자 이야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라도 누구 하나를 가르치고 누구 하나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떤 큰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든 않든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다. 이게 요나단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도 중요하고 요나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나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탄생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을 때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 구석이 따뜻해오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24:31]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사사기 2:6-7]

썰렁한 퀴즈로 시작을 합시다. 맞혀도 그만, 틀려도 그만입니다. 성경에서 여자 이름을 딴 책 3권이든 무엇일까요? 첫째 룯, 둘째 에스더, 셋째? 김민숙 집사가 오늘 참식을 해야 되는데... 민숙이(민수기)랍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문제죠. 그러나 이걸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썰렁한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멋지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 책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 시대가 멋진 시대였는가를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형편없이 살았던 시절을 가리키는 책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예요.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두 책이 그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너무나 멋진 시절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던 사사시대, 이 두 시대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시대는 어떤 시절인가? 아니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대와 닮은 모습으로 사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호수아와 사사기 두 권을 떼려고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했던 시절이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 준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민족의 침입을 당하고 그러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망해 버렸다. 이런 역사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모든 대적을 싸워서 이긴 시기가 있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시대는 그렇게 됐을까요? 딱 한 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7년간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네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백성들을 조직화 시켜서 훈련을 해야 되고 무기와 먹고 살 것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죠. 묵상하라는 얘기는 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놓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살 형편입니까? 아니며 전쟁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적을 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세요. 날마다 장사가 잘 되는데 돈이 눈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주일이라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가게 문을 닫는 게 쉬워요? 안 귀여워서 모르면 다른 것을 합시다. 누군가 못된 소리를 해서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까? 나는 속이 뒤집혀서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은 이 때 날 보고 이렇게 하라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해서 신랑이 속을 끓여서 지금 속이 바짝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생각이 나더냐고요?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평안할 것이다’고 될 겁니다마는 우리 대부분은 그게 잘 안돼요.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꼭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더라고요. 공휴일 있으면 꼭 그 다음날 시험을 쳐요. 왜요? 공휴일 날 딴 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접어놓고 꼭 월요일부터 시험을 쳐요. 언제 공부하라고요? 누가 일요일이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그래야 되지. 딴짓 하지 말고 주일이라도 공부하라는 거죠.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는데 주일날 제쳐놓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심지어 옛날 우리 때는 그랬니까요. 주일 하루 종일 공부 안 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이라고도 점수 나오겠습니까? 공부를 포기했다면 모르지만 1점, 2점 가지고 다투는 사람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며 지내는 것이 쉽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 바로 적이 우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대로 네가 행하면 네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했어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죽기 전에 자기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더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진짜더라!"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그 안에 보면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넘쳐흐르는 요단강 독에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 물 속으로 들어가라." 혼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할텐데 궤를 4명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마디 할 걸요.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 독에 넘치는 강물 보신 적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강물이 갈라지더라.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 안 들어가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강물을 꿰어주셔야 들어가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면 꿰어지리라." 그렇게 해서 강물을 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들어가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면 불속에라도 들어갔고 사자굴이라도 굳이 피하지 않았습시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강을 건넜다는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옛날 박정희 소장이 한강을 건넜어요. 혁명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명나라와 전쟁입니다. 그런데 안 건너고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이씨 조선이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강을 건넜으면 야군과 적군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를 40년 헤매고 돌아다니느라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모든 장정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요즈음은 할례가 별 것 아니죠? 그 옛날에 수술 도구가 제대로 있나요? 부실했을 때려가지고 날카롭게 패진 것을 칼로 삼아 가지고 남자들 전부 수술해서 다 드러누워 버렸어요. 이것을 만약에 건너편에 있는 적이 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전멸입니다!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 손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성결하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좀 안전한 곳에서 하고 강을 건너 들어가면 될 텐데 강을 다 건너와서 바로 적의 눈앞에서 수술하고 드러누우라 하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놀라운 것은 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뱅뱅이 돌아서 무너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어떤 성이 뱅글뱅글 돈다고 무너지나요? 소리 질러서 무너졌다고요? 아니, 소리 질러서 무너지는 성벽이 그게 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벽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뺏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에 한꺼번에 무너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흘러넘치는 강물에 발을 들여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강물을 꿰어 주시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개를 점령합니다. 많이 점령했을 것 같죠? 나중에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왕의 이름이 30명이 넘어요. 싸워야 할 왕이 3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2개의 성을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겨우 두 성을 이겨놓고 이스라엘 전체가 세겜으로 갑니다. 산길로 30km입니다. 그 길을 어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가서 세겜에 이르러 제사를 드리고 산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전부 낭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흥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부 들려주는 일을 거기서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 채 산길을 30km 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적이 어느 곳에서 옆구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낭독하고 들려주는 것, 지금 식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다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는 일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복입니다.

저는 가끔 혼자 얘기지만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그래도 나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중등부에 올라가자마자 초등부 교사가 돼서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쳤어요. 제가 대학을 1년 재수해서 들어갔더니 이놈이 같은 대학을 따라 들어왔어요. "선생님!" 하고 찾아옵니다. 그것도 여학생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다 좋은데 여기 와서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는 마." 그랬더니 이놈이 한다는 말이 "내 말 잘 들으면 안 그러죠."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 노릇을 하려니, 남보다 많이 보게 된 겁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혼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다보니 전부 성경 얘기예요. 1시간동안 성경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얼마나 정돈을 해야 되겠어요?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도 모르는 채 다른 사람 가르친다고 읽고, 읽고 했던 이 성경을 나중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일찍이 알아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었죠. 가끔 저를 아는 분들이 서울시민 교회에서 무엇을 맡고 있냐고 물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행정 수석이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행정 문제를 돌보는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행정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제가 행정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저 보조겸 조금 하고 있을 정도니까 빼라 그랬어요. 정식 제 명칭은 "성경공부 담당 부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명칭 가진 목사가 없어요. 앞으로도 어느 교회건 간에 이런 이름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듣기가 제일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걸로 유혹했어요. '그 일만 시키겠다고 하면 다른 것 다 무시하고 가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다른 것은 보너스로 거둬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해까지 고등부에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고등부 넘겨주고 초등부로 왔습니다. 또 사정이 있어 고등부 비게 되니 오늘 땀땀 하러 갔어요. 이 부서 저 부서 다 도울 수 있지만 기본은 '성경공부 담당 부목사'라는 것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속에 감동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행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몰려가서 주변에 적이 득실득실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마리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사건에서 해와 달이 멈추어 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았더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니, 그것을 차례차례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이런 점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요. 전 그걸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따라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요약하면 '위대한 순종,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할 거냐? 말거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민 없이 따라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자기들과 함께 하더라.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고민을 해야 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 믿는다고 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닥쳐오면 ‘아, 내가 괜히 예수 믿어 가지고 내 성질대로 못하고 이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직 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런 일이 생길 때 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보여 주시려고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시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치고 남들은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밤을 새워 공공거릴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깐요. 그러니 고민이 생길리가 없잖아요. 걱정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그 걱정 때문에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요.

물론 여호수아서에서도 흠집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간이 죄를 범한 사건이 있고 한데 개인이 죄를 범한 사건이니깐 조금 미루어 놓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실수한 대목이 나오긴 나와요. 기브온 쪽속하고 화친한 것 있죠? 전부 멸하라고 했는데 기브온 쪽속하고 화친한 것이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질게도 실수한 것을 적어 놔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요런 실수가 있더라고 조그마한 실수 하나를 적어 놓은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더라.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와 대조적인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완전히 망했더라.’ 이게 사사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자세히 조금 더 읽읍시다. 두 군데 말씀을 읽었지만 내용이 같은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좋은 말 같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잊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정말 위대하고 감격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대적들이었고 그 대적들이 가지고 있던 철 병거, 그들이 가진 신식 무기, 이런 것들이 보였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 때에는 신장이 장대한 아낙자손들 거대한 그 족속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높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지만 그 성읍들이 눈에 안 들어왔더라는 말이에요.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쳐들어와도 그거 눈에 안 보였어요. 다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의 철병거들을 보고, 그 대적들을 바라보니 손이 오그라들더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바라보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흐르는 물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물 위에 가만히 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물속에 가만히 있다거나 오리가 물 위에 얹혀진 것 보면 참 평화롭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리가 물속에서 발을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그래야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놀리지 않으면 물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 가 버려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흘러 흘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철 병거를 바라보고 더 이상 싸울 생각을 그만 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싸우고 평화롭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지낸 것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고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다른 민족이 쳐 들어와요.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아요. 압제를 받다가 ‘우리들이 왜 이 모양이냐?’ 생각을 해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을 해 주셔요. 구원을 해서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잊어요. 똑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이 과정이 7~8번 반복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다가 엄마 아빠에게 야단을 맞는 일을, 똑같은 짓을 몇 번이나 하나요? 혹시 사고를 치더라도 한 번 되게 혼나면 두 번 안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 아이예요. 똑같은 짓을 2번 하면? 그래도 괜찮은 아이예요. 이게 3번, 4번... 계속 반복하면? 구제 불능이에요.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부모의 고충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낳을 때부터 잘 낳아야 된답니다.

이스라엘은 똑 같은 짓을 7번, 8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거의 구제불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죠? 사사기는 이것을 두 군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여호수아와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는데도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게 옳으냐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위, 아래도 없어요. 윤리나 도덕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면 이 인간 세상은 인간세상이 아니라 짐승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묶어 두지도 말고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제 멋대로 놔두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식당 안에서도 제 멋대로 뛰어 다녔어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아이가 제 멋대로 뛰어 다녔다 말리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다는 것을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한국아이들이 식당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중국 사람이 야단을 쳤다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고 별로 예의 같은 것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사람이 야단을 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입니다만 우리 인생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고 바락도 있었어요.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멋대로 서원하고 제 멋대로 사랑하고 제 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이러고 살았던 게 사사시대입니다.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것,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고장 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엔진은 잘 나가요. 밟으면 신날까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제대로 인간구실을 잘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든 사장이든 교장이든 심지어 목사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행복한 독재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모든 독재자들은 말로가 비참합니다.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말로가 비참해 집니다. 우리나라가 제도 정비가 잘 안돼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무엇이든지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 온갖 사고가 다 터지는 겁니다. 미국은 참 모한 게 어떤 자리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어요. 반드시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인척이 한 자리에 몰려 있거나 같은 부서 사람들 끼리끼리 해 먹거나 하는 것이 애당초에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견제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들 때, 그 나라의 제도를 처음 만들던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그

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거나 제 마음대로 하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을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제도를 만들 때 그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주로 목사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내 고집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서로가 서로를 잘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미국의 제도를 세운 원리입니다.

하다못해 미국은 공장의 수위라도 절대로 자기와 가까운 친척은 안 됩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회사 정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만 그 동네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부정부패가 아예 없어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것 아니에요.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 줍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사사기가 잘 보여 줍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절 사사기와 가장 화려했던 시절 여호수아서 두 권을 나란히 붙여 놓은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묻는 것과 같아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을 때는 꺾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 볼 것인가를 묻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이 최상의 줄 압니다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죠? 남편도 제대로 안되고 마누라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식은 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보겠다고 다 용기를 내 보고 아니면 온갖 피를 다 내봐도 그게 잘 안 돼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내가 애쓰는 것보다 더 일이 잘 풀려 나간다는 것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안한 길을 걷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행전 9:26~30]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5:36~41]

아이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아이들 수준에서는 아마 다윗이겠죠?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나온 물맷돌로 끌리앗과 싸운 이야기, 이런 것이 멋있거든요. 두 번째는 요셉이겠죠.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 이것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잘 먹혀들죠. 3번은 누구일까요? 삼손요? 뭐 잘했다고? 이야기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존경하고 따를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바람밖에 더 피우겠어요? 큰일 납니다. 세 번째 꼽힐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갔다. 참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의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인물이 누구냐 하면? 혹시 바울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바울의 어떤 점 때문에 좋아하느냐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뜻이 통하면 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끔찍하게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또 바울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같다면 간단하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바울을 좋아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바울의 진면목은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있다면 복된 사람이에요.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 말로 또라이 아니면 완벽한 인간이거나 그래요. 그런 완벽한 인간은 우리 주변에 드물고 또라이는 흔하니까, 나를 본 받으라하면 좀 모자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행적과 바울이 남긴 글을 보면 진짜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도 기꺼이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평생을 헌신했어요. 정말 본받은 것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려다고 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 감히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바울이 남긴 유명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었구나! 감동이 시작되면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싶거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를 최고의 인물이라고 좋아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많은 말을 남겨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단편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어떻

게 보면 이방선교의 선두주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셔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하나님, 이 날 이 때까지 내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꿈이 2번 연속되면 이걸 확실하다는 뜻이죠? 그걸 3번이나 보여주셨으니 하나님도 많이 다급하셨나 봐요. 바로나 요셉에게 꿈을 보여 주실 때는 2번 밖에 안 보여 주셨잖아요. 요셉이 그래요. 같은 꿈을 2번 보여 주시는 것은 이걸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후에 그 뜻을 알았나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나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보면 금방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그것 하나 해석을 못해요?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주시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연이어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바는 있어요. ‘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럼 알아들었으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아들었으면서도 이방인을 향해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걸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우리 머릿속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신랑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나면 좋은 말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는 생각이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입에서는 딴 말이 나와요. 이게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크게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이니까요.

어떤 비행기가 사고로 갑자기 산소는 떨어지고 조종사는 정신이 없어진 상태로 몇 시간을 날아가요. 자동 조절 상태가 되면 그런 식으로 몇 시간을 날아가요. 목적지 가까이 와서 빙빙 돌아요. 기장이 깨어나야 착륙을 하는데, 결국은 연료가 떨어지고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 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비행기가 추락할 때까지 다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산소가 어느 정도 이상 부족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은 또렷하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버린대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났을 때 그 안에 찍혔던 사진들을 보면 매캐한 연기가 스며 들어오는데도 그 안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유리를 깨고 나가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에게는 저럴 수 있구나!’ 그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환상으로라도 보여줘서 이제 알아들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때 분명히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깃발을 쳐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하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역자죠? 물론 바울 혼자서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앞장서서 그 일을 해쳐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흔히 바울이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세계 일주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 거리를 지금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리저리 계산을 합나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하고 그 당시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 넓은 땅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3차에 걸린 선교를 하고 마지막에는 죄수로 로마로 가잖아요? 죄수로 잡혔다고 할 일을 안 합니까? 죄수라고 해도 영내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갇히면 갇힌 대로 부대 안에서 전도하고, 죄수로 배 타고 가면 배 안에서 다른 죄수들 다 전도하고, 로마에 잡혀가서 연금 상태가 되면 자기는 못 나가니까 사람

들을 찾아오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을 후에 죄수로 가서 무죄로 석방되기까지를 4차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의 땅 끝, 스페인까지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면서 바나바까지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기록은 성경에 없으니깐요. 거기 가기 전에 사도행전 기록이 끝이 났어요. 그 이후를 5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네로의 박해 때에 잡혀서 순교한 것 같아요. 신분이야 죄수였던 자유인이었던 간에 로마, 그 당시 정치의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결과적으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 가는 밑거름 역할을 바울이 다 한 거죠.

우리 고신 교단이 남쪽, 경남부분에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려면 교단의 신학교를 부산에 둘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신학교를 옮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게, 제 기억으로 인천 어디쯤 신학교를 잠시 세웠다 가 다시 팔아서 결국 천안까지 와 있죠. 부산에서 서울 가려다가 천안까지 왔으면 다 왔나요? 아직 덜 왔나요? 서울에 앉아 있으니까 천안쯤은 수도권이에요? 지방이에요? 그래도 수도권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신학교를 천안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교단이 힘을 다해서 온 게 저기 천안이에요. 서울에 고신 교단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 고신 교단 전체가 힘을 합쳐서 서울 올라가자 해서 온 게 저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그 복음을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다가 꽃아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권수로 쳐서 거의 절반을 사도바울이 혼자 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바울이 이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사도바울이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록이라는 것, 성경책이라는 것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성지 순례, 교회에서는 성지순례라는 말이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쓸 뿐입니다. 답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요. 가 보면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를 볼 수 있나요? 가 보신 분 안 계세요? 하나도 없어요.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집사님들 잘 아시죠? 초대교회는 건물도 아니란 것들요?” 이래요. 건물이 아닌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남아 있으면 뭐가 남아 있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폐허가 된 이 터 위에 바울이 설교를 하던 장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건물이 세워지고 난 다음 그것을 보고 오는 것이지 사실은 가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가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길을 바울이 걸으며 여기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도 사라지고 모이던 도시와 장소도 다 폐허가 되어도 사도바울이 남겼던 성경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건재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약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은 아마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강권해서 이 길로 가게 하셨지만 이 길로 가게 한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유대 회당에 가서 싸우는데 바울이 이겨요. 이때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사울이 이겨요. 다메섹에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깐 ‘제자들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 때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만나게 하고 소개하고 교제를 하도록 주선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바나바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암전하고 샌님 같은 분이거든요. 호랑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사울을 어떻게 알고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는지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니깐 큰 일이 났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만,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고 나와서 “내가 이때까지 부처를 믿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 예수가 진짜더라.” 하고 대형집회를 열면 그 절에 있던 신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집회하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령 신천지에 있던 분이 거기서 빠져나와 “신천지 사이비다.”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면 팬향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혼란을 일으키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도들의 목숨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해서 폭동 비슷한 게 일어나면 교회마저도 안 되겠다.’ 사울을 보고 ‘고향에 가 있으라.’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 버립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연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잘 맞추어서 계산을 해 보면 최소한 10년은 고향에 조용히 묻혀 있었습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가만히 묻히면 병날 사람입니다.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겠느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초야의 낙향거사죠. 10년이 지나고 거의 사람의 뇌리에서 잊힐 그 무렵에 사울을 불러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참 신기하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처음에 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키더니 10년이 지나서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세상도 평온해진 그 무렵에 다시 사울을 불러내서 이방인 선교의 일선에 서도록 이끌어 갑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이예요. 그런데 이 분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니까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권(司)위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잘못 읽어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읽은 거예요. 권(司)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과거의 일입니다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정말 똥단지같은 소식이 돌리는 거예요. 저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단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단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몸이 말을 안 들던 이런 시절에 저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이 돌리는 겁니다.

누가 가야죠?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가든지 수제자가 바쁘면 둘째, 셋째가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아무도 안 가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 지역에 살았던 바나바를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죠? 목사님들이 12이나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을 안 보내고 장로나 집사 중에 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이야기같이 들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레위 족속사람인데 고향이 구브로 섬사람이예요. 자라기를 구브로, 이방인 지역에서 자랐으니깐 더군다나 말씀을 잘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깐 바나바가 가장 적격이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웠다는 안디옥지역에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너무나 잘 섬긴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니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다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을 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웃기는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저희들끼리 요즈음 잘 하고 있단다. 거참 희한하네! 이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본다면 철딱서니 없는 인간들이 모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들이 모 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래서 헌금을 모교회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에는 참 희한한 교회인 거예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서울시민 교회가 분립개혁을 하겠다고 시골에 작은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고 세웠는데 잘 가겠나?’ 이러고 있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교회가 모 교회를 돕겠다고 거액의 헌금을 보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참 본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 팀을 꾸려요. 그 선교 팀의 팀장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성령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첫 번째 목적지가 바나바가 자라났던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자 총독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려고 하는데 그 옆의 이상한 참모 하나,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총독님, 그거 사이비입니다.” 자꾸 방해를 놓는 겁니다. 총독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나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방해를 놔요. 그것을 보고 옆에서 성질이 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초대교회를 멸하겠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 이유가 뭐예요? ‘어디, 이 이단 같은 자식들이 말이지.’ 보고 못 참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훼방을 놓으니 바울이 보다 못해 “이 마귀 새끼야.” 하고 한바탕 놔 버린 거죠.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어서 옆에서 해매고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아,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전도를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는데 섣님 같은 바나바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것을 참 잘 하는데 막상 선교지에 나가보니 반대하는 자들과 자꾸 부딪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땐 누가 적합하냐 하니까 조수로 데려갔던 바울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선교 팀은 바울이 앞장 섭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원래 바울은 이름이 2개가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 헬라식 이름 바울.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이나 바울이나 비슷하지만 잘 한 번 보세요. 구약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사울 왕이 있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이어서 그래요. 구약성경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폴(Paul)입니다. 이걸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름 없어요.

바울은 두 지역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만나면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쓰고,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헬라식 이름 바울을 쓴 사람인데 헬라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때부터 바울이 앞장을 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즈음에 데리고 갔던 마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돌아가 버려요. 왜 마가가 선교 팀에서 이탈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이름을 다 말하면 마가 요한이에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에서 귀하게 컸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여행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도 하고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선교 팀의 원래 팀장은 바나바, 자기 삼촌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울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싫어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전도를 해서 1차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거죠. 상세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돌아온 후에 얼마가지 않아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잘 있는지 한 번 더 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나바가 ‘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문제는 “마가를 데려가자.” 이 문제에서 둘이 뜻이 맞지 않아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생질인데 그 때는 실수 했다고 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여러분, 바나바는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러했겠죠. 인척관계를 떠나서라도 실수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하는 것이 바나바의 성품에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일인데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쓰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나쁘다고 말하기 이 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은 이런 데에서 이탈하고 이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쓸 수 없다. 그 열정이 이해는 돼요.

그런데 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싸웠어요. 그래도 잘못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나바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졌는데? 어쩌면 고향에 파묻혀서 영원히 잊힐 수도 있었던 그를 불러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바나바한테 저 주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말이지요.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 바나바가 고집을 펴지 않으면 바울이 좀 저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바울도 인물은 인물이에요. 끝까지 지지 않았던 것 같죠. 이러면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 마음을 다치기 쉬워요.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바나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마가 데리고 나 혼자 갈란다. 그리고 먼저 가 버렸어요. 어디로요? 구브로로. 지난 번 선교 때 제일 처음

갔던 곳, 선교여행의 시작점이었던 구브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갑시다.” 했던 그 지역으로 먼저 가 버렸어요. 바울이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랑각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빠져서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지(자기)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말아야 돼요? 빠져서 안 들어오는 사람, 조금 있다가 따라가서 “마, 들어갑시다.” 해서 데리고 들어와야 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떠나버린 바나바를 따라 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대단해요. 안 따라가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갔던 바나바를 안 따라가고 실라를 택해서 욕지 쪽을 빙 돌아서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갔던 곳으로 가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 초기의 이 큰 두 어른이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 줘야 할 텐데 이런 본을 보여 준 것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갈라선 이후에 바나바의 기록이 없어요. 거기서 구브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마 순교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만 해요.

사실은 바나바도 선교를 가는 데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과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바울이 앞장서서 돌파하고 그 뒤를 바나바가 잘 보듬고 교회를 세워 나가면 참 좋을 듯 한데 거기서 갈라서는 바람에 바나바는 사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물이 된 거죠.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의 선교여행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일을 했던 바울이 왜 이때는 참지 못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 아픈 것 중의 하나입니다. 선교 열정에 너무 지나쳐서 그걸 중도 포기한 마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지나쳐서 그런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비난하고 책망해야 할 사람이 많고 많지만 너무 열정에 사로잡혀서 용서할 때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동역했지만 어쨌든 이 순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갈라져서 좋지 못한 본을 보여 준 겁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바울이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바나바와 적당한 선에서 동역을 하면 어떨을까? 그냥 상상을 해 봅시다. 해 보면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생 중에 그걸 안 겪어도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3차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몇 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이 교회를 참 잘 세웁니다. 그런데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혼자서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냉대를 받고 쫓겨서 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분실되고 없어요. 그 편지를 썼다는 기록만 있어요.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조차도 효력이 없었어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가 사도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바나바가 옆에 있었더라면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도 고린도 교회가 수습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 뒤를 돌아보아준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그 위대함 속에는 바나바라는 밑거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는 일선에서 조용히 사라졌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인도한 그 공로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항상 요나단이 생각나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터주고 조용히 사라져간 요나단이 저에게는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합니다. 그런데 갈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용감하게 외쳤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렘, 두 사람이었죠? 나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살아서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렘입니다.

만약에 갈렘이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뒤에서 잡아 뜯거나 방해로 놓거나 너만 지도자냐? 나는? 하고 버티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갈렘은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여호

수아가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말없이 그를 도와주었던 갈렘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소를 기르거나 과일을 기르면 그냥 흙만 채워 놓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밑에 거름을 깔아 주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피어나려면 누군가가 거름노릇을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가끔 인물도 잘나고 능력도 많고 혼자서 모든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실수예요.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혼자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잘 하도록 맡기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잘 도와라고 붙여준 사람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배필이죠. 이 배필이라는 말이 우리말 표현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헬퍼(helper), 돕는 자예요. 이 helper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송 있죠? 그 복음송이 시편 121편을 따왔는데요. 그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표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lper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helper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자는 조수구나.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helper라고 말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란 표현은 하나님처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누가 한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뇌리에 이게 박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늘 하던 이야기예요. 그게 은연중에 박혀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옛날 우리 조상들의 얘기가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조수야. 어림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실 때에 철딱서니 없는 사람은 앞에서 대표를 하고 진짜 머리가 돌아가고 철딱서니가 있는 사람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계획이에요.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제일 바보를 앞에다 세우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뒤에서 도우면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구도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어떤 기관은 제일 농땡이인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더라고요. 제 고향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역에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농땡이를 구역장으로 세워놓고 장로 권사님들이 받들어 모시니까 이 구역장이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농땡이를 안 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앞에 서서 잘 나가는 사람, 바울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세워놓고 말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잘 밀어주고 있는 helper, 바나바가 이 일을 잘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가 많나요? 바울이 많나요? 회장이 앞장서서 일해요. 그럼 바울이에요. 그 뒤에서 순원들 아니면 회원들이 알게 모르게 일 잘 하도록 도와준다면 그건 바나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감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바나바가 상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참 이상하죠? 바나바가 눈에 들어오고 요나단이 보이고 갈렘이 더 잘 보여요. 우리는 바나바가 됐든지 바울이 됐든지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식구들이고 이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귀중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역대상 22:6~12]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마음에 쏙 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할 때에 그것을 듣고 격될 수 없어 했습니다. 어려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랬던 그가 심부름하러 전장에 나갔다가 그 말을 듣고 물맷돌 들고 나간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나가서 싸웠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기가 죽었어요.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예요.

훗날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 때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한 칼에 없애 버리겠습니다'고 그랬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니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안 죽었으니 또 쫓겨 다녀야 되죠.

훗날 그가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나 싶었는데 1년 뒤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죽을 거라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고 빌었잖아요. 1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 때 다윗이 보여준 태도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일어나서 밥상 차리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요. "아니,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하시더니 정작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밥 먹자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그 신하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 내가 울고불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로 작정하신 이상 난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울며불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머리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예요. 몸이, 감정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요?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데 다윗은 넘어 가요. 다윗은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니,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훗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 나서는 바람에 급히 나서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아들에게 쫓겨 나설 때도 하나님을 못 잊어요. 따라 오면서 욕을 퍼붓는 시므이를 벌하지 않아요. 그 시므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역울함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

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으로 시므이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윗이 행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요.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동안 하나님의 집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지으라고 해서 조립식으로 하나 지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때까지 아마 약 500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다윗이 ‘아, 하나님이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아, 그거야 임금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말이 약간 달라요. ‘내가 언제 어느 누구에게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무에게도 그런 뜻을 내비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사무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 때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둘이 어릴 적에 어쩌다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엄마 아빠 세계일주 여행시켜 줄 게.” 이랬던 말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면 기분 좋아요? 실없는 소리로 들리요?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요? 문제는, 세월이 조금 흐른 뒤 아이들이 큰 다음에 “너희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랬는데요?” 기억도 없어요!

내가 저희들 세계일주를 시켜 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애들이 우리를 세계일주 시켜 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개네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그 말이 안 지워 지는 것은 무슨 일이지요? 말한 장본인은 “언제 그런 말 했는데요?” 하는데 왜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가 아버지 머릿속에는 남아 있느냐 말이에요. “네가 한 말이니까 책임 져.” 이러겠어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아니, 개들이 세계일주 시켜 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기억도 안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머릿속에 왜 안 지워지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이라도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마디 톡 톡 던진 게 부모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어버이 날이라고 아이들이 선물을 하나씩 챙겨줘요. 이상한 종이에 이상하게 뽁뽁 그려 가지고 스티커 몇 장 붙여서 “선물!” 하고 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 자기 생일 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왜 나한테 선물 안 줘?” 선물이 1, 2만 원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께 줄 때에는 얼마 들어요? 이런 선물 받아서 어떡해요?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쥐놓고 선물 내 놓으래요, 기분 나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세계일주라도 시켜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이래서... 마음이 그렇다는 것 아시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셨어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됐다. 너 그것 짓지 마. 대신에 네가 내 집을 지어준 것으로 하고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해 주마.” 이 얘기가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너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다윗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을 다 알아요.

옛날에 훌륭한 조각가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남자라고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무엇으로 붙여요? ‘다비드상’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대구의 체육관 앞에 가면 벌거벗고 서 있는

남자가 있어요. 여학생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약간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가는 그런 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 실물 같은 멋진 남자가, 나체로 서 있어서 그래요. 그게 다비드상이에요. 다윗이라고 그러면 가장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작품에 남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것은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만하면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고 그러시더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네 집을 내가 지어 주겠다.” 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너 그럴 능력 있냐? 받은 것으로 하고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히 해 주겠다는 말씀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약 190년 정도 존속하는데 그 사이에 왕조가 9개 들어서요. 쿠데타가 8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30년이 채 안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기가 어려웠다는 뜻이죠. 남쪽 유다는 그보다 훨씬 긴 500년 동안 존속합니다만 왕조가 안 바뀌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쿠데타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적어도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만한 사건이 3번 정도 있었는데도 그 왕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쿠데타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 동네에서 500년 동안이나 왕위를 이어 갔다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왕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는 그 나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라도 이어진 것은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네 위가, 네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네 집을 지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아들을 하나 줄 테니까 이 아들이 내 집을 짓도록 해라.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라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성전을 지을 준비만 잘 하게 됩니다.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 중에 ‘하고잡이’란 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안 하려고 “못해요!” 라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잡이한테 못하게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집 식구들은 대체로 앞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저는 평생에 ‘부’ 자만 달고 살았거든요. 부실장, 부반장, 부위원장... ‘부’ 자 달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구 하면 풀백을 하고, 9인조 배구를 하면 후위에 서고요 항상 뒤쪽에 서는 게, 우리 집 분위기가 좀 그래요.

우리 집 딸내미가 시집을 가서 사돈댁에 갔다 오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빠, 그 집은 온통 하고잡이 출신들이야.” 처음에 암전하게 있던 분들이 마이크 잡더니 서로 안 동으려고 한 대요. 그리고 마이크 잡으니 얼마나 잘 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어느 집안이 나오냐? 제 생각에는 좀 하고 싶어 하는 집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집보다...

다윗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하고잡이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 그건 네 아들에게 넘겨.”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윗은 일절 다른 말하지 않고 손 떼고 그 대신 준비만 잘 해서 넘겨줍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아니면 바깥에 나가도 그렇고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꼭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교회에 헌금을 할 때 내 이름을 오래도록 남기고 싶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기엔 그런 하고잡이가 별로 없으신 모양이에요.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에 무엇을 헌물 해두면 이 교회가 내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할까? 1번, 강대상. 2번, 피아노. 이런 것이예요. 아니, 멸절한 강대상 놔두고 “목사님, 제가 강대상 좋은 걸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아, 강대상 이만하면 괜찮은데 집사님,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안 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표 안 나는 일에 헌신하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하고 다 도와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빛이 나면 안 될까요? 괜찮죠? 꼭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빛이 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뒤에서 잘 도와주고 준비하는 이런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일도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수도 없이 찢렸고 몇 년 동안 찢르고 찢렸는데도 안 나오더니 어느 날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나는 수십 번 찢렸고 다른 사람은 딱 한 번 찢렸는데 교회에 따라온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가서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진짜 기뻐하셔야죠.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날 주보에 인도자 이름은 누가 나오나요? 99번 찢렸던 내 이름이 올라가요? 1번 찢렸던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요? 1번 찢렸던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나요? 여러분,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빛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내가 했다는 것어요.

다윗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고 그걸 위해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짓기로 한 것은 솔로몬에게 맡겨라. 이 말에 다윗은 일체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를 시키지 않고?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역대상 22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쁜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니깐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리도록 시킨 분은 누구예요? 그 많은 전쟁을 하도록 한 분이 누구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나가서 싸울 때 마다 이기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승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피를 흘리게 한 분이 누구예요?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한 번 뵈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들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들고 가잖아요.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나를 보려거든 피 없이 나올 수 없다. 이거잖아요. 범죄하고 떠난 버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 요구했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자기 독생자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넌 성전 짓지 말라.”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피 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는 짐작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성전을 짓는 것은 “네 아들 솔로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제인가?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아들에게 이 일을 맡겨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쁜 점이 있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돼요.

그러면 뭐죠?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맡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먼 훗날 다윗의 아들 대에 이르러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지 새치기를 해서 “하나님, 제

가 성전을 지어 드리면 안 될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넌, 안 돼. 짓지 마.” 딱 잘라도 좋은데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한테 있단다. 이러시면서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는 안 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잡이 다윗의 열심을 말리시면서 그에게 핑계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핑계를 대실 때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있는데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나 하면 빨리 이 방향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번 치라고 한 바위를 두 번 치지 않았느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거망동했으니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래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백성들을 데리고 고생하면서 이끌어 낸 공로가 얼마나 큰 데 세상에, 화 한 번 났다고 들어가지마. 이러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세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억울해요.’ 합니다.

정답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나 모두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 인물인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히브리 식으로 철자가 똑같습니다. 의미도 같아요. 둘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간다. 그런데 이 입구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걸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지만 구원의 문턱까지만 인도해 줄 뿐,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답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도 눈이 말짱하고 몸이 건강해요. 어떡해요? 여러분, 모세는 늙어서 죽었나요? 굶어서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해서 죽었거든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병사, 아사... 죽음의 종류가 참 많죠. 그런데 모세가 죽은 죽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 예가 없거든요.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멀쩡한데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만 해.” 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억울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모텔하우스예요. 그 모텔하우스 구경하고 싶었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그랬냐? “너 못 가. 이리와.” 데려 가셨어요. 모텔하우스 구경하고 싶어 하던 모세를 불러내서 완성된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진짜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신 거죠. 율법은 구원의 문턱까지 인도는 할 수 있어도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바위를 두 번 안 쳤더라도 가나안 땅에는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위대한 모세가 저렇게 실수해서 못 들어갔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어떤 연극무대의 등장인물과 비슷해요. 각각 맡은 역할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은 사람도 있어 보여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모든

일을 뒤돌아 보면, 이 모든 일이 연극이나 드라마처럼 보일 거예요.

연극에서 혹은 TV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애석해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 실제로 죽은 것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아서 다음날 또 다른 드라마에 나와요. 그것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하게 데려갈 수 있느냐? 너무 불쌍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다윗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솔로몬이냐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혹시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과 솔로몬은 어근이 같아요. 샬롬이 뭐예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녕’이 되겠죠? 안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평안하시죠?” 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 이게 샬롬이죠.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에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에요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순한 사람이에요. 평화를 얻게 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의 사람이에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있죠? 앞의 ‘예루’를 떼면 샬렘이죠? 샬렘 역시도 샬롬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역시 평강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으신데 이 성전이 평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여기가 참된 평안이 있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에,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평화의 집을 짓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다윗은 수많은 피를 흘려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맡았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세운 나라를 누리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세운다고 많이 고생을 했지만 솔로몬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평화를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싸우시고 심판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완성 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말 평화의 나라예요.

죽음도 싸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일진대 다윗이 이 험한 역할을 맡은 거죠. 다윗이 이렇게 수고해서 나라를 세우면 솔로몬은 그 나라를 누리는 거죠. 다윗이 수고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누립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수고했죠? 수고한 아버지는 별로 누려 보지도 못하고 그 아들이 그 열매를 잘 누리게 되잖아요. 이 아들이 잘못 누리면 집안도 다 말아 먹는 현상이 생기는 합니까만 이 아들이 잘 자라나서 아버지 노릇을 또 잘 하게 되면? 이것이 수고가 되죠?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열매를 누리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영화를 누리셨나요?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고난을 당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난 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고난 주간에 주로 무엇 하시나요? 가끔은 외국의 토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재현한다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나오고 매 맞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고난을 겪어 보는 것, 잘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하셨죠? 우리 보고 그 고난을 따라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가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당할 고난을 내가 다 겪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너무 슬프게 지내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반대로 “야, 고난 주간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지내야 되는 주간 아니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고생, 고생을 해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됐는데 “야, 이놈들아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호강을 해서 되겠느냐? 너희들도 고생 좀 해 봐라.” 이런 아버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했을지라도 그 덕분에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기 바란다.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 아니겠어요? 물론 아버지의 그 수고를 너무 몰라주면 안 되죠.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신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러면 이것 또한 골치 아픈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수고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잘 살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고난주간에 너무 슬프게 지내지 마세요. 우리나라 고난주간은 시기가 참 미울 때예요. 지난봄에는 조금 달라졌습시다만 우리나라에서 고난주간에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요. 어디 꽃구경 하려고 품 좀 잡으면 고난주간이잖아? 그래서 못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예요. 그러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것 참 감사하지만 우리더러 기쁘고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잘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잘 갚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사야서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분께서 우리가 당할 것을 다 당하셨으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 참석하셨는데 피곤하세요? 기쁘세요? 짜증나세요? 빨리 안 마치고 왜 저렇게 기냐? 또 그런 생각 드세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가슴에 품고 너무 짹짹하게 너무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마음을 확 넓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라고 이런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확 넓혀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솔로몬이면서 동시에 다윗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윗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내가 솔로몬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써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화롭게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수고하셨고 예수님의 그 수고 덕분에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온갖 부를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연애와 바울의 짝사랑?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18-21]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도행전 9:15~19]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끝에 물음표를 달았다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느냐는 뜻이죠. 이 제목은 제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쯤 필까요?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음표를 달았다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짝사랑과 연애는 어떻게 다르나요? 짝사랑은 일방적이고 연애는 서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애는 십중팔구 서로 주고받기인데 짝사랑은 한 사람만 주고 끝이죠.

다윗과 바울, 두 사람은 굉장히 닮았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철저하게 달라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느냐? 물으면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두 사람 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신 복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같고 바울에게는 아무런 복도 주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간혹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닮은 점부터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뜨거웠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았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소망은 그대로 버릴 줄 아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두 사람 모두가 깨끗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사울을 죽이기 위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죽읍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보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같고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안 죽여요. 살려 보내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아무런 다른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난 안 한다. 그래서 고생은 엄청 더 하게 되죠.

먼 훗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안 그래도 다윗에게 반대하거나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시므이란 사람이 애매한 욕을 엄청 퍼부어요. 다윗이 '내가 저 욕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쫓겨 가는 왕이지만 주변에 장수들이 있는데요? 한 칼이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부하들이 죽이자고 하는데도 다윗은 놔두라고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놔두자.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 있죠?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어 갑니다. 이 아들을 살려 달라고 1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죠.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깨끗이 털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자' 그럽니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할 때 내 기도를 들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에도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십 수 년을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견디다 못해 모압으로 피신을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거나 도와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모압에 가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해 준 말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참 이상해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 한 마디예요.

사울에게 쫓기다, 쫓기다 견딜 수 없어서 이웃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겨우 “유다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거예요. 돌아가서 어떡하라는 얘기에요? 돌아가면 사울을 막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쫓겨 다닐지라도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군말 없이 돌아가서 또 쫓겨 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에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리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떠한가요? 고생을 말하면 바울이 더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쳤어요. 그냥 한 대 딱 때린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가두어 놓고 빙 둘러서서 죽을 때까지 쳤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튿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친 그 성읍에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돌로 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으니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충성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됐다, 그런 기도 그만해라.” 이러니 바울이 그 기도 더 이상 안 해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요. 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굶으면 굶는 대로,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 고난을 다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니 다윗이 당한 고난에 못지않게 바울도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해 낸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두 분의 흉내를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평생토록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부딪치면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는데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속으로 한 마디 하고 싶어요. ‘되기는 뭐가 됐어요?’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인데 반해서 적어도 다윗과 바울은 내 생각, 내 고집을 전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닮았던 점입니다.

두 번째 닮은 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썼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약 73편을 썼으니 거의 절반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신약의 절반을 썼습니다. 27권 중에 권수로 쳤을 때 거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기록해서 파란만장 했던 그의 인생 고비마다 느꼈던 아픔과 슬픔과 거기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함으로써,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야 할 인생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준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억울한 것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서운한 것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위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화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한 적이 2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도 유심히 보세요. 화란 목사님들은 본문을 항상 시편을 잡아요. 그 분들은 시편 설교를 참 잘 합니다. 그 분들은 시편 전부를 찬송가로 부르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편을 전부 암송시키기 때문에 화란 개혁파 사람들은 시편을 거의 다 암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할 때에 거의 시편을 인용해요.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 그게 그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그 분들이 시편을 그렇게 애용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기록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귀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또한 긴 책도 있고 짧은 책도 있지만 여하튼 권수로 쳤을 때 신약의 거의 절반을 기록을 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놓은 겁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혹은 ‘사도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 7교회들’이란 제목의 여행을 가 보시면 가이드들이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것ですよ.” 이러면서 데리고 다녀요. 무슨 뜻입니까? 가보면 볼 게 없다는 뜻입니다. 초대 교회의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가정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남아 있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은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때 사람들도 남아 있지 않아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사람도 사라지고 교회도 다 사라졌지만 남은 것은 그의 글이에요. 그 글이 남아서 오늘날 교회를 튼튼하게 지탱해 주고,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 만방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남겨준 그 글,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건재한 겁니다. 물론, 도중에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부패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에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교회가 썩어갈 때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글 쓴다는 것? 참 어려워요. 코람데오 발간할 때 되면 기자들이 원고 써 달라고 요청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써 놓고도 어떨 때는 ‘이것도 글이라고 썼나?’ 싶어서 두고두고 후회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바울이 시편의 절반, 신약의 절반, 그 많은 글을 우리에게 전해 준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써서 남겨준 사람도 있는데 읽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반성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나 바울은 정말 귀한 글들을 많이 남겨 우리에게 전해 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평생 헌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약 400년 정도, 주로 사사기 시대입니다만 400년 정도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이 슬픈 비극의 역사를 깨끗이 끝내고 나라를 튼튼히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이 다윗의 공입니다. 물론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히 메시아의 조상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도 불리죠.

어쨌든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누비면서 다윗 이전에 제대로 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다윗이 세우게 된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최일선에서 선봉이 돼서 감당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일은 정말 어려웠던 일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일을 하려고 선뜻 나서지 않았을 때에 바울이 나서서 이방 지역을 다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세계 교회 건설을 하는데 최선봉에 서게 된 겁니다. 다윗이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다윗처럼 바울처럼’ 복음송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만 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꿈이라.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다윗과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윗을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 가겠느냐 싶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거기까지 가긴 어렵다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순을 맡았으면 순원들을 잘 돌보고 순원들이 하나씩 돌아가는 것도 다윗이나 바울을 닮아 가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가정이라도 아니면 평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를 키워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다윗과 바울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아무리 봐도 구별이 잘 안돼요. 둘 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한 사람은 너무

많고 한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 문제만 한 번 보십시오. 물론 다윗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 주셨던 기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들어 주셨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어느 날 그일라라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일라 성에 있을 때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여기까지 올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 그래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마 넘겨 줄 거야.” 묻는 쪽쪽 하나님께서 답을 다 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그 앞의 긴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어 드려야겠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그런 소리 한 적 있느냐? 없는데 다윗이 스스로 그런 말을 했던 말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느냐?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네 집을 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데 이것도 복을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복을 허락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만히 읽어 보면 약이 올라요!

다윗하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어요. 집을 한 채 지어 드려야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 저런 복을 다 주겠다. 하시니까 다윗이 또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원데 이런 복을 다 주십니까?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눈꼴 시러워요. 무엇처럼? 연애하는 아이들처럼 서로 좋아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 주는 모습이죠? 다윗과 하나님께서 주고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약간 그래요.

반면에 바울을 보세요. 눈이 안 좋았거나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어요. “제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좀 없애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네게 준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말을 바꾸면 ‘내가 네한테 베풀어 준 은혜가 충분하니 그런 문제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탄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 가지고 더 기도하지 말라.’ 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답변 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고 합니다.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데, 바울은 그 답변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이해를 한 겁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좋은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눈병이었든지 간질이었던지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간질이었던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벌러덩 넘어가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 기도 그만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도 바울은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가족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고 자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다 보니 서로 죽이고 혹은 아버지에게 덤비는 패역한 아들도 있기는 했지만 물론 이런 문제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 받는 측면이 강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특별한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들을 주셔서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시절에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확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고린도전후서를 보시면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충고하고 설명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을 유심히 본 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결혼 안 해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할 수는 없다. 그러니 결혼을 해본 사람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공의회 회원이 될 자격을 보면 나이는 30세가 넘어야 하고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맞고 안 맞고는 알 수 없는 문제니까 그 정도로 해 둡시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가족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를 만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처자식도 없이 홀로 혹독한 고생을 했고 바울은 당대에 자기 대가 끊어진 셈이죠.

가끔 우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요즈음은 시집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며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표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자식 없는 사람이나 혹은 있기는 있는데 자식이 망나니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 자식 없는 것이 정말 좋은 팔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처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윗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말입니다.

재산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고 온갖 부귀영화는 다 누리게 되죠.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다 누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죽자고 고생했죠. 죽자고 고생하면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헌금에 보태 쓰라고 돈을 보내 주기도 했죠. 자기가 가진 것은 없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죄수가 돼서 갇혀 있어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죠. 결국은 로마에서 풀려납니다. 무죄로 석방이 돼서 또 그 당시의 땅 끝이라고 전하는 스바나(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다시 체포돼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늙어서 힘이 없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왕 노릇하면서 살았는데 바울은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목매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죽음보다 바울의 죽음이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순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순교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하니까 스스로 죽으러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어쩔 수 없을 때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필박을 자초하지는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필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도 자기가 자초해서 당하는 필박은 필박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오래토록 잘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불쌍한 사람,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받은 게 많고 누릴 것 다 누렸어요. 반면에 바울은 아무 것도 받은 게 없고 누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연애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울은 마치 자기가 좋아서 온갖 사랑 다 보내고 받은 것 없는 짝사랑처럼 보인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일 뿐입니다.

바울이 불쌍하게 보이세요? 바울이 불쌍하게 보인다면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바울 자신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 보시면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질이도 못살고 고생만 했다는 사람 중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죄수로 잡혀서 그 앞에 왕족들, 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 있죠. "내가 이렇게 죄수가 돼서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예요. 죄수로 있으니 입은 것이나 뺨이나 다 참 꺾이고 볼 품 없이 앉았겠어요? 왕족들, 귀족들이 다 품 잡고 있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사람이예요? 고생하고 불쌍한 사람이예요?

바울서신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복 많이 받고 행복한 사람은 다시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이 땅에서 누릴 만한 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지

만 본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누린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는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하늘 나라에서 그가 받을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이 진정한 복이지,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을 전혀 소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요즈음 미국 시민권에 비길 바가 못 됩니다. 미국 시민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니, 미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냥 가면 돼지. 아니오, 그냥 바람 쐬어 가시는 것은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그것도 최근에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미국 한 번 나가려면 미 대사관에 가서 얼마나 서러움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가는 것도 그러하데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시민권과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오죽 하면 천부장이 멋모르고 바울을 때렸어요. 바울이 한 마디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칠 수 있느냐?” 이 말 한마디에 그 높은 고관이 벌벌 떨어요. 난 돈 주고 샀는데 너는 그것 웬 거냐? 바울이 크게 한 마디 하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요. 천부장이 기가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자면서도 바울은 늘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뭐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던 사람이예요.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받은 많은 복은 야구에 비교해 보면 1회전에 홈런을 친 것과 비슷할지 몰라요. 1회전에 홈런을 쳤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맞았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요? 2~9회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살았다. 이걸 겨우 1회전에 친 홈런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내게 화가 될는지 몰라요.

요즈음 월드컵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혹 프랑스 월드컵 생각나세요? 세상에, 우리 선수가 먼저 골을 하나 넣었어요. 월드컵에 나가서 골을 하나 넣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2분 뒤에 퇴장 당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흥분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너무 흥분해 버린 거예요. 뒤에서 태클을 하다가 퇴장을 먹어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퇴장되는 바람에 1:3으로 저 버렸어요. 첫 게임을 졌으니 두 번째 게임에 무리하다가 0:5로 저 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현지에서 감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완전히 망쳐 버렸죠.

전반전에 첫 골 하나 넣었다고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넉넉하다고 해서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산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너무 슬퍼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전반전 시작일 뿐이예요. ‘우리가 진짜 누릴 참 된 복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성도는 무엇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냐? 안 하냐? 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 상자 속의 돌판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8:1-11]

‘질소를 사면 과자를 준다.’ 이런 말이 기억나시나요? 질소를 산 것은 아니에요. 과자를 샀는데 뜯어보니깐 안에 과자는 반도 안 들었더라는 겁니다. 빈 공간은 질소가 들어 있었죠. 과대 포장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포장지를 너무 크게 하거나 안에 든 것은 별 것 없는데 겉봉투만 괜찮게 만든 것, 문제가 많은 겁니다. 포장이나 상자를 보면 안에 대강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상자가 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도 많을 것이고, 상자가 조그마해도 아주 귀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 싶으면 비싼 물건이 들어 있겠구나 하고 짐작이 가잖아요.

만약에 황금으로 된 상자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겠어요? 상자가 황금이라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황금보다 더 나은 게 들어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황금으로 된 상자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넣어두라고 한 게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귀중하면 거대한 황금의 집과 황금으로 된 상자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그 성전 제일 안쪽 방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합니다. 출발점이 다윗성, 다른 말로 하면 시온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6절에 보시면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걸어간다면 10분 정도 밖에 안 걸릴 겁니다.

조금 과거로 거슬러 가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이 살던 조그마한 성을 빼앗아요. 바위가 많은 산 봉우리에다가 성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바위라는 뜻으로 그 성 이름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점령하고 붙인 이름이 다윗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이나 시온성은 같은 성이죠.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는데 너무 작아요. 시온성 뒤편에 조금 더 높고 넓은 봉우리가 하나 있었어요. 훗날 솔로몬이 그 봉우리까지 성곽을 확장시킵니다. 넓게 확장된 그 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요. 그렇게 확장된 성을 후대에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에 차지했던 조그마한 성도 시온이고 나중에 옆의 봉우리까지 확장시킨 큰 성도 시온이라고 불려요. 보통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만 구분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에요. 솔로몬이 시온성을 확장시켜서 넓게 터를 잡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의 과거도 거슬러 가 볼 필요가 있어요.

법궤가 지나온 과거사를 사람의 인생사에 비교한다면 참 기구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걸 메고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 안치시켜 놓고 하나님을 섬기곤 했는데 사사 말업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실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지방에 워낙 많은 재앙이 내리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궤를 맡아 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벤세메스 사람들이 한꺼번에 70명이 죽는 난리가 있었거든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랴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뒷방

에다 놓어 놔요. 사무엘이 어릴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장성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말년에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70~80년이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 하나님의 궤가 저 산골에 방치되어 있는데?’ 생각하고 다윗성, 다른 말로 시온성에 모셔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 궤를 만들었던 때부터 시작하면 약 500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50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제대로 집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가 다윗시대에 겨우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다윗이 장막을 치고 모셔 두었던 겁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제일 안쪽 방에 들여 놓는 거죠. 50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제 집들이를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치고는 참 오랜 세월 박대를 받았던 셈이죠. 드디어 솔로몬이 엄청난 집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된 겁니다. 5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10분 정도 거리를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셀 수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어디로 옮겼는지 6절을 보시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여기서 자기의 처소란 하나님의 처소란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내소’ 성전의 가장 안쪽 방이었던 지성소에 모셔 들인 겁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성소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굴이 따지자면 이권 석조 건물이에요. 석조 건물인데 내부를 전부 금으로 마감한 겁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지성소에 들어간 금만 600달란트라고 그립니다. 1달란트가 약 32kg이에요. 600달란트라고 하면 약 20t이 됩니다. 금이 20t이면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대충 계산합시다. 1달란트가 요즈음 시세로 5억이라고 하면 600달란트면 3,000억입니다. 방 하나 만드는데 든 금이 3,000억이에요. 어떤 방일까 상상해 보세요. 지성소에 그 정도 들어갔는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했던 금은 8,000달란트라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집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 만든 황금의 집이죠. 그 집 제일 안쪽 방에 황금으로 된 상자를 모셨어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합니까? 황금이지만 여차피 포장지잖아요. 황금으로 된 집안에 황금으로 된 포장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나요? 9절을 보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집, 어마어마한 상자 안에 돌판 2개가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이 비싸다고 해도, 가끔 비싼 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돌은 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돌판 2개를 위한 포장지가 황금 상자에 황금으로 된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아무리 돌판이라고 해도 포장지를 이렇게 귀한 것으로 썼다는 것은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돌판이 왜 이렇게 귀한 겁니까? 돌판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이 황금의 집도 다 뭉개 버려요. 돌판요? 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을 가격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별 볼품없는 돌판일 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집을 짓게 하셨고 그 황금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을 만큼 잘 난 인물은 없어요.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은 수에 칠게 없대요. 호흡이 멎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면 별것 아닌 돌판을 그렇게 귀하게 다룬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치만 따지면 정말 볼품없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황금으로 된 집안에 보존할 만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가치가 황금 집에 보관해야 할 존재가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명예가

중요시 되고 돈이 힘을 발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돌판일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볼 것 없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황금집이라는 거예요. 돌판이 될 건지, 황금 상자 안에 보관해야 될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될 것인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쉽게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을 때에는 황금집 안에 보존해야 할 귀중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돌판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셨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전해 주려고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루터 복권'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걸 본 어떤 철없는 사람이 붙여 놓은 댓글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니,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루터 복권을 만들려면 개신교에서 만들어야지. 왜 가톨릭교회에서 루터 복권을 다 만드나?" 이런 글을 써 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신문에 난 정확한 기사는 "루터 복권을 추진하다"였어요. 만든 게 아니라 추진이었어요. 신문에 난 기사를, 그 밑에 댓글을 쓴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복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복권이나 로또 복권같은 복권이 있고 또 하나는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뜻이 있죠. 이거 두 개를 헷갈려 놓으니 세상에, 왜 가톨릭에서 루터 복권을 추진 하나? 개신교에서 해야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서 추가 설명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제일 큰 이단이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단은 루터입니다! 루터는 가톨릭에서 볼 때 가장 큰 이단이에요. 칼뱅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가톨릭에서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이단이라고 해도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세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리면 죽습니다. 화형에 처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루터가 무엇을 했기에 이단으로 몰립니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예배드릴 때 라틴어를 써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독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루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중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자.' 해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루터가 이단으로 찍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말을 바꾸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낙인찍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와서 "이단이 아니라고 하자." 그게 '루터 복권을 추진하다.'는 말이지요. 루터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해준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안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번역해 주었는데 읽지 않으면? 성경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도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디서 초기에 번역했던 옛날 성경을 보다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이 '사밧일'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사밧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외주에 사밧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사밧日 '모든 일을 멈추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초기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고심했으면 안식일이라는 말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사밧日이라고 했을까요? 사밧은 무엇일까요? 히브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히브리말 사밧에 日자를 붙여 놨다가 세월이 더 흐른 후에 아마 이 단어를 생각해 냈겠죠? 안식일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지만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 하나가 나오기까지 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번역된 옛날 성경을 한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

처서 우리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 줬을까요? 감동이에요! 히브리말로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한국말로 무엇으로 번역할까? 궁리하다가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에요. 본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하느님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낸 거예요. 참 잘 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렵게 번역해서 한글 성경을 만들면 그냥 보급이 되나요? 만주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한국으로 밀수해서 들어올 때, 그 이야기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메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옛날 책 아시죠? 구멍을 뚫어서 노끈으로 묶은 책이었어요. 이걸 들여오기 위해서 그 노끈을 다 풀어요. 그런 다음에 책 한 장, 한 장을 전부 풀 풀 말아가지고 연결해서 노끈으로 만들었대요. 그 노끈으로 짐을 싸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는 그 노끈을 다시 다 풀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이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 얼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우리 선조들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상들이 알았기에 이 말씀을 전해 주려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아니면 '시편에 이르기를~' 혹은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종종 보여요. 여러분, 그런 표현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심지어 히브리어 어디에 보면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르기를'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누가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장, 절이 없었어요. 장, 절이 없으니깐 몇 편, 몇 장, 몇 절,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르기를,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사야 어디에 있는 말인데?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선조들은 장, 절도 없는 그 말씀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르기를 하면 '아, 그거? 시편 이쯤에 있는 것.' 하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장, 절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불편할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본문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장절이 없다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일단 "열왕기상 펴세요." 펴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8장이라는 말이 없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열왕기상 펴셔서 솔로몬이 법궤 옮긴 부분 있죠? 그 부분 같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장, 절도 없던 시절에 "누군가 어디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했던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한 것은 장, 절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에 있는 '관주'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인용했거나 비슷한 표현이 다른 곳에 있거나 이런 것을 성경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다른 성경 어디에 있고, 이런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였고' 이러면서 구슬로 꿰듯이 연결시켜 봤는데 그걸 보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봤을까? 탄복을 하는 거예요.

선조들이 그렇게 길 안내 표지를 다 해놨는데 오늘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다음에 성경 사실 때 관주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사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신경 써서 살펴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조들에 비해서 성경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좋은 자료들과 편리한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읽어요. 아주 오래 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이 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원지도 모르는데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가긴 가야지.' 이러면서 예배에 출석했던 분이 어느 수요일에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성경을 읽는데 물론 그 전에 이 분이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많이 읽어서 거의 내용을 기

억하고 있는데 그 날 저녁에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성경을 읽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부분을 읽어 가는데 무언가가 갑자기 가슴을 짹 때리더라고요.

‘아, 저거 예수님 이야기다!’ 자기는 그때까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독립투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실패해서 일찍 죽었고 남은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을 좀 과장하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이런 말을 붙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 본인은 이사야서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기억나는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저거 예수님 이야기다.’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밤새도록 예배당에 퍼져서 울었대요. 소위 말하는 은혜죠.

그 이튿날 친구를 찾아가서 ‘그가 찔림은’이라는 책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 그 친구가 마산 큰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대요. 80리 길을 걸어서 마산에 갔는데 서점에 가서 다짜고짜로 ‘그가 찔림은’이라는 책 있어요? 서점 주인이 “그런 건 없는데, 신간인가?” “내 친구가 여기 가면 있다고 하던데...” 다른 서점에 가서 또 물었대요. 몇 군데를 돌다가 어느 서점에 가니 그 주인이 교인이었던 모양이죠. 애가 찾는 게 성경이라는 걸 알아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사서 80리 길을 돌아오면서 찾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이 어디 있지? 찾아냈답니다!

강가에 앉아서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며 공부하고 감동을 받고 그랬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겼으니 그 돌판이 신성한 것이 아니고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한 것이란 말이죠. 황금으로 집을 짓고 황금으로 보관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거다. 말씀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른 채 책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퍼 채워서 잘 모셔둬요. 귀중한 책이니까요. 책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느냐?’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책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밥 해주려고 따라 왔던 집사님 한 분이 대학생들 몇 명한테 “재피 좀 따서 오라.”고 했어요. 재피 아시죠? 산초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대요. 애들이 수돗가에서 껍데기는 다 버리고 안의 알맹이, 새까맣고 반들반들하고 보기도 괜찮아요. 이 알맹이를 한 종지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애들아 껍데기는 어쨌니?” “껍데기는 다 버렸는데요?” “얘야, 재피는 씨를 먹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를 먹는 거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를 갈아서 양념으로 쓰는 것인데 껍데기 다 버리고 속의 새까맣고 반들반들한 씨앗만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책만 소중하다고 여기면 이런 바보짓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품 잡고 끼고 다니는데 쓰거나, 어떤 분은 이걸 두통 방지용으로 써요. 이것을 베고 자면 두통이 없어진대요. 가끔 영화에서는 성스러운 책이니까 귀신 쫓는데 쓰기도 하고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니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앙꼬 없는 찐빵’이죠? 끈 떨어진 연, 아무리 하늘 높이 날아도 끈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정말 끈 떨어진 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내는 것, 교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회심하기 전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불행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설교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이 활개를 쳐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해내면 이걸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워, 누가 설교하더라도 별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누가 설교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말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안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이런 바보짓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에 얼마나 신경 쓰시는 지 아시죠? MSG가 뭐예요? 영어 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인공 조미료, 더 쉬운 말로 하면 미원, 아지노모도, 젊은 분들은 아지노모도라는 말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옛날에 다 그랬었거든요. 이게 몸에 안 좋다고 쓰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체에 거의 무해하답니다. 마음 놓고 써도 괜찮은 거래요. 외국에서 먼저 괜찮다고 나오더니 이제 한국에서도 해로운 것 아니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찹찹해서 웬만한 집에서는 안 쓰려고 해요.

유기농, 유전자 조작 콩, 원산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따져 가면서 드세요? 90이 다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얘야, 일본 명태 먹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오리고기 먹으면 안 된단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일본 명태 요즈음 싸답니다. 잡숫고 싶으면 실컷 잡수시고 오리 고기도 싸답니다. 드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세요. 후유증은 30년 후에 와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20년이 더 지난 후에 나오니까 지금 실컷 잡수세요. 아버지 왈 “그렇나?” “예! 후유증은 3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렇지만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절대 먹이면 안 돼요. 아니, 이미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고등어는 노르웨이 고등어더라고요. 일본 고등어 먹으면 안 됩니다, 광우병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다, 심지어 콜라도 먹지 마라, 설탕도 먹지 마라, 밀가루도 안 좋다? 유기농 채소 파는 가게? 불이 나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콩나물 한 봉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콩나물보다 3~4배 비싸도 줄 서서 사 가더라고요.

몸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것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민하면서 영원히 가야 할 우리 영이 건 강해지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심하냐 말이에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유기농 따지기 전에, 아니면 일본 명태, 일본 생선이나, 아니냐? 이런 것 따지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을 쏟아야죠.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더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 자신이 바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황금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금으로 된 집을 지으라 하시고, 황금상자를 거기 보관하시면서, 거기에 정말 불품없는 돌판 두 개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돌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꿈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 뱉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 11:6-13]

꿈꾸는 자가 아름답다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책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암담하지만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장래의 꿈, 장래의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꿈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다보니 마치 꿈속에 사는 것처럼 행복해지더라고요. 꿈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좋은 꿈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좋은 꿈을 꾸면서, 그 꿈에 취해서, 현실은 어렵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꿈을 생각하면 누구의 꿈이 생각나시나요? 요셉이 어릴 때 고향에서 꾸었던 그 꿈이 그의 평생을 지탱합니다. 그 꿈은 우리의 꿈과 비교하면 너무 거창하죠? 또 누구의 꿈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가장 최근에 알게 된 게 인순이의 꿈이 있더라고요. '거위의 꿈' 아시나요? 노래 괜찮던데요. 조금 어려운데 봐요. 조만간에 거위의 꿈이 영화로 나온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영화예요. 희생된 아이 중의 하나가 장래 음악가를 꿈꾸면서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거위의 꿈이었대요. 그래서 영화제목이 그렇게 됐나 봐요. 괜찮은 노래더라고요. 불러보지는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찡한 구석이 있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성경을 벗어나서 제일 유명한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그 분이 돌아가신지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 분의 유명한 연설, '내게는 꿈이 있어요!' 영어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그 연설의 전문을 거의 외웁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것. 그 분이 39세의 나이로 총에 죽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백인 어린아이와 흑인 어린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세상, 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 날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연설문이거든요.

'*We shall over come*, 우리 승리하리라'는 노래도 그 연설문에서 나온 건데, 그 분이 피한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지가 올해가 40주년이고 아마 거창한 행사를 한 것 같아요. 흑인과 백인이 피부색깔에 관계없이 함께 손잡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었는데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나타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이 채 안돼서 흑인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예요. 아직도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내겐 꿈이 있어요!' 라는 이 연설문은 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있으면서 꿈꾸는 자의 표본이 됐던 거죠. 여러분, 꿈 많이 꾸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꿈을 꿀 거를 없어서 잘 안 꾸죠. 저도 가끔 꿈을 꾸는데 제 꿈은 전부 개꿈이에요. 한 번도 돼지꿈이나 용꿈을 꾸 적이 없어요. 혹시 돼지꿈이나 용꿈을 더러 꾸시나요? 그래서 그 날은 남 몰래 복권이라도 한 장씩 사 보고 그러시나요? 더 안 물어볼게요.

꿈 어떻게 해석하세요? 반대로 해석하세요, 똑바로 해석하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반대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세요. 반대로 해석한 적이 있는가? 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꿈을 반대로 해석을 해요? 보통 꿈은 흉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흉한 꿈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니까 위로

가 되잖아요. 그 대신에 좋은 꿈꾸면 반대로 해석 안 해요. 바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개꿈이든 용꿈이든 별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진짜 좋은 꿈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 표본으로 이사야가 품었던 이사야의 꿈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사야 어디에도 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사야서 전체에 이사야가 가슴에 품고 꾸었던 꿈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나라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품고 일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하루 이를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의 가슴 속에는 잊을 수 없는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앗수르가 신흥강국으로 떠오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유다 북쪽에 있었던 동쪽 북 이스라엘이 심심하면 남쪽 유다를 쳐요. 살만 하면 남쪽 유다를 치고, 또 쿠데타가 너무 자주 일어나요. 왕이 죽고, 죽고 하더니 결국 앗수르에 망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강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라를 살려가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가 튼튼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유다마저도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처음 시작했던 유명한 메시지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사야가 메시지를 처음 선포할 때 했던 말입니다. 거의 비명 수준이예요. 누구의 비명입니까? 하나님의 비명이에요. 자식을 키워 봤더니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한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망나니짓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 맞아야죠!

이사야가 이렇게 외쳐서 백성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목사가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좀 변하나요? 삶이 좀 달라지나요? 그대로인가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달라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보니깐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설교 듣고 사람이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거나 말거나 선지자는 외쳐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싶어도 외쳐야 하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엄마가 잔소리 몇 번 한다고 아이들이 바뀔디까? 안 바뀌죠. 그러면 잔소리 그만 뒤야 하나요? 안 듣고 안 바뀌어도 잔소리는 계속해야죠? 그 잔소리 언제까지 해야 되죠? 시집가면 끝인가요? 태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끝나지 않고 더 골치 아픈 것 달고 나타나요. 여러분, 선지자도 목사도 엄마도 끝까지 외쳐야 합니다. 왜 엄마만 자꾸 이야기하고 아빠는 안 하나요? 잔소리의 주 임무는 엄마 몫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잔소리를 해야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데 이사야가 믿었던 왕이 죽었어요. 웃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꼽히지만 적국인 앗수르에서도 지중해 연안 국가의 우두머리 왕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던 동안예요. 앗수르가 강대국으로 일어나서 지금 온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는데 믿었던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가뜩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두고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준 것이죠. “이사야야, 네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왕은 웃시야가 아니다.” 누구란 말이죠? “나, 여호와가 네가 정말 믿고 바라야 할 왕이나라.”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사야의 생각은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다 망하는 것 아니야? 이스라엘 백

성들 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을 뵈고 나니까 이사야가 깨달은 게 ‘죽어야 할 인간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숯불로 입술을 정하게 하는 그 대목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이 백성들이 사는데...’ 하고 ‘이 백성들 이러다가 다 죽는데...’ 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뵈옵고 나더니 ‘정작 죽어야 할 인간은 나더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상해요.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해서 기도하는 그에게 정결케 하시고 주시는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이사야가 기대했던 것 하고는 너무나 달랐죠. “하나님, 이 백성 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맞아 죽어야 정신 차릴 거야.” 이런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을 좀 헤아려 봐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실 때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얼마나 많이 당부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렇게 신신당부 했음에도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거의 없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할 정도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은 산모의 끔찍한 고통을 딛고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도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았던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 회복의 약속이 은근슬쩍 묻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잘려져 나가도 그 그루터기에 있는 거룩한 씨가 자라나서 거대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베어 버려도 그루터기에 새 싹을 남기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로부터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은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그만 희망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나라를 꿈꾸며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사야가 깨닫게 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첫째가 이 꿈을 이룰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 이 아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의 눈에 한 아기가 보였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참 대단하죠?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루어 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절부터 보시면 나오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땅에서 ‘내겐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꿈이 무엇입니까? 백인 어린아이와 흑인 어린 아이가 함께 손잡고 피부색과 관계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꿈은 그보다 더 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것이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었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리와 함께 뒹굴며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서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 이게 이사야의 꿈이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걸 이사야가 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 좀 다르죠. 교회의 어린 양은 사자나 표범을 만나면 두려워요. 괜히 말 한번 잘못 했다가 찍힐까 싶어서 말도 잘 못하는 게 교회의 어린 양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다가는 칭찬듣기보다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교회일도 너무 앞장서서 하지 말라고 은근히 권고합니다. 교회와 조금 떨어져서, 조금만, 하는 척, 하는 게 좋다. 이런 충고를 하기도 하죠. 교회 안의 사자는 사자끼리, 이리는 이리끼리 서로 경계하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만나면 웃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대체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게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러서 치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분이 1년 동안 자숙하고 결국은 당회에서 해벌이 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 장로님이 이런 말이 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받았는데 교회의 용서를 받는 데는 1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성도들의 용서를 받는 데는 10년이 걸렸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죠? 이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이 10년 전에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이 20년 전에 그랬지?’ 이러지 마세요. 기억만 하고 있으면 관찮은데 그게 결국은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웃고 있는 듯 한데 속으로 이려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제가 보아 온 대부분의 교회 모습들이 좀 그렇더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 아름다운 세상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도 비슷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품어 봅니다.

그러려면 물지 않는 사자가 많아야 해요. 사자는 사자인데 물지를 않아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무섭지가 않아요. 귀여워요! 교회 안에 귀여운 호랑이가 많아야 해요. 독사인데 독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송아지와 곰이 함께 뒹굴고 있어요. 곰인데? 힘으로나, 뿔로나 엄청 무서워야 되는데 이 곰이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놀고 있어요. 이사야가 꿈 꾸는 꿈이 이런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의 어린 양인가, 아니면 곰인가? 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독을 품고 있는 독사란 거죠. 내가 분명히 호랑이이고 사자인데 사람들이 겁을 안 내요? 사자나 호랑이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줍니다. 오늘 보셨던 말씀 중에서 9절을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러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이런 세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 왕을 거쳐 가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굉장히 오래토록 말씀을 전했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악한 왕 므낫세의 시대에 톱에 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꿈을 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전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책,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책인지 꼭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이루어진다고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는 데에 한 평생을 바쳤고, 이 귀한 책을 우리에게 넘겨 준 겁니다.

이사야의 이 꿈이 사도, 선지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 세상을 누웠습니다. 지도를 펴 놓

고 사도바울이 다녔던 전도 여행을 보면 유럽의 한쪽인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도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모든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발로 걸어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 아름다운 세상,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함으로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땅 끝까지, 지구 구석구석까지, 그러다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선교사들의 눈에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요. 이 아름다운 꿈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 덕분에 우리도 이 꿈을 가지게 된 것이고 부족한 저에게까지도 이 꿈이 살아 있는 겁니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학교를 그만 두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방학이었습니다. 방학만 되면 친구들을 놀렸습니다. “이번 방학에 뭘 할까? 너희 직장에 가서 놀아줄까?” 이러는 거죠. 일을 도와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은 땀 뻘뻘 흘려가며 일하는데 옆에서 놀아주겠다는 것은 놀리는 거죠. 말을 뒤집으면 ‘방학도 없는 그런 직장 어떻게 다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가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 방학? 없어요! 방학이 없는 세상, 출퇴근도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 한 쪽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뜻밖일는지 모르겠지만 ‘방학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사나?’ 이런 느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이었던지 지금 생각해 보면 방학이 뭐예요? 저는 서울 올라오고 난 다음에 1주일에 2~3번씩 새벽에 도시락을 싸서 나옵니다.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왔다 갔다 할 거를 어디 있어요? 한 자라도 더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살펴야 그 다음 공부할 준비를 하는데요. 저녁에도 집에 일찍 가는 날이 별로 없어요. 아니, 방학이 그렇게 아깝던 사람이 밤낮이 따로 없고 세상에, 밤낮으로도 부족해서 새벽에도 공부 반만 만들어서 공부하자고 왜 이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알고 나면 방학을 맞아서 빈둥빈둥 거리고 놀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복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이 확 와 닿아 버리니까 방학? 잊어버렸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왜요? 이게 행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비결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작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휘청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발을 굳건히 디디고 서서,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충성할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 아름다운 나라는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에게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복합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릅니다. 모세 생각에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한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런 일을 맡기시려면 제 나이 40일 적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맡기셔야지 지금 이게 됩니까?’ 이런 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못한다고 그렇게 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라.” 결국 가죠! 못한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 말씀 따라 해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었던거예요. 저는 모세에게 훗날 병이 하나쯤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이네요.

모세에게 생긴 병이 무엇일까요? 물만 보면 두드려 보고 싶은 병! 왜요? 홍해 바다에 지팡이 들고 내 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병 안 생기나요? 물만 보면 한번 안 해 보고 싶겠어요? 전 생

것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생겼어요. 바위만 보면?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한다면 물이 어떻게 나와야 먹이겠어요? 그냥 쫄쫄 나왔다가는 흐르지도 않아요. 시내가 강처럼 돼서 흘러 가 주지 않으면 200만이나 되는 식구들에게 어떻게 물을 먹여요? 그렇다면 바위가 갈라져서 폭포수 같이 쏟아져야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위만 보면 '내 이거 한 번 때려볼까?' 싶은 생각 안 들까요? 못한다고 발버둥 쳤던 그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밀려서 해 봤더니 세상에, 이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 이걸 안 돼!' 이게 일반적인 우리 태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성질 죽이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매 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그 재미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나면 쉬워져요. 모세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때리라면 때리고, 내 밀라면 내 밀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했더니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요즈음엔 축구 때문에 답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답답해야 할 것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렇게 없나?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이끌어 갈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없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없나? 이게 진짜 아픔이에요. 축구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 주데요. 브라질에 난리 났다고요. 아니, 축구 좀 지면 어떤데요? 축구에 생명 걸지 마시고, 먹고 사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힘들어하고 걱정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냈죠. 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나사못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아름다운 나라 건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젖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순 만이라도, 조금 넓혀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런 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런 행복한 삶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13-23]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외롭고 힘들거든 요한복음을 읽어 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뒷부분을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될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도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은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두 번 떠나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한 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또 한 번은 하나님께로 승천 때, 두 번이니깐 그 때마다 남긴 말씀이 유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유언을 두 번 남긴 셈이에요. 그러면 첫 유언은 요한복음 뒷부분에 있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구절은 사도 행전에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굳이 따지면 두 번째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첫 유언인데 아주 길어요. 13장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깐요. 이 긴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 날 밤에 잡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게 무엇일까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거룩하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쁨, 거룩,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기쁨입니다. 13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나의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시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내일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분이 지금 무슨 기쁨이 있기에,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기쁨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기쁨입니다. 조금 앞쪽으로 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게서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친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어쩔 수 없어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자기 백성 모두를 이걸로 구원할 수 있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케 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행복하셨고 큰 기쁨을 갖고 계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종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됐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주신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진 것 다 주고 기꺼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언젠가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내 이해가 안 되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목숨까지는 안 주더라도 스스로 종노릇 하는 사람이 정말 없나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종노릇 하죠?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주워온 모양이다'고 생각 하는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진짜 종노릇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바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줄 것 다 쥐 가면서, 성질나고 짜증나도 참아가면서 애들을 돌보시나요? 뭘 바라고 그러시나요? 바라는 것 있으세요? 없잖아요! 특히 한국의 엄마들, 자식들에게 종도 그런 종없다 싶을 만큼 종노릇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물론이 마나죠. 자식들한테 종노릇하는 엄마가 힘은 들죠? 짜증날 때가 한 두 번은 아니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디 가서 입을 떼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부탁 한 번 할게요.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발 아이들 얘기 하지 말라고 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이들 얘기가 별로 듣기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저 빼고 다 젊잖아요? 어디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종노릇 하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목숨까지 쥐도 그대 행복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조금은 짐작이 가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서로 왕 노릇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왕 노릇하고 한 사람만 종노릇하면 그런대로 괜찮은 가정이 되겠지만 부부가 서로 왕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깨질 겁니다. 그런데 서로 종노릇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진짜 종노릇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눈꼴이 시려서 못 봐요. 옆에서 보면 눈꼴시럽지만 본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다는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보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았던 연애시절보다 서로 종노릇 하는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런 기분을 좀 알면 예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 주면서, 끔찍한 고통이 예상되는데도 한편으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어렵듯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뛰어 넘을 수 있는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받는 기쁨도 참 커요. 그러나 능력만 된다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자초하셨을까요?

좀 전에 인용했던 선한 목자라는 그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내 백성을 위해 기꺼이 줄 수 있고, 그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고통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분을 위해서, 아니 그분의 뜻이라면 불구덩이라도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상상만 하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께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을 앞에서 표현했듯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기쁨이라고 했는데 표현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기쁨이에요! 요즈음 아이들은 어림도 없지만 우리 때에는 선생님이 우리한테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죠? 다른 애는 다 시키는데 나만 안 시키면 얼마나 섭섭한지 못 살아요.

옛날 시골에 어떤 애는 점심 때마다 선생님 하숙집에서 도시락 가져오는 심부름을 했대요. 하

루도 빠짐없이 도시락 받아다가 선생님 갖다 드렸대요. 그렇게 좋아서 열심히 뛰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계란이라도 한 개 건네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대요. 요즈음 아이들 그런 일 시켰다가 당장 쫓겨날 거예요. 아마. 요즈음 아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이 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쁨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쁨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열린 하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법 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지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이 가볍게 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죠. 그런데 하나님 그 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노래하겠다고 했어요. 모세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호세아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낙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아픈 삶을 통해서 호세아가 결국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 어려운 아픔들을 다 이겨 낼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능가하는 큰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을 보면 더욱 그렇죠? 처자식도 없이 혼자서 죽을 고생했던 바울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이 일을 했겠느냐? 바울은 본인 스스로 그러합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이 사람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비유컨대 사탕을 빨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사탕 안 주려고 '이것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 뭐 어쩐다' 해도 '알았어, 알았어.' 해놓고 또 내 놓으라고 조릅니다. 사탕 빠는 것 말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해로운 게 더 많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다는 것, 그 행복 참 달아요. 맛있어요. 그러나 사탕 빠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참 좋아요. 그러나 길게 보면 다 해로운 것이죠.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쁘세요? 그럼요! 만약에 기쁘지 않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때로는 예배하는 사람 개인에게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일의 밑바탕에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나의 이 기쁨이 나의 이 제자들 속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는 15, 16절을 보십니다. 이들이 거룩하게 보전되기를 기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갑니다만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이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세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는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옵소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미워하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졸고 있는 사람은 안 미워요. 그런데 나는 졸고 있는데 옆에서 눈 똑바로 뜨고 감동하며 설교 듣는 사람 보면 미워요? 왜 미워요? 왜 나하고 같이 안 졸아?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 해서 미움 받는 것은 안돼요. 이것은 분간해야 합니다. 설교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왕자와 거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꼭 한 번 읽어 보세요. 아이들 이야기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앉아서 잠깐 읽으면 끝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책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궁 밖으로 놀러갔다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만나요. 둘이서 옷을 바꾸어 입고 놀다가 경비병들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왕자를 붙들어 궁궐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왕자복장을 한 거지예요.

또 한 놈은 쫓겨났어요. 거지 복장을 한 왕자가 쫓겨난 거예요. 궁궐 안에도 난리가 나고 궁궐 밖에도 이 거지 복장을 한 놈이 만나는 사람마다 "무엄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자식이 풀었나?" 하면서 두들겨 패는 거죠.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지 취급을 하는 거죠. 껴디다 못해서 도망을 쳐요. 도망쳐서 이리저리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엄하다, 왕자를 몰라보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자식이 풀었다'고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 이 거지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지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지라 해도 "난, 왕자야." 이것 때문에 결국은 왕자의 자리를 찾아 갑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종종 묵상을 하세요. 제가 성경 책 이외에 묵상을 해 보라고 하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넌 거지야." 그래도 "아니야, 난 왕자야." 이래서 결국은 왕자의 자리를 차지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왜 다른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 꼬락서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않고 보전되도록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죠. 여러분, 유정란 무정란 아시죠? 생긴 것은 똑 같아요. 영양가 차이가 있는지 물어 보니까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영양가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싹 무정란 사 잡수세요. 비싼 유정란 쓰지 마시고요. 똑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품어보면 무정란은 썩어 버려요.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와요. 보기에는 똑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네들도 하루에 밥 세 그릇, 우리도 밥 세 그릇, 그네들도 자야 하고 우리도 자야하고, 하는 짓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 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 없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대부분 같아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이것,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이지만 하늘나라에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때로는 물러설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닐까요? 돈이면 안되는 게 없죠? 돈이 너무 너무 가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돈도 가볍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어렵게 사는 것도 덕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플 때 아끼더라도 돈이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봐야 100년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을 떠나는 날에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하도록,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살아 있는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해도 생각해 보니 '아니다!' 싶으면 거꾸로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강물이 세차게 흘러갈 때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살아 있는 물고기 외에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 세태의 흐름도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주의 중의 하나가 무엇이나 하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관계될 때에만 그렇습니다. '사람 성품이 안 바뀌는 거야, 사람 바뀌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안 바뀌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주시고 힘주시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분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세월 따라 서서히 바뀌어 가는 법입니다. 아무리 가도, 평생가도 바뀌지 않는다?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강화도에 사는 촌놈 하나 불들어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 봤어요. 왕 노릇 잘 합니까? 왕좌에 앉았다고 왕 노릇 잘 합니까? 여전히 촌놈일 뿐이에요. 서서히 왕의 위엄을 찾아가는 법이잖아요. 아이를 입양해 와서 '네, 이제부터 우리 식구야.' 이리라고 해서 제대로 합니까? 집에 와서도 여전히 고아원에 있었던 짓을 하잖아요. 신분은 분명히 아들이 됐어요. 서서히 그 신분에 맞는 행동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아예 안 된다고 생각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각오도 하고, 다짐도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빨리 데려 가시지 뭐 하러 이 악한 세상에 믿는 우리를 여기에 계속 놔두시나? 18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데려 가시면 쉬울 텐데. 데려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신분이 다른데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다시 이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일을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평안한 삶을 뿌리치고 그 험하고 고통스런 길을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죠.

선교사들은 그러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들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때로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품고 들어가라고 하는 세상일 수 있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때려치워

요? 요즈음 직장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했다고 해서 그 직장에 잘 붙어 있기도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1년도 안돼서 뛰쳐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세상 중의 하나입니다.

요즈음 결혼 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죠. 그런데 나이 많은 아가씨들이 하는 말 중에 “편하게 살란다.” 이래요. 편하게 살란다. 이것은 들어가야 할 곳에 안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편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준 세상이려니...’ 하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흔히 ‘직장 때려치우고 신학이나 해 볼까?’ 많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함부로 때려치우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믿음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함부로 때려치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보전해 주옵소서!” 그것을 한 마디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대상이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12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도, 그 다음 연결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와 하나님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무엇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제자들도 전부 하나님 안에, 또한 이들도 전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2사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 된 기쁨이 도대체 무얼까?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니까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된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집에서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다가 겨우 승낙을 받아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또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게 며칠 가나?’ 며칠 가든지 말든지 일단 결혼하게 된 기분이 어때요?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일 거예요. 문제는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그 기쁨은 원래 그렇게 오래가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랑을 가꾸어 나가서 진짜 제대로 하나가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이런 진짜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20~30년 살고 나니까, 한 40~50년 살았더니 이제 좀 어때요?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겨우 하나 되어 가는 것 같으세요? 지긋지긋한 사람 봐두고, 불쌍해서 살아 주는 거지 뭐, 이런 분도 봐두고요, 아니 그만큼 살아주었으면 똥지 밖에 나와서도 같이 다녀야 되나? 이런 사람도 봐두고요, 20~30년, 아니 40~50년 함께 살았더니 이제 겨우 하나 되어 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드시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연애시절의 가슴 뛰는 그 즐거움보다도 은근하게 익어가는 이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불쌍해서 살아 주느니, 노총각 구제해 줬는데 아직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이러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는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물로 물어 두신 기쁨이 부부가 하나 되는 기쁨이에요. 힘든 세상인 줄 아시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건데, 그것마저도 잘 쓰지 않고 팽개치고 힘들게 산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잠깐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기쁨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까지도 영원히 이어질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 말미에 이런 소원을 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집나간 탕자예요. 호세아의 표현을 빌리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그 관계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 되는,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이라도 지고 가실 것이라고 흥분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과 하나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왕비죠. 그런데 왕비를 보고 어떤 놈이 이상한 눈짓을 하고 끔뻑 거리면 어떻게 되나요? 왕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너 지금 눈 끔뻑거리고 있냐? 이렇게 안 되겠어요? 너, 지금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왕비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세상이 눈을 깜박깜박 거리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가야 돼요? 왕비를 유혹하는데 그 왕비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세상이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야 되겠냐?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부부이기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저런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냐?' 이런 자부심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비가 되어서 혹은 왕이 되어서 자잘한 일에 흥분하면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조그마한 일에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일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박국보다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바울보다 더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보전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힘들, 어려움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어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남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황재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키토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천팔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1-25]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식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로 보입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었습니다. 그 때쯤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서 바울을 참 성심성의껏 도운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선생님,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면서 아주 비밀스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분을 아시죠?” 당연히 알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 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해서 여기 숨어살다가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테니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참 고민되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로마시대에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다? 이걸 잡히면 죽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종을 잡아서 데려가면 그것도 황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입단속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 날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를 불러서 “내가 이 편지를 줄 테니까 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편지의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접어놓고요,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편지 속에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 하나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이 부탁을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표현을 써 가면서 부탁을 하는데 빌레몬이 거절할 수 없도록 사도 바울이 쓴 방법이 몇 가지나 되는가? 꼭 한 번 찾아 보세요.

거의 대부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세모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모양도 치면서 공부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요약해 해 보면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구,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근하게 암시만 줘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대충 20가지가 된다고 보이는데 그 것을 분류해보면 이 3가지 정도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에 관한 겁니다. 빌레몬을 가리켜서 1절 중간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맡겨둔 빌레몬을 향해서 ‘그대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굉장한 칭찬입니다. 하늘같은 선생님이 나를 보고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 주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4절, ‘내가 항상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것은 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죠.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네 사랑과 믿음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 사랑과 믿음의 결과가 6절입니다,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도 칭찬입니다. 7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선생님이 옥에 갇혔는데 너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얼마나 큰 칭찬이겠어요? 21절 보세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큰 칭찬이죠? 내 이 부탁 반드시 들어줄 줄도 아는데 아마 내가 했는 것보다 더 잘 해 줄 줄 믿는다.

이게 전부 빌레몬을 칭찬하는 일인데, 칭찬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것이므로 우리도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간해요. 이걸 잘못됐고 이걸 잘했고 이렇게 분간하는 데는 익숙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간한 사람이었음에도 빌레몬에게 정말 칭찬을 앞세워가면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울려 살 때에 칭찬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하는 짓이 꼭 제 애비를 닮아서...” 이러죠? 이거 칭찬이예요? 비난이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아이들이 잘 못할 때 이런 말을 하곤 그러잖아요? 잘 못할 때 아이만 야단치면 돼지, 왜 애비까지 끌고 들어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칭찬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세워 일으켜 세우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보, 오늘 아침 어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나요? “내 원래 뭐든지 잘 먹잖아.” 이걸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숨씨가 어찌되었건 간에 별 관계없고 내가 잘 해 주고 있잖아. 이거 참 나쁜 말이에요. “내 입에 딱 맞아.” 이것은요? 내 입에란 말만 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입에는 별로일 수도 있다는 암시가 들어 있잖아요. “응, 맛이 딱 맞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왜 ‘내 입에’를 넣느냐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말이지만 자기 칭찬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 가는 건지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끔은 거짓말인 줄 알지만 기분 좋은 말이 있고요.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부인이 신랑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당신같이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듣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기분은 괜찮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어리숙한 게 남자가 돼서 조금만 치켜주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주는데 그거 왜 조종을 못하는지 이상해요. 힘으로 아무리 해 보세요, 말 듣는가? 그런데 “세상에 당신같이 멋진 남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은 어떡해? 이런 말 익숙하게 쓸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부인을 아주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솔직한 것도 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인물은 별로잖아.” 뒤집어 생각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생각을 해 보면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는 뜻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분은? 별로 안 좋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칭찬이예요. “인물 제쳐놓고라도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데도 저는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한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무 오묘하게 말하지 마. 그런 것 못 알아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뭐해야 돼요? 거짓말 해 버려! 어떡해요? “세상에 당신같이 예쁜 여자가 어디 있어! 그게 훨씬 낫더라.” 그런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려우면 조금 둘러서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쳐야 할 때라도 조금씩 한 바퀴씩 둘러서 말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옆에서 뭐라고 그러거든 한 마디 해 주세요. “저거 다 화장발이야. 화장 안하고 밖에 내 놓으면 당신보다 못 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고 아니고를 떠나

서 듣는 사람 기분은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든 몰랐든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예요. 빌레몬에게 부탁 하나 하면서 곳곳에 칭찬하는 말을 잔뜩 넣어놓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것 잘 해야 된다는 말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요약은 부탁하는 말, 간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전부 간구라고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8,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해도 충분히 명할 수 있을만한 위치에 내가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이러죠. 분명히 명령할 수도 있는데도 내가 명령대신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니까 내 부탁을 좀 들어주라는 것이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예전 번역에는 동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가 나를 동무로 안다면' 여러분, 대사도이신 저 분이 '나를 친구로 안다면'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어 줄 수 있나요? 7절에 빌레몬을 보고 뭐라고 부르니까? '형제여'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형제여'라고 부르는 게 얼마만한 간구의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18절로 갑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말로 추측을 해 보면 오네시모가 이 집에서 도망을 칠 때 재산상의 손실을 좀 끼치고 도망을 쳤나 봐요. 사고를 쳤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치는데 도피 자금을 훔쳐서 달아났든지, 어쨌든 손해를 끼쳤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하는데 있었다고 봐야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을게. 이 말이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친필로 쓴다는 것은 은행에서 잘 하는 겁니다. 은행에 돈 빌리러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쓰세요, 저기 쓰세요, 해서 쓰는데 어떤 사람은 써 놓고도 무얼 썼는지 모릅니다. 그냥 쓰라고 하니깐 썼지, 그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80이 다 되었을 때 은행에 돈을 좀 빌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버지는 목을 다쳐서 수술해서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계시는데 그 전에 신청했던 거라서 제가 대신 갔어요. 본인 모셔 오래요. 목을 다쳐서 수술하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노인을 어떻게 데려와요? 어쨌든 본인이라야 한대요. 참 답답한 노릇 아니예요? 그래서 말이 좀 될 만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내가 아들이고 주민등록 다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점장이 제 친구였어요. 나오다가 봤어요.

친구에게 대출 부탁을 하면 될 건데 제가 그런 부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직권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거 해 드려라." 그래서 끝났어요. 대신 사인하고 끝났는데 야, 그래도 뺨이라도 있으니 일이 풀리지, 진짜 병원에 있는 사람 직접 데려와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출장이라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친필로'라는 것 머리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친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용증서 써 줄게."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나한테 빚 있잖아? 너 나한테 빚 있지만 나는 그 빚 말 안 한다. 안 한다고 하면 말도 안 해야 되지요. 빌레몬은 사실 지방유지, 부자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 놓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고 종을 거느리고 살 만큼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무슨 빚이 있겠어요? 현금 아닙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잖아. 너 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건 빚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 안 할게. 대신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빌레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을 한 번 해 보세요. 20절 보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기쁘고 평온하게 될 건데 내 부탁 안 들어 줄 거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겠니? 이런 어떤 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은근하게 압력을 넣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리고 9절 끝에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러죠?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서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갇혀 있는데 너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교회를 섬기며 잘 하고 있잖아. 편안하게 살고 있는 네가 갇혀 있는 내 부탁을 안 들어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1절로 가 보세요.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러죠. 이거 나 혼자만 너한테 부탁하는 것 아니다. 나를 이어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2인자 디모데도 나와 함께 너한테 하고 있는 부탁이다. 은근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중간쯤 다시 보세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러죠.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무슨 얘기죠? 늙은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너 내 부탁 안 들어줄 거냐? 이런 의미에서 나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처자식도 없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늙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너 이아들 팔시할거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 팔시할 수 있겠어요? 11절 보세요,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나한테도 유익하지만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심복이라는 말은 원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만약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죽여야 한다면 그건 내 심장을 찌르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죠.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이라는 거죠.

15, 16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오네시모가 네 집에서 탈출해서 나를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은 그를 종으로 둘 것이 아니라 형제 이상, 사랑하는 형제로 두려고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이걸 약간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오네시모의 잘못도 아니요. 이 일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탈출한 것은 이놈이 나쁜 놈이었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 합니다.

22절 보세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도 은근한 압력이죠? 언젠가 내가 놓여나면 너한테 가서 머무를 거다. 그런 암시예요. 너 지금 내 부탁을 안 들어준다면 내가 거기 갔을 때에 무슨 낫으로 나를 볼래?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장마다, 말끝마다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도록 이런 은근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명령을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 다오. 이럴 수도 있을 터인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칭찬하고 부탁하고 은근하게 압력을 넣는 겁니다.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그를 영접하라. 이게 부탁입니다. 만일 바울의 편지 없이 오네시모가 발각되면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그를 용서해서 13절에 보시면 돌려보내 달라고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니 다시 돌려보내다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플로새까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이거 수천 km될 거예요. 바다를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배가 뜨지 못하면 몇 날,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꽤 먼 곳입니다. 그 곳을 가다가 무슨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 기간 동안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부탁해도 될 터인데 굳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일 하는 것 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 먼 거리를 보내는 것은 빌레몬의 그 마음, 선한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분명히 내 말대로 해줄 줄 믿지만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의라는 것은 분명하

게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하노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좋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을 좋아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소중합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소중합니까? 그것을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러나 IMF 터지고 직장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 벌어오는 돈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버리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먼 거리까지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나 일은 좀 비효율적이고 더디더라도 빌레몬의 그 선한 마음을 다 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일하는 방법도 '일보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개인적인 일인데, 이렇게 짧은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을까?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한 부탁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빌레몬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한 번 보세요. 누구 생각이 나세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보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편지 쓰고 있는 이 장면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일찍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그림자처럼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은 처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그렇게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느낌이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적어도 종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는 어리숙한 종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고 용감하고 뜻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도망쳐서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을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그가 바울의 편지 한 통을 가슴에 품고 다시 돌아간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해 보세요. 가다가 잘못해서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편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편지에 자기 목숨이 달려 있어요. 뜯어 봤을까요? 안 뜯어 봤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편지 한 통을 들고 다시 주인을 찾아 갑니다. 제 생각에는 안 뜯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낸 그 사랑이 어떻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부탁이라면, 선생님이 가라시면 설령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내 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만한 감격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을 탈출했던 탈북 민들이 중국에 건너가서 어찌하다 한국의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 고향에, 지금도 저 어두운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내 동족을 두고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거든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가는 길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진 마음 상태는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믿음 없이는, 어찌면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편지 한 통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령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감격,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주인 빌레몬이 자기를 기꺼이 받아 준 거예요. 물론 편지를 전해 주기 전까지는 묶여서 잡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발견한 사람이 다짜고짜 잡아 갔을지도 몰라요. 죽이라고 하는데 ‘죽기 전에 제가 보여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내밀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편지를 본 빌레몬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선생님의 안부도 묻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대접을 잘 한 후에 제 생각에는 돈 보따리 하나 큰 것 주면서 “가서 선생님 잘 모셔라.”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아서 나오는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환대받은 오네시모가 그 집을 나올 때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엎어졌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길 가다가 엎어지면 뭐라고 그러시나요? “에이, 재수 없게!” 그러시나요? 오네시모는 자빠져서 이마가 깨져서 피가 흐를지라도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도망쳐 나갔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인정받고 돌아오는 오네시모의 눈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겠느냐는 말이죠. 이 감격, 이 감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감격이요, 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황재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 이상의 황재가, 더 이상의 큰 복이 없습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의 마음, 갈 때와 올 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묵상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감사, 감격을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오네시모를 위한 짧은 글이지만 ‘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짧은 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3-17]

영화제목 같습니다만 ‘조국을 위해 산화한 7인의 용사들’ 이러면 감동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월호 사건이나 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때 구조하기 위해서 잠수사들이 들어갔다가 희생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 쪽이 답답하기도 하고 저려 오기도 하고 그렇죠. 구하러 가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구하러 갔다가 본인들이 희생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고 ‘그럴 수밖에 없었나?’ 싶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좀 짠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무슨 감동이 오거나, 마음이 짠하거나,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둑이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 동생 중의 하나는 집에만 오면 야구를 봅니다. 모친이 잔소리 합니다. “만날 똑같은 것 왜 보고 있냐?” 이러거든요. 여러분, 중계방송 하는 야구가 만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야구장에 남자들만 득실거렸거든요. 여자들은 잘 안 갔어요. 야구 룰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룰을 알고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룰을 모르면 맨날 던지고 휘두르다가 맞는 것보다는 헛방이 더 많고... 똑같아 보여요. 그게 뭐가 재미있겠어요?

바둑은 더 하죠. 바둑 중계 방송하는 것 보셨어요?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예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무얼 그리 들여다 보는지 모르겠어요. 룰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룰을 알고 들여다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그 판에 치열한 싸움이 오고 가는 거죠. 피 터지는 싸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룰을 알면 그런데, 모르면 그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알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면 무슨 얘기가 나와도 별로 감동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누가 제일 놀랐는지 아세요? 비유권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서 맨발로 마당에 뛰어나와 끌어안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시며 기뻐하셔서 뛰어나올만한 일이 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는 말이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알아야 기뻐요.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길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싶으면 깨달아 알 때까지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나면 감동이에요, 은혜요, 기쁨이 넘칩니다.

세례란 ‘씻는다’라는 뜻도 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도 되는데 기원을 모세의 율법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큰 물두멍, 거대한 세숫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름이 약 10m 되는 거대한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성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손과 발을 꼭 씻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위생상의 문제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위생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레위기에도 보면 시체에 접촉한 사람,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라고 명하셨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부정한 병균이 묻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념상으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도 반드시 옷을 빨라고 시켰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는 씻는 걸로 해결되겠지만 종교적인 문제나 의식상의 부정이라는 것은 물로 씻는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으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도 물 자체에 너무 관심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단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너무 심하죠. 물이 없으면 절대로 세례가 안 된다. 다급하게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정 물이 없으면 침을 발라서라도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글썽, 물에 너무 그렇게 무게를 둘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단순한 정결의식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지금 오신다. 그 분이 오시기 전에 나는 하나의 모형이요 준비 동작으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뒤에 오시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의 흥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세례가 그렇게 효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예요. 내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 그런 뜻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실 그 분이 찾아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는 거죠.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들 어릴 때 교과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교과서였는지, 중학교 교과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녀석이 청소하는 날, 창턱에 걸터앉아서 열심히 유리를 닦았어요. 깨끗하게 참 잘 닦인 것 같았어요. 혼잣말로 선생님 흥내를 낸 거예요. “오늘 청소는 만점이야, 이제 가도 좋아!”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보니 뒤에 선생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평소에 하던 말이에요. “오늘 청소는 만점이야. 이제 가도 좋아!”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흥내 내다가 들켰으니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요한은 그저 뒤에 오실 그 분의 흥내를 냈는데 그 분이 찾아 오셔서 “내게도 세례를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송해서 ‘어떻게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사양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기어코 “네가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왜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물로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징이라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물로 씻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씻어야 할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분은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분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의 의미를 찾아보면 첫째,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심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세례를 달라고 하시죠?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이 조금 어려워져서, 우리가 쓰는 말투하고 달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굳이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허락하라. 그래서 요한이 기꺼이 세례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인간으로 낮아져서 이 인간 세상에 온 겁니다. 여기 와서 인간이 져야 할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진다는 의미에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첫 관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 많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느냐에 대해서는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분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거할 분도 아니요, 우리처럼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아야 하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싸우고 피 흘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옛날 전쟁 이야기를 보면 저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싶을 만큼 사람 목숨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야 나라를 세워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서 세워갑니다. 아까 부른 찬송 기억하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답이 뭐예요? 만왕의 왕?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뛰어난 그 분이 왜 그 고초를 당했나? 답이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흘리셨다” 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늘 목상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분이 날 위해서 돈 한 푼 쓸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 없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이 날 위해서 보혈을 흘렸나?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첫 관문이 죄 없으신 그 분이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며, 이렇게 되도록 낮아지셨다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이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황당하고,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다면 우리는 평생에 감격에, 감격을 더하고, 평생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교회 안에 낮은 사람이 많아요? 높은 사람이 많아요? 모두가 낮아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초신자예요.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모두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새 신자 한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안다면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하죠. 교회의 직분자나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낮아져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죠? 세족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 중에 잊지 말아야 하는 말이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입니다.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게 천국의 원리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섬김의 기본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추는 것,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새로 찾아온 교인을 향해서 몸을 낮추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나 수련회 한다고 다들 바빠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서 수고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 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표본을 예수님께서 참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 당연히 타인의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 중의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둘째는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분을 가리켜서 자기 스스로 “나는 그 분의 신발도 들 수 없는 천한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그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 비평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물로 죄가 씻겨 지나요? 검은 피부는 아무리 씻어도 검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죄성을 지적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범의 검은 반점을 너희가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의 그 얼룩덜룩한 무늬는 무슨 수를 써도 변하지 않더라. 이스라엘아, 너희 죄 많은 인생이

꼭 그 모양이더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물로 뿌리든지, 물로 담근다고 그 죄가 씻겨지나요?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분의 흥내를 내고 있었을 뿐인데도 예수님은 요한의 그 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고, 예수님은 말씀이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사역을 실제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것이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 동료, 혹은 아랫사람, 내보다 한참 후배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거나 무슨 일을 맡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유심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고 팀을 맡아서 일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장도 있고, 그런 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아이고, 순장이 저래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대체로 젊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단 맛, 쓴 맛 다 보신 분들이 보시면 목사님들이 아직도 새파랗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목사님이 저래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교회일 맡아서 사역하는 분들의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그 분들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뒤에서 밀어주고 세워서, 좋은 사역자로 만들어 가는, 이런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해요. 반면에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 자체를 그 사역 자체를 인정하고 동참하는 것 필요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 더러 계세요. ‘아, 기도 언제든지 하면 되지. 꼭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까? 저녁에 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왜 꼭 새벽에 나와야 되나?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안 나오면 되죠. 그런데 가끔 그렇게 묻긴 해요. “예배를 꼭 교회 와서 드려야 되나?” 집에서 단정히 옷 입고 예배드릴 수 있죠. 이 더운 여름에. 헌금은? 송금하면 되죠. 이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대답이 “예수님께서 꼭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이 질문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안 받으셔도 되는 그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선한 전통, 잘 하자고 만들어 놓은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아요. 형편이 어렵고, 나오기 어려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하자고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은 우리가 인정하고 동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역, 혹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기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이 세례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죽을 수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거죠. 죄 없이, 죄 있는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멀리 가서 대통령 보고 온 것만도 자랑이죠. 자랑 아니예요? 가서 무

얼 했어요? 보기를 했나요? 악수를 했나요? 아니오, 보기만 해도 자랑이에요. 내 앞에는 얼마 없고 내 뒤에는 굉장히 많네? 이거 큰 자랑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를 보고 친구라면서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별 관계없는 일이라서 감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대통령이 “내 친구 여기 있는데?” 하면서 찾아온다면 이거 보통 사건이겠느냐 말이에요.

창조주이셨던 그 분이 ‘여기 내 친구가 있는데?’ 하면서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친구가 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4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친구 되라는 설교하셨잖아요.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려고 왔으니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자.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인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한 사람이 뛰어 듭니다. 그걸 봤다면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존경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무슨 광고 할 때 “좋은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는 광고 있었죠? 그 사람 심정이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창조주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려하신다는 이것,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깊이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 되기 위한 노력에 참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라고 하셨죠? 믿는 성도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덩어리로 쪼개져 있을까요? 이 땅에 교회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 부부 지간에도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노력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된 부부, 하나 된 형제, 그리고 하나 된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걸 상상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홍보는 일이나 쪼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성도 간에 홍보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흠이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로 찾아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흥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뛰어 나오신 겁니다. 에덴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요. 우리에게 못 나타나셔요. 아니,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나타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접근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간혹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말 특별한 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하셔서 그냥 숨어 계시야 할 그 분이 숨어 있을 수 없어서 나와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 받고 나오시죠, 성령이 거기 임하시죠, 하나님은 뒤에서 음성을 들려 주셨어요! 삼위 하

나눔께서 한꺼번에 나타나시거나, 한꺼번에 뭔가 일을 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장면인가를 보여주시죠.

세 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일을 하신 것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라고 되어있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서로 의논을 해서 뜻을 맞추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첫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죠. 그렇게 좋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떠나버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제 2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제 2의 창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막 시작하시려는데 그 첫 단계가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던지 다시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이만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감격해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봐도 그냥 덤덤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일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덤덤하나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잘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행할 때 우리 형제가 세례를 받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요.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세례조차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누구 한 사람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 우리도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형제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1~10]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혹 들어보셨나요? 간절히 바라보고 마음에 그 꿈을 품고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 전에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죠. 된다고 믿으면 된답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극적 사고방식’이 유행을 했죠. 된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즈음 이런 책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1, 2, 3절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책들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좋은 가르침이고 또 실제로 그대로 따라 했다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되죠. 그런데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된다고 믿고 나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뭐가 되도 돼요. 그래서 차라리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하며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순 엉터리라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봄의 법칙도 좋고, 긍정의 힘도 좋습니다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좀 있기는 하더라도, 그 비판의 핵심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잘 살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믿는다면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의 차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은 참 좋은데 방향이 조금 비틀어지면 결과가 더 나빠질 수도 가끔 있습니다.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한 게 낫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정말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게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게 낫다’ 라서 참 부지런한 거예요. 못된 짓 하면서 부지런하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방향이 약간 비틀어지면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선조들의 예를 즉 전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가끔 들었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만약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얼 바라고 살았는지,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처럼 그렇게만 살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거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그건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들어서 바로 아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대상을 두 가지로 명시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라는

것, 즉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으니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이게 믿음의 대상이란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은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거나, 만지거나,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적절한 도구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를 알려면 자를 써야죠? 그런데 체중계를 가지고 오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맛을 알고 싶으면? 맛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도구 쓰면 알 수 있나요? 요즈음 수박 같은 경우는 워낙 익숙해지면 귀를 가지고 맛을 알 수 있죠? 두드려 보면 맛이 있겠다, 없겠다,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박의 맛을 알기 위해서 귀를 사용하는 것과 입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면 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입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귀를 쓰는 것이죠.

고기가 맛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나요? 옛날 제 친구 중에 고기 파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기에 칼을 대 보면 안대요. 특수한 예죠.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그림이 값어치가 있는 그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나요? 혀를 대보고 아나요, 눈으로 아나요, 귀로 아나요? 그림을 아는 데는 입이고 눈이고, 혀도 전혀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동원해서 주변 사물을 인식하지만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은 감각으로 안 돼요.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의 눈은 눈이 아니고 머리에요. 머리로 그림을 보아야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외국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외국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모르는 우리는 몇 번을 들어야 그 말을 이해할까요? 모르는 말은 평생을 들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들어보면 안다? 아니오! 아는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금방 들어도 알아듣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경 써서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예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저는 피카소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은 안 오고 ‘이상하다? 우리 애들 호작질/낙서/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 저게 몇 억씩 할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림을 보고 평가할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에게 가방을 하나 선물했는데 명품 흉내를 낸 것이었나 봐요. 그런데 사온 사람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머, 이거 열어봐도 돼요?” 남의 핸드백을 왜 열어가지고 안을 뒤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놀랐답니다. 사 준 사람도 모르고 들고 다닌 사람도 모르는데 남이 왜 그러나요? 아는 눈, 엄밀히 말하면 머리가 있거든요. 저도 시내에서 핸드백을 많이 봤지만 “야, 그거!” 하는 백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왜요? 저는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명품 중에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그렇죠. 볼 줄 아는 사람은 보는 순간 눈이 반짝 반짝 뜨인다네요.

우리 집사람도 교회 못 입고 오는 옷이 있어요. ‘사모님이 저렇게 고급 옷을 입고 다녀도 되나?’ 그래서 못 입고 있는 옷이 더러 있어요. 학교 근무할 때 보따리장수에게 산 거예요. 7만원 주고 산 옷인데 교회에서 “사모님, 이거 얼마 주고 산 옷이에요?” “7만원” 하니까 “아, 70만원 줬구나.” 이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입고 다녀요? 보따리장수한테 샀으니까 명품흉내 낸 것이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걸 비싼 명품이라고 보니까 못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은 봐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번쩍 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가대 지휘자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목에 힘 빼세요. 턱에 힘 빼세요.”죠? 본인들은 ‘힘 안 줬는데, 힘 뺐는데?’ 하지만 지휘자는 매일 힘 빼래요. 자기 턱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지휘자는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힘이 들어간 소리인지 빠진 소리인지를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순간에 알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이런 것들은 내가 본다고 아는 것 아니고, 듣는다고 아는 것 아니에요. 아는 사람의 말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귀가 뜨이거나 눈이 뜨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 때부터는 보여요.

감각과 관계된 것은 보든지 만지든지 맛을 보면 저절로 알아요. 그러나 지식이나 두뇌와 관계

된 것은 부지런히 배우고 갈고 닦아야 알 수 있어요. 귀나 혀나 손을 대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림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려고 혀를 갖다 대면 세상에 이런 바보 없잖아요? 머리가 그 수준을 따라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머리를 쓰라고 그랬더니 벽에 못을 박는데 이마로 쿵쿵 쪼터랍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머리 쓰라고 했잖아?’ 그거 머리 쓰는 거예요? 대상과 적절하게 도구를 못 맞추면 이런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 위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믿어야만 알지, 배우거나 느껴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아나요? 보면 알죠? 그러나 보면 안다는 것은 가장 피상적인 겁니다. 껍데기만 알고 짐작할 뿐이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꺾어봐야 알죠? 맞아요. 그런데 몇 년이나 꺾어보면 알아요? 결혼하고 30~40년 사시면 서로를 완벽하게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돼도 모르겠답니다. 사람을 알려면 꺾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사람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한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믿어 줄 때만이, 그 사람을 믿어줘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고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 꺾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줘야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됩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을 믿어 주면, 믿어주니까 사기 치던데... 이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관계가 어렵습니다.

병중에 가장 골치 아픈 병이 의치증이나 의부증입니다. 못 믿는 병이죠. 의치증을 무엇으로 고치나요? 약이 없습니다. 의부증도 약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요즈음 다른 집사님하고 ...’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사임해야죠.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도 고치려면 믿어야 돼요.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병이 들면 고치는 방법이 없으니 정상일 때 관계를 잘 다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다고 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길을 못 나가요. 실내에도 있어도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으면 어떡하지? 이게 심해지면? 갈 곳이 전혀 없어요. 들판에 혼자 앉아 있을 까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질까 겁이 나서 어떻게 다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요? 보고 알겠대구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실 분도 아니에요. 영적인 그 분을 우리의 감각이나 눈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 하지 말고, 알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증거 한 번 대 볼래? 이래서는 진짜 사랑하는지 절대 몰라요. 믿고 지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증거를 대서 이만하면 됐나? 응.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애당초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내 눈, 내 손, 내 머리로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도 아닌데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때론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말해서 ‘자기 확신’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장에 죽 이어가는 겁니다. 믿어야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말씀 하는 것이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믿어야 한다면 제일 처음 믿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3절 뒤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이 조금 어려워요.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말하는 것이니까 금방 알겠는데 그럼 나타난 것은 뭐냐? 옛날 회랍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고 저어느 곳에 따로 있는데 그 세상이 여기에 그림자처럼 비쳐진 것, 이게 우리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다른 어느 세상에서 이쪽으로 보인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다면, 창조 이전의 창조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은 이 물건을 만들기 전에 어떤 재료가 있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그 앞줄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은 원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태를 바꿔서 우리에게 나타났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에 제일 많은 지지를 받는 이론이 '대폭발' 이론입니다. '빅뱅'이라고 말하죠. 이 우주는 원래 한 점, 아주 무거운 한 점이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뻥 터지는 바람에 지금도 그게 터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터지기 전에 있던 것, 그게 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뭔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터지면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게 오늘날 가장 많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그 다음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펴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도전을 합니다. 이게 믿을래? 말래? 이게 믿어지면 성경책 그 뒤에 있는 것을 다 믿을 수 있고,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의 기적들 많이 나오잖아요?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한동대 예전의 김영길 총장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게 된 이야기 중에, 미국에 있다가 사모님을 따라서 교회 불들려 나갔나 봐요. 성경 읽으라고 해서 신약성경부터 읽었습니다. 제일 먼저 믿을 수 없었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랬겠쥬. 무식한 사람들이 물이나 포도주나 다 물이니까 물로 포도주 되는 것은 쉽게 생각되는지 몰라도 과학자의 눈에는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이예요. 물은 H_2O 잖아요. 수소, 산소가 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는 C_2H_5OH 저도 이거 외운다고 애 먹은 겁니다. 포도주에는 H와 O와 C, 탄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무식한 대중은 물이나 포도주나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과학자인 자기 눈에는 C가 그냥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돼, 믿을 수 없어.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좀 더 넘어가면 기가 막히는 것 있죠? 이 사람들 생물 배우지도 않았나?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주알고주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을래? 말래? 이거거든요. 왜요?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예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고 보여줘서 될 문제가 아닌데 이 분이 어찌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앞에 놓고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과학자로서 많은 것을 살피고, 살피고 하는데 '아, 과학의 한계가 여기까지고 이 너머는 과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어느 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걸 믿고 나니깐 그 전에 안돼, 안돼, 말 안돼!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가 '아니,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분 같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 그게 풀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풀렸냐고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래? 말래? 이걸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믿어요?

믿어지면 복이고, 안 믿어지면 안타까워해야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으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 귀신들린 아이 아버지 있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아이를 맡겼던 그 분, 무조건 '믿습니다' 해 놓고 자기 속을 보니까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아. '예수님, 지금 내가 믿어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

는 것 같아요.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게 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마음조차도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던 거죠.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을래? 말래? 라고 물을 때에 믿어지게 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 아니 믿고 싶은 이 간절함,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이 창조세계, 이걸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죽 길게 이어갑니다. 아벨이나 에녹이 나오고 노아나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분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믿은 거예요. 노아의 경우에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그걸 누가 믿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는단. 이런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하죠. 내가 지금 가야 할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간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라는 것의 법칙이라는 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간절히 바라보면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무엇을 얻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얼 소망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간절히 소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성경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봤던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냐?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의 아픔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죠.

‘긍정의 힘’이라는 것,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무조건하고 할 수 있다면 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해병대 정신이라고 붙여 봤어요. 해병대? 하면 된다! 포항에 해병대 훈련소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그런 글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무조건 하다보면 뭐가 되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능력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오해를 많이 받은 문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잘 생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옥에 갇혀서 그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받고 답장을 쓸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맙다.’ 그래야 되죠? 고맙다고 하는 뜻으로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내게 헌금을 보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형편이 좋든지 어떤 시간에 얼마든지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헌금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1,000명 모여 있던 교회가 당장에 2,000명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내게 맡겨준 사명은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맥은 놓쳐 버리고 무조건 ‘믿고 나서면, 한다 하면 된다’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가지게 해 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도 그 믿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확 일 한 번 저질러 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 믿고 그 동차 버리고 새 차 뽑아 버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대형교회를 건축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고... 왜 그러나요? 자기 능력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미련하게 밀어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 주시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밀어 주시고 다 도와 주시나요? 옛날에 어떤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나요. ‘친구’라는 광패 영화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니 시다바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 욕심 때문에 일을 무리하게 저질러 놓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 뒀나 닦아주는 네 종이야?” 이러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지를 잘 살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다보니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원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으니,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나 부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또 호화롭게 사는 것, 괜찮아요. 능력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11장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아니면 참 고생하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합니다. 마치 계주처럼 설명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 줬다. 너희들이 나머지 주자들이니까 그 길을 잘 달려가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 이 믿음장,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계주 잘 아시죠?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들고 똑바로 가면 되는데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다가 엎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죽 하면서 이게 마치 계주와 같으니마 마지막까지 잘 가거라. 그러면서 잘 가는 방법을 1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에서 ‘**믿음의 주**’라는 이 주는 주인이라는 주(主) 자가 아니예요. 굳이 우리말로 풀이를 한다면 근원, 혹은 창시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창시자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도착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선이기도 하고 동시에 도착점이기도 한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달려가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잠시 뛰어 가다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아니면 관중석에 있는 엄마 찾다가 엎어진 아이처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을 다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다. 히브리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봄의 법칙? 좋아요. 무얼 바라보라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하면 되는 거다?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힘주고 계시다는 이 믿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냥 믿으라고?! 그러나 특별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쉬운 방법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을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겠다고 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다운 방법이고, 참 기묘한 방

법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별을 따와라, 아니면 돈을 얼마를 내 봐라, 이런 방법을 안 쓰셨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도 굳이 따지면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수록 불리한 방법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금, 보화가 가득한 땅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셋 사람 같이 술꺅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와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철가치가 어디 있는뇨 [이사야 2:6-22]

요즈음 들어서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도 나고 군대에서도 나고 학교에서도 나고요 심지어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 속도 안심할 곳이 못 되는 듯합니다. 그나마 외국에는 전쟁이나 테러까지 더해져서 참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고가 터져도 자기 마을 주변만 알면 됐잖아요. 요즈음은 세계화가 돼서 좋은 줄 알았더니 걱정도 세계화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먼 곳에 터진 사건 사고도 전부 우리 곁에서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는지 한 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냅니다. 구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냈는데 그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온갖 산물이 풍부하고 소와 말이 번성하고 은금도 많고 또 질병도 없이 오래 산대요. 주변에 위험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셔요. 애굽에서처럼 농사지으려고 물 끌어대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물도 적절하게 다 대 주시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도 없이 풍족하게 먹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간다. 그렇게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좋은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것만 하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토록 장수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렇게 살 텐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 버리면 이스라엘은 늑대나 이리 떼 한 가운데에 고기 덩어리를 들고 서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꼴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지, 아니면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생을 하게 될지 그런 딱 한 가지 사실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할래? 안 할래? 이것만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고 은금 보화가 많아질 때에 혹시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입니다. 복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잘 살도록 해 주면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인데... 걱정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살지 못 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지, 말지, 이 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느 쪽으로 가나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던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저 버려요. 영락없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 일을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아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딱 하나만 먹지 말

라고 했죠? 우리 인생이 ‘다 해도 좋은데 요것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면 요것을 하나요, 안 하나요? 요게 문제예요. 아이들 데리고 실험을 해 보세요. “애, 다 해도 되는데 요것만 하지 마.” 하고 내버려 두세요. 요것 손대는지 안 대는지? 참 쉽지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는 아들 다섯을 키우면서 무엇을 많이 숨겨요. 감주를 하잖아요, 서울말로 하면 식혜, 참 잘 만들어요.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야 돼요. 워낙 먹성들이 좋으니까요. 며칠 잘 먹고 “이게 다/전부/ 다” 절대 다가 아니예요. ‘이게 다 다’ 해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또 찾아서 먹잖아요. “이거는 곰국 끓인 거다.” 하고 넣어 놓으면 우리 형제 중에 딱 한 녀석이 손을 안 댔어요. ‘아니, 없다고 했는데?’ 어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없다고 해도 ‘어딘가 있어.’ 하며 다 찾아서 먹는데, 집에 아무리 숨겨 봐야 찾아지는 거잖아요.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은 ‘이게 다 다’ 해도 안 믿어요. ‘이거 먹으면 탈난다’ 해도 안 믿어요. 꼭 건드려 봐야 직성이 풀렸어요. 아담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것 꼭 건드려 봤어요. 우리 인간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 이야기 하면 누군가 이런 이야기 잘 해요.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 만들어서 그렇잖아, 안 만들었으면 됐을 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선악과를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괜히 만들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괜찮을 건데?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강아지를 기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강아지는 말 잘 들죠? 자식들은 말을 잘 들나요? 보통 말을 잘 안 들죠!

말을 잘 안 듣는 자식과 말 잘 듣는 강아지하고 어느 게 귀해요? 물론이나 마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강아지나 로봇이나 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 필수적인 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표시입니다. 가끔 살기 어렵다고 애꿎게 엄마 원망하는 애들 있죠? 철없을 때 하는 얘기죠. 나중에 자라나서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나면 이렇게 자기를 낳아 준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하는 얘기는 그렇게 철없는 아이와 비슷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누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요?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천사는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을 때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 때, 뒤를 돌아다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구나!’ 감사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웃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만큼이나, 그 만큼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버금갈 수 있을 만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본문 7절을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아주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은금도 많고 보화도 많고 마필도 많고 병거도 많은데 거기 왜 우상이 많은 거냐는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우상 때문에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하죠. 이 야곱 족속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동방에 있던 나라들 아랍이나 앗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 것 아닌 남의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바나바 팀이 어느 연주회에 갔었어요. 연주회에 갔으면 음악을 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음악 얘기는 어디 가고 연주자 중에 누가 제일 마르고, 누가 제일 예쁘냐?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은 자기 집에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그리 예쁜 줄을 모르나 봐. 밖에 나가면 다 예

빠 보이고... 아무리 예뻐 봐야 다 그림이잖아요, 그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화, 자기 것 좋아할 줄 모르고 왜 이웃나라 것을 가져 오는지 모르겠어요. 가져오다보니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교적인 문화, 우상 같은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의 점치는 법도 배워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어 사는 거예요. 이걸 한 마디로 말해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우상이나 이방나라의 이상한 풍습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분이 안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구별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구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 모두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잘 봐라. 그 속에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다.' 저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 아니다. 아무 걱정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날마다 나오는 사람 있다.'고 해요. 전 있다고 믿어요. 복된 사람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 버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 버렸다고 말할 때, 이들에게 우상도 많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완전하게 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고 다른 나라의 풍속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동의를 못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잊었던 말입니까? 안식일만 되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 찾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었던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상을 따르고 이방 풍속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예가 아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꿈쩍 못해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했을 때 못 뺏잖아요?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알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아합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한 편으로는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십니다. 참 걱정이 되는 게 돈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표절 문제로 시끄러워진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긴 몰라도 돈이 우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돈이 우상이 된 거란 말이죠.

가끔은 목사들이 무식한 건지, 무식한 척하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 이야기지만 도중에 한 군데만 딱 자를 테니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내가 성령이다, 이런 뜻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교회 당회장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읽어 보면, 아니 이 구절만 봐도 '아, 그런 뜻으로 말을 했겠구나.' 하는 게 금방 보여요. 그런데 이게 그 교단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발이 된 거예요. 재판이 열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판할 권덕지도 못 되는데 재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분들이 이 말을 읽을 줄 모르는지 그러니까 무식한 건지, 무슨 뜻인지는 알면서도 이 목사가 미우니까 무식한 척 하면서 징계를 하려고 덤비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 입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 두고 자기들의 잇속만 찾아 가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감이 안 잡

혀요. 진짜 무서워요.

목사님들만 이럴까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럴 것 같으면 일반 장로, 집사, 권사들은 어떻겠느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만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섬기노라 하면서 다른 잇속을 찾고 다른 명예나 다른 돈이나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나 대신에 너희가 돈을 섬기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학교 가서 점수 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요즈음 아이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시간도 많이 투자 하지만 돈도 얼마나 많이 투자해요? 그렇게 투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신경 쓰느냐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 하고 잘 자라서 취업하고 잘 살 것이라고 우리가 애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그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우선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중에 정말 편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명예나 점수에 매여서 살고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점수를 포기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선, 이걸 아이들에게 잘 심어 놓으면 나중에 편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 놓고 다른 그 무엇에 더 끌려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때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밭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주로 나라를 위한 기도, 구국 기도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기도조차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한 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어놓고,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그 풍속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아닐까?' 한 번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들로 많이 채워 주셨는데도 거기에 우상도 가득하더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유컨대 온갖 보물을 가득 실은 거대한 배와 같아요. 그런데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키가 고장이 났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가득 실은 이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항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같은 것은 박으면 쿵 하고 쉽니다. 벽을 조금 뚫고 들어가든지요. 거대한 배가 항구를 향해 돌진해 육지와 부딪히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거대한 배는 박았다고 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육지로 밀고 올라옵니다. 워낙 거대하고 육중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을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밀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할 때에 물질의 풍성함, 금은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쩌면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전에 당부하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들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젖어 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야 한다. 이걸 더 강하게 믿으라! 그런 뜻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말라고 미리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많은 은금 보화를 가득 쌓아놓고 우상도 가득히 세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얘기가 13절부터입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

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니' 이러는데 계속해서 모든, 모든 이라는 말이 붙어 나오죠? 왜 말끝마다 모든, 모든 하십니까? 한 마디로 이겁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말끝마다 모든, 모든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 대신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굴복되고 낮아 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이 쌓아둔 것도 하나님께서 물어버리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실 때, 늘 하시던 이야기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한 없이 오래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그것을 재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진짜 큰 부자, 진짜 큰 부자예요. 식사하는 것을 봤는데 고구마 하나하고 단무지 비슷한 것 하나가 전부였어요. 식사를 그렇게 밖에 못하는데요. 부자라고 많이 먹는 것 아니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많은 재산이 소용이 없어요. 그것밖에 못 먹는대요. 하나님 제쳐두고 재물 모으기에 열심이신 분은 나중을 위해서 고구마 먹는 연습 많이 해 두세요.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금 우상, 은 우상이 어디에 쓰이느냐? 20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득했던 금 은을 박쥐 쫓아내는데, 두더지 쫓아내는 데에 쓰이는 거예요. 두더지는 무엇으로 쫓아내면 됩니까? 돌이나 막대기 같은 것으로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금이나 은을 던져서 박쥐나 두더지를 쫓아내느냐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데 우상을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소중하게 모셨던 금 은 우상을 들고 도망을 쳤는데 하필이면 두더지와 박쥐가 살고 있는 그런 바위틈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흔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박쥐나 두더지를 쫓아내려고 가지고 갔던 금 우상이나 은 우상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은이나 금도 심판하는 날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끝에 덧붙여 놓은 이야기가 참 이상해요. 22절이 문맥상으로 왜 여기 붙었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 말은 콧구멍만 막아 버리면 못 살지 않느냐? 그거 뭐 믿을 거냐? 이런 뜻입니다. 콧구멍 막으면 입 있잖아? 이러지 마세요. 같은 걸로 쳐야 되죠. 아니, 숨만 조금 막으면 죽는 인생을 뭘 의지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카센터를 하는 제자가 있는데 "선생님, 사람들이 무얼 믿고 자동차를 몰고 저렇게 100km 이상씩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달리다가 파이프 하나 새거나 어느 한쪽 구석이 고장이 나면 차가 넘어 가기도 하고 박살이 나기도 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그걸 몰고 왜 그렇게 생생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몰고 안심하고 고속도로를 생생하게 달리는데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품 중의 하나가 탈이 나거나 나사가 풀려 바퀴가 도망을 가 버리면 그걸 믿고 어떻게 생생 달리느냐?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사람은 자동차에 비하면 어쩌면 더 약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다 멀쩡하고 무엇이든지 다할 것 같지만 파이프 하나 끊어지면, 어디 한 군데 터져 버리면, 사용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코만 잠시 막으면 끝나는 걸 그걸 무슨 수에다가 놓느냐? 숫자에 놓을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왜 덧붙였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을 바꾸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도 믿지 말고, 믿을 수도 없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은금과 보화가 무한한 땅에서 잘 누리며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배도 무섭고 비행기도 무섭고 기차도 무섭고 지하철도 무섭고 자동차 합부로 생생 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잡철의 땅 속에 길이 80m짜리 굴이 갑자기 생겼대요. 달리고 있는데 그게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 건너기도 무서워요. 옛날 이야기지만 성수 대교도 있잖아요? 아이들 군대 보내기도 진짜 겁나는 거예요. “야, 육군은 안 되겠다, 공군 가거라.” 그랬더니 어제 신문에 공군에도 누구 하나 죽었다고 신문에 났다고 그러네요. 육군도 못 믿고 공군도 못 믿고 해군도 못 믿겠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러다가는 정신병 들기 딱 알맞습니다. 아무 것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이 땅의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그 무엇을 기대고 살다보면 우리는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본래 이런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앞에 미안하지만 저도 제가 온 길을 더듬어보면 ‘아, 나는 지뢰밭을 뛰놀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뢰밭에서 뛰놀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뢰를 안 밟았지?’ 이런 감격이 늘 있어요! 이래서 간이 좀 커진 거예요. 원래 저도 겁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뒤돌아보니 그 지뢰밭이었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안 밟고 지나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발을 지켜 주셨더라!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인생이 얼마나 위험할지를 생각하면서도 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회복의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가 특별히 더 그래요. 이사야는 많은 이야기들이 연결돼 있는데 그 이야기의 단락을 지으려면 처음에는 징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의 끝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징계의 이야기가 좀 길어요. 회복의 이야기가 4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썩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광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한참 지나가보면 반드시 회복할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복의 중요한 동기가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썩이 아름답다’ 그래요. ‘한 썩이 난다’는 겁니다. 저 뒤에 가보면 ‘한 아들이 난다’ 이러시거든요.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면 이 썩이 가리키는 것,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가리키는 것,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 이것이 이사야서 혹은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꼭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이 된 후에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주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동산보다 훨씬 더 나은 곳, 아담의 몸보다 훨씬 더 완성된 몸으로 살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분, 부분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는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회

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 그것이 정상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 걱정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걱정 끌어안고 살아요. 그냥 겉으로만 웃고 있을 뿐, 속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걱정 떨쳐 버리고, 그래도 이 힘든 땅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험들을 비켜 가도록 만드세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잘비켜 가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낫죠.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며, 말씀대로 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야 여호와를 알리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찢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 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론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6:1-14]

자주 쓰는 말 중에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말이 있죠?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하시겠죠? 옛날 연애했던 시절로 돌아가면 더 뜨겁게 사랑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잘 해 드릴 것 같죠? 그런데 그 때는 왜 그런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왜 살아계실 때에 정말 효도를 다 하지 않았을까? 그 때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꼭 기회가 지나가고 난 뒤에 후회하고 좀 심하면 평생 후회만 하다가 지나가버리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렇게 후회하리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아니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상황인지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효성을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그런 사람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더러 봤어요.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애가 중3인데 고1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딱 한 마디 물었어요. “재밌냐?” “예, 재밌습니다.” 수학을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은 무서운 아이예요.

어머니들이 학교에 모였는데 “담임선생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했는데 제일 먼저 그 애 엄마가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집에 가면 잠 좀 자라고 해 주세요.” “왜요?”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해요.” 이런 엄마를 어떻게 해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세요. 무슨 다른 엄마들 기죽일 일 있냐고! 그런 엄마는 어머니회에 오면 안돼요. 그런 애가 있더라니까요. 훗날 후회하기 전에, 그 현장에서 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그런 소망을 한 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3번 침공을 해요. 1차 침공해서 인질로 쓸 만한 귀족의 자제들을 전부 잡아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2차 침공에서 쓸 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아갑니다. 잡아 가면서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 둡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이죠. 인질을 잡아갔던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간 것 같아요. 2차 침공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간 듯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은 그가 포로로 잡혀간지 5년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 있어요. 허수아비 같은 왕, 이 왕이 이스라엘을 12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본지가 5년째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아직도 왕 노릇하

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도, 징계 받느라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참 이상해요. 또, 에스겔에게 보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보여 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까요? 짐작컨대 그것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음성은 들려 주셨거든요. 백성들이 음성을 듣는 것조차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우상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 버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 얼마나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그러고도 그들은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 주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못 나타나셔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형상 일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도 어떤 의미에서는 반칙이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간격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못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 인생은 죽고 만다.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기 있다.’라는 흥내만 내신 적이 가끔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모습이나,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장면도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흔적 정도만 겨우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계시는데도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 인생들과 접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유컨대,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끼리 풀도록 놔둬야지, 어른들이 쫓아가서 “야, 너 그러면 되냐?”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집안끼리 싸움합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잠시 물러나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러서서 가만히 있으니 하도 끝이 말이 아니라서,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나타나셔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저런 당부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나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나도 한 번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 보면 정말 확고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꿈 안 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드리려 해요. 에스겔이 왜 그 놀라운 환상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12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여러 번 시키셨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는 신약의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서 수고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후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돌봤죠.

먼저 죽은 사람이 편할까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편할까요? 전해오는 얘기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데려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남겨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돌보게 합니까? 나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요한아, 너는 살아있는 순교자야!”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 다른 말로 해서 정말 특별한 아픔을 견뎌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아,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나도?’ 이런 꿈 안 꾸시는 게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든 보여 달라고 하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에스겔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해 버리면 심판과 회복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된다. 혹은 심판이 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혹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나라를 향한 메시지는 모하케도 심판뿐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반드시 심판과 회복이 있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겔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다시 회복이 있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부분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속에 문득, 문득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 주목해서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산을 보고 외치라고 합니다. ‘산들아 주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이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들어야 되지, 왜 산들아 들으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들이 섬기는 산에 우상이 있고 우상들의 신전이 있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비유컨대 이런 거죠. 저녁에 부부싸움을 대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분이 안 풀렸어요. 아침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요즈음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해 준대요. 그러나 우리세대는 아무리 미워도 아침은 해서 먹여 보냅니다. 아침은 다 했는데 ‘와서 식사하고 출근하세요.’ 이 이야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애꿎은 애들만 볶아 대죠. 애들 보고 ‘아침 안 먹고 뭐 하고 있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죠.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들으라’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도 보시면 ‘사방의 모든 성읍을 사막이 되게 하시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제단은 깨어지고 우상들도 깨어지고 분향제단들도 다 깨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이나 산당, 제단, 분향제단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그 곳에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7절 보세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끔찍한 심판이 임하고 너희가 다 죽어나고 모든 산당이나 우상이 파괴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6장에는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돼요. 10절 보세요,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 때가 언제죠? 심판을 당해 모두 죽고 난 뒤에야, 그 때 가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겁니다. 13절 끝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끝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재앙을 당하고 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뒤집으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몰라서 이런 재앙을 당한다는 뜻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 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휘파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만 가지 재앙의 원인입니다. 에스겔서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체가 48장인데 이 표현이 54번 나와요. 비슷한 표현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70번이나 나와요.

말끝마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라고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몰라서, 내가 여호와인 줄 몰라서, 내가 참 신인 줄 몰라서, 너희가 이런 재앙을 당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때에야, 그 때가 되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장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힌트를 다 주셨어요.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 주시고, 다 막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에게 “내 나이 겨우 130입니다마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해요. 스스로 뒤돌아보면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산 이유가 뭐냐? 자기를 따라 다니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야곱이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기도는 보험성격이 짙어요. 자기가 할 바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험 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안 되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압복강 가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야곱 아니예요.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권 거예요. 야곱이 매달린 것 아니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셨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든 결국 같은 분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밥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눈치 좀 채라고! 새벽녘에야 겨우 야곱이 눈치를 채고,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이게 야곱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죠. 그가 죽기 직전에 명언 한 마디 남겨요. ‘나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거 참 진한 사랑고백입니다. 평생 몰랐어요! 그런데 죽을 때 다 돼서 깨달았어요. 일찍 알았더라면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야곱도 이정도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죠? 그 재앙의 주원인은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앙으로 두들겨도 “하나님이 누군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가 홍해에 완전히 수장이 되고 난 뒤에야, 홀로 돌아오면서 그제야 ‘모세가 말했던 그 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 그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늦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맥을 이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미리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미리 섬긴 예는 극히 드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서 울고불고 하다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면 얼마쯤 가다가 또 잊어버려요. 누구를 닮았나요? 부디 이런 인생 닮은 분이 여기는 없기 바랍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냐?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간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간증, 들으면 자꾸 짜증나는 간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참 잘 되었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보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날려 먹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다시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간증 들으면 짜증이 나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무런 탈도 없고 아무런

고생도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이런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은 아무도 안 하네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대학 시절에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보고 “너는 왜 졸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도 저녁에는 잘 졸아요.” “그것 말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귀를 모를까요? 정말 힘들게 대학 생활을 지나고 했지만 그럼에도 옆에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보기에는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쳐다보니, 저 놈은 흔들리지도 안 하고 방황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면 “나도 잘 조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넘어갑니다. 후배들이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말씀을 많이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다보니 흔들릴 이유가 없더라. 신앙이라는 것이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 쓰면 뒤로 물러가는 것 없다. 그대로 한 발자국씩 앞으로만 가더라.’ 제가 좀 이상하나 싶어서 비슷한 사람 찾아 봤는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성경 가르치는 일에만 그렇게 열심을 냈죠.

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하죠.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동기들이 젊어요. 저보다 20살씩 차이가 났거든요. 싱거운 녀석이 싱거운 질문을 해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말짱하게 신학교 왔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야, 그러면 말짱하게 오지, 어떻게 오냐?” “그 나이에 신학교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하나가 빠개지든지 부서지든지 아니면 집안이 박살이 나든지 그래서 오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 눈에 제가 말짱하게 보였던가 봐요. 제가 한 마디 했어요. “내가 좀 늦게 오긴 했지만 신학교 오기 전에 밤낮없이 성경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냥 보내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런다니까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꼭 빠개지고 깨져야 하나님을 아느냐 말이에요?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굳이 깨지고 엎어지고 징계당할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이걸 성경 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말씀대로 잘 살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중국의 유명한 명의 ‘화타’라는 분 있죠? 이 분이 외과 수술로 유명합니다. 임금님이 불려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 화타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형제가 3형제인데 진짜 명의는 큰 형님입니다. 우리 큰 형님은 사람들이 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사예요. 이게 진짜 명의인데 사람들이 우리 형님의 진가를 알지 못해요. 둘째 형님이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나아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 고쳐버려요.

첫 형님이 최고의 명의고, 둘째 형님은 그 보다는 조금 못한 명의지만, 제가 제일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을 때 다 된 사람만 찌든지 뜯든지 해서 고쳐 놓는데 결과적으로 소문은 제가 명의라고 났지만 진짜 명의는 우리 형님들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병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다 해 버리는 사람이 진짜 명의인데 소문이 잘 안 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애당초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예방조치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다 당한 뒤에 ‘그 분이 아, 하나님이셨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죠. 만약에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주신 그 말씀을 부어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나중에 그런 깨달음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이 땅에서 잘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그게 신명기가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경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말씀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 만나도 가르치셨고, 두세 사람 만나도 가르치셨고 계속 말씀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 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셨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을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걸 이해 못한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 가르치심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흔히 전도자라고 하죠.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죠? 바울의 전도 방법 기억하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하고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한 곳에 오래토록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떠나실 때가 되면, 그 교회를 돌 볼 사람을 세워놓고 떠나는 이런 식이었습시다.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교회인데 소아시아의 7교회, 물론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라서 그렇지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때 거기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자라고 하니깐, 이 세상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하나 주고, 성경책 하나 주고 지나가고? 아니오, 오래토록 머물면서 가르치고, 떠나고 난 뒤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글로 써서라도 다시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시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만 세워놓으면 그게 건물밖에 더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장로교회를 세웠던 우리 선조들이 이단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종교 개혁의 선봉에 섰던 루터가 우리가 말할 때는 루터지만 가톨릭에서는 최고의 이단아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루터를 이단아라고 말해요.

루터가 이단으로 몰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자체가 이단이에요. 왜요? 신부가 라틴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요. 루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말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야 안 되겠다?' 그래서 번역했는데, 번역 그 자체가 이단이라니까요. 그렇게 몰린 거예요. 그 당시의 이단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단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단으로 낙인찍히면 황제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시절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성경을 번역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 주었습시다.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서점에 가서 몇 만 원 주고 산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뿌려 가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해 주었습시다. 이렇게 전해 준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이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귀한 방법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돼요. 배운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는 것, 배우는 것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울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알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명한 연예인, 스타들을 얼마나 잘 아는지 물어 보세요. 우리 조카 한 놈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중학생인 주제에 영국의 축구팀 '맨유'에 등장하는 모든 선수의 이름을 다 꿰고 있어요. 물으면 짹 나온답니다. 개가 그 팀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그 시합 한 번 보러 영국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말은 안 했지만 '골 비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녀석 앉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맨유 선수 그렇게 잘 아는데,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봐."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선수 한 명보다 더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

면 내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날 밤을 새워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아닐까요?

옥황상제에 대해서 얘기 하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 할까요? 시간을 얼마나 주면 여러분들이 옥황상제에 대해서, 아니면 저 용왕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겠어요? 얼마 필요해요? 제 생각에 1분 넘어갈 것도 없어요. 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면 되겠어요? “글쎄, 뭐 성경 보면 알고 있는데...” 이라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1분 안 걸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옥황상제나, 용왕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불행을 피해 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 징계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징계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남기려 합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어떡하든지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하겠다고 말하세요.

어떤 자가 살아남습니까? 보세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이러죠? 이방인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기억하는 자를, 9절에 끝에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멸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시켜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 써 여호와를 알자.’ 이사야는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을 말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 크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징계 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런 징계,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미리 아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평온한 삶을 사는, 이 땅의 삶이 평온해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높은 사람 한 사람 알아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분이 조금만 거들어 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참 쉽잖아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옛날 공군에 갔었는데 좋은 부대에 떨어졌던가 봐요. 좋은 부대에 떨어지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이 꼭 물어요. “너는 누구 뺨으로 여기에 왔냐?” 그런데 그 분은 아무리 뒤돌아봐도 뺨이 없어요. 뺨이 없는데 그 당시 공군참모 총장이 자기와 이름 두 자가 같았어요.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묻고 볶아대니까 “우리 형님이, 저 위에...” 이랬던가 봐요.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감히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에요, 높은 사람하고 이름만 같았을 뿐인데 군대 생활이 편해지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 아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그게 벼슬인지 아세요? 지금은 대학부에 가 있습니다만 고등부 여학생 중에 손연재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대학부에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벼슬인지 아세요? 손연재가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 애들이 친구라고 거기 나갔던가 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 “나, 손 연재 친구데!” 이것도 대단한 벼슬이에요. “우리 형님이, 저 위에 총장...” “입니다” 도 안 했어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다 알아서 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나, 하나님 잘 아는데, 하나님하고 친한데!” 이 정도 하고 사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시는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집 나가려는 아들을 어떻게?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팔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11-24]

아이들이 가끔 부모님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버지, 대학을 다니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팍아 드릴 테니까 절반만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일찍이 성공할 테니까요.” 대학생 한 명 공부시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요즈음 등록금이 웬만하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년이면 4,000만 원이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로 보내서 하숙하면 등록금하고 하숙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기본이 8,000만원이요. 거기다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적게 잡아도 8,000만원이요.

‘4,000만원만 주세요. 그러면 일찍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편히 모실게요.’ 그럴듯해요? 그 말을 듣고 ‘이 돈을 주면 애가 정말 성공할까? 성공 못할까?’ 이런 말을 들으면 며칠씩 고민을 하나요? 고민하는 아버지는 바보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들은 척 할 필요도 없이 한 칼에! 좌~악!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 생각에는 그럴듯하다고 여기나 봐요. 그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민할 문제도 못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아버지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유대에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줄 재산 미리 주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걸 대학 등록금 절반 정도가 아니잖아요. 유산을, 물려 줄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재산을 넘겨줘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셨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들이 이상해요? 아버지가 이상해요? 아들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아요. 철딱서니 없는 자식이 무슨 소리를 못합니까? 반면에 그 말을 들어주는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중심은 아들이 아닙니다. 개는 정상이니까요. 정상이 아닌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본문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아들이 왜 집을 나가려고 그랬을까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짓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짐작이 좀 갑니다. 재산을 나눠 줬더니 며칠이 안 돼서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간 거예요. 왜 먼 나라까지 갔겠어요? 아버지가 다시는 나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본 거예요. 이 아들이 왜 재산을 나눠 달라고 했겠어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마음껏 한 번 살아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 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 딸들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든지 대학을 가면 집을 떠나 자취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 와서 자취생활을 시작해 보면 1~2달 만에 ‘아, 내가 왜 좋은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이거 한다고...’ 한 두 달 만에 포기하는 그걸 꿈이라고... 이게 얼마나 헛꿈인지 모릅니다.

아무 간섭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 좋아 보이는 듯싶어도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다.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잖아요.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내 마음대로 가 볼래!' 하고 철로를 벗어나면, 이것을 우리는 '탈선' 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어항 속에 있던 금붕어가 이게 좁다고 '넓은 세상 볼 거야.' 하고 튀어 나오면 죽는 거죠. 금붕어는 어항 속에 잠전히 있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좁다고 튀어나가는 게 아니죠.

비행기도 가는 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야 할 길, 가야 할 높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제 멋대로 움직인다면 '항로이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격추된 비행기나 갑자기 하늘에서 사라져 버린 비행기는 주원인이 항로이탈입니다. 무섭습니다! 옛날에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비행기가 부딪히는 것이었어요. 그 넓은 하늘에서 왜 박아요? 오는 비행기는 이 정도 높이로 오고, 가는 비행기는 이 높이로 가라,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무시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야 할 길을 잘 따라 가는 것이 복인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인데, 아버지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아 볼 거라고 재산을 들고 나간 것이 절대 복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중에 가장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맨날 술집에 있는 가장도 있어요. 옆에서 보기에 딱한데 집안 식구들 보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가장이 가장의 자리를 안 지키고 도박장에만 들락거리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조금 알 듯도 해요. 결혼할 때 장모님이 '딱 2가지를 하거든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도박 이래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첫째 도박, 둘째?... 아하 둘째가 보증이었던 것 같아요. 보증은 능력이 없어서 못 서고, 도박이나 술은 애당초 관계없었으니깐 우리 장모님의 코치가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박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연유이든 간에 아들은 떠나고 싶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곳으로 떠납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감옥을 탈출해서 나가는 기분인가 싶기도 해요. 돈 있죠, 간섭할 사람 없죠. 마음대로 쓸 돈 있고 간섭할 사람 없으면? 여러분은 좋은 일 하실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정말 좋은 데에 한 번 써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돈 많고 간섭하는 사람 없으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수고해야 먹고 살리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은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땀 안 흘리고 멋지게 사는 게 없을까? 혹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팔자가 좋더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방식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약 중에 '당의정'이라는 것 있죠? 먹기 어려운 쓴 약의 끝에 당을 발라놓은 약, 당의정이라고 합니다만 그거하고 똑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달다고 훌쩍훌쩍 빨고 있으면? 껌데기가 녹으면 안에 쓴 약이 있어 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녹기 전에 삼켜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마에 땀 흘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멋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당의정 빨고 있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간혹 더 이상 수고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싶은 일이 가끔 생기고 생기잖아요. 주로 복권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느닷없이 부동산이 빵 뛰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가진 분의 말로가 대체로 비참해요. 너무 어릴 때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 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좋은 예가 '나 홀로 집에' 등장하는 아역 배우 있잖아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됐죠. 그 결과 가정이 다 깨졌어요. 아이는 마약중독, 부모는 이혼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며칠 전의 재판인데 어떤 분이 3년 동안 카지노에 들락거리면서 탕진한 돈이 230억이 넘었답니다. 230억이면 얼마가 되는지 감도 안 잡히는 돈을 3년 동안 탕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

송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갖다가 허비하고 있는데 카지노 측에서 제대로 나를 안 알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죠. 1심, 2심에서 10%인가? 15%인가?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던 모양인데 10%만 해도 23억이잖아요. 그런데 그쯤에서 끝내지, 대법원 판결이 며칠 전에 났어요. '전적으로 책임은 돈 잃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금액이 하도 어마어마해서 유심히 그 기사를 봤는데요.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게도 빠지는가?' 싶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을 관리 잘 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안 될까? 저한테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일지 모르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약한 구석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럴진 몰라도 오래오래 재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관증을 들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만, 또 거꾸로 예수 안 믿는다고, 농땡이 좀 친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 큰 홍년이 닥치죠. 위기의 때가 되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 큰 문제는 안 생겨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아들이 허랑 방탕했다? 말이 허랑방탕이지, 본인은 신났죠. 그런데 큰 홍년이 닥치니까 구제불능 상태까지 떨어집니다. 16절에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랬죠? 돼지 친다니깐 일이 좀 험하고 지저분하겠단 싶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돼지 친다는 것은, 안 먹는 짐승이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을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3D 직종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못한, 정말 형편없는 자리까지 낮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간섭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갔던 결말은 돼지보다 못한 상황이 됐더라는 겁니다. 이 탕자는 이 정도에서 돌아왔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멋진 인생을 살아 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높아져 보겠다고 발버둥 친 인간의 결말이 이 모양이라는 거죠.

과거에 어느 철학자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큰 소리 뽕뽕 쳤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 양반은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정신이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쳐서 죽고 말았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쌍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마음껏 멋지게 살아 볼 수 있을 거라고 나가서 신나게 살아도 결국은 돼지보다 못한 이런 형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멀리서 나타나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는 쉬워요.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고 오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느 때에 어느 방향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멀리서 거지가 나타났는데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고 뛰어갔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소원하는 아들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산을 주면 다 털어먹고 어느 날 거지 모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이런 재산을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학교 안 가려고 버티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동생 넷 중에 하나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제 손으로 자퇴시켰어요. 모교에 은사님께서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는데, 학교에 갈 때마다 좋은 일로 갔었어요. 졸업생이 모교를 찾아 가면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시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장실에 찾아가서 "선생님, 오늘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로 왔는데 동생을 자퇴시키려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 왈 "나도, 내 아들 자퇴시켰어. 신경 쓰지 마." 그러더라고요. 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말리고, 말리고 사정해도 안 돼서 자퇴했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그 때, 조금 더 말려서 그냥 학교에 다니게 해 주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 본 정도가 아니다, 야.” 참 말이 안돼요. 쉽지 않습니다. 자랄 때 어른들 말 잘 듣고, 또 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건 예외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복되지만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이 본문은 집 나가려는 아들이 있으면 재산 때 내줘서 일찍 내 보내라고 가르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못해요. 아이에게 그렇게 재산을 줘서 내 보낸다면 부모님들이 밤잠을 못 잘 걸요?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지, 사람의 이야기 또는 어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는 재산을 때내서 보냈을까요? 이미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아들을 붙들려면 붙들 수는 있겠지만, 부자지간의 제대로 된 관계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안 거예요.

재산을 내줌으로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올 거다. 그러면 그 때 새로운 부자관계, 진정한 부자관계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재산을 주어 내 보내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누가 고통스러운가요? 아들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아요.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 막판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오겠죠. 그 때는 힘들겠지만 돈이 살아있을 때에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애가 떠나간 그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만큼 힘들고 고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짐승들은 태어나는 즉시 독립해서 살아요. 특히 야생동물은 더 하죠. 사슴이 새끼를 낳으면 툭 떨어져서 잠시 꿈틀꿈틀 하다가 먹을 것 찾아 돌아다녀요. 사람은 제 발로 제 것 찾아 먹는데 며칠 걸려요? 몇 년이 걸려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짐승은 거의 완성돼서 태어나요. 사람은 태어나도 부모가 잘 돌보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개가 물고 가서 개가 키우면 사람이 안 되고 개가 돼요. 사람은 그렇게 완성돼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낳는다고 끝이 아니다. 낳은 다음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작정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기만 한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는 낳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낳은 다음에 부자 사이에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가슴을 졸여야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끝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간 아담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날,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온전하게 만든 완성이 그 때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길고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을 이 비유가 보여 주고 있는 거죠.

탕자에게 재산을 주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사고를 안 쳐요. 마치 짐승이나 로봇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 스스로 결정하고 나와 버린 거예요. 인생이 참 힘들다고 푸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이나 로봇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참 힘들잖아요? 그 고생이 언제 끝납니까? 몇 년 하면 끝나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낳은 죄’는 언제 끝나나요? 죽어야 끝나요. 시집가고 장가보냈으면 소유권 이전이니까 이제 너희끼리 살아! 그러면 끝나나요? 그렇게 끝냈는데 이듬해 하나 달고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요? 낳은 죄는 죽어야 끝난답니다. 그게 무서워서 애들을 낳지 않으면 그것 또한 바보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힘들어 하면서도 그 속에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겪었던 일입니다.

집 나갔던 이 아들이 결국은 다 털어먹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그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낸 거죠. 예전의 아버지 집은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처지가 되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곳, 내가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이런 것을 미리 깨닫지 못할까요? 꼭 일이 터져야,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죠? 그때 가서라도 깨닫는 것이 복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낸 것이 이 아들이 회복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치가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를 볼 자격도 없으니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세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을 향해서 똑바로 왔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처럼 엇비슷하게 왔을까요? 예전에 가출했던 아이가 생각나요. 시골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보통 길어야 2~3일이면 돌아옵니다. 2~3일 후에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한 대 두들겨 맞고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광고 좀 하고 난 후에 들어가는 데 시골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한 녀석이 가출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선고를 하고 갔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2~3일 만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고 갔어요. 가출해서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중국집에 자장면 배달하고 다녀요. 며칠은 괜찮죠. 그러나 얼마쯤 지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애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나는 너희들처럼 2~3일 만에 안 돌아온다.” 하고 큰소리치고 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방법이 뭔지 압니까? ‘아는 분에게 들켜서 먹살 잡혀가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발로는 못 와요! 잡혀서 가면 큰소리는 칠 수 있어요. “나, 안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저씨한테 잡혀서 할 수없이 온 거야.” 이래야 체면이 선단 말이에요. 묘하게 그런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몇 달 만에 불똥려서 오고 왔어요. 와서 큰소리치는 게 “나는 내 발로 온 거 아니다. 나는 정말 안 오려고 했다. 그런데 잡혀서 왔다.” 애는 너무 오랫동안 가출했다고 오는 바람에 그 해에 복학을 못했어요. 이듬해 그 아래 학년에 복학을 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나, 수학여행 두 번 간다.” 이러고 있었어요. 수학여행을 갔다가 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듬해 신학기에 복학을 해 놓으니 수학여행을 두 번 가는 거예요.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는 참 어려운데 아버지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너, 이놈의 자식!” 하고 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마는 생각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고민할 겨를도 없이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자기를 불들어 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품꾼으로만 써도 좋겠다.’ 하고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품꾼으로가 아니고 진짜 아들 대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제 당당한 아들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는 절대 당당하지 못할 겁니다. 재산을 다 털어먹고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줬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기죽어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 기죽어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아파요. 조절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아들이 마을에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임마. 무슨 낯짝으로 그러고 있냐?” 틀림없이 사람들이 비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 맞네!’ 그래서 이 아들이 보따리를 사서 나갈 수 있나요? 이제 못 나가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지요. 아버지 때문에 이 집을 다시 나갈 수 없고,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 준 그 아버지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맞는 말을 다 무시해야죠.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 보겠다고 해서 나갔던 아들이지만 용서 받고 집에 들어온 아들은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집을 다시 떠날 수 없고 당당하게 "내가 이 집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러냐? 이러고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찌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요, 네가 그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라고 찌러요. 이럴 때에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못 간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 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아들은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때문예요! 사탄이 우리를 찌러대고, 유혹을 하고, 미끄러뜨려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 때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당당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때 당당하고, 겸손할 때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둥이에게 입한 복음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린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 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와 말씀들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 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열왕기하 7:1~20]

고향교회에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과 사뭇감 고르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정말 착하고 공부 잘 하는 모범생을 얘기를 꺼냈더니 장로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실한 장로님이 이런 사람을 사뭇감으로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뭇감으로 여기느냐? 착하고 신앙 좋고 공부 잘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이어갈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고 한데, 어쨌든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 고르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착하고, 사람 좋고, 신앙 좋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나요? 회사나 학교가 사람을 뽑을 때는 공부를 잘 하든지, 특별한 능력이 있든지, 인물이 잘 났든지, 아니면 무슨 백이 있든지, 뭐가 있든 있어야 사람을 고릅니다.

미국 가기가 쉽나요? 요즈음에야 잠깐 여행가기는 쉽죠. 예전에 비자 얻으려고 한 번 해 보세요. 정말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하고... 안 가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가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까다롭게 오만 가지 조사를 다 하고, 온갖 것을 묻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행 갔을 때인데 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대충 얘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많이 가져왔느냐고 물어요.

5~6개월 하숙하려고 하면 이 정도 경비 드는 것 아니냐? 고 따져 물었더니 군소리 안 하고 다 내놓으려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해야리고 있는데 동전까지 다 해야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들 할 일 되게 없는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충 말했는데 끝자리 동전까지 다 해야리니 참 희한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잠시 들어가는 것조차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골랐나요? 잘 따져가며 골랐나요? 아니면 대충 부른 것 같아요. 시험 안 쳤죠? 능력 안 따졌죠? 제가 보기에 대충 불러 모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은 천국에 갈 사람을 어떻게 불러 모으셨나요? 여러분, 자격 심사하면 우리 중에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냐고 봤더니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훗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거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느냐 하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떤 백성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아무 희망이 없던 백성이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고 예언해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된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이런 자에게 쏟아 부으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지만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런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모형처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이 어떤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오게 된 것인지 한 번 살펴보려 합니다.

엘리사시대 때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 침공해 옵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 쪽에 보시면 그렇게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더니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그리고 비둘기 똥 1/4값에 은 5세겔 합니다.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죠.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치 봉급을 줘야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되어 있었죠. 실제로 비둘기 똥을 사고팔았던 것은 아니고, 비둘기 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른 식물이에요. 설명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학명은 좀 어렵고 *wild onion* 야생 양파라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정 답답하면 캐다가 적당히 손질을 해서 먹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물지 않은 콩팥지' 라고도 합니다.

여하튼 제대로 양식 구실을 할 수도 없는 비둘기 똥이라고 불렸던 것조차도 1/4값에 은 5세겔, 우리 식으로 환산을 하면 옛날 궁핍하던 시절에 술도가에 가면 그냥 나눠 줬던 것 있죠? 술찌끼미! 술찌끼미 반 되에 한 달 봉급을 다 줘야 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봉급을 갖다 줘야 되고, 별로 먹을 것도 없는 술찌끼미 한 통에 한 달 봉급을 갖다 줘야 될 정도로 식량이 다 떨어진 거죠. 어느 정도로 식량이 궁핍했느냐? 하니까 6장에 보시면 자식을 삶아 먹기로 약속을 하고 한 자식을 삶아 먹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궁핍했으면 자식을 삶아 먹었을 까요?

진짜 끔찍한 얘이지만 오래 전 레위기예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이 시절에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사실은 아합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했던 아합왕의 아들인데 이 아들도 하나님을 저 버리고 우상숭배에 바빴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왕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본문 앞뒤로 읽어보면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 왕, 또는 그냥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를 쳐 들어온 아람 왕의 이름은 벤하닷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를 치는 이방 왕 이름은 나와 있으면서, 자기 백

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입에 담기도 싫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 왕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엘리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왜 이럴까요? 그 앞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 들어오면 왕에게 늘 통보를 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막으세요.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를 다 막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로로 잡았어요. 사마리아로 잡아 왔을 때 왕이 “죽이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잘 먹어서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희생 없이 보낸 적이 있어요.

왕이 생각할 때 패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 때 내가 죽이자고 했을 때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엘리사의 말 때문에 돌려보냈으니 이들이 다시 침공한 것은 엘리사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 전에 외적이 쳐 들어오면 엘리사가 다 앞장서서 막아 주었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이번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그러니 죽을 놈은 엘리사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능력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문제가 터지니까 원인을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면 희망이 있지만 그 원인을 다른데서 찾으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못 하면 누구 탓이에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못 했더니 어떻게 우리 아들도 이러냐?’ 이런 아버지 보셨어요? 못하면 전부 당신 탓이죠? 잘 하면 모두 내 탓이고요. 이러면 별 희망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저 아들래미 야단 좀 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야단 못 치겠어요. 내가 저만 했을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야단을 쳐요? “나는 야단 못 쳐!” 이거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행동까지 따라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두려운 생각까지 들고 합시다만 그건 여담이고요. 모든 일을 내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면 문제가 안 생겼어요. 자기가 옛날에 하던 짓을 그대로 애가 하고 있는데 “너, 임마 이래서 되느냐?” 고 불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고 덤비는 것, 이래 가지고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적을 행한 것을 살펴보면 실제로 엘리사가 더 많아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 죽은 아이를 살려 놓은 것, 아람 군대가 쳐 들어오는 것을 미리 다 알아서 막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엘리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대접을 해서 엘리야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등장을 합시다라는 실제로 엘리사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뒤, 어떤 사람이 멋모르고 시체를 그 위에 던져 놓고 도망을 갔는데 엘리사의 시체에 닿았던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이런 능력의 사자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닥치죠? 여러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엘리사의 능력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좋은 점이 많죠. 우리 선생님 좋다고 자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선생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많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면 뭐해요? 배우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의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것 믿고 남편이 개판치고 다니면 부인의 신앙 좋은 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입니다. 가끔은 “나는 우리 부모님 덕분에 잘 산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이 좋았고 잘 했다는 것이 반드시 내게 복이 되라는 법 없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나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복이 됩니다. 물론 엘리사가 많은 어려움을 막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엘리사만 믿고 끝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이런 끔찍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왕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왕이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낸 내용입니다. 1절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료품 값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는 이때에 엘리사가 내일이면 가격이 정상으로, 아니면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 왔던 장관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코웃음을칩니다. 엘리사가 답을 해요.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렇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했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 엘리사의 말을 이 군대장관이 완전히 무시한다? 믿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도 밥그릇을 열어 놓으면 그 은혜가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 주었어요? 그럼에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이적이 무엇이나고?" 또 보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적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렇게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느냐?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되도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적을 체험하고, 누구한테 배우고, 뭐 어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아니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보여줘도 다 믿으시죠? 아니 무얼 보고?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게 사람인데 우리는 아무런 이적을 본 적도 없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 받은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어요. 이젠 문둥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나병환자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버림받은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에서 옛날에 썼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이 넷이 성문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서도 죽을 것,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 보자." 이래서 아람 군대에 가 본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에스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둥이의 신앙이 에스더의 신앙과 비슷한가요? 말은 비슷해도 뜻은 전혀 달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데,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다. 이것은 위대한 결단이죠. 문둥이들의 결단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 가보자 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적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좋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먹고 숨기고... 그러다보니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성내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죠.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소식을 급하게 성내에 전해야 되겠다.' 싶어 성으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 말을 누가 끝이들나요? 말이 말 같아야 믿?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니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걸 막으려고 했던 군대장관, 처음 엘리사의 말을 코웃음 쳤던 이 사람이 결국 밟혀 죽죠.

어떻게 본다면 단순한 이 사건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복음은 죽을 사람에게 입한 횡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1차 대상은 죽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성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곧 굶어서 죽게 되어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둥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버림받고 천대받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ரச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고를 때 남들과 다른 그 무슨 능력이라도 있어야 골라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건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버림받고 무

가치하게 여겨졌던 이런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참 기이한 일입니다.

복음은 가난하고 힘없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낮은 자를 먼저 찾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자가 바로 이 문둥이들이었고, 바로 이 문둥이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요, 문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곧 죽을 사람이요, 문둥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는 데 힘들다고 너무 슬퍼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시간 많고 돈 많으면 꼭 바람피운대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넉넉해지면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왠지 기도소리가 작아지고 시간이 짧아져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겨야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 간절함이 묻어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혹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외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하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하고 문둥이 같은 존재라고 하면 선뜻 동의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서 대체로 다 비슷해요. 좀 잘 살고, 좀 못 살아도 대체로 비슷 비슷하게 살고 있으니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정말 불쌍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100년 정도 밖에 못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신분이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IQ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사물을 딱 보는 순간에 본질을 꿰뚫어 아는 눈이 있었어요.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휘력이 달려서 안 됩니다. 어휘력보다 어느 놈한테 무슨 이름을 붙였는지 기억을 못 해요.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는 해 내려나?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해 냈다는 것은 아담의 IQ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평생 머리의 3~5%밖에 안 쓴대요. 그러면 안 쓰는 이 머리는 왜 이고 다녔어요? 교통사고 나면 제일 잘 다치는 데가 목이잖아요? 이유는 머리가 무거워서 그래요. 높은데서 떨어지면 머리가 제일 먼저 떨어져요. 아니, 쓰지도 않는 머리, 왜 이고 다녔어요? 평생을?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다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IQ가 수천수만이 될지 몰라요. 죄를 범한 이후에 수명도 줄어들고, IQ도 줄었어요. 머리를 다 쓰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 같아요. 좋은 머리를 썼더니 자꾸 못된 짓만 한다고요.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근거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살고 있으니, 누구는 좀 낮고 누구는 좀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 복음의 1차 대상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둥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다가 발견했는데,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일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문둥이들이 너무너무 놀랐던 이 복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방법도 없고 저런 방법도 없어서 '교회나 가 볼까?' 하고 왔다가 하나님으

로부터 받게 된 복이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얼핏 보여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에, 아니면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나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말이에요. 아무 것도 기대한 게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우리에게 입한 복이 너무너무 크더라! 그 말입니다. 별로 크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정말 황재라고 할 만큼 그런 느낌이 없다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어떤 분이 로또 당첨됐다고 기절을 했다고 그러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한 것이 로또 당첨보다 못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 시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준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나는 생각해 보니 아무 것도 없는데? 아, 불행한 인생이에요. 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40년 전에 처음으로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요즘에는 많이 수월하게 되었지만 그 때는 두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빌릴 수 있었거든요. 대학생이 돈을 때 먹어봐야 얼마나 때 먹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보증이라면 도장을 잘 안 찍던 시절, 그 때에 저를 위해 도장을 찍어준 그 사람을 저는 못 잊어요.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 분에게 돈을 빌려 간 것이 아니고 서류에 도장 한번 찍어줬을 뿐인데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 볼 수 있었을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이젠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작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라는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참 전에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지하철에 떨어져서 죽을 뻔 한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일본 사회 전체가 경악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일본 사회 전체가 술렁였는데 정작 그 장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장본인 같으면? 내가 지하철에 떨어졌다가 죽을 뻔 했는데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 잊을 수 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 것 같습니까?

여하튼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밭에 보물단지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 집에 와서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툇커덕해서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는데 그 안에 보물이 잔뜩 묻혀 있는 거예요. 딱 덮어 놓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땅부터 사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것 몽땅 투자해서라고 이것은 잡아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입한 복음의 크기라는 거죠. 여러분, 천대와 멸시 가운데 살던 이 문둥이들이 적진에 갔다가 받았던 그 충격, 그 감격, 그 기쁨,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장차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 것인지 사마리아 성에서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깨끗이 지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한테 쌓였던 원한이 깨끗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큰 것이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먹다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 같으면 못된 생각 좀 할 거예요. ‘그동안 나를 얼마나 애 먹였고, 나를 얼마나 멸시했나? 이 인간들아! 고생 좀 더 해봐라.’ 이러고 소식을 전해도 좀 천천히 전하지 않겠어요, 쌓인 원한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을 애 먹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기쁨

이 얼마나 컸던지, 그 동안 받았던 그 열사와 냉대가 다 묻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슬프거나 너무 심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사는 것이 이런 저런 아픔이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큰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큰 기쁨이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이겨 낼 만큼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괴롭고 외로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하면서 평생을 복음을 외쳤습니다. 왜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내 수고와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묵상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 많잖아요? 분통 터지는 일, 정말 많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잠시 흔들릴 때는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이 모든 힘들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이런 큰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이 땅의 일로 인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한 마디만 하면 그게 응어리가 돼서 밤에 잠도 잘 올 것 같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이 꼬라지 이대로입니다.” 하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우니, 누가 나를 해롭게, 또 손해를 좀 끼치면 기분은 안 좋죠. 그러나 금방금방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은혜로 된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는 분명히 몰랐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일에 공헌한 바가 전혀 없어요. 문둥이들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문둥이들도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갔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 문둥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소식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 갔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니냐? 웃기는 이야기죠. 자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방법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참 잘 보여준 거죠.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그 분들이,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젊은 의사들이 뭐 하러 이 땅까지 그렇게 찾아 왔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의사가 됐는데 저 아프리카 먼 땅에 죽을지도 살지도 모를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잘 했다고 박수치겠어요? 말리겠어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해서 희망도 없는 한국 땅에 찾아 왔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성곽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를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와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 2:1~13]

조선족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어떤 조선족 청년이 선원생활을 했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느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주인이 전라도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조선족이 된 거예요. 어찌어찌하다 이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저는 조선족인데요.’ 이랬더니 신부가 전라도 어디 출신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예요. 조선족은 중국 사람입니다. 시택은 중국 연변에 있고, 아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은 전부 중국 사람입니다. 국적은 분명히 중국 사람이예요. 사고방식조차도 완전히 중국 사람이예요. 생김새는 우리와 똑 같고 말이 다 통해도 중국 사람이예요.

고려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한국 사람 아니예요. 소련 사람이예요. 외모나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와 똑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이 되어 있고, 왜 어떤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되었나요? 지난 날 어려웠던 시절의 부작용인 거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중국 사람이 되기도 하고 소련 사람이 되기도 하죠. 독립운동 한다고 외국에 떠돌다가 후손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외국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고향땅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당대는 못 돌아가더라도 후손들에게 너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곳, 여기에 가면 친척들이 누가 있다,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2대 3대 넘어가면 이미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한 20~30년 쯤 된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계속해서 새벽 라디오방송을 듣는 거예요. 꼭 대북방송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혹시 너희 고모 소식이라도 들을까 싶어 그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유일한 여동생이 해방되기 전, 어릴 때에 만주로 갔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소식이 있을까 싶어 여기서 보낸 소식, 저기서 보낸 소식을 늘 방송에서 듣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만 듣지 말고 아버지, 사연을 적어서 방송국에 보내면 만주에서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죽 적어서 보냈더니 그 쪽에서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모의 딸이 어렵게 한국에 왔습니다. 조선족 사람들이 한국 땅에 간신히 들어올 수 있었던 초기에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 제 사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나오기가 쉬운가 봐요. 겨우 사촌인데 실제로는 중국 사람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요.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씩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말이 쉬워서 50년이고 70년이지 외국에서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그 세월동안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예요. 지금 조선족이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아니예요. 정말

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고국이라고 찾아 온 사람, 그 중에는 어릴 때 고국 땅을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고국 땅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을 믿고 왔는데 와서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 긴긴 세월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돌아 왔으니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죠. 꿈에 그리던 땅이었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자, 성전을 세우자, 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만 얼마 못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그 공사도 중지되어 버린 거예요. 성읍도, 성전도 세우지 못하면서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탈북자들, 저 힘들고 어려운 땅을 탈출해서 이 땅으로 왔는데 잘 살지를 못해요. 여기 와서도 새로운 절망감에 빠져 들어요. 한국에 오면 때돈을 번다는 소문 때문에 조선족들도 참 많이 왔어요. 그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몸을 망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좌절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잘 보입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외칩니다. 학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모양인데 지금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래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살펴해보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형편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1장을 보면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느냐? 너희 조상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갇어야 했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흔 번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고 인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한계에 도달해 버린 겁니다.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깨끗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허물어 버린 분이 누구신데요? 물론 바벨론 군사들이 허물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허물어 버린 분이 지금 가진 것 없는 이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온 정성을 다 해도 예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지으라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내게로 온다고 하면 성의 표시라도 하라, 그게 성전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멋지고 근사하게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 성의 표시만이라도 하라, 그게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세요.

어른을 뵈러 갈 때에 형편이 넉넉하면 좋은 것 많이 사가면 좋죠.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갈 때에 큰 것 사 들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요즈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83, 90이신대 이제 갓 취직한 손자 손녀들이 갈 때마다 봉투를 하나씩 줘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거의 평생토록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를 드리고 요즈음 잠시 나와 있습니다만 거액(?)의 생활비를 드리는 아들의 봉투는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는데 푼돈밖에 들어 있지 않은 손자 손녀들의 봉투는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몇 푼 들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관계가 좋으면 좋은 물건 사 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성전 건축해라' 잘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내게로 돌아온다면 이 허물어 버린 성전부터 건축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 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왜 측량하시나요? 크거나 지금 무너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성경은 종종 측량 얘기를 합니다.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그렇게 측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허물어야 할 것이면 허물어 버리고, 세워야 할 것이면 세우기 위해서 측량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절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왕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연회를 펼치고 있을 때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싯'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거든요. 왕이 이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 보았는데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무너뜨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재건하겠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왕이든 자기 백성이든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줄 건지 징계를 할 건지 늘 살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땡땡이 쳐도 아무 일 없던데?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털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늘 못된 짓을 해도 땡땡인데 나는 딱 한 건 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4, 5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묘한 말씀 중에 하나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옛날 근동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산꼭대기에 살았어요. 산이라기보다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성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성곽이 잘 세워져 있는 성읍이죠. 좋은 점은 안전해요. 산을 기어 올라와서 성벽을 올라타야 하니파 외적이 쳐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곽 안이 좁다는 거예요. 농사짓거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생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거기서 살려면 외부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읍이나 성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지형이나 그런 산세가 아니니까요. 가령 예를 들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 있죠? 남한산성은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 안에 경작지가 있고 그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성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동네예요.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농사지을 땅이 안에 없어요. 안전하기는 하지만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 평소에는 바깥에 나와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다 버려두고 성안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싶죠?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옛날에 외적이 실칠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곽이 없는 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세요.

성곽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이에요. 성곽이 있는 곳은 도시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성곽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별로 없는 촌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촌은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아니면 버려두고 성읍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분명히 성곽이 세워져 있었던 곳인데 이 성곽을 다 허물어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외적이 침입할 가능성이 없어서 성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성곽을 허물어 버리면 성읍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잠실, 김포가 무슨 서울이예요? 서울이라면 4대문 안이라야 서울이지요. 여기는 능동이죠. 옛날 4대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면 무엇이 있었어요? 능이 있었죠. 그러니까 능동이죠. 4대문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이 없어지니까 서울시가 바깥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성곽이 없어지면 도시가 크게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외부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침입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국경을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을 때 외적이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성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곽이 허물어지죠. 그렇게 되면 산꼭대기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평지에 살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국경이 허물어지거나, 국경이 돌파되어 외적이 설치기 시작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시 산봉우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힘이 아주 약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아주 적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막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막아 주면 성곽은 허물어지고 도시는 도시대로 확장이 되고 사람들은 평지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일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이때에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6, 7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이다’ 여기서 북방 땅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왜요?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돌아오는 것이고, 바벨론은 당대의 최고의 도시로써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패망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성품중의 하나가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바벨론이 지금 아무리 번성하고 잘 나가도 언젠가는 패망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패망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것을 교회 안으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맛에 취해서 살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니 세상의 화려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당시 입장에서 바벨론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번성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 보면 저 먼 구석의 조그만 도시, 완전히 허물어지고 사라져 버렸던 변방 소읍에 불과한 겁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패망한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유심히 보세요.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이권 전부 과거 얘기에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곳에 흩어 버렸고 포로로 보냈는데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다는 건데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집에 갔다가 다른 데 때리시지 말고 눈을 한 번 딱 때려 보세요. 세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때리면? 바벨론이 심판 받아야 할 이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잡아 왔던, 자기를 섬기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노략질을 하게 될 거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셨으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징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잠자는 호랑이 수염 뽐는다고 그러나요? 잠자는 호랑이 수염 뽐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기? 바벨론은 그렇게 해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셔요. 10, 11절을 봅시다. ‘여호와와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0절과 11절에 말씀 중에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가 반복됩니다. 시온의 딸 유다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양이죠. 우리나라 사람보고 ‘네, 양 같다.’ 하면 좋은 말이에요. 순한 사람을 뜻하니 좋은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욕이에요. 눈도 나쁘죠, 다리도 짧죠, 싸울 능력도 없죠, 도망갈 다리도 없어요. 세상에 바보 같고 무능한 게 양이거든요. 그러니 양 같다고 하면 바보 멍청이 밖에 더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난 양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양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능력 있고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능력 있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겁도 없이 담대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믿고 존중하시면서도 하나님 그 분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그 무엇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찾아 오셔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시면 어떻게, 무엇을 들고 오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정말 어린 아이잖아요. 아버지가 모처럼 출장 갔다 오셨는데 아버지 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봐요? 무얼 들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비유권대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들, 조선족하고 비슷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나그네처럼 살고 있고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외국인들 살고 있으면 어떻게 잘 대해 주셔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당해 보면 압니다. 저도 미국에 잠시 갔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불쌍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슈퍼마켓에 가서 현금 주고 물건 사오는 사람은 불법체류자 아니면 신용 불량자 정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었나? 외국에서 나가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힘든 것 많아요. 주인 된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베푸는 것이 좋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괜히 한국 땅에서 한국인이라고 큰소리치지만 비슷한 처지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부탁을 해요. 이유가 뭐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도 나그네였고 종노릇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잘 돌봐 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께서 딱 한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이런 소망 가운데서 성곽 없는 성읍으로 번성케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너 죽을래? 이런 자신감 정도는 가지고 사셔요.

옛날 한창 명퇴 바람이 세계 불 때, 포항제철에도 많은 사람이 나갔죠. 그 중에 어느 젊은 부인이 간증 비슷하게 큰 소리 쳤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상사들 중에 아직 이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일 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욕먹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것 말고, 다 잘하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자꾸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아냐?” 그러셔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번성과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보세요. 스가랴가 긴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라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8~19]

혹시 부탁할게 있어서 높은 사람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만 지위가 높아도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요즈음은 선거로 당선되는 고위직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표를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 주기도 하죠. 그러나 표와 상관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세요? 유치원 따라 다름니다. 마는 어떤 경우는 몇 년을 대기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시골에 정말 좋은 유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젊은 부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유치원을 경영하는 원장 선생님이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젊은 부목사님의 아이가 바로 그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어떻게 해서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유치원 들어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치원이 그냥 들어가는 유치원이 아니었대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그 해 못 들어가면 이듬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유치원이었답니다. 유치원도 그러한데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높고 높은 임금님이 백성을 만나러 몰래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겠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겠어요? 성경은 모하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유명한 도사들은 깊고 깊은 첩첩산중에 살아요. 그 도사를 찾아 가려면 열두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요. 유명하다는 사람, 능력 있다는 사람은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경전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열심히 찾아오셨고, 어떤 상태에서 찾아오셨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아담을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 먹었어요. 옛날 우리 사극을 흥내낸다면 따 먹는 순간에 피를 토하고 죽어버려야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따 먹는 순간, 변하는 거예요. 따 먹어도 누가 알겠냐? 싶지만 사실은 몰래 따 먹는 순간 자기가 변해서 티를 내는 거예요.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단 칼에 날려 버려야 정상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를 찾아 오셔서 '어디 있느냐?'고 불러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옷장이나 문 뒤에 숨어있죠. 보여요. 그런데 얼굴만 쳐 박고 숨어 있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우리 아들 어디 있냐?" 하고 찾는 척 하잖아요. 안 보이긴 뭐가 안 보여요. 숨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

아 오셔서 질문을 많이 해요. 어디 있냐? 먹었냐? 왜 먹었냐? 자꾸 물어요. 말이 많으면 권위가 안 서요. 진짜 무게를 잡고 권위를 세우려면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말이에요. 아담이 변명하는걸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물어요.

그리고 하와에게도 또 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던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질문을 안 해요. “이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하니 뱀에게는 질문을 안 해요. 바로 선고만 해 버리죠.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일부러 붙들고 물으시는 것은 뻔합니다.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해요. 하나님은 벌 하시려다가도 돌이키신 적이 많거든요. 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함께 엎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네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아담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찾아오셔서 자꾸 물으시나요? 결국 벌주실 거면서?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벌을 주시는 가운데 살 길을 은근히 보여 주세요. 3장 15절,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뱀에게 선고하듯이 “너희가 내게 도전했던 말이지? 너, 내가 보낸 여인의 후손이 너 머리를 부딪 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옆에서 아담이 듣고 ‘아, 저런 우리 돌으라고 하시는 말씀 이시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시는구나.’ 알아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살아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개정성경에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임신하는데 고통이 있나요? 임신이 아니고 해산하는 고통이죠. 표현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벌입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네가 따 먹었으니 애를 낳을 때 고통 한 번 해봐라. 이런 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는 그 벌이 단순한 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를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군에서 열차력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육하고 두드려 패고 했는데, 못 패게 하고 대신에 봉체조 시키고, 뛰게 하거든요. 제가 남한산성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팔굽혀 펴기, 군대말로 푸샵 1,000개, 지금부터 시작! 여러분, 푸샵 1,000개를 어떻게 합니까? 1,000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군대가 얼마나 무식한지 압니까? 1,000개하면 1,000까지 해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참 하다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엎어지는 거지 어떡해요. “이 놈의 새끼 안 일어나?” 하며 찹니다. 맞는 게 편할 때는 맞아가면서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0을 채워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체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 좋고 체력 좋은 신병도 상병, 병장에게 못 따라가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체력을 이미 키워놓은 상태거든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선임들 못 따라갑니다. 힘들게 고생시키는 이유가, 벌을 주면서 동시에 체력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주었다. 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렇게만 생각할게 아니고 여자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 ‘여자들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해산할 때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고통이 거기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잖아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당하는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거냐? 남자들은 이해가 아마 ‘아, 그런가 보다.’ 이정도 일텐데 여자들은 아니, 아이를 낳아본 여자는 하나님의 느끼시는 느낌이 마음에 확 닿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구원에 더 가까워요. 벌을 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살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지었으니 그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속에는 항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한 말씀이 됩니까?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 한다고 그랬죠. 남자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땀을 흘려야 제대로 산다. 이것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40대 돌연사, 요즈음은 조용해졌습시다만 한 때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땀을 흘리며 살던 사람은 갑자기 그렇게 잘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땀은 안 흘리고 과로에, 스트레스에 그냥 회사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셔요. 땀을 흘려야...

남자들이 왜 운동을 합니까? 주로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도 운동을 많이 하지만 오래 살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뻐지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미용으로 운동하는 여자들하고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남자들하고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왜 여자들이 더 오래 살까요? 남자는 오래 살려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한다. 요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 이 본문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살길을 보여주려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서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 너 몇가지 정도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두 사람의 장례 치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과 요셉의 장례를 길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을 만드셨는데 이 인생이 다 죽었더라. 이것이 창세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을 만들었더니 이들이 육체가 됐다.' 홍수의 원인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시거든요. 생령으로 만드셨는데 육체가 됐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짐승이더라.' 하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한 등급 떨어지니까요.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기는 생령,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육체만 남았더라. 그래서 멸하시려 하신 거예요.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요.

온 세상을 멸하는데 그 정계 속에서 노아 가족이 살아남아요.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조심해야 돼요. 맞는 답이기는 하지만 좋은 대답은 아니예요.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6장 9절 바로 앞,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히브리 식으로 표현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더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눈 속에, 온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노로 가득한 불꽃같은 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은 '이 인생을 다 이렇게 멸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노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나 노아의 가족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분노하셔도 온 인류를 한꺼번에 멸하실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설령 다 멸하고 딱 한 사람을 남겨야 한다면 누구를 남겨야 하느냐? 여자 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첫딸을 하실 수없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 한 사람만 살려 놓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곱사리로 하나 더 살려야 되죠? 남자를! 그러다보니 그 자식들인 아들과 며느리까지 살려 놓았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이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찾지 않으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는 겁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심판 속에서 노아가 갓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 각성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사람이 번성하니까 또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짓을 또 벌입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폴폴 뭉쳐서 바벨탑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죠.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지난 번에 내가 그렇게 분노해서 온 인류가 다 멸망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기상천외한 방법인 '언어의 혼란'이라는 방법으로 온 세상에 사람을 다 흩어 버립니다. 그렇게 흩어 버려놓고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짚어서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홍수로 멸망되어갈 때 노아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에 흩어버린 그 세상에서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 위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불러내셨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할 때에 흔히 잘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떠났다'고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 아버지 데라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고 합니다. 갈 곳은 가나안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가자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경 저쪽 끝 도시 하란에서 오래토록 머물러 있었어요. 꽤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싫었다는 뜻이에요. 순종 잘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셔서 가라! 하니까 안 갈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겁니다만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간 것은 아니에요.

버티고 버티는데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가보니까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 왜 절 이런 데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능해요. 맞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땅까지 가라, 하니까 바로 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말할 때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대단한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들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다 보니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저런 하나님 같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니 말씀을 하시겠거니 이런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작품인데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요? 자기편을 들잖아요. 똑 같은 짓을 아비멜렉 앞에서 또 합니다. 동생이라고 했던 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편을 들어서 아비멜렉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저 하나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야. 거짓말은 내가 해도 저 왕들을 징계하시면서 자기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느끼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평생 아브라함을 끌고 훈련시키셨다면 막판에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대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어요. 하란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정말 낯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물설고 낯선 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 분명히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지냈는데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죠. 단 하나의 혈육 롯이 자기를 떠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명색이 내가 아재/당숙/고 자기가 조카일진데 먼저 택하라고 했더니 이것이 미련도 없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렸어요. 자기는 산지에 남았습니다. 속 안 상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먼저 하라고 하면 한 번쯤 말로라도 "삼촌 먼저 해야지?" 하는 이런 아픔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하세요.

훗날 롯이 사로잡혀가는 세계 대전이 벌어졌어요.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밤중에 가서 기습을 해서 찾아 돌아옵니다. 기습을 해서 찾아오고 왔지만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저 막강한 군대를 밤중에 한방 쳐서 찾아오고 찾아왔지만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저것들이 도대체 어느 놈이야? 시골구석의 조그마한 녀석, 군대도 얼마 안돼요. 이걸 알고 다시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잘난 아들이 아니고 못난 자식인데도 이 못난 자식을 너무너무 편애하시어서 그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다가 들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숨고 싶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 오셔서 애굽에서 구해 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을까요? 재미있는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고대에 숫자가 적다는 것은 가장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애굽에서 구해내는 것은 너희가 제일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시느냐? 잘 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불쌍한 민족을 택해서 구해내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일에 협조를 하고, 누가 하나님의 그 일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돕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로 불리던 모세조차도 얼마나 못한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구해서 광야로 데려왔는데 거기서도 순종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고생되면 온통 반항하고 배역합니다. 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대군이 40년을 먹고 살려면 날마다 이적 속에 사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사막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을 먹으려면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시냇물같이 졸졸 흘러가지고는 모래 속에 다 빠져 버립니다. 바위를 쳤더니 폭포수같이 뿜어져서 큰 강을 이루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광야를 40년 헤매고 다닐 때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아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 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세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방 백성들을 불러다가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고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수십 번 반복돼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고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이고 다 불순종이예요. 훗날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 이스라엘에 왕이 19명 나옵니다. 그 19명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왕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남쪽 유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왕조에서 왕이 20명이 나오는데 몇몇이 선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는 해요. 한 대여섯 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선한 왕도 자세히 보시면 끝까지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왕 히스기야? 끝까지 선한 왕이 아니예요. 선지자로부터 징계 받고 야단 받고 나중에 큰 벌을 받아요. 끝까지 선한 왕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말 잘 안 듣는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모르고 몰라도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 그러니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정상이고 말을 잘 들으면 황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예쁘게 보여요. 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열왕기시대 이렇게 죽 이끌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참 묘한 것은 포로로 보내면서도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일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오리라고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니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기간

중에 그렇게 지내면서 어느 날 문득 깨들은 것이 ‘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었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일제에 35년간 압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끌려 간 것이 아니고 자기 땅에서 35년 압제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엄청 긴 거예요. 저는 나중에 충격을 받았는데 장지연씨 아시죠? 잘 모르실 수도 있네요. ‘시일야방성대곡’은 아시나요? 한자로 되어 있으니깐 우리말로 풀면 ‘이 밤에 목 놓아 우노라!’ 한일합방이 되던 그 날에 신문 사설에 썼잖아요. 이 사설 때문에 그 신문이 폐간되고 이 사람 감옥에 가서 약 8개월간 옥살이를 해요.

일제가 시퍼렇게 눈을 번득이고 있는데 나라가 망했다고 ‘목 놓아 우노라!’고 사설을 써서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느냐고?’ 두들겨 쳤으니 그러고도 수 많은 압제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일제와 맞서서 싸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최근에 보시면 일제 협력자, 일제 부역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가 아주 많아요. 이광수씨도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35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슬 시퍼렇게 일제와 맞붙어 싸우던 그 분들도 35년, 너무 긴 세월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35년이 그렇게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냈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 때 돌아온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잊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말을 쓰지 않았습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쓰시던 말은 히브리말이 아니고 아람어예요. 히브리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명맥을 이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쌓고 그러려고 희망에 부풀어서 처음에는 노력했죠. 그런데 1년도 채 안돼서 포기하고 맙니다. 방해꾼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16년을 거의 좌절하다시피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느냐?” 이러고 맥없이 살고 있을 때에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서 성전을 완공해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겨우 초라한 성전을 완공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았을까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하면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따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하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 봐라. 총독은 좋아하겠다!’ 말라기의 책망이 이런 거예요.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약 400년 정도요. 하나님께서도 입을 다무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서 도저히 돌아올 수도 없는 기간, 70년 만에 다시 이들을 불러들여 세워놓고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려니...’ 했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하나님 없이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는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 했던 그 메시아의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따랐습시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은 “난, 메시아가 아니오.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주실 그 분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예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조그마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이 장면도 꼭 상상을 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떼 주어서는 전체가 10,000명쯤 된다면 이거 나눠주다가 팔 빠져요. 50명 씩 모아도 반이 200개 반이에요. 광주리에 담아서 퍼 날라 먹으려면 예수님의 손에서 떡 공장에서 떡이 쏟아져 나오듯이 막 나와도 먹이기 어려워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는지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저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기적이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는 거예요. 저 분의 저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군대들, 너희는 다 죽었다며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참 묘하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정말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이 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분이 왕이 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분은 죽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했었죠. 그런데 그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얘기에요.

불러가지고 뭐해요?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이 말은,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심지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베드로까지 예수님께서 불러들이세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독종, 최대 박해자였던 사울까지도 예수님께서 불러서 돌려세워 버리세요. 왜요? 교회를 세우시려고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불러내세요.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더니 결국은 아들을 친히 이 땅에까지 보내셔서 사람을 불러 모으십니다. 무엇 하려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따라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몇 개나 세우셨나요?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토대만을 제공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명이 와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아담을 찾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분립개혁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서울 시민교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저기 또 하나의 똑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 오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소망을 따라서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 시민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잘 해 왔어요. 그러나 더 좋은 소문을 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쁜 교회로 가야 하고, 동시에 또 하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 오셨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 먹, 인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찻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돛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찻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북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9:1-11]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서 “얘, 좀 벌주세요.” 그래쎬요.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경찰서에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나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말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 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구요? 그럴 수 있죠.

성경을 잘 모를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에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최소한도로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신 것 같다. 이러면 아직 성경을 읽는 방법이 서툴거나,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오죽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합니다.

유다가 돌로 갈라져서 오래 지속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망하고 그러고도 한 200년 가까이 남쪽 유다가 홀로 존재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할 때 한 방에 망한 것은 아니고 바벨론이 세 번 침공합니다. 처음 침공해 왔을 때는 인질만 잡아 갑니다. 주로 귀족의 자제들을 잡아 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죠. 그게 1차 침공입니다.

얼마 후에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 있음에도 바벨론을 배반을 하니깐 2차로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 버립니다. 이때는 일반 백성들도 많이 잡아갑니다. 이 때 아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2차포로 때에 에스겔이 잡혀 갔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바벨론이 3번째 침공해 왔을 때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

명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가 있어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포로에서 놓여나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탔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남대문이 불탔을 때 충격을 엄청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앞의 8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 봅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쪽에서는 비밀리에 숨어서 곤충과 각종 짐승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라는 것은 본인들도 좀 쟁기는 데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거기서 곤충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짐승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바벨론의 아주 음란한 신이라고 불리던 ‘담무스’ 신을 숭배도 합니다. 태양도 섬기고 태양 앞에서 제사장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우상 섬길 장소가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 안에서 그러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우리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는 것 있죠? 안 보는 데서 훑 좀 보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면전에서 훑을 보면?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3층 여관이었는데 1층 바깥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3층 창가에서 몇 학생이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홍순관 그 새끼 장가갔대며?” 이러는 거예요. 듣고 흘리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니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하다가 그 녀석을 만났어요. 제가 불렀어요. “야, 어제 저녁에 내가 여기 밑에서 바람을 좀 쐬고 있었거든?” 이러니까 이 녀석이 딱 엎어져서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이야 발이야 비는 거예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못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나쁜 거다.” 이라고 보냈어요.

보내 놓으면 애가 자기 친구 만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답을 압니다. “야, 오늘 홍순관 그 새끼한테 맞아 죽을 뻔 했다.” 이게 정해진 코스예요. 아이들이 선생님 안 보는 곳에서 욕하는 것,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녀석은 제가 옆에 있는데 다른 선생님을 욕을 하길래 불렀어요. 혼을 냈더니 이래요. “선생님은 옛날에 다른 선생님한테 욕 안했습니까?” 이러잖아요. 이 놈은 개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손이야 발이야 빌 때까지 제가 교실에서 쫓아냈습니다.

딱 한 마디 했죠. “나는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뒤에서 선생님의 님 자도 댄 적이 없다.” 아이들로서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백 번 양보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는 욕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면전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데에서도 우상숭배 하는 것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을 두고 섬기고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피우는 것은 용서할 수 있나요? 제가 한 번 물어보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바람피우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집에 데리고 와서 바람피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에스겔아, 이 모양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성질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허물어 버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답은 3절을 보세요, ‘그중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러죠. 그룹이라는 곳이 바로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 거룩하고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 성전 가장 안쪽 방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었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이스라엘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계셨던 그룹이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성전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 가 있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 장 또 넘어보면 동쪽 산으로 가 있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던 곳에서 떠나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없이 떠나가시더라. 이게 에스겔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 뒤에까지 가 보면 그렇게 떠나 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일단 이런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저절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더라는 얘기는 곧 바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도, 성전도 깨끗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더라는 얘기고, 8장은 그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을 이야기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어떤 심판이 임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일단 1절, 2절입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해칠 무기를 든 자들이 북쪽에서 밀려오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벨론의 침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러죠. 놋 제단 곁에 선 사람들이 여섯은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칼 대신에 먹 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이들이 놋 제단 곁에 서 있더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놋 제단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에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심판이 바로 이 놋 제단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상하게 먹 그릇을 차고 있는 거죠.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먹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징조가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탄식하며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걸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희망이 없는 세상을 움켜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울며 애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마에 먹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차고 있는 모든 천사들이 이 성을 순행하면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쳐버렸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이 망하기 전에 그 성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별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쏟으시더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때는 집 문간의 설주와 인방에 전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먹'을 바른 이야기나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먹으로 자기 백성을 표시했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또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한 사람도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전부 구원해 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얼핏 보면 좀 이상해요. 심표를 빼 보면 '피먹인',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띄워 쓰기를 해야 할까? 심표를 찍어야 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심표를 다 찍었습니다. 피, 먹, 인!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 이야기지만 전부 같은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 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피나 먹이나 인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한 번 봅시다. 거기에는 피를 발랐죠? 양의 피가 그렇게 효능이 있는 겁니까? 양의 피가 얼마나 효능이 있으면, 문에 발라 놓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전혀 따지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피가 그렇게 효능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것을 들었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뭐예요? 붉은 색? 그래서 동짓날 팔죽을 쏜다고 그러죠. 혹시 뭐 뿌리기도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동짓날 팔죽을 끓이는 것이 액운을 쫓기 위한? 아마 귀신이 붉은 색을 싫어하나 봐요. 출애굽기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맞아, 천사가 붉은 것을 싫어해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천사가 그런 색깔을 싫어한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유월절 문에 발랐던 그 피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별명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계속 지켜 오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를 문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이, 바로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사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눈에는 그 피를 보면 그게 양의 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자기 아들의 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 때문에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 앉아 있던지, 그 사람의 죄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 넘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바른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먹으로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먹으로 이마에 표시를 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X표 했을까요? △표 했을까요? ○표 했을까요? 궁금하긴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궁금함입니다. 무슨 표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답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 알파벳 중에 어느 하나를 썼어요. 그게 ‘타우’라는 건데 영어로 하면 T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히브리 글자를 보면 한자 九 자에 풍지 자르고 위에 튀어 나온 것 자르면 딱 그 글자가 됩니다.

그러나 무슨 표시를 했든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보고 저 표시가 있으면 안 죽고 산다? 이러면 먹은 집집마다 웬만하면 있잖아요. 집에 가서 자기도 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조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설령 먹으로 해 놓은 것은 금방 씻겨서 없어지든지 지워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먹 자체는 아무런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를 해야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를 아실까요? 그럼 처음 표시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 표시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청각적인 방법을 쓰셨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로 했냐, 피로 했냐, △로 했냐, □로 했냐? 이걸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망해져 가는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굳이 표를 하시지 않으셔도 다 압니다. 단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청각적인 방법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월절에 바른 피. 피 그 자체의 효능이 아니요, 여기에 먹으로 이마에 칠하는 그 먹의 효능도 아니라고 한다면,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예요. 그 도장의 효력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신다는 데 ‘아, 이마에 어떻게 치실까? 내가 그 인을 꼭 받아야 될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왜 ‘인’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니까? 지금도 비슷한 방법을 쓰기는 하겠지만 가축을 많이 기르는 지방에서는 자기의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축의 엉덩이 쪽에다가 낙인을 주로 찍었죠. 요즈음에는 소의 귀에 딱지를 붙여서 자기의 소유인 것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로 엉덩이 쪽에다가 낙인, 쇠로 된 도장이예요.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옛날의 노예도 그렇게 낙인을 찍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장을 찍어야 알까요, 안 찍어도 알까요? 안 찍어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도장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돼요. 계시록을 잘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의 홍내를 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홍내 내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 이 사탄은 ‘짜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홍내를 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요놈의 사탄도 꼭 삼위일체 홍내를 내요.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 있는 짐승하나를 셋이 요렇게 뭉쳐서 활동을 해요. 삼위일체 홍내를 낸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홍내를 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홍내를 내요. 한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더라고요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이 사탄이 홍내를 냅니다. 비슷하게요.

그러니 이 사탄을 가리켜서 짜통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 이 짜통이 하나님의 홍내를 낸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니 이 짜통이 자기도 홍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곤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네요. 뭐라고 찍죠? 그게 그 유명한 666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곤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이마에 인이 찍혔냐, 안 찍혔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짜통이란 놈이 ‘이곤 내 백성이야’ 하고 도장을 찍으러 다니는데 그걸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곤 내 백성이야 그러는데 사탄이 거기 손댈 수 있나요? 설령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탄이 잘못해서 도장을 찍었으면 누구 잘못이죠? 그 벌은 누가 받아야 되죠? 이곤 사탄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666의 표시를 받지 않았을까?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 그냥 웃고 넘기시고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신용카드가 666이다, 아니면 또 주민등록번호가 666이다. 그러더니 또 요즈음은 얼마 전에 나온 것으로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 있죠? 훗날 사람의 몸에다가 숫자를 심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쩐다, 이게 666이다. 받으면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심각하게 들지도 말고 그냥 웃어넘기세요. 여러분, 이마에 먹칠하든, 인을 칠하든 이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우리 이마에 무엇이 붙어있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니, 전혀 상관할 것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를 너무 궁금하게도 여기지 말고 ‘저 짜통이 하나님 홍내 내고 장난치는구나.’ 그리고 웃고 넘기세요. 제발!

차를 샀는데 번호가 0666 이네요. 이것 사야 되요? 말아야 되요? 무시하고 차가 마음에 들면 쓰세요. 일부러 그 차를 살 필요는 없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차번호가 666이라 이거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차가 마음에 들면 쓰세요. 2016년 6월 6일에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돼요, 안 돼요? 날짜가 편리하다 싶으면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혹시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 4층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4층의 404호? 재수 없나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666도 그런 식으로 신경도 쓰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666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나만의 비밀이라고 말하거든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홍내를 내고 있는 짜통이 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 비밀계시까지 쥐 가면서 설명해야 하나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마에, 아니면 내 어딘가에 666이나 이놈이 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요.

이단이 사람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피를 발라서 살았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 답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바로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 그런고? 하나까 피 바른 집안에 들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구원 문제는 다른 조건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믿는다는 순간에 구원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태어나면 자라야죠.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에게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그 다음 자라나야죠. 그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하튼 피만 보고 천사는 지나갔더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먹을 칠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한다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먹을 사러 뛰어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잊어버리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했던 그 사람들은 먹을 바를 생각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했던 거죠. 이마에 먹 표시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 도장을 찍는다는데? 도장 신경 쓰시지 마시고 믿으면 돼요.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도장이 찍혀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피, 먹, 인이라는 방법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느냐? 두 번째 것은 어떤 징계나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징계나 심판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예요. 심판하지 않으려고, 징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참으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게 잘 보여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도저히 안 되니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시는데 심판 때에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는 이야기가 그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유 없이 회복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출애굽기 때 느닷없이 등장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작정하셨던 이야기를,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이렇게 구원해 내겠다는 것을 출애굽 때에 하나의 모형처럼 우리에게 보여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라고 신신 당부 했건만 이들이 곧 하나님을 잊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징계를 반복하시죠. 징계했다가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징계했다가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애 먹이고, 애 먹인 것이 사사시대와 열왕기를 보태면 거의 800년이예요.

쉽게 말하면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로 참고 견디시다가 끝내 못 견디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해 버리고 난 뒤에도 혹시라도 싶어서 예루살렘은 그냥 뒀는데 에스겔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게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 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가신 지 벌써 몇 해나 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시던 그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시고 세월만 자꾸 갑니다. 2,000년이 넘어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와 불신자는 명

백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가 그런 거예요. 모래 있죠? 고운 모래. 그 안에는 유리, 돌, 철 성분이 섞여 있죠. 그런데 자석을 모래 안에 넣어 흔들고 들어 올리면 철분만 싹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모래에 자석을 갖다 대면 철 성분만 뽐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아세요. 똑같이 섞여 살아도 자기 백성만 그대로 뽐아내실 겁니다.

성도는 유정란과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무정란과 같아요. 똑같은 알이지만 어미 닭이 품었을 때에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썩어 버려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품었을 때에 우리에게만 아름다운 새 생명이 태어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이게 섞어 버리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고 똑같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 누가 피거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여길 때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짝퉁이 다른 것을 가지고 흔들 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666이니 어쩌니 저쩌니 다 짝퉁이 하는 짓이라고 여기세요. 성경 말씀을 펼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은근슬쩍 두려움에 떨게 할 때는 '아. 이게 짝퉁이 하는 짓이구나.' 그리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두려움을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다, 맞아요?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해 보세요. 온갖 박해를 견뎌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을 한 권 보내셨어요. 종말에 내가 세상을 이렇게 심판 할 거다. 그 얘기를 보냈겠어요? 종말에 심판이 있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보라! 그렇게 해서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잔혹한 박해가 가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전해 주려고 계시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재앙 얘기가 많을 것 같죠?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재앙이 임하는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전부 끼워 넣었어요. 그걸 보라고 계시록을 줬더니 그건 안 보고 쓸데없이 재앙내리는 이야기, 무슨 재앙은 어떻게? 그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보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싶어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재앙이 설령 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때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고 계시요.

그런데 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참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서울만 그렇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참 힘들어요.

'누구는 참 좋겠다!' 멀리서 보면 그래요.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나와는 또 다른 머리 아픈 일들이 있어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즈음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를 날마다, 날마다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부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너머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라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반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9:41~56]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무엇을 보고 뛸까요? 너무 쉬운가요? 정답은 100M 결승선이 아닙니다. 아이들 운동회나 아마추어들이 달리를 할 때는 결승선을 보고 뛰면 돼요. 그러나 진짜 선수들은 결승선 보고 뛰면 안 됩니다. 다 왔다 하는 순간에 몸이 주춤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선수에게 추월당하기 쉽죠. 그래서 선수들은 100M 결승선 테이프를 보고 뛰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를 보고 뛸니다. 그 너머가 목적지인양 그대로 뛰어 들어가야만 최고의 성적을 낼 수가 있죠.

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시골에 보면 물에 바로 떠 있는 다리, 얇은 다리입니다. 잠수교와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다리역할을 하다가 물이 많이 차오르면 다리가 물에 잠겨요. 다리가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고 다리 위로 물이 찰랑찰랑하고 지나갈 때에, 다리 모양이 다 보여요. 이런 다리를 건너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리 모양이 다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답은 건너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건너가다 보면 어지러워서 물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가야 한다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밀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저 멀리 다리 건너편을 보고 똑바로 가면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흥내 낼 일은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하니까요.

술 취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어진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 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간에 엎어져 자는 수가 흔히 있어요. 술집에서 자기 집까지 꽤 먼 거리일 수도 있는데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왜 문간에 엎어져 자고 있을까요? 날이 추운 겨울에는 그렇게 자다가 죽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멀리서 길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자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집 대문관에서 일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먼 술집에서 자기 집까지 찾아왔는데 왜 거기서 엎어져 자고 있을까요? 집에 다 왔다는 순간에 간장이 풀려서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은 목적지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가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결승선만 보고 뛰면 마지막 순간에 추월당할 수도 있어요. 발밀을 보고 걸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발 밀을 볼게 아니라 멀리 봐야 됩니다. 군대용어를 빌리면 말년에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제대 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군대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사고치거나,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겁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눈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멀리 두자는 얘기죠. 그러면 멀리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면서 그 장면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산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과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고쳐달라고

데려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이 난리를 치고 산 위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항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베드로가 ‘여기가 좋아오니~’ 그러고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 나라에서 귀신이 설치고 있는 이 땅까지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려왔더니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매달리면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꼭 찬물 끼얹는 말을 하세요.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수난을 당하게 되리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난 예고를 하실 때에 종종 이러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놀라서 그걸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수난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따라 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거의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들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고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은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도 아닌듯한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이 된다면 제자들의 서열은 훗날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서열이 되는 거죠.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수난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뒷세를 부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도록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 인간들이 예수님을 팔고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수난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무얼 생각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그 인간들이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이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했음에도 수난을 예고하고 싸우지 않고 돌아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전혀 이해도 못했고, 무슨 뜻인지도 알아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외로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생각, 그 의도, 형편을 이해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해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서 결정하시고, 혼자서 결단하고, 때가 되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겠지.”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 같은 심성과 능력을 가진 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고통을 들어내거나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고통을 다 견디어 냈습니다. 어떻게 견디어 내셨는지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해야 할 때가 되어 가매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 표현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승천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너머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아셨기에 그걸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아픔을 이겨 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했던 그 고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기는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이렇습니다. 이런 판이니 예수님의 고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죠.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통 외에 잘 모르는 고통이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 중에서 우리가 알듯 한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였던 말씀을 잘 보면 전부 '구약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쩌면 마음의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동료나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도 정말 무섭습니다만 외로움이라는 것,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이내 몸이 탈이 나죠. 멀쩡한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멀쩡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통 외에 세상천지에 아무도 이해 해주지 않는 이 외로움도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고통은 그 고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이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는 고통인데 이 고통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끔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죠? 그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은 단 한 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말하자면 너무너무 깊은 사랑으로 매여 있는, 단 한 순간도 끊어지거나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깊은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그 두 분 사이,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겪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뒤에 다시 볼 건데?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끔 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연애를 한 3년 쯤 했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편지가 하나 왔어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한 6개월 정도 묵상하고 잘 생각해 보다가 확신이 들거든 그 때 다시 연락하는 게 어떻겠어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사랑에 빠져있을 때에 6개월간 소식을 끊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직 덜 빠진 거예요. 단 한 순간도 그럴 어떻게 끊나?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에 받았던 느낌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한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바로 없던 걸로 하고 그 기간을 거치지 않았습시다. 이런 일은 평생이 있을 수 없는 일! 진짜 사랑하는 사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단 한 순간도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 육체의 고통? 그것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이상한 약 먹고, 아니면 사고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이죠. 예수님께서도 견디기 어려운 거였어요. 오죽하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 하시면서 자기는 늘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잔을 피하게 해 달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게 얼마만한 고통이었을는지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이거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가끔은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서 살면 생활비가 참 적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미얀마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꽤 오래전입니다. 10년, 20년 전 이야기니까 10만원만 하면 생활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도 글썽요, 20만 원, 30만 원 같은지 모르겠어요.

필리핀만 해도 교사 월급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하면 30만원, 40만원이 안 됩니다. 30만 원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 달에 200만원 쓸 요량하면 잘 살겠다, 그죠? 한 번 가보시겠어요? 그 곳에 가서 한 번 살아보시겠어요?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현지인들처럼 산다면 그 돈 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현지인들처럼 못 살아요. 그 사람들처럼 입고 그 사람들처럼 먹고 못 살아요. 우리는 거기 가도 여전히 여기서 살던 것처럼 살아야 해요. 그러면 돈이 엄청 더 듭니다.

저도 가끔 현지 교회 방문하면 현지인들이 음식을 따로 해서 줘요. 자기들 먹는 음식 주면 목사님들이 잘 못 먹는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판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 마련해서 주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잘 못 먹어요. 무엇보다도 파리가 얼마나 많이 달려드는지 몰라요. 고깃국을 끓여 주는데 차라리 채소가 나아요. 기름때가 줄줄 흐르는 고기를 보면 먹을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살던 우리가 거기에 가서 현지인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살면 잘 살겠다? 꿈 깨는 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현지인처럼 살면 될지 모르지만 현지인들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거지보다 수준이 더 낮아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왕자로 계셨던 그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던 분이세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나 마음대로 가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던 분이데 육체를 입고 시, 공간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지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껏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매미가 자기 동료들이 애벌레가 되어 아직 땅 속에 있어요. 그 애벌레들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다시 애벌레가 되어 땅 속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불편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일까요?

아이들이 망나니같이 펄펄 뛰어 다니지 않습니까? 날이 추워졌다고 옷 하나 더 입히려면 아이들이 갑갑해서 벗어 던져 버려요. 엄마는 어떻게든지 하나 더 입히려고 하는데 이게 답답하다고 벗어 던지는 아이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자유로움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 높은 하늘에서 여기까지 낮아진 이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 너머에 있는 승천을 바라보시고 이겨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오래된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그 기쁨입니다.

영국 속담에 같은데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 주지 않는 한 남자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없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남자의 행복은 자기 짝이 된 여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에는 왕 노릇하는 남편이 많아요. 왕 노릇하고 시녀같이 부려 먹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그 기쁨이 그게 바로 승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 이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꿈게 잘 자라

준다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대하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결국 징계 받고 쫓겨납니다.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창세기의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성경이 잘 보여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엄청나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래도 또 용서를 하세요. 자기 백성을 또 불러내서 인도합니다만 얼마쯤 지나면 또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내셨던 이스라엘이 그 큰 구원을 받고도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리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이며 그걸 끝까지 이루시려는 겁니다. 심지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도 그 일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여 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이에요. 자기 자식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것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로 만들어 놓았던 이 인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이고 이것을 이루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 가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꿈꾸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 날을 꿈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이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도 이것이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꿈을 품고 이런 소망을 간직한 채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제일 잘 이해해야 했던 제자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실족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요?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를 따라 오면서 뒤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잘 났냐?’ 이런 싸움을 하는 거죠.

운동회할 때 열심히 달려가는 아이들이 저 목표점을 향해 달려야 하는데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엄마가 보고 있어야 할 텐데?’ 하고 엄마 찾다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이런 아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엉뚱한 데를 보고 있으니까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다르게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은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상상도 못했으니, 그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실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좀 멀리 내다보고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서울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시골에 가면 밤에 후레쉬/손전등/를 들어야 하는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후레쉬를 어디에다 비춰야 하나요? 가끔 발 디딜 곳에 후레쉬를 비추고 가는 놈이 있어요. 얼마 못가서 시궁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레쉬는 발밑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저 앞쪽을 비춰야죠. 운전하는 사람

들이 그 앞쪽을 보지 않고 자기 앞 차만 따라가면 사고내기 딱 알맞은 겁니다.

결론 삼아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옛날 목사님들의 예화에 많이 들은 겁니다. 농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를 넘겨줬어요. “네가 한 번 갈아봐라.” 그래서 밭을 갈았는데 아버지는 논을 전부 똑바로 갈았는데 아들이 밭을 갈 곳은 온통 삐뚤삐뚤한 거예요. “아버지, 같은 소인데 아버지께서 갈 것은 똑바로 갈렸는데 저는 왜 이러나요?” 왜 그렇죠? “얘야, 논을 갈 때에 소 궁둥이만 쳐다보고 가서 그렇단다.” 소 궁둥이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궁둥이만 보고가면 비뚤비뚤해지는 거예요. “출발할 때에 저 앞의 버드나무를 보고 가야지 소만 쳐다보고 가면 그렇게 된다.”고 가르쳐 줬대요.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달리기 선수가 ‘다 왔다.’ 하는 순간에 추월당합니다. 땅에 살면서도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만족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더라도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땅의 머리 아픈 것만 쳐다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것 아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앓아 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둘 다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닥쳐오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너머에 있는 승천의 날을 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런 것만 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 오늘의 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짧은 인생길을 다 걷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장자입니다. 이 정도면 부자죠?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부자가 푼돈에 흔들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횡재할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거 다 푼돈이에요.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 남이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꿈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이 땅의 근심이 상당히 덜 할 겁니다. 승천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힘든 인생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거늘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듯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달음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별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덮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덮이 어찌 땅에서 뒤짚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2:1~3:8]

다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부모에게 “자식 덕 보려고 이렇게 키운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부모 생각이 어떨까요? 실제로 자식들을 잘 키워서 훗날 호강하리라 생각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자식이 다 자란 후에 이러면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집니다. 말은 맞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봐야죠. 정말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겠다고 저렇게 발사심을 해대고 천안함 사건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금강산 관광이다, 또 어느 대통령 시절에 북한으로 원조를 참 많이 해 줬잖아요? 그렇게 많이 퍼 줬는데 결과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동안은 “이제는 국물도 없다.” 해서 대북 송금이나 북한과의 교류를 다 단절시키기도 했죠. 지금도 아마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퍼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억울함이지요.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자식에게 무슨 양광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적반하장이거든요. 어떻게 하죠? 많이 답답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가 이걸 잘 보여 줍니다. 비유권대, 남한의 시골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걸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남한 사람들이 넘어 왔다고 하면 일단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 시골 촌놈이예요. 아주 무시하기 딱 알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하면 대우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예가 한 번 있었거든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느 여학생이 넘어 갔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국회의원이 된 그 분이 옛날 대학생 시절에 북한 청년 축제에 참석해서 북한에서는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면서 인기가 대단했대요. 기회를 잘 타고 방법만 잘 찾으면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우리 생각에는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면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요령껏 잘 하면 어떨까요?

북한에 가서 제일 먼저 “미국은 이런 죄 때문에 망한다!” 이러면 북한 사람들이 잘 들어주겠죠. “중국도 옛날부터 우리와 우방 사이로 지내더니 요즈음 변했는데 중국도 두고 봐라!” 이러면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욕을 하면 좋겠죠. 또 “남한 사회가 지금 저 모양이니 얼마 못가서 무너질 것이다!” 이러면 북한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마 박수칠 걸요? 그렇게 박수를 치는데 “너희 북한은 어떤지 아느냐?” 하면서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면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겠죠? 아모스가 행한 일이 꼭 이와 같아요.

아모스 시절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시골 농부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고 했던 말이에요. 이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빙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전부 열거하면서 이 나라는 이런 죄로 인해서, 저 나라는 저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바퀴를 돌아 남쪽 유다까지 옵니다. 남쪽 유다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아모스의 메시지에 열렬히 환영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조금 전의 비유처럼 ‘남한은 이렇게 망한다.’ 해놓고 ‘북한, 너희는 어떠냐?’면서 북한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를 나열해 보세요. 난리가 날 걸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는지 참 궁금해요. 아니, 주변의 여러 나라들 포함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잘 한다고 박수를 쳤겠죠? 그런데 자기들도 징벌하신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모스가 주변 나라들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칼날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그 칼날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했는데 모압을 먼저 이야기해요. 모압 앞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모압의 형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그랬죠?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압의 세 가지 죄들과 그리고 넷’입니다. 뒤의 문맥과 연결시켜보면 서너 가지라기보다는 일곱 가지라고 보는 게 좋을 듯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할 때에 해아려 보면 일곱 가지예요.

일곱 가지 죄에 대해서 벌하시리라고 말하면서 지적한 죄는 딱 하나입니다. 모압 다음에 남쪽 유다로 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유다의 일곱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죄는 마찬가지로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돌더니 6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시작은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러죠?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은 서너 가지가 아니고 전부 일곱 가지예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딱 한 가지만 지적하더니, 그걸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시원하다!” 이랬는데 자기들의 죄는 일곱 가지예요. 아모스가 책망하려는 실제 대상은 북 이스라엘입니다. 이 책망을 하려고 주변 국가를 한 바퀴 돈 거예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모스가 자기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러는 줄도 모르고 주변나라들을 책망하니깐 잘 한다고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진짜 책망 받아야 할 나라는 자기들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 분이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도중에 사퇴하고 쫓겨 나오는 거죠. 요즈음 또 신문에 가끔 나와요. ‘성추행’으로요. 골프 치러 갔으면 급게 골프만 치지 왜 젊은 아가씨는 건드려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드셨나? 했더니 그 얘기를 전하는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분이 옛날부터 손버릇이 안 좋았대요. 그 때는 더러워도 웬만한 것은 참고 넘어가서 그렇지,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건

딜 수가 없어서 고발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한 때 여당의 명 대변인이었습니다. 원래 대변인들은 주로 방송기자 출신들이는데 이 분은 검사 출신이었어요. 검사 출신이 대변인을 해서 아주 오래토록 정말 잘 했습니다.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랬던 이 분이 요즈음 신문에 성추행으로 등장해서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손버릇이 나쁘고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남을 향해서 그렇게 화살을 퍼부었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들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것을 먼저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만 살핍니다. 아모스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씩만 언급했잖아요.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하는 나를 향해서는 잘못을 일곱 가지를 지적하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마라. 네 눈에는 들보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장기나 바둑을 두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훈수를 참 잘 들어요. 재미있는 말이 있죠. 훈수는 원래 뽀뽀 맞아 가면서 두는 거래요. 뽀뽀를 맞는 한이 있어도 훈수는 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요? 옆에서 지켜보면 답답한 거예요. 뽀뽀 보이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잘 보여요. 사람이 희한한 게 자기 모습은 잘 못 보면서 남 하는 것을 보면 뽀뽀 맞아 가면서라도 입을 떼지 않을 수 없도록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하고 “잘 한다, 수고한다, 멋지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뒤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밖에 못했냐?” 숨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식당에 가면 ‘나는 손가락 하나 따딱 안 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니’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감사하고 맛있고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짭노? 오늘 간 누가 봤노?”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뭔가를 이루어 놓는 것은 어렵지만 남이 해 놓은 것을 보고 입 대기는 참 쉬워요. 내 입에, 내 눈에 들지는 않아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냐?’ 한 마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뭐했니?” 이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속 들어가야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남이 해 놓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눈이 그 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병을 고치려면 방법이 딱 하나 밖에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이 나요. 둘이서 열심히 이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서 딱 한 마디만 하면 설교는 완전히 목사발이 돼 버려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는?” [자기는?] 이거 한 마디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세 글자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이사” 이거 경상도 사투리인데 ‘말이야’ 무슨 소리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앞에서 열 내고 있는데 저 뒤에 앉은 사모님이 “말 이사” 이거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남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너무 쉬워요. 물론 그런 소리 듣는 목사님이 말만 그렇게 하고 좀 못하니깐 그런 거겠지만 어쨌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뭉개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는 것, 남의 수고를 무너뜨리는 것, 남의 흠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이런 눈, 하나님께서 내겐 뭐라고 하실까? 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우리식으로 하면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에 가서 왜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을 지적하고 있느냐? 이

유가 몇 가지 있는데 2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란 말씀을 쓰고 있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수고를 하여 여기까지 데려다 댔는데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가 지금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책망입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는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니예요. 애굽에서 고쳐다가 여기까지 갔다 댔는데 왜 내 말을 거역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립니다. 그 뒤에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징계하는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 너희만 알았다는 얘기는 수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만 사랑을 쏟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배반하느냐는 겁니다. 2장 9절을 보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은 백향목과 같고 상수리나무와 같이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너희가 상대할 수 없는,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하고 튼튼한 민족인데 내가 진멸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만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특히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너희만 사랑했노라’는 사랑고백이죠. 그런데 이걸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신이라는 게 나쁘잖아요. 요즈음도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요즈음은 확실히 조용한 것 같아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남자 친구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여자 친구가 배신을 해서 딴 사람하고 사귀는 이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주로 총 매고 도망 나오죠. 다방 같은데 죽치고 앉아서 “누구 불러도!” 하고 총 쏘 재끼는 일이 많았어요. 최근에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일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 가도 바팔과 소통이 잘 되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런 일을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강지처 버리는 것? 소위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회사 사장님 딸하고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이 조강지처가 원수를 갚고 어찌고저찌고 하는 이런 거요. 참 나쁜 겁니다. 결혼하겠다고 온갖 단물을 다 빼먹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배반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알고,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배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책망이에요.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흔히 하는 말로 “여자가 어디 그 한 사람뿐이냐? 많고 많은 게 여자 아니냐?” 이립니다.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혹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사랑했는데, 나의 온 마음을 다 하여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했다? 옆에서 하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잘하면 질투의 화신이 돼서 무슨 사고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어떠실까? 하나님은 사랑을 해도 지독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설픈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귀어 보고 시원찮으면 헤어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사랑은 별로 좋지 않아요. 잘 생각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해도 정말 지독하게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어설픈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예요.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국은 독생자까지 희생시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 몇 푼 쓰는 정도가 아니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지독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배신했어도 아무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정말 깨끗이

잊어버리는 분이신데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뒤끝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뒤끝 있는 분이세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뒤끝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고 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가 산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죄를 범하였도다’ 이릅니다. 누구 백성이요? 네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게 어디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간절히 빌어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라면서 “용서하옵소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 장면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네 백성’이라고 하고 모세는 ‘그게 어디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러면서 버티는 겁니다. 전부 멸해 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벌은 안 내릴 테니까 어쨌든 빨리 내려 가봐라.’ 내려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죠. 모세가 우상을 다 깨부수고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돌판 새로 새겨주신 것은 아시죠? 돌판 새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해요. 조금 전에 용서를 안 했나요? 조금 전에 용서하겠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전부 멸해 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는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용서해 달라고 빌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좋다, 용서는 해 주겠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 그리고 너희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끝난 것 같죠?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끝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노라’ 이 의미는 사자만 보내고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산 밑에 내려가서 백성들 단속시켜놓고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 사자를 앞서 보내는 일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또 매달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고 같이 가겠노라는 답을 얻어냅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고 화통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잊어버리시지만 매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뒤끝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을 배신하면 무서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을 4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 보세요. ‘빨리 달음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쉴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걸 ‘죽어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수레에 곡식이 가득 실려 있으면 이게 복인가요? 농부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수레에 곡식이 가득 실려 있어도 이게 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러죠?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이기 때문에 진흙탕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상의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자라나는데 관심이 적어요. 자라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왜 아모스가 휴전선을 건너가서 북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외치느냐? 그 많은 메시지의 핵심은 5장 20절에 있는데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 들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부실 공화국이에요. 세월호 사건 난지가 얼마 됐다고 어저께 지하철 뚜껑이 열려 가지고 애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데가 한 두 군데도

없다 싶을 만큼 썩은 곳이 많은 나라, 이러다가 어찌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던 공의는 어디 가고, 편법에, 부정에, 몰상식에 젖어 있으니...

이 나라 구석구석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도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던 북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두 가지로 정돈을 하면 첫째로 남의 잘못을 살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실는지 여기에 관심을 쏟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쏟으셨는데 그 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 중의 징계, 말씀의 기갈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예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1-14]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끝내 구조되지 못하면 탈수로 죽는다고 합니다. 물에 뚱뚱 떠다니면서 결국 물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란 뜻입니다. 홍수 때에도 먹을 물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먹을 물이 없죠? 물이라고 해서 다 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가 쏟아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책도 입맛에 맞는 대로 찾아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죽는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고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말씀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묘하게도 그럴 수 있더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셨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외국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부유층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풍부해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말씀에 기근이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다의 전성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쪼개어지고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나 한번 더 번성하는 시대가 옵니다. 유다는 웃시야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II세가 다스리던 때에 다시 번성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시대가 옵니다. 바로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대적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시대에 남쪽 유다에 있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외적의 침입이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살 때에 죄가 번창할까요? 줄어들까요? 이거 참 모한 겁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큰 범죄가 더 생겨요.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에는 도둑이래야 이웃집 옷 훔쳐가고 책 훔쳐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범죄가 점점 더 지능적이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모두가 가난하니까 힘없고 어려운 사람도 견딜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 잘 살고 잘 먹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난하고 어려운 사

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물으시는데 지금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느냐?’ 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나라’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히브리 말로는 ‘여름과일’이라는 글자와 ‘광’이라는 글자가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 ‘아, 끝이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비슷한 예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유행했죠. ‘당연하지’라고 해야 할 때에 “당근이지.” 라고 했어요 ‘당근’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은 ‘당연하다’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소위 *word play*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네요. ‘끝났다!’란 말 대신에 ‘과일 한 광주리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끝이 나면 3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에서 날마다 즐겁게 부르던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시체들을 내어 버리는데 왜 잠잠히 내어버릴까요?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거나, 한 두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났다고 여기지만 죽는 것이 일상사가 되면 사람 죽는 것이 별 뉴스가 안 될 수도 있죠. 어느 쪽이 됐던 사람 죽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유를 4~6절에서 말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없기 때문입니다.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돈으로 휘어잡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번영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돈으로 휘두르면서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죄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경주에 있었던 최부자집 이야기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자는 10대를 내려갔습니다.

10대째 부자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자기의 전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쓰고, 해방 이후에 학교를 세우는데 돈을 많이 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주 최부자가 지금은 흔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후대 아들 되는 분이 지금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집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다가 지금은 흔적만 남았습시다마는 어쨌거나 10대를 흔들리지 않고 내려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집안의 독특한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파장에 물건 사지 말라.’ 파장에 가면 값이 싸요.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물건을 처분하고 가려는 것을 싸게 사려고 애쓰면 안 된다. 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라는 말입니다. ‘흉년에 땅 사지 말라.’는 말도 있었어요. 흉년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 땅을 헐값에 내 놓지 않느냐? 그러니 사지 말라는 얘기에요. 정 사려면 제 값을 주고 사라는 겁니다. 부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 지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사방 80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경주에서 사방 80리면 울산까지 갑니다. 그 넓은 지역 내에 굶는 자가 없도록 해라는 것이 그 집안의 교훈이었어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부잣집을 완전히 헐고 죽일 때에 그 집의 일꾼들과 소작인들이 막아 준 겁니다.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농민들이 이 집을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고 10대를 내려갔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자본주의,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 이권 명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청망청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자로서 맡은 책임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인데 이것을 잘 안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는다는 사실

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너희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있는구나!’ 하시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밭을 내게 할꼬’ 이립니다. 여기서 월삭이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돈 벌만 하면 월삭이고 돈 좀 될 만하니깐 안식일이라 쉬어야 되네! 아, 이거 언제 빨리 지나가서 맘 놓고 돈 좀 벌겠느냐? 이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내기는 사람 죽을까봐 겁나고, 일당을 주면 장승 될까 겁난다.” 일한 만큼 돈 주겠다고 하면 사람 죽을까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돈 맛 들이면 죽을 줄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에 ‘월삭이고 안식일이고 이거 빨리 지나가면 안 되냐?’ 이라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날에도 어떤 의미에서 주일을 무시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학생인 경우에 주일도 무시하고 예배도 아랑곳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은 좀 더 벌 수 있고, 점수도 조금 더 딸 수 있을 겁니다마는 제대로 누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치면 꼭 100점 맞아야 됩니까? 90점 맞으면 안 되나요? 시험 쳐서 90점 받으면 ‘아, 내가 잘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죽으라고 100점을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100을 벌 수 있는데 주일을 지키느라고 90정도만 벌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100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90에 만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일을 지키느라 애쓰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 준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싶지만 직장이 너무 빡빡해서 시간내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기회가 되는데도 돈 버는데, 공부하는 데에 전력투구하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 월삭이 지나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한 가지 더 있죠. 5절 뒤편을 보세요. ‘예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예바는 ‘되’를 말하는 거예요. 되의 크기를 줄이든지, 아니면 뒷박의 아래 부분을 두껍게 하든지 해서 되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겔을 크게 한다는 것은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추를 달고 물건을 팔 때는 정량보다 더 무거운 추를 다는,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되었으니 이렇게 사람을 속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장사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장사하면 돈을 잘 못 번다고 그러죠? 어쨌든 속여야 된다고 말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도 참 많은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릴 때에 들었던 말입니다마는 참기름에 가짜가 많으니까 파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참기름’이러죠. 또 다들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니깐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요. ‘순 진짜 참기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순 진짜 참기름 이런단 말이에요. 한 자 더 붙여요. ‘정말 순 진짜 참기름’ 하나 더 붙습니다. ‘100% 정말 순 진짜 참기름’

이쯤 되면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다들 그렇게 속인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을뿐더러 사람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

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것입니다. 땅이 떨고 땅이 강물처럼 뛰노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해가 대낮에 지고 백주에 땅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반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반칙이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자연의 법칙대로 굴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규칙 위반이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칙을 하고 있으니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을 속이고, 재밋대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런다고? 나도 그럼!' 원래 정하셨던 자연의 법칙을 뒤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잔치 때 부르던 그 절기가 애통으로 변하고, 노랫소리가 애곡이 되고... 노랫소리가 애곡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심판이 임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심판이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천지개벽보다 더 무섭고 어쩌면 IMF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씀의 기갈'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인데 말씀의 기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온 게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아니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니 하신다는 것은 포기하시고 떠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인테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의 기갈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물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지만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을 보내면 물 한 가운데서도 물이 없어 죽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한 것이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북쪽에서 출발하면 남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는 북쪽에서 동쪽으로 왔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면 아직까지 정신은 말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동쪽으로 왔다면 방향도 구분을 잘 못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시겠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최후의 징계, '말씀의 기갈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면서 최후로 보내는 징계가 말씀의 기갈입니다.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져도 큰일은 아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진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영원한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무서운 징계 중의 징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났든지 무슨 사고가 나서 팔 다리가 부러지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큰 일이 난 거잖아요. 팔 다리 부러지고 깨진 것은 정말 난리가 났다 싶지만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차라리 그것은 덜 무서워요. 큰 사고가 났는데도 사람이 멀쩡해 보여요. 이거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나 몸 내부에 무엇이 터졌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무 표도 없고 사람이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이것이 위험할 때는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뇌에 문제가 생겼으면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요즈음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란 말을 쓰죠. 소리 없는 살인자란 주로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심지어 흡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담배 열심히 피운다고 수명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소리 없이 다가와서 사람을 죽여 놓는 겁니다. 팔 다리 부러진 것보다 실제로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팔 다리 부러진 게 큰 일이다 싶지만 사실은 몇 달 고생하면 다 회복이 돼요. 그러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런 죽음은 눈치 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집안에 문제가 터지면 난리를 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징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 했으면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니,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날 더러워라고 하실까?’ 이게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징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번성하던 시기에는 부자들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시기에 말씀이 없어서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 이스라엘의 현 상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기 좋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묘해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만족이 되느냐? 만족이 얼마 가지를 앓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피아노 가르치면 처음에 참 열심히 쳐요. 진도도 아주 빨라요. 그리고 어디 가서 피아노만 보이면 똥똥 거리고 해서 ‘아, 우리 애가 정말 소질이 있는가 보다!’ 그럴수록 피아노를 빨리 사 주지 마세요. 피아노가 없을 때는 어디 가서 피아노만 있으면 한 번 치게 해 달라고 하던 녀석이 집에 피아노 들여와 보세요. 처음에는 신나 할는지 모르지만 얼마가지 않아 시들해서 피아노 안 만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예요.

카메라 한 대 사 달라고 얼마나 조르는지 몰라요.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디든지 다 찍어요. 그런데 얼마가지 않으면 시들해져서 만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의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지, 진정한 만족은 아닙니다.

35세 동갑나기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오고 일찍이 기술을 배워서 카센터를 열었어요. 빌딩이 몇 채가 됩니다. 그 옆의 동갑내기,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박사도 어떤 경우에는 생활비가 조금 나옵니다. 학비대고 먹고 살면 딱 알맞을 만큼 빠듯하게 나와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만족하고 있을까요? 돈 많이 벌고 있는 인생은 ‘돈, 이게 뭔데?’ 하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사님이 한 없이 부러운 거예요. 박사는 뭐라 그럴까요? 이 나이 되도록 집에서 돈 얻어다 눈치 봐 가면서 살고 있는데 저 친구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가진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날 얼마나 부러워할까?’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고 삽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평생토록 갈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말씀 위에서, 비록 힘든 인생을 살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른 채 기도만 열을 내는 사람은 나중에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큼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요즈음은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찬양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 집회에 가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신나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기 와서는 입 꼭 다물고 있던 아이들이 집회에 가서는 밥을 안 먹고 집회에 쫓아가더라고요. 굶고 가요!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세상에, 집회에 앞자리 앉으려고 밥을 안 먹고 한 두 시간 전에 가 있는 아이들, 얼마나 대견해 보여요? 말씀이 그리워서 가는 게 아니예요. 찬양할 때, 앞에 앉으면 함께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열광을 해요. 그렇게 찬양이 풍성하고 열광하는 그 집회에 며칠 앉아있어 봐도 성경구절은 몇 구절이 안 돼요.

그 열광은 집에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찬양도 말씀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찬양만 살아있으면 일시적으로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초대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말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에서 떨어지니까 교회가 소위 중세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들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결과 루터는 가톨릭에서는 최고의 이단자가 된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의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한 것, 이게 죄목이에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이단으로 몰리고 죽을 위험에 처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도 알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해 주고 옮겨 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전해준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구하려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요즈음에는 휴대폰에도 다 들어앉아 있으니깐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거기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생수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막말로 생수가 쏟아져도 그릇을 얹어 놓으면? 그릇 안에 물방울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재앙 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열심히 들고 배우고 읽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는 구절을 기억하시죠? 말을 바꾸면 누구든지 침노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왜 그렇게 허약합니까? 누구든지 공격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천국이 왜 그렇게 허약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하다. 약한 성이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애쓰는 자에게 천국을 거저 주다시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주려고 마음 다 잡고 있으니 누구든지 침노만 하기만 하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침노하기는커녕 그릇을 얹어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쉽게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쉽게 바뀌어 집니까? 먼저 됐다고 해서 얹어놓고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온 사람이 그릇을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먹는 양이 적잖아요? 그런데 자라면 점점 먹는 양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많이 먹으니까 자라니까? 자라니까 많이 먹습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둘 다 맞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러하거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장성한 아들로 자라나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는데 크는 법 없습니다. 많이 먹어야 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이 되고, 장성한 자녀로 자라났으면 많이 먹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별 욕심도 안 나고 입맛도 없고 누구 모양으로 성경책만 펴 놓으면 잠만 온다는 것은 내가 잘 자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쉬기 운동도 운동에 해당 되나요? “무슨 운동하십니까?” 하면 “아, 예.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죠. 숨쉬기 운동이 운동이 되나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숨쉬기 운동도 알아서 잘 하면 운동이 됩니다. 그것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단전호흡 같은 것이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숨 쉬면 그냥 사는 거지 운동이 아니예요. 그러나 그것을 연구해서 운동이 되게 하면 운동이 되는 겁니다. 모르고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를 잘 배워서 하면 전혀 운동이 아닌 것도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탁구가 운동이 됩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운동은 안 되고 맨날 공 주우러 다니다가 일 다 보거든요. 그것은 운동이 아니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해요? 치는 법을 배우면 운동이 되고, 배우지 않고 ‘한 번 해보자!’ 하고 툭탁 거리면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매사가 그래요.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배워서 잘 익히면 운동이 되는 거고, 배우지 않은 채 한번 해 보자 하고 덤비면 남에게 방해만 되고 허리만 아픈 채 운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그 말씀 속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권성권성 끼고 다니기만 하면 숨쉬기 운동이 운동이 아닌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말씀이 말씀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우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유다 사람들처럼 돈 맛에 빠지거나 아니면 인생살이의 어떤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기갈이 심해져 가죠.

무엇이 바른 말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으면 설교라는 것을 듣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설교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기는 많이 듣고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것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내 속에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점점 더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갈증이 온다고 바닷물을 자꾸 퍼 마시면,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하고 먹어서 안 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어서 안 될 것을 많이 먹으면 결국 몸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서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 교단,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교단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교회 요람을 보고 좌절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없구나!' 왜요? 그 위에 있는 목사님을 보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왔는지...' 그렇게 생각한지 얼마 후에 학생들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보니 '세상에, 성경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세상의 모든 기갈이 해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단 것, 아니면 심지어 우상인 줄 모르고, 먹어서는 안 되는 우상의 교훈을 따르고 섬기고 있으면,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심각한 기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더 열심히 배우시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만큼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험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역대하 14:1~7]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룬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역대하 16:7~10]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가까운 곳으로 집회를 나갔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깐 오 목사님이 1시간 거리인데 10시간이 걸려서 갔대요. 1시간 거리를 10시간 걸려서 갔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같이 출발했던 어떤 분은 3시간 만에 할 수 없이 옆으로 빠져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 목사님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야했기에 10시간 걸려서 갔대요. 남의 일이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안됐죠?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간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누가 더 고생을 하나요? 한 번에 들어간 사람이 고생이 제일 적죠. 한 번에 들어가면 될 일을 세 번, 네 번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들어가죠?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초해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부할 때 제대로 하면 그 고생 안 해도 되죠. 그런데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더 고생하게 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한 방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걸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서, 1시간 갈 것을 10시간 걸려서 간다든지, 아니면 한 방에 들어갈 것을 몇 번 고생해서 들어가듯이,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삼수 사수는 아닙니다마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 고생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인생살이 자체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저절로 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답입니다마는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처럼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 고생을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같은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가고 누구는 이렇게 헤매느냐? 우리에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점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유다에 선한 왕이 정말 드물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 중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선하다고 하는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8명 정도 있지만 끝까지 선하다고 할만한 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누군가 간신히 살려서 몰래 키워요.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은혜를 갚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빼내어 살려서 왕이 되게 했던 그 제사장의 아들까지 죽이는 왕이 등장해요. 평가는 선한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배은망덕한 왕이죠.

선한 왕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왕이 나와요. 분명히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온갖 실수를 다 저질러서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게 하는 왕이 많이 나와요.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온전하게 선하다거나 끝까지 선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

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3대 왕인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합니다. 다윗같이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그러는 것도 정말 귀한 평가예요.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했던 41년 동안 나라가 거의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점을 남겨요. '우리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4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럽니다. 우선 초창기 10년이 참 평안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태평했던 것은 소위 종교개혁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만 섬기도록 했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 15장 3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냐 싶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이방 공주들을 많이 들이면서 우상 숭배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이은 아들 르호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솔로몬의 손자도 여전히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부터 솔로몬의 아들, 손자 때까지 계속 악한 왕이 이어지니까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증손자인 아사 왕이 들어와서 자기 조상들이 들여놓았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은 없어요.

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참 괜찮은 아들이 태어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되게 하니까 봐요. 어쨌든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어쨌든 간에 아사가 왕이 되고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말씀대로 살게 했더니 나라가 10년 동안 태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평성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까지 고백을 하네요. 그러고 보면 왜 성경이 아사 왕이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사 왕 시절에 9절을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집트 왕이 백만 군대와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침입을 하는 겁니다. 이 때 아사 왕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는 오십만이 안 되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었죠. 절반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아사는 기도를 합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백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대단한 승리죠.

옛날 전쟁은 거의 대부분 머리 숫자로 싸우는 겁니다. 절반도 안 되는 군대로 백만 대군을 물리쳤더라? 그것도 기도함으로! 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 아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말을 전하거든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마당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사의 기분이 어떠할지? 엄청난 승리로 흥분해 있을 때에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겸손하게 그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그 선지자의 말을 다 순종합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조금 되어간다 싶으면 교만해져서 실수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사는 엄청난 승리를 하고도 겸손하게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동안에 남아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아사시대 긴 기간 동안 나라가 평온했던 비결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평온해지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북쪽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합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마구 내려오는 거예요. 아사 왕의 시대가 얼마나 평온하고 좋았으면 쪼개져서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북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 북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남 유다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당시

쿠데타로 나라를 얻은 북쪽의 왕 바아사가 남쪽의 아사 왕과 사사건건 싸웁니다. 그렇지만 싸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바아사와 아사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태평성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 걱정할 것이 못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북한 생각하면 걱정이 좀 되세요? 핵을 만들었다는데, 군사가 저렇게 많다는데, 자꾸 도발을 한다는데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시비를 걸까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되면 안 걸어요. 불안하니까 거는 거예요. 개가 왜 사람을 무는지 아세요? 개는 사람이 두려울 때 물입니다. 사람이 개 앞에서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는 꼴을 보이면 물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겁을 내지 않으면 개도 함부로 물지 않아요. 여하튼 아사 왕 시절에 북쪽에서 자꾸 건드렸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아사 왕은 허물어졌던 여호와와의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와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갈수록 예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데 태후가, 어떤 성경에 보면 모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할머니입니다. 태후가, 왕의 할머니가 아새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아사 왕이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전부 불살라 버렸어요.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통치해 나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부터 또 아사 왕 시절에 전쟁이 없었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끝났더라면 아사 왕의 인생은 완전무결한 왕, 흠이 없는 선한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16장을 보세요. 바아사 왕이 도전을 해 옵니다.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아사가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건드렸음에도 잘 안되니까 남쪽을 치러 하는데, 라마를 건축한다는 것은 휴전선 부근에 아주 강력한 진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주목적은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유다를 어떻게든 건드려 볼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쪽을 겨냥해서, 지금 북한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휴전선까지 끌어다 놓은 셈입니다.

아사 왕이 말년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담대하게 처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본문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와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좀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치니까 바아사 왕이 공사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 쪽을 지키러 올라간 겁니다. 아사 왕이 거의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했어요. 너무 긴 세월동안 위험도 없고 평안한 생활을 보냈는데 말년에 조그마한 위험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는데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다 갖다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봐도 된다는 뜻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중에서 망령되어 행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망령이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노망이 들었다란 이야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년에 이럴 수 있겠구나! 싶은 게 저도 조금은 알 듯 싶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생전에 온전하게 사셨던 분이 예전에 안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저 분이 예전에는 저런 말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데? 아, 이게 망령되고, 노망이고 그런가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도 정년이라는 것을 만들어 뒀나 봐요. 사람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봐요.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죠.

다윗이 말년에 일찍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늙어 죽을 때까지 왕위에 있었더니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운 아들 하나를 잃고 충신들이 많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너무 오래토록 왕권을 쥐고 있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 연세가 많이 들었고 이제는 물려 줄 때가 되었구나. 싶을 때는 물려주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사왕은 오랜 세월을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마지막에 판단을 잘못된 것이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망령된 짓’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하면 노망인가 봐요. 일반적으로 나라에 위험

이 닦쳐왔을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변의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잘 섬겨왔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서 도와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보물까지 다 갖다 준 것을 보면 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때도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아람군대까지 다 격파해서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이제 왕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전에 구스가 백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격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뭘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더니 아사 왕이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투옥해 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학대했더라고 합니다.

아사 왕이 지금 이날까지 전쟁이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나를 지켜준 것이지 내가 잘 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사 생애에 구스 왕이 쳐들어오는 것 외에는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는 이 순간부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은 나라가 힘이 없고 그 나라가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거나 나라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에 일어난 전쟁이나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이나 그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변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권력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눈에는 보여야 합니다.

성경 두 군데에서나 아사왕은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여기를 보면 말년에 변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죠. 말년에 변심한 것은 짝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는 사람이 조금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물어서 그 이전에 잘 한 것까지 다 감추어 버립니다. 잘못된 것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아사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변심했는데도 성경은 ‘아사 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고 말해 줍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아람 왕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또 하나 생겨요. 치세 말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에요. 병원이나 의사나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잘 쓰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의사나 약을 안 쓰겠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의원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하는데 의원을 먼저 찾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인용해서 아프기만 하면 “나는 병원 약 안 쓸 거야.” 하고 기도만 하고 버티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은사로 주신 것이니까 잘 써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문제는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이 꼭 왔다 갔다 흔들려 가면서 가는 거냐? 아니면 끝까지 똑바로 하나님만 향해 걸어가는 것이냐?

성경에서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길을 잘못 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일편단심 예수님만 향하여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앞만 보고 살아갔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갈팡질팡 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죽기까지 신앙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신앙을 지켜 나갔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선조들께서도

일단 한 번 믿은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 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칭찬받고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들이 대체로 왕들이에요. 솔로몬이 그랬고 아사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하다고 하는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변하지 않는데 반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정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나마 내가 목사가 됐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천하에 놈팽이가 됐을지 모릅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저는 어느 쪽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저도 잡기에 능한 쪽에 해당이 됩니다. 잡기에 능하다는 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송창식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저는 다행인 게 어릴 때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힌 거예요. 우리들을 가르쳐 준 좋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열심을 품었지만 다른 것도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 해 보다가 어느 순간 모든 취미를 다 끊어버리고 말씀만으로 가자! 저는 일찍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린 적이 별로 없는 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은데 목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가 된 것 자체가 복이 된 경우도 있죠. 왕을 한 번 보세요. 자기 권력으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선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본문 보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여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먹고 살만 하고 걱정이 다 사라질 때쯤 되면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후해요? 가진 사람이 후해요? 흔히 하는 말 있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있다고 더 많이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이 말한 대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 가셔도 감사하고’ 이것이 변함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선하다고 평가 받았던 왕이 끝까지 선할 수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답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성공적으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람이 변하는데 몇 년이 필요해요? 어떤 것은 평생 가도 변하지 않아요. 정말로 고약한 버릇 같은 것은 고쳐 보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쁘게 변할 때는 한 순간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와 같이 있었던 집사들 중에 못된(?) 집사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7년쯤 가니까 변하더라 그래요. 그런 것을 어디서 봤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난 늦게 목사가 돼서 은퇴할 때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변하려고 해도 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애. 그래서 난 안심해도 될 거야.” 그랬더니 이 못된 집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님, 사람 변하는 것 한 순간이에요.” 이러잖아요.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좋을 근데 옆에 앉아서 “사람 변하는 것 한 순간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 변하는 것 정말 한 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중심을 굳게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 굳게 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 선조들이 날마다 외치고 살았던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일평생 온전했다! 이것이 아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아사는 다른 이름을 하나 붙일 수 있어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선지자를 박해한 최초의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아사가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성경은 “선지자를 박해한 최초의 왕”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일평생 온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넌 평생 온전하게 잘 했어!’ 내 덕인 줄 아십니까? 그나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뿐이지 사람은 일평생 온전하게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바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서 옆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태어나는 것은 쉽죠? 물론 그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 아이 입장에서 태어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제대로 된 아이로 자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참 쉬워요.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자라나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아픔이 필요한 겁니다. “낮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말입니다. 선생님이 “주일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 평일에 나와서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낮에는 바빠서 시간을 못 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낮에 뭐 그렇게 바빠요? 이해가 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낮에는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대요. 자라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울 시민이 되는 것은 참 쉽대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이걸 정말 쉬워요. 옛날에는 통반장 도장까지 받아서 가야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요. 그런데 서울 시민답게 살기는 참 어렵답니다. 시민이 되는 것은 쉬운데 시민답게 사는 것은 참 어렵답니다. 그렇죠? 촌에서 다 늙은 목사 하나 왔다고 ‘촌 목사’라고 놀리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서울 산다고 품은 잡는데 ‘사는 게 힘들구나!’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서울 시민답게 사는 것이 힘들구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서울 시민 되는 것보다 쉬워요! 동사무소에 갈 필요도 없어요. 말 한 마디만 하면 되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깐 됐다! 천국은 따 놓은 거다!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야곱처럼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수도 없이 고생하다가 결국 가곤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1시간이면 될 거리를 왜 10시간이나 걸려서 가나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남 탓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 못한 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 보니 1시간이면 갈 거리를 10시간이나 걸려서 가고, 하지 않아도 될 수 많은 고생을 하다가 가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갔는데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면 이렇게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도 해요. 아사왕은 죽을 때가 다 돼서 말년에 그랬으니깐 그나마 고생을 덜 한 거예요. 도중에 그렇게 됐더라면 후반전에 전쟁 치르느라고 외적에 얼마나 시달렸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목회를 잘 했던 목사님들 중에 말년에 조금 한 눈 팔다가 평생 쌓아 놓았던 명예와 칭찬을 한 방에 다 날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 은퇴할 때에 “목사님,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평생 교회를 잘 돌봐 놓고도 마지막에 욕심을 부려서 오점을 남기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철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임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10~15]

여러분, 사는 것이 즐거우세요? 즐겁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는 듯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인생이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인생은 나그네요, 뜬 구름이요, 고해요, 풍랑 치는 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행사를 하고나면 다들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으면 쓸쓸함이 더 깊어지는 거죠. 외롭고 쓸쓸한데 사람들이 모여와서 떠돌어 주면 위로가 좀 된 것 같지만 그것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더 깊게 슬퍼지고 쓸쓸해지는 거죠.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약에 연루되어 고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심한 잘못도 저지르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열렬히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만 그 사람들이 싹 떠나가고 난 뒤에 찾아오는 허무나 절망감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외로움, 그 쓸쓸함, 이 사람들이 다시 나를 환호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약을 쓰게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창 잘 나간다고 싶은데도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은 언젠가 사라질 위험이 크고,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그 아픔을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을 때도 즐겁죠. 심지어 아무런 이유도 없는 데도 즐겁고 때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일이 생겨나면 이 기쁨이 배가 되어 몇 배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데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조금 생겼는데도 엄청나게 크게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평생을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도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사도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다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을 불행했다고 말하나요? 고생했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오죽하면 죄수가 되어서도 으리으리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묶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보다도 아픈 경험을 많이 겪었지만 사도바울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리며 또 그 흥내라도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이었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냐? 그래요. 추수감사절에 특별헌금을 하려고 하면 “아, 매달 십일조 다 했잖아? 그런데 무슨 추수감사절에 특별 감사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에 감사절 중에 ‘철철절을 지켜라’고 하십니다. 우리 감사절과 성격상 비슷해요. ‘감사절을 지켜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감사? 또 매달 십일조 하는데 무슨 감사?”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 뒤편에 보시면 ‘복을 주신 대로’와 그 다음에 ‘네 힘을 헤아려’라는 표현이 있죠. 세 번째는 ‘자

원하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려면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첫 번째 조건이 '복을 주신 대로' 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네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을 거꾸로 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절이라고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복 많이 받았습시다."라고 해야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되물으실지 몰라요. "너, 월급 적다고 늘 툭툭대던데?" 아니면 "누구는 한 달에 얼마 월급 받던데, 당신은 뭐냐? 그러던데?" "너, 정말 감사한 것 맞니?"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꼭 물어요. "너, 정말 나한테서 복 받은 거니?" 이 질문에 답변이 돼야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고, 평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런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는지 먼저 생각하고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왜 감사를 잘 못하고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째로 사람의 욕심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글세로 사는 사람의 꿈이 뭘지 압니까? 전세라도 얻는 거예요. 전세로 살면 또 꿈이 생겨요. 작은 내 집 하나라도... 그래서 20평 정도를 구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다시 더 넓은 평수를 또 희망하게 돼요. 그러면 언제쯤 끝나나요? 사람의 욕심이 진짜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져도 더 좋아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켜요, 무엇이라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한 것은 26장에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 여기서는 12절을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이렇게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와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26장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저 방랑하던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극히 얼마 안 되는 소수가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번성했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는 간단히 줄여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그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올해 추수한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제대로 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 있죠?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젖 뎠을 때서 아들을 안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긴 기도 속에 '하나님, 이 아들 한 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얼마나 인물이 좋아요? 얼마나 잘 생겼어요?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만한 긴 기도 속에 아들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오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만 찬송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그 분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절의 감사도 비슷합니다. 농사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들고 와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농사가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승진한 것, 월급 얼마 더 받게 된 것, 좋은 집 구하게 된 것, 다 기분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될 게 그거야?’ 하실 것만 같아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한 것이고 평생 잊지 말고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추수한 것, 돈을 더 벌게 된 것,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것, 이걸 거기에 비하면 정말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것을 거두어도 이것이 감사 조건이 되지 않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하고 수확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요. 이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로 간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산 것, 기분 좋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죠?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길어야 100년 안팎이잖아요. 잘 지내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세상이 너무너무 긴 세상이 있는데 거기서 누릴 복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이 땅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진짜 감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걸 깨달았기에 우리 선조들 특히 하박국 같은 경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노래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소를 기르는 사람이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그만큼 끔찍한 일이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밭을 갈아엎는 것을 간혹 보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갈아엎겠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출하해서 시장에 내보낼 때는 마치 자식을 길러 내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길러온 것을 자기 손으로 갈아엎는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 일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은 정말 사소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항상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먼저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아니요. 너무너무 큰 감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서처럼 붙여 놓은 것이 15절입니다. 15절 중간부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그걸 믿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베푸셨으니 이미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 이상의 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상하게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자꾸 쳐다봐요. 저는 음식을 가리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리 작은 음식이고 보잘 것 없는 음식이라도 쳐다보면 늘 느낌이 와요. ‘옛날의 임금인들 이보다 잘 먹었겠느냐?’ 이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해도 옛날 임금인들 이렇게 먹었겠냐? 이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러니 짜다, 싱겁다, 뭐가 빠졌다, 어떡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잘 드세요. 먹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에 차를 몰고 시외로 나갈 때가 참 많았어요. 나가다 보면 앞에 소 싣고 가는 차, 돼지 싣고 가는 차, 닭 싣고 가는 차들을 종종 만나요. 볼 때마다 참 안타깝워요. 그 중에 소나 돼지도 다 안타깝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닭은 특별히 조그마한 칸칸에 한 마리씩 들어 앉아있어 목만 요렇게 빼고 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닭털도 폴폴 날고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더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이것을 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몸을 조금 다쳐서 마산 통합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마산 통합 병원은 결핵이나 늑막이나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요양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대구 통합병원은 뼈가 부러진 사람, 주로 골절로 인해서 가는 곳이 대구 통합병원이에요. 그런데 대구 통합병원에 있던 간호장교가 마산 통합병원에 와서 하는 말이 “마산 통합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깐 대구 통합병원에 가 보시면 자기 힘으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 많대요. 주로 큰 데 눌러서 부러졌거나 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숨도 못 쉬다는 거예요. “스스로 숨 쉴 수만 있어도 감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른다? 이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집에서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 가끔씩 봉사활동을 보내 보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먼데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5층만 가도 돼요. 5층에 가서 아이들 활동을 도와주다 보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교회 5층이 힐링 센터라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먹는 것 가리고, 애 먹이고 하는 아이들은 5층에 보내서 봉사활동을 시켜 보세요.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예물드릴 사람은 첫째 조건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예물을 드릴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릴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죠. 두 번째 것은 10절 아래 편에 ‘힘을 헤아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얼마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큰 오해 중의 하나가 내 능력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께 많이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밥도 못 먹고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빚내서 아버지께 선물을 사 드려야만 된다. 그걸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힘을 헤아려’ 네 능력을 잘 살펴보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는데 무조건하고 많이만 드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터이고 내 형편은 안 되는데 땀땀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돈 만 아는 분으로 우습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헌금의 액수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가령 옛날에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 짓거나 큰돈이 들어갈 때에 집회해가지고 부흥사 말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냥 그 자리에서 작정 헌금하고 집에 와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여기서 작정하라니 온 마음을 드려 작정을 했는데 돌아오면서 ‘이거 너무 버거운데...’ 하고 집에 왔더니 자기 부인은 자기보다 감동이 더 되어 버렸네. 그러면 남편 따로 부인 따로 감동받은 대로 둘 다 무리하게 작정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힘을 헤아려’** 능력을 감안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은혜가 맞고 감동이 맞는지 그리고 내 형편이 맞는지 집에 가서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도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도 안 되면서 괜히 능력 있는 체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삶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힘을 헤아려’**라는 말 속에 부부가 함께 형편을 잘 살펴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제일 나쁜 생각이 무조건 많이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과부의 두 렘돈, 렘돈이라는 것은 동전 2개예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칭찬하셨더라? 액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분이 있나요?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은 ‘혹 드리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벌을 내리시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 돈 얻어먹자고 내가 너를 구했고, 내가 내 독생자를 희생시킨 줄 아느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돈을 내려면 내 독생자의 몸값을 다 내 봐라.”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억지로, 두려움, 그런 것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네 의지대로 내게 그런 사랑을 나누자. 그 뜻입니다.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 이런 뜻에서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표현을 바꾸면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누구 눈치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것 말고 네 스스로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액수를 묻지 않아요. 얼마나 큰 재물을 가지고 왔는지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소중한 겁니다. 아이들이 스승의 날쯤 되면 선생님께 선물이라면서 별별 희한한 잡동사니를 다 가지고 와요. 잡동사니 선물, 그게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선생님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가지고 오죠. 잡동사니 같지만 그 속에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것 말고 차라리 봉투가 낫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돈만 아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돈만 아는 목사 그러면 어떻게 되요? 끝장 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은 안 드리고 그냥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돈만 아는 선생님 취급하는 것 아니냐? 는 뜻이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스승의 날 괴로워요. 어느 해 애들이 잣나 봐요. 선생님 사랑해요, 어찌고 저찌고 해서 코팅을 해서 께서 가져왔어요. 어떡해요? 어디다 써요? 아이들이 그렇게 쓴 엽서를 보고 아주 기분이 좋을까요? ‘아이고, 이 자식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옆의 종이 써라 하니까 썼구나.’ 이런 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 문구가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는 원래 쓸데없는 짓 안 하거든요. 할 수없이 줄줄이 펜 것을 몸에 다 중동 사람들 옷 입는 것처럼 잔뜩 감아 가지고 한 바퀴 돌아준 거예요. 아이들은 좋아 죽겠는데 소위 쪽 팔리게... 나는 남우셰스럽고 할 짓이 아닌데도 저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할 수없이 그렇게 돌아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집에 잘 보관되어 있을까요? 몰래 없앤다고 고생만 했죠. 그럼에도 거기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중하게 저희들 눈에 소중하게 보이도록 애를 써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마음이 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현찰로 감동시키려면 얼마쯤 되면 될까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기업 회장님들을 한 번씩 부르면 기업 회장님들이 그냥 갑니까? 꼭 봉투 하나씩 가져가죠. 그 봉투에 얼마씩 들어갔나

요? 대통령이 부를 때에 현찰을 얼마씩 가져갔어야 됐느냐? 말이에요. 어느 분은 100억을 넣어 가지고 가서 이걸로 마지막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100억으로 딱 끝내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 가지고 ‘좋아, 나도 대통령 한 번 될 거야.’ 했다가 이상하게 되어 버렸지만 그 때 금액이 100억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현찰을 얼마 갖다 드려서 그 분의 마음에 들도록 하시겠습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권하시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줄 것을 말해 줍니다. 11절 보세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예물 드리는 자신도 즐거워야 하지만 자기만으로는 안 돼요.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 즐거워야 된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나가면 안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 내 주변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옆의 힘들고 어려워 하는 이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만 기뻐하고 다른 형제가 울고 있으면 옳지 않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은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잘 하고 있는데 옆의 종업원이 우리는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갈 마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일도 있어요. 누가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네요. “빛부터 갠지!” 남의 빛은 안 갠고 때먹으면서 헌금할 돈은 있더라는 말이지? 여러분, 이런 말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항상 엽두에 두어야 할 것이 내 옆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분이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에 “교수님도 차 한 대 사시죠? 다른 교수들 다 차 끌고 다니는데 불편하게 걸어 다니시고 버스 타고 다니십니까? 차 사시죠?” 그랬더니 그 분의 답변이 이랬어요. “아직은 이 나라에서 내가 차를 몰고 다니면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사람이 많다.” 자기에게 그럴 능력은 있지만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사람이 많아서 아직은 그냥 이렇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주변의 없는 사람을 배려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세요. 있는 네가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의 중요한 자세 중의 한가지입니다. 10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로 그리고 자기 능력을 헤아려 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정말 기뻐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인도처럼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쪽하고 비교해도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법을 찾고, 감사할 것을 찾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래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낚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열왕기상 2:1-9]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죠? 효자노릇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효자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부모를 향한 그런 마음은 없는데...? 싶을 때가 많아요. 부자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부부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생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믿는 자로서, 고민스러울 때도 적잖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윗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을 보면서 위로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는 새삼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을 가만히 보면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그 문제를 한 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할 만하죠. 이 유언을 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네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몇몇 이 사람들은 잊지 말고 행길 사람은 행기고, 손 볼 사람은 손 봐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하고 갑니다.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과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 해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잘 해놓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놓고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시다. 자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지만 이것을 항상 눌러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다윗이지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묻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걸 참 잘 보여주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두 가지 중의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용기가 필요한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말할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이 길을 포기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라. 그러려면 진짜 대단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면 확실히 된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라도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로 가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몇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지도자가 됐으니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한다면 여호수아 1장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것,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면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이 아니에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전쟁을 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이런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보기도 이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하고 강한 성과 이미 훈련된 군대를 갖추고 있어요. 오죽하면 40년 전에 스파이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적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요단 강물이 팔팔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이 끊어질 거다' 그러시거든요. 강둑에서 넘쳐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세요. 거기 발 들여놓을 용기가 나는가? 혼자 들어가서 '아차!' 하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걸 제사장 4명이 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빼거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강둑에 앉아서 안 들어가요. 뭐라고 그러면서 안 들어가죠? "하나님, 이 물 멈추어 주시면 들어갈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라, 들어가면 멈추어질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겁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 성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아무 것도 없어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러잖아요. 요즈음은 할례가 무슨 수술이나 됩니까마는 그래도 한 며칠은 잘 못 움직여요. 그 옛날에 부싷돌 깨서 잘 댔겠습니까? 그렇게 수술하고 남자를 다 드러누워 있다는 것을 여리고 성에서 알면? 이걸 전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순종합니다.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 잘 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은 풀기만 해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이적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용기를 내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담대하게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만사가 그렇게 형통하던가요? 별로 형통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라야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꼭 가시밭 길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함부로 가요? 어떤 사람들은 겁도 없이 그렇게 갔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대로 산다고는

말씀대로 사는 시늉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넓은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안 들어가고 있는 경우예요. 하나님은 이 바다에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거라고 하는데 ‘진짜일까?’ 싶어서 한 발짝 놓으니까 파도 살짝 치는 것을 보고 빠져 나왔다가 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이러고 있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넓은 바닷가에서 마음만 졸이면서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파도를 뚫고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들어가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위대한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교인이요 가련한 그리스도인이요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다니고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용기를 내서 한 번 그 길로 가 보느냐? 안 가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후손에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유언을 하죠.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핏 보면 이것이 조건부처럼 보여요. 다윗에게서 나온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건부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 중에 조건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조건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으면’ 하는 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고 하는 이것이 조건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치고는 너무너무 쉬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너무너무 큰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조건부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조그마한 이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일뿐이죠. 가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컴퓨터 사 줄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이미 이 아이에게 컴퓨터 사 주려고 마음먹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조건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정말 선한 왕은 몇 명 안 돼요. 훗날 역사를 보면 선하다고 하는 왕도 몇 명 안 되고, 선하다고 하는 그 왕들조차 끝까지 선한 왕은 없어요. 끝에 가서 타락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럼에도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것이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뿐이에요. 요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고 먼저 당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가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예요. 세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은 빼고 두 사람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온 사람이 5절의 요압이죠. ‘요압을 그냥 두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이러는 거예요. 요압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압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갔던 장군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압은 거의 평생 다윗을 도와 동고동락 했던 장수였죠. 예루살렘이 여부스 사람의 손에 있을 때에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부스 성을 물길을 타고 들어가서 용감하게 그 성을 빼앗았던 장수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이 확실한 군대장관이 되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 요압이 선봉에 서서 전쟁들을 다 치러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그 반역 군대를 토벌하는 군대장관이기도 했죠. 심지어 다윗이 못된 짓을 하고 그 부하 장수 중에 우리야를 죽이라는 밀명을 받은 사람도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당한 명

령에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요압은 다윗의 심복이라기보다는 다윗에게는 켈그러운 인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자기에게 라이벌이 될 만한 장수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아주 요긴한, 다윗의 또 다른 측근이 될 사람이었는데 요압이 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아브넬이 언제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조그마한 유다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민들을 이끌고 저 북쪽에 다시 나라를 세워서 두 나라가 싸웁니다. 약 7년간 걸리죠. 아브넬이 북쪽에 있던 이스보셋의 실권자였습니다. 이 아브넬이 북쪽에 있던 나라를 몽땅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밀약을 맺으러 찾아온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해 준다면 이스라엘은 전체 하나가 되고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요압이 몰래 속임수로 불러서 죽여 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전에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인데, 사실은 변명이 되지 않아요. 자기 동생이 더 잘못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핑계 삼아 죽이긴 했는데 사실은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주고 들어오면 자기보다 더 큰 개국공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라이벌을 미리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로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어요. 아마사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따라올 때에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이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군대가 전부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얼마 뒤에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세바의 반란이죠. 이 반란을 토벌할 장수를 요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과 싸우러 갈 때에 특별히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을 했어요.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했지만 내 아들이 아니냐? 제발 죽이지는 말고 살려 달라.” 그랬는데 요압이 무시하고 죽여 버립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슬퍼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다윗에게 요압이 거의 협박하듯이해서 다윗을 불러내요. 아마 그 일로 해서 이후에 일어난 반란 때에 요압을 쓰지 아니하고 아마사를 세워서 반란군을 토벌하려고 세웠는데 이 요압이 토벌 사령관 아마사를 죽여 버리고 자기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거의 안하무인격으로 날뛰었지만 다윗이 효과적으로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대신에 속앓이만 했던 모양입니다. 5절 중간에 보면 요압이 한 행동을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자기 멋대로 움직였지만 다윗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네가 알아서 뒤처리를 잘 해라.” 이러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죽기 전에 “요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자기들 측근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이 은근히 눈에 보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옆의 동료들이 멋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위에 와서...’ 할 때가 있어요. 누구 말마따나 “이 도라이 같은 상사를 피해서 다른 회사를 갔더니 다른 회사에도 또 그런 인간이 들어나 있더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모한 인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더라는 거죠.

8절부터 진짜 놀라운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따라 오면서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부드럽게 되어있지만 이거 경상도 말로 하면 “똥져라!” 하고 똑 같아요. “잘 됐다, 아 자식아. 네가 우리 집안을 전부 멸하고 왕이 되었다고? 니도 한 번 죽어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부하장수들이 “임금님, 저거 한 칼에 날려 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놔두라.”고 합니다. 놔두라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이게 참 놀라워요.

첫째 이유가 시므이 저 놈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놔두라고 합니다. 자기 죄가 크다고 고백하는 셈이죠. 두 번째,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데 저게 사울 집안 아니냐? 쉽게 말하면 전 왕의 집안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될 만한 것 아니냐? 그래서 놔두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진짜예요. 하나님께서도 내 억울함을 아실거야. 그러니까 저 놈이 저렇게 욕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욕을 듣고 가고 있으면 하

나뉘어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선하게 갚아 주실지 모르잖아. 저 놈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은 놈과 닮고라도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게 낫잖아, 그냥 놈과 닮아. 이런 겁니다.

아,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기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남한테 억울한 소리 한 마디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저는, 옛날이야기지만, 한 달쯤 잠이 안 왔어요. 자려고 누우면 저 놈 때문에 이가 갈려요. 이걸 어떻게? 저만 그럴까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게 귀에 뱅뱅 맴돌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걸 깨끗이 용서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느냐?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때, 시므이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몇 십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 시므이가 억울하게 나를 비난하고 욕 했는데 그 억울함이 아직도 다윗의 기억 속에 살아 있는 겁니다. 몇 십 년 전의 억울함을 잊지 않는 것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었는데도 “허허” 하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도 속까지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도 그 못된 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지만 다윗은 그 억울함을 몰랐거나 잊어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소리 들으면 억울하고, 슬픈 일 겪으면 슬프고, 아픈 일 겪으면 아픈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아플 것까지 안 아픈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목사님이 그만한 일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목사라고 별다른 사람이 아니예요. 화 날 일, 슬픈 일, 이걸 다 똑같아요. 권사님인들 특별히 다르고? 권사님은 안 빠져요? 목사인들 안 빠져요? 다 똑 같아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인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억울한 것도 알고 속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넓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지 애당초 그런 것을 너끈하게 넘길 수 있는 속 넓은 사람이었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속이 상하면 몇 십 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윗은 참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간의 이상처럼 그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소위 데이비드상(다비드상), 완벽한 남성미를 조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옷을 안 입혀서 야한 구석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데이비드 상이라고 해서 유명한 조각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허점이 있느냐고 하면 허점이 있어요. 우리야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몰래 보다가 사고쳤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보니까 ‘아, 다윗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걸 쉽사리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도록 품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을 함부로 위대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목욕하는 여인 있으면 몰래 쳐다보는 것 이것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속으로 억울했던 것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가지고 가는 것, 이것도 닮은 거예요. ‘저 분은 속이 넓어 가지고 이해할거야.’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속 좋은 사람도 한 마디 툭 던져 놓은 것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선하거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성경은 이런 것을 투박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투박해요. 그리고 질그릇은 항상 철장과 관계가 있어요. 쇠뿔등이로 내려치면 그대로 부서져 버리는 정말 못 생기고 연약한 그릇, 그게 질그릇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이런 질그릇과 비슷해요. 다윗도 이런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서 어떻게 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보물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질그릇 같은 그의 삶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져 못살만한 그런 지경에서도 자기 뜻은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즐기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살려 보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였더라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살려 보내요. 사울이 그것을 알고 '아,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갔는데 그 병이 도져서 또 잡으러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깨달아 알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자신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신앙의 표상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억울하게 당한 것을 절대 잊지 않았더라. 그런 점에서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들도 많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보이는데? 아니요. 그 사람도 속은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그 못된 생각과 선한 생각이 늘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선한 생각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못된 생각이 드러나면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못된 생각과 선한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을 바깥으로 드러내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성부터 너무너무 착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아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을 드러내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생각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때에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면 위대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질그릇처럼 투박하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에요. 누구는 보니 신앙이 좋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 분도 넘어질 때는 쉽게 넘어져요. 약해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이 질그릇 속에 웬 보배가 담겨있는 겁니다. 옛날에 대통령으로부터 효부상을 받은 사람이 인터뷰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분이 울면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인지 시어머니인지 모신다고 고생을 엄청 했다고 상을 줬는데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내가 곁으로는 몇 십년동안 이 어른들을 모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왜 이 어른들이 빨리 죽지 않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효부가 아니에요. 단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불만투성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는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 잘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남편 아내의 역할을 잘 하고 이걸 진짜 어려운 거예요. 누가 한 마디하면 성질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록 내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라도 내 속에 귀한 진주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불붙여 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붙여 간다면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참 아름다운 보석이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구원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틀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홀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드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 때에 내가 너를 피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스바냐 3:1~20]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좀 전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라고 물으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게 가능하냐?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과 친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하나님 같으세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개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른 말로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스바냐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망해갈 즈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여호와 신앙을 불러 일으켰던 선한 왕입니다. 아마 스바냐는 요시야 왕 초기에 사역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스바냐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엄청 부패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노릇을 55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재단을 가져와서 여호와와 전에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찔려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일을 저지른 왕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요시야 왕의 앞, 뒤가 다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요시야가 반짝했지만 요시야 아들 세 사람이 유다 말기에 전부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악한 왕이 됐어요. 이런 시대였으니까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주범이 느밧세라고 합니다. 느밧세가 저지른 그 악행을 요시야가 되돌리려고 했지만 그냥 멸망을 조금 지연시켰을 뿐 돌려놓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느밧세로 인해서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시대에 스바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와 신앙으로 되돌리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시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래토록 통치하면서 망쳐버렸던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3절을 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라고 말합니다. 방백? 정치 지도자들이죠. 백성을 잘 인도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사자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자가 됐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입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의 대변자처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 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그저 잡아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라고 말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법이 없다? 생기기만 생기면 다 끌어놓는다는 얘기죠. 탐욕스러웠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지만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자기 입에만 넣는 욕심꾸러기들이었다는 겁니다. 재판이 흔들리면? 정치 지도자들이 좀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재판장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합부로 백성들을 잡아 먹지 못하죠. 그런데 재판장들이 흔들리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 많은 자들에게 재판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될 턱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사자처럼 백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아예 대놓고 백성들을 잡아먹는 사자라고 말을 한다면 재판장을 저녁 이리, 겔으로는 안 그러는 척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몰래 자기 욕심을 부린다는 뜻에서 저녁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고 재판장들이 이 모양이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4절을 보세요. 믿을 사람이 있는가?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고 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거죠. 선지자를 가르쳐서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왜 경솔합니까?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이게 경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못된 의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간사한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솔하고 간사한 것인데 오늘날도 이런 선지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아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뢰아 사람들이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일치하는가? 면밀하게 생각하고 살폈어요. 그것을 예전 번역은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무조건 아멘 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 이게 신사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가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겠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평생 성전을 돌보는 일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혔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조상들이 해 오던 일이니까 아무 감동 없이 행하는 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무신경하게 내가 맡은 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 주일이네?’ 주일이니까 가야 되고, 집사, 권사, 목사가 됐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걸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교회 가고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감격이나 경건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이런 자세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선지자들은 우상도 섬기면서 또 성전의 일은 자기 일이니까 일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방백과 재판관들도 믿을 수 없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조차도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 그 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계셨어요. 5절을 보세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죽어도 난 이 일에 동참할 수 없다.’ 라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전체가 그 약한 사람 하나를 짓밟고 넘어 가겠죠. 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런 측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기에 동의 못한다.’ 이렇게 되면? 온 백성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의 이 잘못을 눈 감아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백성 전체가 죽어나죠.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들은 이렇게 부패한데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눈이 어두워진 지도자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더러워진 지도자들은 보여주셔도 못 봐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5절 죽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시다가 6절에 갑자기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 오다가 왜 다른 나라 심판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죠. 사실은 이것도 이스라엘이 돌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라도 너희들이 교훈을 받고 돌이키라. 만약에 열국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너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6절에서 이방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가 돌아서면 이왕에 내가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지만 피할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너희가 돌아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곡히 당부를 해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더라.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이러죠.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래도 사정을 봐 가면서 두들기겠지만 이방 나라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그 장면을 생각하라는 거죠. 징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말에 거역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밖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며 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죽 하시더니 여러 백성,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1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홀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

게 바칠지라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러죠.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겠다고 말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이야기를 죽 해 오다가 왜 갑자기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느냐? 말이지요. 그 중간에 무슨 계기가?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자세히 보세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심판하겠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계기도 없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심판을 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위가 서잖아요. 말발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 그 밑에 내려가면 더 가관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만민을 다스리게 되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말입니다.

죽일 듯이 매질을 하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펄펄 우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 제가 말했던 고등학생 중의 하나가 세상에 그렇게 애를 먹일 수가 없어요. 진짜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패다가, 패다가 지쳐 가지고 "야, 넌 도저히 인간 안 되겠다. 나도 그만 할란다." 이런 애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선생님, 나도 인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인간될 때까지 패주실래요?" 인간되도록 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남겼습니다. "얼마나 맞고, 얼마나 질리면 인간이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한 번 해보자." 살살 패서 될 일이 아니예요. 패는 것도 얼마나 힘 드는지 아세요?

그날 얘가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느꼈던지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애들이 결국 참다못해서 들어와서 물어달린 겁니다. "야, 너 이만하면 인간 되겠냐?" 앓아 울면서도 "선생님, 그러가지고는 인간 안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없이 또 패야 되요. 허벅지가 얼마나 터졌는지 모르는데 앓아서 울면서 안티푸라민 바르고, 아이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있던 놈들도 울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펄 때는 언제고 앓아 울면서 약 바르는 것은 언제 입니까? 미워서 패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일곱 발 걷는 동안에 지은 시라고 해서 '칠보시'라는 게 있어요. 조조의 아들이 둘 있었다고 하네요. 첫째아들이 황제가 됩니다. 둘째는 글재주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황제가 시기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발짝 걷는 동안에 시 한편을 지어라. 못 지으면 너는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일곱 발자국을 걸으면서 '콩팍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콩이 가마솥에서 우는구나. 원래 한 뿌리에서 나와 어찌 그리 붉아 대는가?' 이러는 겁니다.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표현했던 모양입니다. 황제가 동생을 부여잡고 울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죽이겠다고 버르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본래 형제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외칠 때는 정말 무섭게 외쳐요.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요.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징계하겠다고 하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로 확 바뀌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심판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 와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하다가도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살 수 있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섭게 책망하고 심판해도 이들이 자력으로 하나님 눈에 들만큼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기는 집도 있고, 자식이 이기는 집도 있겠죠. 정답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 백성이 사고뭉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

음대로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누가 질까요? 사랑 많은 분이 지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분이 져요. 그러니 심판 이야기로 겁을 주다시피, 아니 실제로 정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참고 참다가 결국 심판한다. 그런데도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갑자기 돌아서시느냐? 이런 구원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유 없는 구원'이죠. 징계당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상치 못한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이 임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일들이 인간 편에서 보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에게 불려나와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까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구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불려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그 일을 하라고 했는지 알았을까요? 나중에는 알았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왜 지금 나를 불려서 이러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한 마디 했다면 "부르시려면 진작 부르시지, 지금 이 나이에 불려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부름이 있었고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고 특히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의 메시지는 자식을 혹독하게 야단치던 아버지가 갑자기 매를 던져 버리더니 평평 울면서 "내가 다시는 너 때리지 않을게." 그런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매를 들고 때려도 여전히 그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로서 매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거 전부 치워 버리고 "좋다, 공부 안 해도 좋다. 아무 것도 안 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정말 애 먹이는 자녀를 만나면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생기나?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혹시 나를 위해서, 혹 내가 잘못했다 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매 맞으면서 여전히 그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매 맞을 만한 일이 있어서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매 맞고 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매를 들었던 아버지가 그 매를 던져 버릴 때는 그 이전보다 마음이 훨씬 넓어진다는 것을 아시죠? 자기 백성을 징계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넓어지셔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만 끌어안고 앉아 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 백성들도 다 불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9절에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까지 다 불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깨끗한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졌나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이 훨씬 더 큰 구원, 확장된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상치 못한 구원'이라고 붙였어요. 이 구원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4절을 보세요.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뻐기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핵심을 추려내면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매 맞아 다 죽어가는 자식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렇게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16절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내가 있는데 너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야단맞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회복이 되느냐? 이유가 자기에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다 사라진 이런 형편 아니냐? 너 자신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상,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고만’ 입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린 절망하고 좌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나는 아무 것도 못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절망하고 좌절해서 손을 그렇게 늘어뜨릴 수 없죠. 아무리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뭐라고 그러십니까? 17절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심판받고 망해야 할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니 이로 인해서 기뻐 어쩔 줄 모르겠더라. 이스라엘로 인해서 만족스럽더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기억하세요. 스바냐가 메시지를 전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내가 더 악한 것은 아니잖아? 내 형편이 그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셔야죠. 때로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떼를 쓸 수도 있고,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저 어때요? 저 이려고 있는 것 보시면 하나님 기쁘시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서 울고불고 눈물을 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려고 있으면 기쁘시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한 스바냐가 가장 뜨거운 사랑의 노래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아니요! 신약에 나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나,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섭고 두려울 것만 같은 그 하나님도 한 깨물 벗기고 속마음을 보시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금세 돌아서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 보이나요? 같은 모습들이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질투와 회복시켰을 때의 그 기쁨, 이권 같은 겁니다. 밀바탕에 끔찍한 사랑이 깔려 있거든요. 사랑 때문에 질투했고, 사랑 때문에 심판을 포기하고 회복시키려고 할 때 기쁨 겁니다. 별 능력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능력을 다 갖추신 그 분이 나를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무슨 걱정을, 무슨 염려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
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
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26-29]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주
된 이유는 아마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굶핍없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게 마련이죠.

이왕에 비교하려면 100년 전 우리 조상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이나 아프리카 땅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나, 입원은 아니라
해도 병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막대한 치료비를 쓰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옛날 왕들보다 못할까요? 어떨 때는 ‘이렇게 잘 먹어도 되
나?’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남겨서 버려도 되나?’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옷이 옛날 왕비나 공주가 입었던 옷보다 못할까요? 스타킹이 처음 나와서 보급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국의 왕비나 공주쯤 돼야 신을 수 있었던 그 좋은 스타킹이 오늘 우
리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버릇,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고 따라 가려는 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평생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행복할 줄 모르면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욕심이 지나쳐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 혼자
괜찮아야 행복할 겁니다. 고약한 심성이예요.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의 이름을 잘 몰라요. 스마트 폰이 아닌란 것만 압니다. 다들 스마트 폰
하는데 나도 건드리면 움직이기 때문에 터치 폰이야 하는데 정식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꾸
바꾸래요. “왜 바꾸는데? 백색전화, 청색전화 때문에 난리 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폰이 얼마
나 좋은 건지 알아?” 이러고 있습니다. 교역자실에서 “백색전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죠? 백색전화, 한 때는 전화기 한 대가 집 한
채 값까지 갔던 전화기입니다. 전화 사정이 워낙 안 좋았던 시절에 백색전화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던 전화입니다. 프리미엄이 얼마나 올랐으면 웬만한 집 한 채 값까지 갔던 전화기입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연애를 했는데 전화 한통 쓰려면 전화국에 가야 합니다. 시외 전화를 해야
되니까요. 신청을 해 놓고 최소한도 20~30분은 기다려야 전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잠시 데이트 합
니다. 전화비가 무서워서 길게 못해요. 이런 시절이 80년대 초반입니다. 간신히 전화 한 통화 하는
데 저쪽 전화 부스 안에 시커먼 흑인 한명이 들어앉아서 기타 치며 맥주 마시며 전화통 붙들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 양반 뭐예요?” 했더니 미국에 있는 자기 마누라하고 통화중이래요. 80년대
초반이었습시다. 나중에 물어 봤는데 전화 요금이 한 300만원 나왔대요. 학교 선생님 월급이 20만
원 안 되던 시절입니다. ‘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내 주머니에 전화
가 들어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를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걸 팔시하면서 바꾸라고 난리
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
야 할지 모르는데 글썄요, 이거 생각 안 하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남
따라가며 남 좋은 것 찾아가며 부러워해서는 평생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곡에 앉혀놓고 모세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잘 살아야 한다. 신신당부하면서 써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오늘 이 33장 전체는 모세가 고별인사를 하면서 12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사를 얘기 해 놓은 겁니다.

대체로 비슷하니깐 대표적인 3지파만 정돈을 해 볼게요. 성경에 12지파의 장래사를 이야기 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 있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야곱이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신명기 끝에 있는 부분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니깐 시간 차이가 약 400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한 것이라면 이 두 개는 같아야 합니다.

400년의 거리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장래사는 내용이 같아야 하니깐 혹시 기회가 되거든 서로 비교하면서 진짜 같은가, 다른가? 비교해서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유다는 형제들이 단합해서 동생 하나를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린 그 사건 직후에 가출을 합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동생 하나는 팔려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이 형제들은 동생 팔아먹은 죄로 전전긍긍하고 있죠. 아버지는 짐승한테 죽었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울고 지내죠. 이런 집안 꼴을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는데 그 기간이 20년이 되나 봐요.

그 20년 동안 부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 와중에 어찌하다 보니까 며느리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깨닫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죠. 그래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참 이해 못할 이상한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말이인 르우벤이 나서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는데 말이인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신임을 다 잃어버렸어요.

셋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을 이끌고 이 난국을 타개합니다. 둘째, 셋째도 아버지에게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세겜성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집 나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하고 나오면 그래도 이게 말발이 좀 서요. ‘불쌍한 저 자식이 그래도 해 보겠다고 그러니...’ 아버지가 겨우 허락을 해 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자칫하면 온 가족이 가뭄에 굶어 죽을지도 모를 이 난국을 유다가 앞장서서 돌파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유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예언이죠.

400년 후에 모세가 이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한 대목이 33장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렸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백성을 그에게로 인도하시며’라는 것이 은근히 왕에 대한 묘사이죠. 또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옛날 왕들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은근히 유다의 장래사를 말하면서 유다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훗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것에 환멸을 느끼고 나갔던 유다가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무릅쓰고 되돌아와서 집안을 일구어 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집안에 다윗 왕을 내 주신 겁니다. 물론 다윗 왕이 등장한 것도 그림자죠. 훗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 집을 나갔다가도 되돌아와서 집안을 일으킨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레위입니다. 야곱으로서는 레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세겜성에서, 물론 세겜성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 버린 것이 레위와 시므온 둘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멸족을 당할 그런 위험을 겪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상처를 준 레위에게 야곱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를 남겨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고 해요. 레위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 흠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400년 후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33장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렸으되 주의 돌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돌림과 우림이 경건한 자, 레위를 가리켜요, 레위에게 있다. 여기 돌림과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이게 레위에게 있다는 것은 레위지파가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레위가 맡아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레위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느냔 말이죠. 야곱의 저주와 모세의 축복이 레위에게 동시에 쏟아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참 재미있는 게 기묘하게 이 두 예언이 함께 성취가 돼요. 레위 지파는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보태준 거죠. 야곱의 저주와 모세의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참 신비로워요.

레위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됐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레위 지파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에 레위인이 나왔어요. "너희는 칼을 차고 형제고 처자고 상관없이 저 우상숭배 하는 자를 다 쳐라." 그 때에 칼을 차고 나가서 이들을 전부 죽여 버렸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구는 자는 형제고 처자고 구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처단해 버렸다. 그게 9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이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자는 부모고 형제고 처자식이고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복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질병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온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한 창으로 두 사람을 꿰어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를 대신하여 질투함으로 나의 분노를 풀어 주었다'고 하였고 그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직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에 앞장서서 그 분노를 해결하고 풀어 나간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 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서 더 귀한 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 중에 팔자가 사나운 분이 계세요? 팔자가 더러워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 안에는, 그런 분 없어요!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동조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팔자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딱 한 군데는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팔자 고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덕분에 에덴동산이 저주받은 세상으로 바뀌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저주받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 받은 인생이 있고, 팔자가 더러워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더라. 이것이 레위의 삶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형들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겨우 팔려갔는데, 팔려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을 지를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연속이잖아요? 살만하면 망하고, 또 살만하면 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겨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 민족을 살려 낸 사람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요셉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겨냈겠습니까? 어렸을 때 고향에서 꿈, 그것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야.' 포기하지 않을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을 다 구해낸 덕분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복은 다른 형제의 두 배되는 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되죠. 그랬는데 4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온갖 재물의 복을 다 줘요. 그 재물의 복도 큰 것인데 그것 외에 한 가지를 더 줍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이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그러죠. '첫 수송아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실수하는 바람에 장자로서의 자격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족보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명분상의 장자는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는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장자노릇은 유다가 해요. 어쨌든 요셉에게, 명분상 요셉이 두 지파를 나누어 가지게 되고 그 지파가 크게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두 배라는 것이 성경에 가끔 나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겁도 없이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갑절이라는 것이 수치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에 맏이에게는 다른 아이에게 두 배의 몫을 주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자기를 후계자로 그렇게 삼아 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게 된 것은 장자의 복을 넘겨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죠.

대표적인 세 사람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지파들도 그에 못지않게 모세가 이런저런 복을 다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생각이 참 강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는데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믿는다고만 해라' 그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내 행위가 아니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 그건 행위가 아니야. 믿는다고 고백만 해라. 손만 내 밀어라. 내가 문 열어라고 했을 때에 문만 열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다고 고백은 네 입으로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행위로 인정하시고 엄청난 복을 쏟아 붓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한 마디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너의 공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하나님에게 복 받을 짓을 했느냐? 고 물으면 예. 했다고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해도 됩니다마는 했다고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분명히 12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11지파 밖에 안 돼요. 한 지파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른 지파가 그 복을 받을 때에 함께 복받을 짓을 못한 지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다른 지파에까지 다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왜 빠졌을까요? 다른 지파는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 지파는 엉뚱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야곱의 예언에 들어갔던 지파는 12지파예요. 모세가 다 축복을 하는 가운데 빠진 지파가 1지파 있어요. 그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민수기를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광야 40년

을 지내는 동안에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두 번 있어요.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요즈음은 성경 연구하기 좋도록 다 도표로 만들어 놔기 때문에 찾아만 봐도 돼요.) 다른 지파는 다 늘어납니다. 죄를 범했던, 출애굽 할 때 할례 받던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도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늘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6만 가까이 되던 인구가 2만 2천으로 줄었어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준겁니다. 다른 지파는 다 늘어났는데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싯딤에서 음행한 사건 있었죠? 그 때 죽은 여인의 이름을 따서 흔히 ‘고스비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스비 사건 때에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음행 사건 때 죽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므온 사람들이었겠구나! 그렇게 추정이 가능해요.

시므온 지파는 이런 일에 앞장섰다가 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나중에 싸우러 나갈 때도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때도 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적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가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차지할 때에 시므온 지파만 자기들끼리 쭈그리고 앉아서 싸우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한 부분만을 얻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저주를 할 때에 레위하고 시므온하고 두 형제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둘째, 셋째입니다. 둘째 셋째가 둘이서 작당을 해서 세겜성에서 사고를 쳐 버렸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받은 저주는 똑같아요. ‘형제 중에 나누이게 되리라. 흩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레위는 출애굽 과정에서 헌신함으로 흩어지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 시므온은 흩어지리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흩어지게 됐어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죄 많은 인생이죠. 스승을 팔아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롯 유다보다 죄가 작습니까? 조금 적을 수는 있겠다, 그죠. 선생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롯 유다와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스승을 팔아버린, 그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네, 분명히 그런다.”고 예고했음에도 그대로 했던 베드로의 죄는 작습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마찬가지죠. 우리말에 ‘오십보 백보’라는 말에 갖다 대면 가롯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이 달라요.

가롯 유다는 스승을 팔아 버린 그 죄 때문에 결국 스승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배신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 닭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초대 교회의 초석이 되는 거죠. 똑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는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데 레위하고 시므온이 바로 그 모습을 잘 보여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질렀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말 못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대에 그 모든 악연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한 죄?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레위처럼 다 바꿀 수 있어요.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제 길을 간다면 결국 시므온처럼 지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시므온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는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하면 앞에서 예를 든 세 지파는 나름대로 복을 받을만한 일이 있었다 치면 나머지 지파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을 받을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이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죠.

이 11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장래사를 죽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축복이에요. 그렇게 복을 이야기 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내린 결론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결론 삼아서 얘기한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래사에

서 얘기한 결론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뼈뼉하게 시비를 걸면 시비를 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은 먼 훗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우리가 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거쳐 온 나라가 남쪽에서부터 에돔을 둘러왔고, 모압을 둘러왔고, 암몬 옆으로 지나서 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지나온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원래 복을 받지 못한 버려진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일구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물려받았을 때에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잘 살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루이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출신성분이 이상한 나라잖아요. 특히 모압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민족은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복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거지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도 없이 떠돌다가 지금 모압 땅입니다. 남의 땅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설교만 들고 있는 겁니다.

집도 없이 떠돈 지가 40년이에요. 음식은?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입고 있는 옷은? 40년 전에 입었던 옷이에요. 신발도 40년 전에 신던 그 신발이에요. 이런 거지 때 같은 이스라엘을 앉혀놓고 모세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희는 행복자라!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지꼴로 앉아서 모세가 신신당부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복 받고 사는 길이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 뼈뼉한 심정으로 들으면 이게 먹혀들겠어요?

아직은 자기들 땅이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저절로 자기 것이 됩니까?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싸워서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인가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 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재물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또 백성들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모세는 딱 한 마디로 행복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보았던 29절 그 다음을 보세요.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돈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고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여호와와 구원을 이렇게 받은 백성은 없다.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 때 같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와 구원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사람들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분통이 터져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맹렬히 덤벼들었던 하박국이 나중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고, ~없고’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없다’ 해도 여호와와 구원으로 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어떻게 이런 고생을 하고도 살아남았나 싶을 만큼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수의 몸이 돼서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있는 권세가를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묶인 것, 이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하나 없어요. 제대로 누려본 것이 하나도 없다 싶은 이 바울이 세상에!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아직 못 봤어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야, 삼년 동안 벌거벗고 살아라’ 여러

분, 삼년 동안 어떻게 벌거벗고 살아요?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이 드나요? 행복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것 같은 선지자들도 정말 고생, 고생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도 그것이 힘들다, 고생이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감격에 넘쳐던 사람들입니다.

요즈음 에스겔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참 끔찍한 일을 너한테 해야 되겠는데 네가 이해해라.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거라’ 했더니 에스겔이 “예.” 했습니다. 그날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가관은 호세아죠. 참 잘 나가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이상한 여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 이후 호세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는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런 아픔을, 우리가 보기에는 견디어 내기 어려운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아니, 이겨낸다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행복했을까요? 저는 행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와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도 약간 이해가 되요. 요즈음 아이들은 어림도 없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하나 시키면 영광이었어요. 하다못해 선생님 하숙집에 가서 도시락 가져오라고 해도 이거 1년 내내 뛰어다니면서 선생님께 날랐던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무엇을 하나 시키기만 해도 이것이 피곤한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영광이었어요. 보답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러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연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아니면 아사입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적당한 말이 없어요. 왜 없죠? 정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니까요. 죽을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았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자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 밟아보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그만하고 그냥 죽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도 기꺼이 이룰 수 있더라. ‘얼마나 행복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파서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 그건 진통제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터져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는 행복하게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큰 인물이 안 돼서 이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여호와와 구원이,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너 같이 여호와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기쁨이 있으면 이것이 확대가 돼서 더 기쁜 거예요. 슬픔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이 고난이 힘을 못 써요.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조현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소행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어디서든지 집어 던지고 욕하는 것은, 늘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깥으로 새 나갔을 뿐이지.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한사람만 그렇게 아니고 형제가 모두 그렇대요.

세상이 주는 권세요, 기쁨이요, 행복일는지 모르지만 이걸 어느 순간에 깨끗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만족, 즐거움은 어느 순간에 깨끗이

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슬픔이 닥치면 아무런 힘도 펴지를 못해요. 오늘날 이렇게 잘사는 시절에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 중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 같은 것도 사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 행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속에 들어 가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쳐다봐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실에 휴대전화기가 15대 랍니다. 14대가 스마트 폰이고 1대가 이름 없는 폰이에요. "왜 자꾸 바꾸라고 하느냐?" 답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가 불편합니다." 왜? 자기들 끼리는 다 통한다네요. 카카오톡인가, 뭐시긴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 몰라요. "나 혼자 모르면 너희 14명 다 기합 받아야 되지. 알려야 될 일 있으면 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를 넣어." "아, 우리가 불편한대요?" "너네 불편하다고 내가 내 돈 들여서 바꿔야 돼?"

여러분, 저는 14대가 안 부러워요. 나중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너네 14명 돈 모아 가지고 내 거 바꾸어 주든지!" 남 좋은 것을 왜 부러워하는데요? 보고도 안 부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권 작은 예인데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쳐다보고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보이면 이게 복이에요. 이런 걸 찬송가 가사 쓰시는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은 안 보이고 나 자신도 안 보여요. 오직 뭐만?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그런 경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비친 빛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멀리
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
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
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
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과 피 묻은 겂옷이 불에 쏘 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1-7]

오늘날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으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까요? 사실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는 척 하는 경우가 많죠. 지구의 역사나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 참 많습시다만 그냥 아는 척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
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석유의 기원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중학교 책에 석유는
동물의 유기체가 땅에 묻혀서 변형된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큰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비슷한 설명 끝에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이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는 병이
있나요? 의사들이 모든 병을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다니면서 ‘왜 이렇게 안 낫
나?’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의사가 약을 줬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실력 없다고 해서
또 병원에 가면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의사가 이 약, 저 약을 바꾸어 가면서 맞는 약을 찾아
가는 것이지 한 방에 약이 맞는 경우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고 아프데 왜 아프지 모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큰 병원에
가 보시던지 아니면 좋은 의사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 보세요.” 이런 의사는 정직한 의사입니다.
흔치 않아요. 조금 나쁜 마음 먹으면 의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어요. “아, 이거 신경
성이니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이러면 맞을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
어요. 그건 본인밖에 모르니까 머리 써 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아느냐? 과학자들도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들도 잘
모를 때 좋은 말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실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아
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이거 불가사의입니다.” 이러죠. 불가사의가 무슨 뜻이에요? 설명도 안 되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고 하지? 모른다고 하면 실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불가사의
입니다.” 하면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결론은 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빛이 있어요. “빛이 뭐냐?”고 하면 잘 몰라요. 빛이 뭐예요? 어두
운 데를 밝혀 주는 것이 빛이 아니냐? 쉽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빛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몰
라요. 물론 2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강도가 밖에서 쳐들어오
니다. 창문이 두 개 있는데 똑같은 강도가 이쪽 창문으로도 들어오고 저쪽 창문으로도 동시에 들
어왔어요. 자, 이러면 강도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빛이 이런 겁니다. 빛의 성질이 애매
해요. 어떨 때 보면 한 놈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두 놈이에요.

이걸 학자들이 하는 말로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고 하죠. 파동이라는 것은 무
게가 없다는 뜻이고, 입자는 무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그게 성립이 돼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싸우다가 요즈음 결론은 둘 다 맞는 걸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빛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됐느냐? 다 된 것은 아니예요. 여하튼 둘
다 맞다가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정체는 참 알기가 어려운 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는 세상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빛
이 없던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게 세상 창조의 시작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

장을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세상에 비추인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인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분이 오셨다. 그래서 빛이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해 볼수록 점점 더 오묘한 존재더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오묘해 지는 겁니다. 빛이 이중성을 지닌 것처럼 예수님도 이중성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죠. 말은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한 놈이 동시에 두 창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놈이야? 두 놈이야?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기묘함을 즐기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깊이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씹으면 씹을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세히 보시면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 뒤에 나오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것을 또 다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스불론 지파가 얻은 땅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 편 땅입니다. 갈릴리 바로 옆에 있던 땅이 납달리이고 납달리 바로 옆의 땅이 스불론 땅이었는데 이 땅에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본문에 보면 '해변 길'이라고 하죠. 고대의 길들은 대체로 강을 따라서 만들어졌거나 해변을 따라 만들어졌었는데 애굽에서 저북쪽으로 무역상이 지나가던 아주 중요한 도로가 해변 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요시야가 바로 왕을 막다가 전사했다고 하는 므깃도,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많은 이방 족속들, 전쟁이 심하게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훗날 이사야 시대 때에는 앗수르가 이 지역을 침입해 들어와서 초토화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방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면서 그렇게 무너지다시피 되니까 이방인 섞여 버리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의 색채가 짙어지고 이방인과 섞여버린 이 지역을 굉장히 나쁘게 보았죠. 훗날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경멸하게 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곳 사람들은 유대사람으로부터 경멸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큰 빛이 비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빛은 약 500년 후에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닥친 제일 큰 문제가 사망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의 땅,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문제를 이 때 태어난 아이가 다 해결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던 바로 이 지역에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고, 잘 나고, 훌륭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런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쏟으십니다. 과부와 고아들,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듯 싶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되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곳도 갈릴리이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주 무대도 갈릴리입니다. 한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임한 복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서 그렇게 편향게 사는 인생일 수도 있고, 우리끼리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귀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에는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다시 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신 이야기,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빛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이 지구는 대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온도 변화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습니다. 달 같은 경우에 태양빛이 비치면 온도가 100°C까지 올라가고, 빛이 사라지면 -150°C까지 내려갑니다. 빛이 비취지 않으면 -150°C까지 간대요. 빛은 이렇게 열을 공급합니다. 지금 겨울이라 날이 상당히 춥잖아요. 빛이 비취고 있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태양빛의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날씨가 차츰차츰 더워져서 얼어붙었던 땅에 새 생명이 돌아나는 거예요. 조금 더 빛이 많아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말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 하셨는데 그 빛은 저 태양빛이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태양은 나흘째 만들어집니다. 며칠 뒤에 만들어져요. 진짜 빛은 따로 있습니다. 태양 빛은 그 빛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될 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주 원동력은 저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이 비침에 따라서 얼어붙은 땅에 새 생명이 돌아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태양이라는 그림자의 역할도 이 정도이거늘 진짜 빛이 우리에게 비취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태양빛도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거늘 하물며 진짜 빛 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둠의 땅에, 멸시를 당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4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를 것 같기는 합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농사짓는 이유가 뭐죠? 추수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즐거움을 잊고 삽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한 달 동안 고생고생해서 월급봉투 받아들면 뿌듯한가요? 그 월급봉투 받아들고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월급봉투라도 받아들고 집에 갔는데 요즈음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 추수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 있죠. 그러나 농부의 진정한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 왜 전쟁을 합니까? 거의 다 빼앗기 위한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싸워 이겨 빼앗으면 이것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죠. 우리 이 즐거움을 몰라요. 그런데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죽기 아니면 파우더치기잖아요. 그렇게 싸운 거예요. 이겼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즐거움, 옛날에 전쟁이 많던 시절에는 그것을 알겠습시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사망에 살던 그들이 바로 농부의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고, 전쟁에서 이긴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은근히 두 개가 묻혀 있습니다. 하나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러죠. 압제 당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던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비유권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낸 기쁨, 이것도 우리는 잘 모르죠. 언제 그렇게 압제를 당해봤어야 알죠. 우리도 들어서만 압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8·15광복의 기쁨, 아시는 분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상만 한 번 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는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엄청 압제했다가 어느 날 기드온이 용사 300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족속들을 쫓아냅니다. 그 미디안 족속들

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로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그 기쁨이 여기 4가지가 몰려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어마어마한 즐거움,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다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은 이 4가지가 합쳐진 기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진짜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 기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일는지 사실은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평생에 가장 즐거웠던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시면 조금 비슷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여기에는 4가지의 기쁨을 다 종합해 봤습니다.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때 태어난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소망하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맛이라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권대 이런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배가 더 고파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덜 고파요. 우리는 주머니가 두둑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실 큰 기쁨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세상은 5절을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싯과 피 묻은 겹옷이 불에 쏘 같이 살라지리니’ 그러죠. 그 때가 되면 군인의 갑옷이나 피 묻은 전투복을 전부 불살라 버릴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이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옛날의 사극이나 옛날 영화를 보면 사람 죽는 것, 너무 많이 죽어요. 끔찍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한꺼번에 없어져 가는 겁니다.

로마사를 읽으면서 끔찍하게 남아있는 기억중의 하나는 로마의 두 개 군단이 게르만의 어느 숲속을 지나가다가 포위가 된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죠. 결과는 로마의 두 군단이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모두 죽어 버린 겁니다. 일개 군단이 약 6,000~8,000명 됩니다. 두 개의 군단이 거기서 완전히 궤멸이 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참혹했느냐는 겁니다. 포위한 채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끔찍한 장면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먼 옛날까지 갈 것 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만리장성 올라가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을 때에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험한 산에 이 성벽을 쌓아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겠어요? 전쟁을 하면서 이 벽을 뛰어 넘으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한 역사를 지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때에는 군인들의 전투복이나 갑옷이 전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한 아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을 때마다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성도는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이 아기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으로 헤아려 보면 아기의 이름이 다섯 개처럼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면 다섯 가지가 되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원문에 단어가 두 개씩,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모사의 기묘한 자, 모사처럼 기묘한 자라는 뜻입니다. 모사라는 말을 요즈음은 잘 안 쓰죠. 제갈공명처럼 기묘한 자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개는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기묘자라,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러니까 이 아기는 기묘자요, 전능자요, 아버지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분. 그런 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머리는 돌아가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

지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조금 들면 머리는 돌아가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어떤 부모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때 태어나는 아기는 머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한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고아예요. 고아!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머리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요?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요즈음 조현아 이야기가 빠질 때가 없죠? 조현아의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겠죠. 그 집안 자체가 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온 국민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또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별로 느낌이 안 좋죠? 왕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후려잡는 사람,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강해요. 그러나 성경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제대로 된 왕입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고 백성들을 책임지는 왕, 그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지혜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분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저 주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이 아이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죠.

이 아이의 또 다른 성격 하나가 6절 앞부분을 봅시다. 이상하게 두 번 나와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두 번 반복이 된 게 이상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란 것은 이 아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 쉽게 말해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신적인 기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기는 인간적인 기원도 가졌으면서 동시에 신적인 기원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걸 한 마디로 기묘자라는 겁니다. 정말 기묘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 어두움에 비치는 빛을 잘 살펴보면 그 빛이라는 게 기묘하더라. 어떻게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이런 존재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묘한 것을 만들어 두셨을까? 성경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나 신약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묘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빛을 보면 ‘아, 이거 참 희한하다.’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독단적인 견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빛의 성질을, 빛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면 ‘아,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특심인 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 번 훑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할만한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질긴 분이세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보고 공납금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공납금을 거둬서 냈거든요. 아무리 “내라.” 해도 안 내는 아이들이 더러 있었어요.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는 거죠. 그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붙여준 별명을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별명이지만 ‘쇠 고리, 나일론 고리’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쇠 고리? 정말 질기다, 질겨! 이 말이지요. 질길 수밖에요? 집에 돈이 없는데 가져오라고 한다고 돈이 나오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쇠 고리, 나일론 고리보다 더 질기신 분이세요. 정말 질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무 큰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서 너무 너무 타락하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꼭 한 사람을 불러내요. 노아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다시 번성하게 하는데 이 인생들이 또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불러 버리세요. 거기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 내세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지를 성경을 읽으며 찾아보세요. 말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고, 배반합니다.

출애굽 과정만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징계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삽니까? 사사기 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거역하다가 매를 맞는지 몰라요. 도저히 안 돼서 왕을 세웁니다. 왕정시대에는 괜찮아요?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쪽 유다? 선한 왕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왕이 진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어요. 한 때 선했던 왕도 뒤로 가보면 다 이상한 짓을 해요. 극히 일부 한, 둘 제외하고 선한 왕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포로로 보냈다가, 70년 만에 도로 돌아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독생자를 보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쉬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찬찬히 읽은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 참 불쌍해요.” 그랬어요.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는 이 자식을 붙들고 그렇게까지 부여잡고 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끈질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절대로 취소 없이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인 분이세요. 본인이 한 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에게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들을 다 포기 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한 아기가 태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또 모든 능력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왕이신 그 분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 분은 훗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그 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빛을 비추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며, 짜증내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매달려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뻐 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뻐 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발하는,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